



광주 1백년

개화기 이후 광주의 삶과 풍속

박선희 지음

광주의 인구는 1910년대까지만 해도 고작 1만 명을 갓 넘는 고즈넉한 시골이었다. 시내 곳곳에는 이름드러나무가 무성하고 지금의 충장로 일대의 들판에는 갈까마귀나 까치가 떼 지어 논밭을 뒤덮었다. 해 질 녘이면 산짐승 때문에 일찍 문단속을 하고 바깥출입을 삼가했다. 족제비, 오소리, 늑대가 가축을 물어가는 것이 예사였고 필자의 생가가 있던 충장로5가만 해도 1930년대 초반까지 족제비 때문에 병아리를 기르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광주 1백년^①

개화기 이후 광주의 삶과 풍속



광주 1백년¹

개화기 이후 광주의 삶과 풍속

박선희 지음



여기 박물관이 있다

박선흥 선생님을 만나면 몸시도 궁금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간직한 지역의 DNA는 얼마나 될까? 저분 안에 내장된 지역의 미시사와 거시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수용해야 할까? 실타래처럼 이어지는 광주의 고살과 대로가 담고 있는 역사의 접점은 무엇을 함의할까?

그런 궁금증이 베일을 벗었던 것은 선생님이 『광주 1백년』 1·2·3권과 『무등산』을 상재하면서부터입니다. 걸어오셨던 삶 자체가 광주의 역사였던 선생님은 그 자체를 소소한 개인사로 치부하지 않고 책상서랍을 정리하듯 하나하나 정리하셨습니다. 빛고을 광주의 역동적인 삶이 씨줄과 날줄로 가지런히 모양새를 갖추며 체계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엄두 내지 못할 일들을 한 개인이 타자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내가 아니면 누가 할 것인가를 자문하며 기어코 해내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선생님은 모든 분야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조국이 광복되었을 때 광주공원에 자리한 일제의 충혼탑을 끌어내렸고,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이행될 때 상공회의소에 복무하면서 광주를 명실공히 남도의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일에 신실함을 다하셨습니다. 고향의 미래를 위해서는 성장하는 세대에 대한 교육이 우선임을 아시고 스카우트 운동에 헌신하셨습니다. 한편으로 호남의 진산 무등산의 피폐하고 황량한 물골을 수습하여 자

연이 살아 있고 지역민과 공생할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산을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셨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민의 곁에 있는 무등산을 시민이 가꾸고 보호하고 전해주는 무등산 보호 운동의 접점에 바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소중한 발품이 오늘 무등산 국립공원화의 기반이자 토대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장삼이사들의 삶이 무슨 대수랴 싶기도 할 터인데, 광주와 연관된 일이라면 한 올의 터럭, 한 줄의 기사라도 흘리지 않고 수습하셔서 이리 세상에 내놓는 일에 신명을 다하는 것도 선생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박물관 같은 선생님이 그동안의 노고와 해안이 깊게 담긴 『무등산』과 『광주 1백년』 저서를 챙기시고는 광주문화재단을 찾아 후진들이 광주의 속살을 더 깊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그 지적재산권을 양도하셨을 때 송구스럽고 감사했던 마음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정리해 내지 않으면 감히 이보다 더 깊게 광주의 끝닿을 파는 작업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을 아는지라 곧바로 절판된 『광주 1백년』의 재발행에 매진하는 것이 도리라 여겼습니다.

매일 노구를 이끌고 문화관광실로 출판사로 찾아오시며 단 한 줄이라도 더 속 깊은 얘기를 담고자 노력하신 선생님, 결코 잊히지 않는 또 하나의 역사가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숭고한 노력은 본 저서의 준비위원이자 후학들인 강현구 광주시 문화재위원, 김덕진 광주교대 교수, 조광철 시립민속박물관 학예사, 이대석 함평 나산고등학교 선생님, 신장용·박재완 사진작가 등의 손때를 거쳐 이렇듯 소중한 책으로 증보되어 상재됩니다.

박선흥 선생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매해 2권과 3권의 재간행으로 광주의 역사가 탄실해질 수 있는 바탕이 되도록 광주문화재단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노성대

‘광주학光州學’의 내일을 염원하며

세상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컴퓨터만 열면 멀리 지구 반대편의 일이나 수백 수천 년 전의 문물들을 앉은 자리에서 손금 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이제 도서관이나 필요한 전문 자료를 찾아다닐 일도 없게 되었고 벌써부터 책이 없는 미래를 예언하는 이도 있다. 심지어는 종이의 무용론까지 대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컴퓨터가 문화와 역사와 지식을 담을 수는 있으나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어온 전통이나 정체성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만든 실체적 진실을 기반으로 이어져 오고 이어져 갈 것이다. 누렇게 바랜 옛 사진 한 장, 수수께끼 같은 발굴기록이나 유물 유적들의 실체적 진실들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고 전통가치를 이어가는 원동력이다.

나는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자라면서 광주의 옛 흔적들이나 옛이야기에 대한 관심을 버릴 수 없었고 하나하나의 소중함과 애정 때문에 이들을 모으고 간직해왔다. 이것이 초판 『광주 1백년』이다.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 어딘지 허전한 빈자리와 아쉬운 점을 떨칠 수 없었다.

이번 재판 『광주 1백년』은 우리 향토사학가들의 정성 어린 협조로 귀한 자료들이 햇빛을 보게 되었다. 광주읍성의 도시화 과정이나 학생독립운동에 얹힌 숨은 자료들을 비롯해, 상무대의 내력과 지금까지 가려져 왔던 계몽기의 교육·종교 및 항일의 선각자들, 무안에서 비롯된 전통 5일시장 등의 빛나는 향토 사료들이 제 모

습을 드러냈다.

이제 겨우 빈자리를 메꾸었다는 안도감이 든다. 무엇보다도 지역경제운동 이야기는 이번 재판의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자료를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속으로부터 감사를 드린다. 부족하나마 지금도 겹쳐지고 묻혀 있는 우리 향토 사료들을 찾아 이를 다듬고 가꾸어나가는 일들을 나는 이어갈 것이다. 못다 이룬 대목은 다음 세대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그 일을 선뜻 맡아 줄져 『광주 1백년』의 판권을 흔쾌히 받아주신 광주문화재단에 경의를 표한다. 부디 광주문화재단이 우리 광주 향토정신의 도도한 정통성과 문화자산의 공간으로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광주학光州學’을 여는 구심점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2년 12월

박선흥

제1장 개화기의 광주

책을 펴내며	
여기 박물관이 있다_노상대	004
증보판 저자의 말	
'광주학光州學'의 내일을 염원하며	006
개화의 조짐들	014
갑오경장의 물결 나주 단발령 항거 광주, 도청 소재지 가 되다 광주읍성의 흔적들	
구한말 광주에 온 일본인들	022
오쿠무라 이오코 광주와의 인연 실업학교의 설립과 운영 일본인촌 건설 시도	
식민도시로 변모하는 광주	034
잃어버린 옛 지명 1910년대의 광주 모습	
기독교의 성지 양림촌	043
선교의 효시 배유지 배유지 가족의 4대에 걸친 봉사와 헌신 오원 선교사 광주 최초의 한국인 목사 최흥중 사랑의 사도 서서평 성처녀 수피아 교장 유화례 6·25 피난길 정인세 등과 생사의 동행	
남한대토벌작전과 광주	068
호남 의병의 중심지, 광주 의병과 폭도도로	
군사도시 광주의 어제와 오늘	076
전라병영에서 향토사단까지 전라병영 광주진위대 일본군의 주둔 제4연대의 창설과 한국전쟁 상무대	
소용돌이치는 개화의 물결	084
일본인 행상들의 진풍경 상가로 탈바꿈해가는 충장로 5리 보고 10리 가는 상인정신	

제2장 1920년대의 광주

항일독립운동	091
민족계몽운동 광주와 3·1운동 2·8독립운동과 최원순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시민의 저항 정신 이광춘의 증언 사건 발단 현장에 대한 반론 제2의 광주학생독립운동	
계몽기의 선각자들	118
여성지도사 김필례 민족교육의 선각자 양태승 계몽운 동가이며 불우이웃의 어버이 정인세 근세 광주의 향맥	
통한의 무기명 르포	138
조선의 복지 광주 교육계 종교계 사회단체	
종교와 개화	155
광주 최초의 개신교 교회 북문안교회와 남문밖교회 북문밖교회(중앙 교회) 향사리교회(서현 교회) 양림 교 회 천주교의 전래 성직자들의 수난 광주 천주교의 초석 현 대주교	
근대교육의 여명과 변천	166
초등교육 중등교육 전남의과대학의 모태 광주의학전문 학교	
새로운 문물	198
광주에 철도가 들어오다 광주~담양 간 철도 광주~ 여수 간 경전선 전깃불을 밝히다 광주의 상수도	

제3장 상업

겨레의 애환이 서린 장터	210
무안에서 비롯된 오일장 산길 들길로 모여드는 장꾼들 풍성한 삶의 현장 보부상들의 상도의와 사발통문 큰애기 가슴 태우던 박가분 박가분과 전남 해남과의 인연 보부상의 신용 질서 전남의 대표적인 조석시朝汐市 강진 저자	
광주천 재래시장의 변천	219
큰 장과 작은 장을 합친 사정시장 상인들의 항일 상권운동 광주상민대회 사정시장 안팎의 주요 상인들 신사에 쫓겨난 사정시장 일본인 전용 중앙시장 금정시장	
한국 상인들의 총장으로 진출	228
성 밖에 자리잡은 한국 상인들 인기 높은 고무신과 포목점들 돌보인 개성상인 개성상인에 버금가는 병영상인 총장로의 여자상인 광주 최초의 백화점, 동아부인상회 미나카이 백화점 광주지점	
한·일 상인조직	240
광주상공회 광주실업청년구락부	
활기 되찾은 장	244
광복과 양동시장 질서회복 앞장선 상인들 광주장의 주막 풍경 각설이의 옛 정취와 품바의 복원	
양동시장 재건의 주역	252
장꾼들의 '아부지' 한정섭 마지막 보부상 손영관 해방 이후의 재래시장	

제4장 공업

목화에서 면포까지 262
 거래의 살갓 무명베 | 육지면의 도입 | 일제의 전남 목화 수탈 | 비통할 면화 협약 | 면화 공급의 거점, 전남 | 자취 감춘 길쌈과 면화

종방과 일신·전방 278
 광주와 종방의 인연 | 종방과 광주의 경제 | 면사를 원료로 한 산업 유발 | 오치아이 공장장과 한국인 양자 | 무등 양말공장

우리 동포의 옷감 우리 손으로 286
 종방 종업원의 자치위원회 조직 | 공장 가동의 성공 | 전남방직의 설립과 서울 이전 반대운동 | 한국섬유공업의 쌍벽, 일신과 전방

양잠과 제사공장 295
 자연 섬유의 왕중왕 명주 | 제사공업의 근대화 | 일본 섬유 자본의 한국 진출 | 일제의 누에고치 수탈 | 전남 지방의 제사공업 |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산잠(山蠶) 경축대회 | 종방 제사공장이 남긴 자취, 종방마을

제사공장, 그 후 이야기 308
 전남제사공장의 새바람 | 전남제사에 흡수된 종방과 외가 바야시 | 기업은 기업인에게 | 양잠과 제사공업의 쇠퇴 | 천연섬유에 대한 향수

장수 기업 화천가공 316
 한국 공작기계의 산 역사 화천 | 대한민국 제1호 국산 선반기 | 서암 권승관의 외길 인생

■ 제5장

지역경제 이야기

전남근대화운동 322

배경 | 전남근대화촉진위원회 발족 | 추진성과 | 전남근
대화운동과 금호 박인천 회장

광주권 생산도시화운동 327

배경 | 본촌·송암공업단지의 건설 | 송언중 광주시장과
광주권 생산도시화운동

본촌·송암 이후의 공업단지들 334

하남공업단지 | 세계적인 백색가전단지로 | 생산도시화
의 꿈 실현

초판 저자의 말 338

광주, 그 지난날의 이야기



제1장

개화기의 광주



■ 개화의 조짐들

갑오경장의 물결

이 고장에서 개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한 것은 1895년 단발령이 계기가 된 것 같다. 이보다 한 해 앞서 이미 무력해진 조선왕조는 동학 농민군의 개혁요구와 일본의 강압에 따라 갑오경장을 단행했다. 이때부터 신분제를 타파하고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기 시작했으며 조혼과 아편 사용을 금하고 과부의 재혼을 자유의사에 맡겼다. 나아가 연좌법과 과거제도를 폐지하는가 하면 우수한 청년들을 해외에 유학시키기 시작했다. 조선왕조 5백 년의 질서를 뒤엎고 일대 혁신을 하고자 했으니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만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예상과 빗나갔다. 급작스런 변화는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낳았다. 당시 우리나라는 청나라, 러시아, 일본 등 강국의 세력쟁탈전의 무대가 되었으며, 여기에 국내 정치인들마저 외세를 등에 업고 권력쟁탈만 일삼느라 국권을 지킬 기력을 잃고 말았다.

나주 단발령 항거

이렇게 국권이 무력해가는 상황에서 커다란 사건들이 일어났다. 1895년 8월 20일 주한 일본공사 미우라三浦武揚 일당에 의해 명성황후가 궁 안에서 처참하게 시해됐다. 11월에는 단발령이 내려졌다. 먼저 고종이 머리를



■ 광주의 읍문(邑門)

광주읍성에는 4개의 성문이 있었으며 이들은 이층 누각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1913년 발간된 『보고의 전남(寶庫の全南)』에 ‘광주읍문(光州邑門)’으로 소개된 것인데 광주읍성의 4개 성문 중 하나인지, 아니면 북문 밖 공북루(拱北樓)를 촬영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

깎고 나서 국민들에게도 단발을 하라는 조서가 내려졌다. 단발령은 결코 고종의 마음에서 우러난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개화의 상징으로 일본의 강요가 작용한 것이었고 곧 친일파를 제외한 정부고관들과 국민들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受之父母)’라 하여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을 불효로 여겼다. 특히 상투는 성인 남자의 상징이었다. 이 때문에 단발령은 전통문화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지방의 유생들까지 들끓게 만들었고 곧 이에 반발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때 면암 최익현(勉庵 崔益鉉)은 ‘오두(吾頭)는 가단(可斷)이어도 오발(吾髮)은 불가단(不可斷)’이라 했으니 이는 차라리 목을 내놓을지언정 머리카락 자르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명성황후 시해의 울분과 단발령으로 인한 국민들의 항일 적대감은 의병봉기로 발전했다. 이때부터 광주는 호남의 병항쟁의 본거지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대



■ 전남대학교 박물관으로 옮겨 세워진
광주읍성 동문 밖 범수
범수에는 嫺柱成山과 補護東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嫺柱成山은 여와
씨가 천자를 구제하고 이제는 선인이
되어 이곳을 지킨다는 뜻이고 補護
東脉은 광주 동쪽의 지맥을 비보하여
천재지변, 수난을 예방한다는 뜻이다.

유학자 노사 기정진(蘆沙 奇正鎭)의 문하인 송사 기우만(松沙 奇宇萬), 성재 기삼연(省齋 奇參衍), 녹천 고광순(鹿川 高光詢) 등이 있었다.

기우만은 먼저 광주향교에 본부를 차리고 의병을 모아 훈련을 시켰는데 기삼연은 이 의병부대의 실질적인 지휘를 맡았다.

당시 나주에서는 관원들이 성문을 지키며 읍내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삭발시켰다.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상투를 잘랐다. 성 안팎이 별집을 들쭉신 듯이 소란스러웠다. 피난을 간 사람도 있었고 식갈을 들고 저항하는 이도 있었다. 마침내 성난 나주의 아전들이 들고 일어나 참서관(參書官) 안종수(安宗洙) 등 단발령을 주도한 관원들을 처형했고 이들은 다시 창의소(倡義所)를 세워 의병의 진용을 갖췄다. 이때 광주의병이 나주를 방문하여 나주 지역 의병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결속을 다졌다.

하지만 초기 의병은 정부의 회유와 강공책에 밀려 결국 자진 해산을 하거나 와해됐다. 광주의병도 기삼연 이외에 대부분의 의병들이 자진 해산했는데 나주에서는 안중수 처형을 주도한 해남군수 정석진(鄭錫珍), 김창균(金蒼均)(광주 3·1운동의 주역 중 한 사람인 김철의 부친) 등 관련자들이 피체되어 처형당했다. 그 뒤 이 고장의 의병활동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듯했으나 점차 일본의 강점 기도가 뚜렷해지자 다시 격화되면서 1909년까지 광주 일원에서 격렬한 항쟁이 이어졌다.

광주, 도청 소재지가 되다

1895년 5월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종전의 8도道 체제를 폐지하고 23부府, 331군郡 체제로 바뀌면서 전라도 서남부의 행정 중심지인 나주목은 나주부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다가 단발령 항쟁 뒤인 1896년 8월, 그간 1년 남짓 운영해 오던 23부 체제를 폐지하고 다시 13도道 체제로 지방행정제도가 바뀌었다. 지금처럼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으로 나뉘 부르는 행정명칭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전라남도 관찰부는 1개 목牧과 32개의 군郡으로 편성되었는데 1897년 5월에 다시 순천군의 일부를 떼어 여수군이 신설되면서 1개 목, 33개 군 체제가 되었다.

이때까지도 제주는 군이 아닌 ‘목’이라 불렸다. 전남관찰부에 딸린 1개 목이란 바로 제주목을 가리켰다. 제주목이 제주군으로 바뀐 것은 1906년부터다. 또 구례군도 당시는 전남이 아닌 전북에 속했는데 1897년에 전남에 편입되었다. 대신 전남에 속했던 무장군, 흥덕군, 고창군은 이때 전북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구역이나 행정체계의 개편과정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것은 관찰부, 즉 전남도청의 소재지가 광주로 정해졌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첫째, 광주는 지리적으로 약간 북쪽에 치우쳐 있기는 했으나 거의 전남의 중앙이라 해도 무방할 만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고 둘째, 역사적으로 광주는 과거 무진주(武珍州) 및 무주(武州)의 중심도시였다. 셋째, 무엇보다도 전남관찰부의 광주 확정은 1896년 초 행정구역 개편 직전의 나주 단발령 항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징벌적 행정조치의 측면이 강했다.

이렇게 해서 전남관찰부가 된 광주는 그때만 해도 시가지가 자그마한 시골동

네와 다를 바 없었다. 양림동이 고향인 최득은崔得恩(최흥종 목사의 아들)의 회고에 따르면, 광주의 옛길은 꼬불꼬불하고 좁았으며 큰길이라야 우마차가 겨우 지나다닐 정도였다고 한다.

시가지는 읍성邑城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읍성은 2007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성공사를 위해 그 남쪽 성벽 일대에 대한 고고학 발굴조사를 한 결과, 고려 말엽에 축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성벽 터로 추정되는 곳은 옛 전남도청 뒷길~장동로터리~전남여자고등학교 후문~중앙초등학교 후문~충장치안센터~광주세무서~전 리버사이드 관광호텔~남동의 구시청~옛 전남도청 뒷길로 이어지는 선이다.

읍성에는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각각의 성문이 있었다. 서원문瑞元門인 동문은 전남여고 후문 쪽에 있었고, 광리문光利門인 서문은 황금동 네거리에 있었다. 남문은 진남문鎭南門으로 옛 대성학원 앞 네거리에, 그리고 북문은 공북문拱北門으로 충장치안센터 앞 네거리에 있었다. 이 밖에 북문 밖 지금의 광주제일고등학교 내

■ 나주객사인 금성관

1895년 지방행정제도 개편으로 나주관찰부는 전남 서부 지역을, 남원관찰부는 전남 동부 지역을 관할했다. 당시 광주는 나주 관찰부에 속한 16개군 가운데 하나였다.





학생독립운동기념탑 일대에는 공북루拱北樓가 있었으며 남문에서 전남대병원 쪽 300m 지점에 홍살문紅箭門이 서 있었다.

광주읍성의 흔적들

당시 4대문은 외부와의 소통의 관문이었다.

순창이나 남원 방면으로 갈 때에는 동문을 나와 경양방죽 둑길을 따라 가다가 경양역驛(북구 우산동 383번지 일대) 앞을 지나 ‘뽕두고개’를 넘어 담양 쪽으로 향했다. 나주 방면을 가려면 서문을 나서 광주천의 흠다리인 ‘노지다리’를 건너고 다시 백운동의 ‘진다리’와 까치고개를 넘어야 했다.

화순 등 전남 동남부 지역 방면은 남문을 나서 전남대학교 병원 뒤쪽 ‘묵은바탕’을 지나 광주천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갔고 대체로 ‘너릿재’나 ‘장불재’를 넘어갔다.

마지막으로 서울 방면은 북문을 나서 지금의 누문동과 ‘유림숲柳林畝’ 길을 거

쳐 장성 갈재를 넘었다.

성문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문을 여닫았는데 그 의식이 불만했다. 먼저 날라리를 불고 북장고를 치는 취고수吹鼓手들이 나타나는데 노란 천력黃天翼(군인들의 겹옷)에 남색 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초립草笠을 썼다. 명령을 전달하는 수령수受令手가 “명금 이하鳴金二下(징을 두 번 울리라는 구령)에 대취타大吹打(북을 치고 날라리를 불라는 구령) 하랍신다.”고 외치면 징잡이는 징을 두 번 크게 치고 북잡이는 북을 두드렸으며 이에 맞추어 날라리를 비롯한 모든 악기가 연주되는데 이 악곡이 우렁차면서도 엄숙하고 장중했다. 그리고 이 의식의 말미에 “명금 이하에 취타止하라.”는 영이 내리면 징을 두 번 치는 것으로 의식을 끝맺었다.

읍성 안에서 가장 큰 건물은 객사인 광산관光山館이었다. 광산관은 지금의 충장로 2가 조선대학교 동창회관과 옛 무등극장을 포함한 블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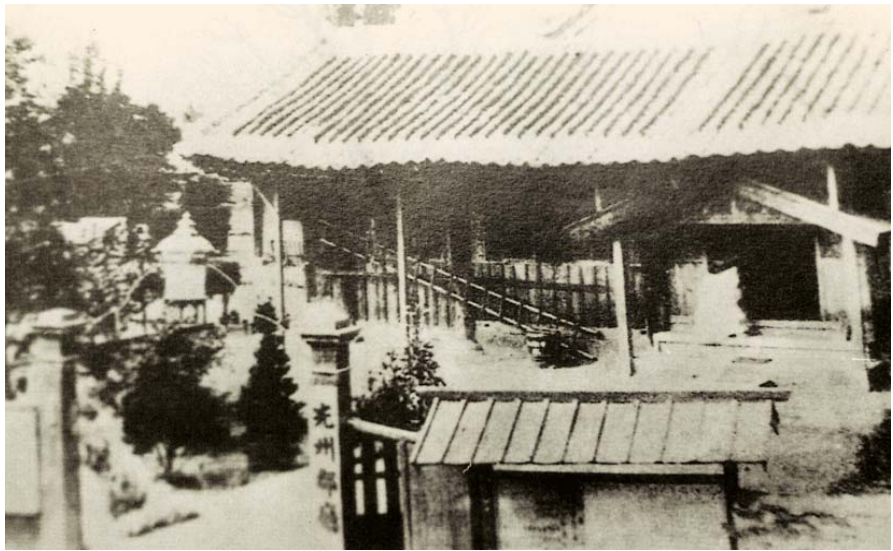
의 정문은 황화루皇華樓로 이층의 누각이었다. 황화란 임금의 명을 받고 온 관원이나 외국 사신을 환영하는 악곡인 황화곡皇華曲에서 유래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황화루 동쪽에는 봉생정鳳笙亭이라는 누각도 있었다고 했다. 봉생정에 대해 정창손鄭昌孫, 1402~1487은 이렇게 노래했다.



■ 금성 토평비

동학혁명 당시 나주성을 지킨 민중렬의 전과를 기리기 위해 송사 기우만이 글을 짓고 송재희가 글씨를 써서 1895년에 세운 토평비. 당초 정수루 앞에 있던 것을 나주객사 앞으로 옮겨 세웠다. 농민군을 기리는 비나 기념탑 하나 없는 것과 좋은 대조로 그간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다.



■ 광주군청
광주객사인 광산관을 개조하여
광주군청 사무실로 썼다.

고대(몽생 정) 앞에 황화루 우뚝 솟아 있고	皇華樓迴壓高臺
누각 주위엔 수많은 꽃들이 만발하였구나	臺畔群花獨自開
봉황은 멀리 날아가 되돌아오지 않건만	鳳去悠悠終不返
호젓하게 선 한 쌍의 나무들은 푸르름을 뽐내는구나	空餘雙樹送青來

광산관은 일제강점 초기에 광주군청, 광주면사무소 등으로 쓰였고 그 안의 대청은 회의장이나 각종 행사장으로 쓰이다가 모두 헐렸는데 정문인 황화루만 옛 광주형무소(동명동 200번지 일대) 앞으로 이설되어 간수훈련소로 사용되었다. 이때 광주 사람들은 우리 관아의 권위를 없이 여긴다 하여 분노했지만 그마저도 1971년 교도소를 문화동으로 옮기면서 헐리는 바람에 그 흔적을 잃고 말았다.

광주읍성도 합방 이전부터 철거되기 시작해 1920년대에는 그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옛 전남도청 뒤편에 흔적으로 남아 있던 돌무더기를 1994년 광주시가 문화재 자료 제20호로 지정해 보존해 오고 있다.

■ 구한말 광주에 온 일본인들

오쿠무라 이오코

일제 때, 광주공원 광장 왼편에는 동상 하나가 서 있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오쿠무라 이오코(奥村五百子)라는 일본 여인이었는데 필자는 늘 이 여인의 동상이 하필 광주공원에 서 있게 됐는가 하고 궁금히 여겼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적과 광주와 맺게 된 인연을 더듬어 보았으나 『목포지(木浦誌)』, 『목포부사(木浦府史)』, 『광주지방사정지(光州地方事情誌)』 등에 단편적인 자료가 보일 뿐 자세한 내용은 없었다.

그러던 중 일본 출장길에 뜻밖에도 오쿠무라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재일교포인 종제 박무부(朴茂夫)에게 부탁했더니 3개월에 걸친 수소문 끝에 오노(小野)覺一郎가 지은 『오쿠무라 이오코』라는 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책은 1935년에 발행된 희귀본이었는데 보존상태가 아주 좋은 편이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오코는 일본에서 꽤 거물이었으며 여걸다운 풍모를 지녔던 것 같다. 고위관료들을 설득, 지원금을 타내어 조선에 대한 식민지 기반을 닦는가 하면, 1901년에는 애국부인회라는 단체를 설립했는데 이 단체는 북청사변(北淸事變)(의화단 사건)과 러일전쟁, 만주사변, 태평양전쟁 때마다 전사자 유족과 상이군인의 구호를 주도했다.



■ 오쿠무라 이오코 동상
1926년 광주공원 중앙광장에
처음 건립했다가 1940년에 공
원 옆 삼화식물원 자리로 이설
했다. 그 뒤 1944년 금속회수령
에 따라 철거했다.



■ 오쿠무라 이오코
조선 침략의 선봉장이었으나 광주 근
대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광주와의 인연

이 여인이 광주와 인연을 맺은 것은 오빠인 오쿠무라 엔싱(奥村圓心)이 교토(京都) 본원사(本願寺)의 승려로 1887년에 광주에 들어온 데서부터 연유한 것이지만 그 연원을 더듬어 보면 꽤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1585년에 그녀의 7대 조부인 오쿠무라 조싱(奥村淨信)이란 승려가 부산에 와서 고덕사(高德寺)를 세우고 일본불교를 포교했다. 그리고 3백 년 뒤에 그 후손인 오쿠무라 남매가 다시 조선 땅을 밟은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먼저 승려를 파견했고 이 승려들은 일본의 전진 기지의 구실을 했다.

엔싱도 부산에서 본원사 분원을 세우고 조선 내 유력한 정객들과 교분을 맺었다. 그가 접촉한 인사들로는 박영효, 김옥균 등 개화파가 수두룩했으며 일부 개화파는 그의 도움으로 일본에 건너가 개항 이후의 일본의 변화상을 체험했다. 통도사의 유명한 ‘개화승’ 이동인李東仁도 일본을 다녀올 때 엔싱의 도움을 받았다.

엔싱이 전남에 온 것은 1897년 목포의 개항 직후였다. 본원사 분원을 건립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주민의 적대감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터에 때마침 윤웅렬尹雄烈이 전남관찰사로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광주에 왔다.

엔싱과 윤웅렬의 친분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엔싱이 1877년 동래의 본원사



■ 일본 불교의 포교를 앞세워 광주에 온 오쿠무라 엔싱(위)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찰을 세워 일본 문화이식에 앞장섰다.

■ 초대 전라남도 관찰사 윤웅렬의 비(아래)
윤웅렬은 부산에서 맺은 엔싱과의 친분으로 엔싱이 광주에 와 자리 잡을 때 도움을 주었다.

에 있을 때, 윤웅렬도 동래의 관직에 있었다. 이 무렵 윤웅렬이 한 자객에게 쫓겨 본원사로 피신하게 됐는데 엔싱이 그를 숨겨줘 목숨을 구했던 것이다.

이런 인연으로 광주에 온 엔싱은 윤웅렬을 찾아가 사찰 건립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윤웅렬도 주민의 정서를 감안해 처음에는 그의 요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엔싱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서문 밖 보작촌淑作村(지금의 불로동 1번지 일대)에 땅을 잡게 되었다.

실업학교의 설립과 운영

오빠의 소식을 들은 이오코는 곧 흑룡회黑龍會의 검객을 앞세우고 말을 타고 목포를 거쳐 광주에 들어와 오빠와 합류했다. 그때 그녀의 나이 54세였다.

흑룡회는 1901년 우치다 료헤이內田良平가 대륙 침략을 목적으로 결성한 정치 단체였다. 단체 이름은 만주의 흑룡강(아무르강)에서 딴 것이었다. 그 회원들을 흔히 '대륙낭인大陸浪人'이라고 했으며 침략에 필요하다면 가차 없이 폭력도 불사했다.

이오코는 원래 일본 사가현佐賀縣 카라쓰唐津에 있는 고덕사에서 태어났다. 카라쓰에는 지금도 이오코의 동상이 있을 정도로 그곳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여성이다. 하지만 첫 남편과는 사별했고 두 번째 남편과는 이혼했다.

이오코가 광주 도착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둘째딸 미즈코光子와 사위 세쓰타로節太郎도 이오코 일행에 합류했다. 이렇게 광주 땅에 들어온 일본인들은 10여 명. 이오코는 이들과 함께 일본식 농법과 잡업을 보급하기 위해 실업학교 설립에 착수했다. 미즈코는 이미 양잠에 정통해 있었고 세쓰타로 역시 농업학교 출신이었다. 이들은 쓰시마對馬島에서 목재를 들여오고 인부들은 일본과 동래에서 불러왔다. 1898년 4월에는 목수, 미장이, 우물장이 등 건축 인부 외에 두부 장수를 비롯해 생필품 상인들까지 들어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불과 6개월 만에 일본인들이 1백 명으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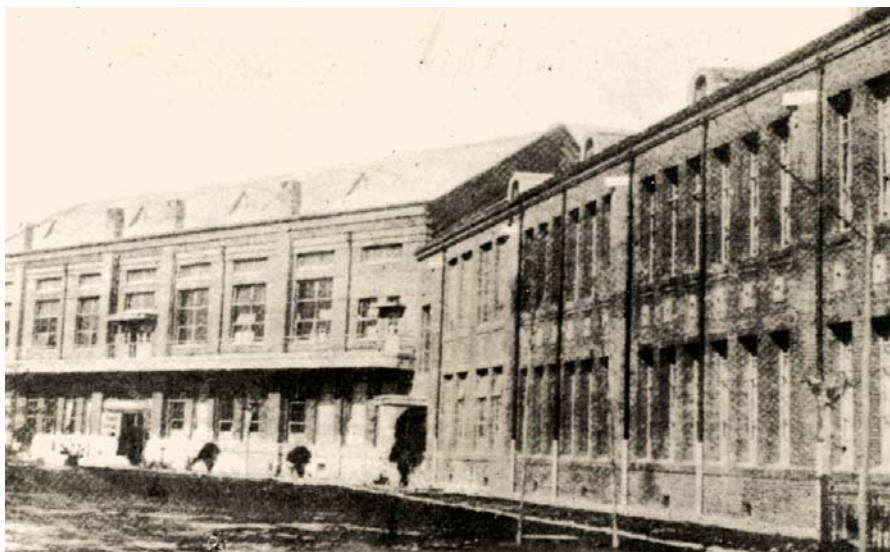
이 실업학교는 1898년 11월, 31평 규모의 건물이 준공되어 '홍간지 오쿠무라 실업학日本顯寺 奥村實業學校'라는 간판을 내걸었고 교장에는 이오코가 취임했다. 이

실업학교는 일본인뿐 아니라 한국인 학생들도 가르쳤다. 1898년 오쿠무라 엔싱이 일본의 본원사 본산에 제출한 <광주 개교 보고서>에 의하면 엔싱은 한국인을 동화시키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지침을 강조하고 있다.

1. 식산흥업(殖産興業)을 장려하여 가능한물적 개발에 힘쓸 것.
2. 승속(僧俗)을 불문하고 지방의 저명인사에게 일본을 시찰하게 하여 일반인에게 일본 소개를 도모할 것. 단, 한국 내에서 일본불교의 포교에 힘쓴 자가 일본을 시찰할 때는 승속을 불문하고 특별 취급을 할 것.
3. 학교를 설립하여 청년의 계발에 힘쓸 것. 처음에는 한국인의 호감을 사기 위

■ 광주공원 벚꽃놀이를 나온 일본인들
오른쪽 상단의 탑이 남한대토벌작전 때 죽은 일본군을 기리는 충혼탑인데 해방 후 헐어내고 그 자리에 해방기념탑을 세웠다. 충혼탑 왼쪽에 있는 것은 전(傳) 성가사지 5층석탑.





■ 광주공립고등심상소학교(위)
1907년 벌써 광주에 뿌리를 내린
일본인들은 일본인회를 창립하고
일본인 소학교를 동본원사에 세
웠다. 1913년에는 궁동에 사진의
건물을 신축, 이전하고 광주공립
고등심상소학교라 불렀다.

■ 1937년의 광주심상소학교(아래)
1941년에 광주 중앙국민학교로 개
칭, 해방 후엔 광주의 대표적인 학
교였으나 이제는 학생 수의 감소
로 폐교 위기를 맞고 있다.

해 한국인 교사 1인을 채용하고 학생으로부터 수업료를 받지 않으며 학용품紙筆墨을 대주면서 재래의 학예學藝만을 수업시키다가 차차 지리, 역사 등을 수업하고 마지막으로 종교윤리를 교육시킬 것. 학생은 10명 정도로 하고 관찰사나 지방공무원 등과 교섭하여 가급적 상류생활을 하는 뛰어난 자를 발탁할 것.

여기서 친일인사를 일본에 초청해 특별대우를 한다든가 학생 수를 10명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그들이 애초부터 단순한 포교나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황과 일본의 국익에 궤를 맞추는 것이 그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엔싱의 조선인에 대한 이러한 교육지침은 이후 일본외무성의 보조금과 여러 정치인들의 지원을 받는 밑거름이 됐으며 이오코가 이 사업의 중심이 됐다(姜昔珠, 『佛敎近世百年』).

하지만 오쿠무라 실업학교는 광주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등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바람에 얼마 뒤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학교 건물은 광주를 드나드는 일본인들의 숙소, 목포영사관 소속의 일본 순사

■ 광주삼상소학교 부설유치원 졸업식(1939년)



들의 주재소, 통감부 시절에는 목포이사청理事廳의 광주지청 등으로 두루 활용되면서 광주 지역에 일본세력을 이식시키는 전진기지 역할을 했다.

그러다가 러일전쟁 이후 광주에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이주해 오게 되자 1907년 6월 이곳에 일본인 소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이 소학교는 1913년 11월 지금의 공동에 새로 건물을 지어 옮겨갔는데 이것이 광주심상고등소학교가 되었으며 오늘날의 광주중앙초등학교의 모태가 됐다.

엔싱은 이 밖에도 1896년 광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최간진崔幹鎭, 최세팔崔世八을 두 달간 일본에 보내 교토 등 일본 각지를 시찰하게 하는 등 친일인사 포섭을 꾀했는데 이때 최간진은 방일 선물로 무등산 약사암의 소형 금동 불상을 고덕사에 기증했었다. 필자는 지난 2005년 봄 일본 방문길에 고덕사를 찾아가 무등산 약사암의 이 소형 금동 불상이 봉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형언할 수 없는 감회를 떨칠 수가 없었다. 광주 지방에서 행해진 엔싱의 이 같은 활약상에 못지않게 이오코 역시 광주에 전국 최초의 금융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공원에서 필자의 의문을 불러일으켰던 이 여인의 동상은 일본 애국부인회 전남지부가 1926년 이오코의 이러한 공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동상이었던 것이다. 이 동상은 그 후 오랫동안 광주신사를 오르는 입구에 서 있었는데 1940년 광주신사가 총독부 관할의 국폐신사國幣神社로 승격되어 개수사업을 할 때 광주공원 아래쪽, 옛 삼화식물원 자리(현 빛고을시민문화관)로 옮겨졌다. 그러다가 1944년 태평양전쟁 말기 전쟁물자가 다급했던 일제가 쇠붙이들을 거두어 갈 때 이 동상을 뜯어갔다.

철거 당시에 일본인들이 동상에 붉은 어깨띠를 둘러 반출해갔다. 그 후에 좌대만 삼화식물원 자리에 있다가 실내체육관을 세우면서 철거되었다.

일본인촌 건설 시도

엔싱과 이오코 남매의 광주 정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일본인들이 줄지어 이주해 왔다. 그들은 군인들과 군함을 타고 오기도 하고 더러는 상선으로 부산이나 인천이나 목포를 거쳐 왔다.

1904년 9월부터 목포~영산포 사이에는 소형 발동선이 매일 운항하고 있었는데 일본인들은 선편으로 영산포까지 와서 하룻밤을 묵은 뒤에 다음 날 아침 일찍이 나귀를 타거나 걸어서 남평에 들러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쯤 광주 백운동의 진다리와 광주천을 건너 서문을 통해 보작촌에 이르렀다. 화물이 많거나 의병들의 저항으로 영산포에서 광주까지의 육로 여행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영산포에서 뚝단배로 갈아타고 영산강을 거슬러 서창나루까지 와서 광주 성내로 들어오기도 했다. 광주로 유입되는 일본인들이 늘면서 1909년 6월 15일부터 광주~영산포 사이에 객마차客馬車가 운행되기 시작했다.

이를 전후해서 이미 보작촌은 일본인들을 겨냥한 숙소와 음식점이 즐비한 곳이 됐다. 오늘날 불로동과 황금동 일대에 음식점과 술집이 많은 것도 190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인들의 정착이 늘고 그들의 유흥문화가 시작된 데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광주에 온 일본인들에게 이오코는 직업을 알선해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했으며 나중에는 이들을 위해 광주 북쪽에 일본인 집단 촌락인 ‘극락촌極樂村’ 건설을 꾀했다.

이오코가 계획한 입지는 북문 밖 장성으로 가는 길가에 울창하게 들어서 있던 유림숲柳林藪 일대였다. 예로부터 유림숲은 광주의 땅기운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수구막이이자 풍치림風致林으로 각별한 보호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오코는 이곳을 일본인촌의 건설부지로 요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광주군수는 이오코와 그녀의 뒤를 봐주던 일본 관리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알려지자 광주 사람들의 반일감정이 더욱 격렬해졌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일본 외무성은 본원사와 오쿠무라 실업학교의 존치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오코의 극락촌 건설을 중단시켰다.

이오코의 일본인 거주 구역 건설 기도는 표면상 이렇게 일단락 지었으나 당시 이 사건은 이오코와 광주 군수 간의 단순한 행정적 마찰의 차원을 넘어 광주 관찰사와 일본 외무부 대신, 농상공부 대신, 그리고 한국 정부 간의 외교문제로까지 번졌으며 여기에 지역민의 반일 감정이 얹혀 양국 간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었다.



■ 1910년대 영산포 일대(위)
일본인들은 목포항을 거쳐 발동선으로 여기까지 와서 조랑말을 타거나 걸어서 광주에 들어왔고 한편으로는 여기서 다시 뚝단배를 타고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서 창나루까지 와서 광주에 들어오기도 했다.

■ 광주~목포 간 도로가 개통되었을 때의 나주교(아래)
목포~신의주 간 국도 1호선이 통과하던 다리로 지금의 나주대교 동쪽에 있었다.

당시 이 사건을 알려주는 문서들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 중이다. 그 하나가 1900년 5월 30일자로 광주 군수 송종면^{宋鍾冕}이 일본 외무대신에 보낸 보고서이며 다른 하나가 동년 7월 19일 일본 공사가 본국 외무대신에게 보낸 ‘광주 오쿠무라 실업학교 운영에 관한 건’이라는 보고서이다. 이들 보고서의 요지는 이렇다.

광주군수의 보고서

부여군에 사는 김우태^{金宇泰}라는 자가 소장을 올려 하는 말이 “광주군에 입수^{林叢}라는 황무지가 있는데 물가에 있어 홍수 때마다 근심거리다. 현재 나무를 하거나 목축을 할 뿐이므로 장차 개간하고자 하니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허용을 했으나 광주를 북쪽 3리쯤의 유림숲^{柳林叢}은 읍이 설치된 이래 농사를 금하는 등 보호해왔다. 또 우단^{霧壇}(기우제단을 말함)이 설치되어 있는 등 광주읍에선 매우 긴요한 장소다. 더욱이 김우태란 자는 사실 1897년부터 광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오쿠무라 이오코의 가명이다. 법에 따라 외국인은 조계^{租界} 10리 밖의 땅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합당한 조치를 바란다.

일본 공사의 보고서

작년에 이 학교 주임 오쿠무라 이오코^{奥村五百子}가 전임 가토 공사^{加藤公使}와 아키즈키 영사^{秋月領事} 등의 찬조를 받아 유림숲의 개간 특허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차^{伊次} 아무개라는 자의 명의를 빌려 궁내부 수륜과^{宮內府 水輪課}의 허가를 받았는데 이면으로는 이 학교가 그 사람에게 개간 일체를 위탁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 관찰사^{觀察使}가 이 사업이 표면상 일본인과 관계가 없다며 이의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공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의 훈령을 받아서 군수를 설득했으나 이것 역시 군수가 거부했을 뿐 아니라, 절차를 생략했다는 반대 의견을 중앙 정부에 상신^{上申}했기 때문에 명의인인 한국인을 체포하라는 엄명이 시달되는 등 사태가 점점 곤란 정황을 띠게 되었으므로 일단 당국 정부(한국정부)의 의향을 탐지했지만 성공할 가망이 막연합니다.

또 관찰사와 군수가 거부한 이유도 사실은 어쨌건 일단 형식을 구비하고 있

으므로 억지로 명의인이 받은 허가와 명의인과의 계약을 방패 삼아 시행하려고 하면 한바탕 물의를 일으킬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광주에서 학교의 입지 까지 잃는 경우가 있을 것을 염려하였기에 잠시 덮어 두고 시기를 보는 편이 득책이라고 설득하고, 그 취지를 목포 영사에게도 말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방 인민의 동의를 구하는 방책을 강구하여 차차 행보를 내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본 공사의 이 같은 보고서로 말미암아 오쿠무라 이오코의 광주 일본인촌 건설 시도는 좌절되고 말았다. 한 지방 관아의 군수가 일본 정부에 맞서 얻어낸 값진 승리였다.

그 뒤 이오코는 1900년 6월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군을 따라 만주로 갔다. 이 때문에 실업학교는 부교장이던 아카스카赤崎敬雄가 맡았지만 반일감정의 표적이 되는 바람에 나중에는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 식민도시로 변모하는 광주

잃어버린 옛 지명

개항 이후로 광주는 여러 차례 행정구역의 변화를 겪었다. 1901년 당시 광주는 41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행정구역이 너무 세분되어 면의 규모가 겨우 100여 호에 불과한 곳도 많았다. 일제는 이 행정구역을 1913년 4월 20개 면으로 줄였으며 이듬해에는 다시 15개 면으로 정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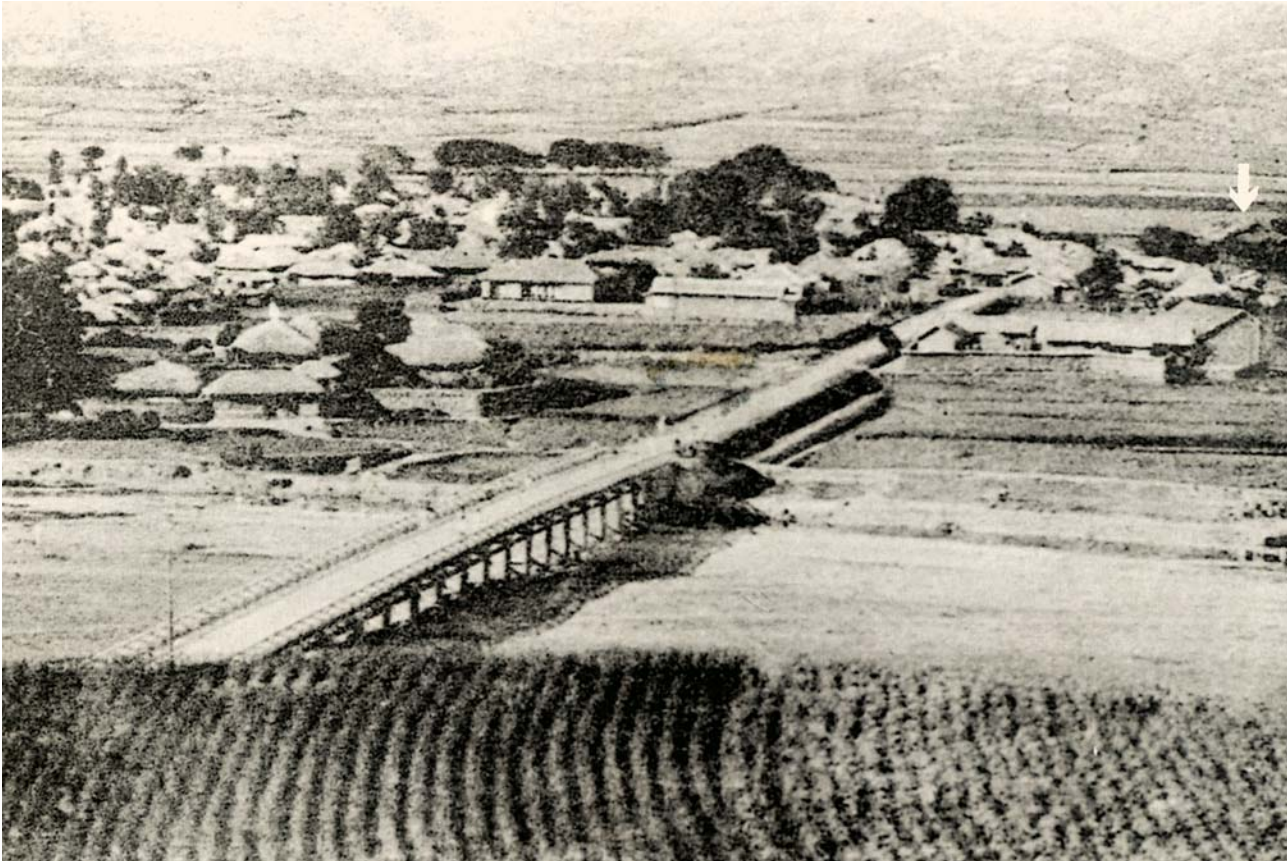
15개 면이란 광주, 지한池漢, 석곡石谷, 서방瑞坊, 효천孝泉, 극락極樂, 송정松江, 서창西倉, 동곡東谷, 대촌大村, 본촌本村, 우치牛峙, 비야飛鵝, 임곡林谷, 하남면河南面을 말한다. 이 가운데 1932년 우치면과 본촌면이 합해져 지산면芝山面이 됐고, 1935년 지한면과 효천면이 효지면孝池面으로 합쳐졌다.

오늘날 광주광역시시의 도시 형태는 그 모태가 광주면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가 막 시작될 당시의 광주면은 음성 안쪽에 있었던 성내면城內面, 서문과 남문 밖의 부동방면不動方面 일부, 북문 밖의 기례방면奇禮方面과 공수방면公須方面 등 4개 면에 19개 동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각 면별 동네들은 다음과 같다.

성 내 면 : 사정리謝亭里, 서내리西內里, 남내리南內里, 북내리北內里

부동방면 : 서외리西外里, 보작촌湫作村(복가물), 금계리鑑溪里, 공수리弓樹里,

호연리浩然里, 서남리瑞南里



■ 광주공원 쪽에서 본 1909년경 광주 앞의 다리는 광주교이고 오른쪽의 화살표는 북문(공북문)으로 추정된다.

© 『광주시사』

기레방면 : 후리後里(뒷동네), 성저리城底里(성 밑), 보통리普(洑)通里, 중촌中村,

시리柿里(市里), 누항촌驢巷村

공수방면 : 상촌上村, 하촌下村, 교촌校村

성내면 사정리는 금남로1가의 전일빌딩에서 궁동宮洞의 중앙초등학교 일대를 가리켰다. 이 지명은 희경루喜慶樓 혹은 관덕정觀德亭이라 불렸던 사정射亭, 즉 활터가 이 일대에 있었던 것에서 비롯됐다. 활터를 뜻하는 현재의 궁동宮洞은 이러한 옛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셈이다.

부동방면의 보를 만든다는 뜻의 보작촌洑作村은 지금의 서남대학교 부속병원

(옛 적십자병원) 앞에 있던 조탄보(漕灘岫)와 이 보에서 경양방죽에 이르는 관개용수로의 작업인부들과 관리인들이 모여 살았다고 한 데서 비롯된 지명이다. 보작촌은 ‘복가물’이라고도 했는데 오늘날의 불로동 1번지 일대였다.

금계리는 그 앞을 흐르는 광주천을 예전 이 동네 사람들이 비단내, 즉 금계라는 이름으로 부른 데서 유래했다. 지금의 금계리를 금동이라 부르는 것도 이 때 문이다.

궁수리는 장동 로터리에서 전남대병원 앞에 이르는 일대를 말하는데 지금의 남동성당 앞에 있었던 고목을 옛사람들이 ‘궁수’라고 부른 데서 생겨난 지명이다. 해마다 봄철에 나뭇잎이 피는 것을 보고 그해 농사의 흥·풍년을 점쳤는데, 다른 나무들보다 잎이 먼저 피면 흥년, 늦게 피면 풍년이 들었다고 한다. 아쉽게도 이 고목은 제봉로 개설 공사 때 베어져 없어졌다. 이때 공사인부가 죽었는데 사람들은 이 나무의 신령이 노했기 때문이라고들 했다.

보통리는 성저리와 인접한 동네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마을에는 조선 초엽에 보통원(普通院)이라는 원집이 있었다. 그런데 보통리는 본디 이 마을 앞으로 봇물이 통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실제로 보통리의 순우리말 지명이 ‘봇통물’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여기서 봇물이란 조탄보에서 흘러든 물을 일컬었다. 그래서 마을 유래로 볼 때 보통리의 한자표기는 湫通里가 더 맞았다.

이 밖에 기레방면의 성저리는 글자 그대로 ‘성 밑’을 뜻하는 말로 북문 밖 일대를 일컫는 지명이었고, 시리는 본디 장터, 특히 광주 큰 장이 열리던 곳으로 의미상 市里라는 뜻이었다. 누항촌의 ‘누항(陋港)’은 누추한 골목이라는 뜻으로 지금의 누문동 일대를 말하는데 지명과는 달리 중산층이나 토호들도 많이 살았다. 누항은 원래 공자의 수제자인 안회(顔回, 顔子)가 자신의 고향인 중국 산둥성의 곡부를 낮추어 표현한 말로 흔히 마을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했다. 이 누항촌을 누 앞의 동네, 즉 ‘누앞리’가 와전되어 생겨난 지명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즉 누항리는 공북루(拱北樓) 주변의 동네에서 비롯된 동네 이름이라는 것이다.

이런 지명은 당시 광주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면서 누적된 기억들이 이뤄낸 소산이었다. 하지만 일제는 1914년 4월 광주면의 재래 우리 지명을 버리고 통과(通和) 등 일본식 지명으로 바꾸어 4개의 통과 10개의 정, 그리고 5개의 리로 개편했다.

통 : 동문통東門通, 서문통西門通, 남문통南門通, 북문통北門通

정 : 동광산정東光山町, 서광산정西光山町, 서성정西城町, 북성정北城町, 중정仲町,
궁정弓町, 금정鎭町, 부동정不動町, 화원정花園町, 수기옥정須奇屋町

리 : 서남리瑞南里, 금계리鎭溪里, 향사리鄕社里, 성저리城底里, 누문리樓門里

일제는 그 뒤 1930년 4월에 이르러 다시 대폭적인 지명 개칭과 가로의 신설 등을 단행하는데 이때의 개편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궁정·금정 등 일부 명칭은 존속되었으나 동문통, 화원정 등 상당수 지명은 이때 사라졌다. 또한 금정과 금계리가 통합되어 금정이 되는 식으로 법정동法定洞의 구역이 조정되면서 1930년 3월 말까지 토지대장에 사용되는 지번地番과 이후에 사용된 지번이 달라지게 됐다.



■ 옛 전남도청
1896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광주가 전남 도청 소재지가 된 이래 처음에는 전일빌딩 일대의 광주목관을 관찰부 건물로 사용하다가 1910년경 재무감독부가 있던 광산동 13번지로 이전했다.

둘째, 광주면 전역의 동네 이름이 하나 같이 ‘정’으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동문통 등 ‘통’으로 끝나는 지명은 물론이고 서남리, 성저리 등 ‘리’로 끝나는 지명도 사라지게 됐다. 서남리는 남정南町, 금계리는 금정, 향사리는 사정社町, 성저리는 대정정大正町 누문리는 누문정樓門町이 됐다.

셋째, 지금 우리가 1가, 2가 하는 식으로 ‘가’街라고 부르는 구획명칭이 이때부터 ‘정목’丁目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붙여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 지금의 충장로는 본정本町 몇 정목으로, 금남로는 명치정明治町 몇 정목이라는 식으로 불렸다.

넷째, 지명에서 점차 일본색이 강하게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일본국왕의 이름이나 연호年號를 따서 대정정大正町(지금의 대인동), 소화정昭和町(지금의 계림동)이란 지명이 등장했다. 또 일본인들의 거주촌이던 오늘날의 장동壯洞은 옥정旭町으로, 대의동大義洞은 대화정大和町이라 불렸다. 일제 때, 전남여자고등학교를 아사히旭고등여학교라고 했던 것이나 광주여자고등학교를 야마도大和고등여학교라고



■ 1930년대의 전남도청
원래는 붉은 벽돌의 2층 건물이었는데 해방 후 미 군정이 들어와 백악관을 본떠 흰색으로 도색했다. 이후 1970년대에 1층을 더 올렸다.

했던 것은 모두 학교 소재지의 일본식 지명을 딴 것이었다.

하지만 화원정의 일부를 이때부터 호남정^{湖南町}이라 했는데 지금도 이곳을 호남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당시 호남은행의 두취(행장)이던 현준호^{玄俊鎬}의 저택과 그 은행 임원들의 숙소가 있는 동네라 하여 예우 차원에서 붙여진 것이었다. 현준호의 저택에는 현재 호남동성당(호남동 67번지)이 들어서 있다.

초창기 광주면은 성내, 부동방, 기례방, 공수방 등 네 개의 면이 연합하여 하나의 면사무소로 통합 운영된 까닭에 ‘광주연합면’이라고도 했다. 그러다가 인구가 늘고 주변 지역으로 조금씩 확장되면서 1930년 광주읍이 되었고 1935년에는 다시 광주부^{光州府}로 승격됐다. 행정구역명칭이 광주시로 변경된 것은 광복을 거쳐 정부수립 직후인 1949년부터이다.

1910년대의 광주 모습

광주의 인구는 1910년대까지만 해도 고작 1만 명을 갓 넘는 고즈넉한 시골이었다.

시내 곳곳에는 아름드리나무가 무성하고 지금의 충장로 일대의 들판에는 갈까마귀나 까치가 떼 지어 논밭을 뒤덮었다.

해 질 녘이면 산짐승 때문에 일찍 문단속을 하고 바깥출입을 삼가했다. 족제비, 오소리, 늑대가 가축을 물어가는 것이 예사였고 필자의 생가가 있던 충장로5가만 해도 1930년대 초반까지 족제비 때문에 병아리를 기르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상가라고는 광주우체국을 기준으로 동문통, 서문통, 남문통, 북문통에 싸전을 비롯해 몇몇 가게가 듬성듬성 들어선 정도였고, 아직도 사람들은 담뱃대 길이로 양반과 천민을 가름하던 때였다.

양림동은 그 무렵 광주면이 아닌, 효천면이었는데 마을 뒷산인 양림산(사직산)에서는 밤마다 여우와 늑대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방림 일대의 산이나 유림숲, 그리고 경양방죽 독길의 나무들에는 풍장^{風葬}이라 하여 어린아이들의 시신을 용마름에 싸서 걸어두던 때라 까마귀 떼가 늘 그 주위를 맴돌았다. 또 지금의 광주교육대학교와 양동초등학교 일대는 공동묘지여서 밤이면 도깨비불을 흔히 볼 수 있는 으스스한 곳이었다.

이토록 한가롭던 광주면이 개발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이다. 1913년 광주군청에서 펴낸 『광주군세개지(光州郡勢概誌)』를 보면 그 무렵 광주의 모습을 대충 가늠할 수 있다. 다음은 이 책의 개요 부분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광주 고을은 조탄강(지금의 광주천, 이하 가로 안은 필자의 부연 설명임) 오른쪽의 평야지대에 펼쳐진 성안, 공수방, 기례방, 부동방의 4개 면으로 형성된 고대로부터 유명한 도시다. 합방 후 일본인(원문에는 내지인)의 이주가 날로 늘어나 조선인과 합쳐 호구가 2,500호에 인구 1만 명을 포용하고 있으며 근래에 빈번한 시가지 구역의 조정으로 19개 방리(坊里)로 분할됐으며, 가로는 시통팔달로 정연하게 정비됐고, 종횡으로 일본식 가옥이 활발하게 건축됨에 따라 시내의 면모가 크게 일신하게 됐다.

광산정(지금의 광산동)에는 전라남도청을 비롯하여 경무부, 헌병대 본부, 수비대(일본군 대대본부와 1개 중대), 자혜병원(지금의 전남대학교 병원의 전신으로 이 무렵에는 옛 도청 옆에 있었다), 물산진열소(뒤에 상공장려관으로 바뀌었는데 이 무렵에는 상무관 앞에 있었다), 잠업전습소 등과 아울러 이에 따른 관사가 좌우로 즐비하여 관청가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귀빈의 접대소로 유명한 황화루를 들어서면 지금은 광주군청과 성내 등 3개 면사무소로 쓰이는 객사 건물에서 광주의 옛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우편국과 농공은행(당시 광주우체국 옆에 있었는데 훗날 산업은행 자리에 해당된다)의 신축건물이 시내 한복판에 의젓하게 솟아 있고 동문통으로는 경찰서(옛 충장서림 자리), 보통학교(서석초등학교의 전신으로 이 무렵 전일빌딩 자리에 있었다), 면채종포(棉種圃) 등이 있다. 동문을 나서면 인적이 드문 곳에 광주감옥-재감인원 437명-이 외따로이 떨어져 있다. 동성정(東城, 지금의 금남로3가)에는 광주지방법원과 몇 채의 관사가 인접해 있어 한 블록을 이뤘으며 동양척식회사의 출장소는 북문통(지금의 충장로3가)에 있다.

멀리 공북루(광주일고 옆)를 나서면 유림숲에 이르고 이곳에는 광주농업학교와 광주임업묘포(뒤에 임업시험장으로 지금의 전방과 일신방직 공장 터)가 있어

그 부속 농장-9정 8반-은 정연하게 정리되어 행인들의 눈을 새롭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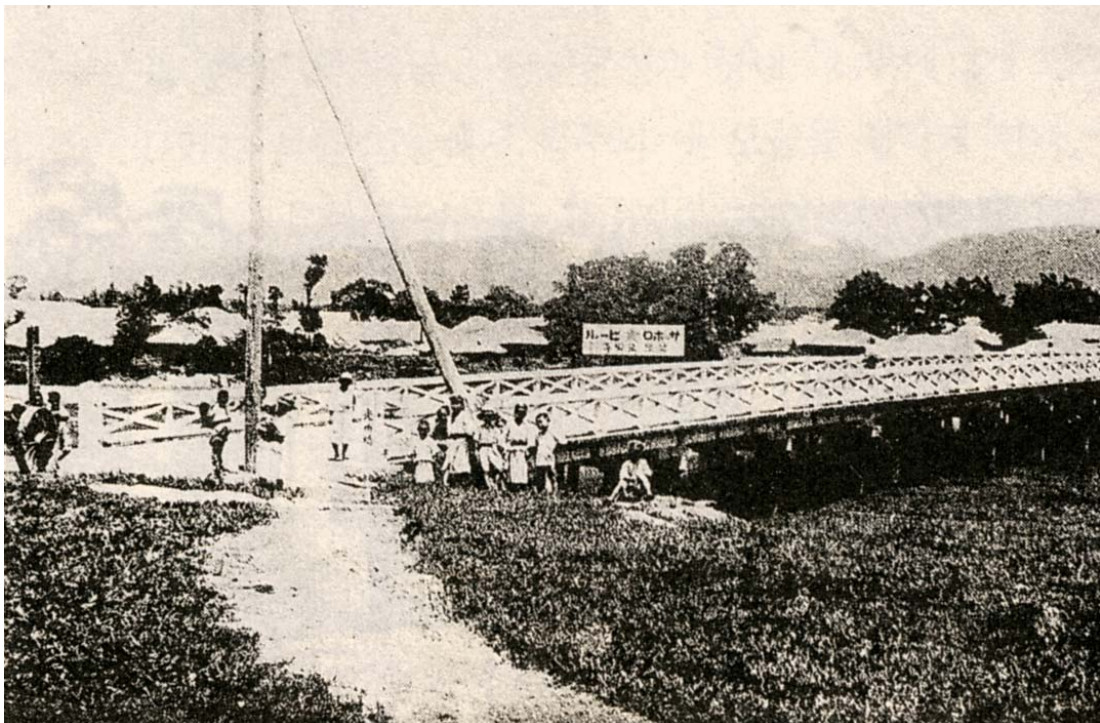
일본인의 교육기관인 심상소학교(광주중앙초교의 전신)는 지금의 서성정西城町の 가교사(불로동 1번지 일대를 말한다)에 있으나 머지않아 새로 터를 잡아 일대 신축의 역사를 계획하고 있다.

광주교를 건너 조탄강 건너편 공수방면에 이르면, 언덕 위에 지방금융조합(광주공원 어린이헌장기념탑 일대를 말한다)이 있어 전망이 좋기로 관공서 가운데 으뜸이다.

부동방면에는 광주종축장光州種畜場(훗날 축산시험장의 전신으로 이 시기에는 양립동에 있었다)-면적 4정 4반-이 있어 농사의 경영과 개량 발전에 시범을 보이고 있으며, 그 서쪽 일대는 미국인 선교사의 거주지가 됐고 미국야소교회가 세운 숭일학교와 수피아여자학교, 제중병원, 나병환자 수용소-수용인원 28명- 등이 있다. 그 사이를 누비듯이 양립 뒷동산 중턱에 벽돌 양옥 수십 채가 점점이 있으니 이 광경 또한 이채롭다.

각종 상점은 시내에 준비하여 지방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하고, 특히 전남 굴

■ 광주교
1907년, 광주~송정리 간 도로 개설과 함께 가설되었다.



지의 광주시장光州市場이 있어 매일 음력 2일과 7일에는 큰 장, 4일과 9일에는 작은 장이 열려 활발하게 물자를 집산시키는데 상권은 거의 읍내 상인들이 쥐고 있다.

공업은 아직 미미하여 마쓰다松田, 시메노山野, 오오츠大津 등 3개 양조장에서 청주, 된장, 간장을 양조하여 인근 고을에 공급하고 있으며 광주일보사는 일간 신문을 발행하는 한편으로 목포신보 광주 지국과 함께 인쇄공장을 설치하였는데 인쇄기의 신기하고도 교묘한 작업 광경은 오가는 조선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다.

우물물은 모두 불량하여 식수로는 거의 적합하지 않고 다만 한 군데 샘에서 나온 물을 한 지계에 5전씩에 공급하고 있어 일본인들이 가장 초조하게 여기는 바다. 그러나 방금 상수도 포설을 계획하고 있고, 이미 설계가 진행 중이므로 머지않아 이러한 불편은 탈게 될 것이다. 그 밖에 위생기관으로는 위생조합과 격리 병사가 있고 안도安東, 우에바上巴 등의 병원이 있어 부족함이 없다.

오락기관으로는 구락부俱樂部와 지난해에 건설한 광주공원이 있다.

종교에 있어서는 동·서 본원사本願寺와 일본 불교인 조동종曹洞宗 파출소, 야소 교회당이 있고 교통시설로는 인력거와 마차는 물론 목포를 왕래하는 자동차 편도 있다.

시내 전화는 138번에 이르고 기타 소방조직, 화장장 등이 있어 본도本道の 발전이 아직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시설이 괄목할 만하다.

이처럼 광주는 많은 관공서와 도시기관을 구비하여 지방개발이나 식민지의 필요한 설비가 해와 달이 거듭할수록 진보되어 가고 있어 비단 전남의 정치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상업과 교통의 요지로 지위를 굳히고 있다. 물자와 현금 거래는 연간 200만~300만 엔에 달하고 여객의 왕래도 매월 6,000~7,000명을 상회하여 시황市況이 날로 번창해가고 있다.

아침저녁으로 손님을 가득 실은 자동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시가지를 우렁차게 질주하는 모습으로 시민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다. 여기에 불원간에 호남선 철도가 완공되고 광주~송정리 간에도 경편철도輕便鐵道가 연결되면 전남의 발전은 더욱 놀랄 것이다.

기독교의 성지 양림촌

선교의 효시 배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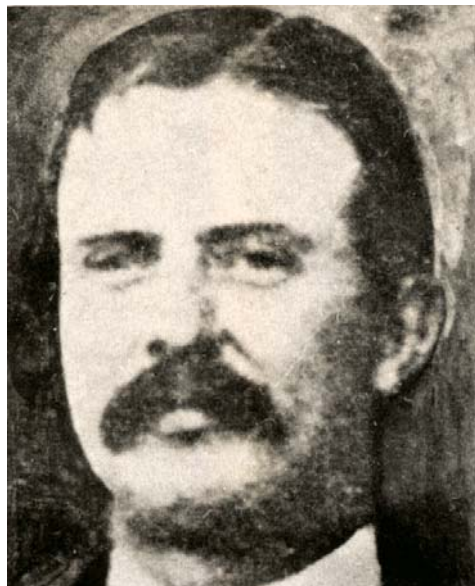
1900년대 들어 광주에 들어온 외국인은 비단 일본인 말고도 광주의 개화를 촉진시킨 양림동의 미국인과 서구인들을 들 수 있다.

1904년 한국명이 배유지(裨裕社)인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유진 벨(Eugene Bell, 1868~1925)과 뒤이어 한국명을 오원(吳元) 또는 오기원(吳基元)이라 했던 같은 미국인 의료선교사 클레멘트 오웬(Clement Owen)을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광주에 들어왔고 이곳은 곧 세칭 ‘서양촌(西洋村)’을 이루며 기독교 복음 전파의 터전이 되었다.

일본인들과 달리 이들은 순수한 선교활동과 의료사업, 근대교육을 통한 우리 민족의 각성과 계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배유지 목사는 생각했던 것 이상의 교세 확장과 교육 의료사업 등의 성공으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지만 가정이나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불행했던 것 같다.

■ 광주 최초의 교화인 배유지 목사 집터에 세워진 선교기념비
이 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 ‘이 곳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1904년 12월 25일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배유지 목사가 광주에는 처음으로 예배 드린 곳으로 그 거룩한 뜻을 길이 기억하여기 돌비 하나 세우니라.’





■ 배유지 목사
광주 최초의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송일수피아 학교 등을 세워 근대교육을 통한 우리 민족의 계몽운동에 이바지했다.

그는 처음 목포 양동교회를 세우고 주변 지역으로 전도를 나섰는데 1901년 4월 그가 전주에 머물러 있을 때 임신 7개월인 부인이 심장병으로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목포로 돌아가기 위해 군산에 도착했을 때 부인의 임종 소식을 듣는다. 이후 배 목사는 어린 남매를 홀로 키우며 선교활동에 정진했다.

배 목사는 1904년 4월 미국으로 일시 귀국하여 재혼을 하고 다시 광주에 되돌아왔다. 그해 12월 양림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창립했고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북문 안에 교회를 세웠으며, 송일과 수피아 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런 배 목사에게 대한 광주 지역 신자들의 존경심은 매우 컸다. 1911년 4월 배 목사는 선교사들에게 1년 동안 허락된 유급휴가인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때 송일학교 학생들과 교인들은 백운동의 진다리를 넘어 금당산의 옛 옥천사까지 배 목사가 탄 마차를 따르며 이별을 아쉬워했다. 배 목사는 이듬해 7월까지 미국에서 휴가를 마치고 다시 광주로 돌아왔다.

1919년은 배 목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안겨준 한 해였다. 첫째, 3·1운동으로 많은 교인들이 체포되어 옥중에 갇혔고 둘째, 북문안교회를 일제에게 빼앗겼다. 그리고 자동차사고로 재혼한 부인마저 다시 잃게 되었다.

배 목사의 부인은 3·1운동 당시 일본 헌병들에게 수많은 교인들이 학살당한 수원의 제암리교회堤岩里敎會 현장을 다녀오다가 그녀가 탄 승용차가 수원을 지나 병점餅店 근처 철도건널목에서 그만 열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고 함께 타고 있던 노라복魯羅福(Robert Knox) 목사도 눈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노 목사는

1906년 광주에 와서 주로 송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의 일을 맡아보던 선교사였다.

배유지 가족의 4대에 걸친 봉사와 헌신

배 목사뿐 아니라 그의 가족도 110년 동안 4대에 걸쳐 한국에서 선교,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다.

배 목사의 첫 번째 부인 로티벨에게서 낳은 1남 1녀 가운데 인사레(샬롯 린튼, 1899~1965)는 선교사 이든(윌리엄 린튼, 1912~1960)과 결혼하여 목포 성신학교 교장을 지내면서 전쟁고아를 보살폈으며 남편 이든 선교사는 대전대학(현 한남대학교)을 설립, 초대 학장을 역임했다. 1919년 3·1운동을 목격한 그는 그해 8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 남부 지역 평신도 대회에서 한국의 실상을 알리기도 했다.

인사레의 넷째아들 인도아(루와이트 린튼, 1935~1980)는 미국에서 교육을 마친 뒤 한국에 돌아와 광주에서 25년 동안 선교사로 일하다 1978년 귀국했으며 셋째아들 인휴(휴 린튼, 1926~1984)는 전남 지역에 5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고 순천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교통사고로 순교했고 그 부인 인애자(로이스 린튼)는 순천에서 결핵요양원을 세워 결핵 퇴치에 일생을 바쳤다.

이 인휴는 인애자와의 사이에 6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가운데 둘째아들 스티브 린튼은 한국여자인 경상도 출신의 화가와 결혼했으며 미국 내 북한문제 전문가로 북한을 다녀오기도 했다. 지금은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한국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다섯째아들 인요한(존 린튼)

배유지 목사 가족의 단란한 한때(1901년초)
부인 Lottie는 1901년 4월에 별세했다. 아들 헨리(5세), 딸 샬롯(2세)—이 딸이 광주에서 25년 동안 선교활동을 한 배유지 목사의 딸 샬롯사건의 앞줄 왼쪽이다. 그녀는 광주에서 25년 동안 선교활동을 한 인도아 목사의 어머니이다.



은 1959년에 전주에서 태어나 성장기의 대부분을 순천에서 보냈으며 한국어는 순천 사투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한국인 치과의사(이지나)와 결혼하여 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인요한 박사는 형 스티브 린튼과 함께 1955년 유진 벨 재단을 창설하고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의 지원과 결핵 퇴치 봉사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대학생이던 인요한은 광주시민군과 외신 기자들의 인터뷰에 통역을 맡았던 관계로 강제 출국될 뻔한 일도 있었다.

그는 지금도 매년 2, 3차례 북한을 방문하여 결핵 병원과 요양소를 둘러보며 의료용품을 지원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오원 선교사

한국명 오원(吳元, Clement Owen, 1867~1909)은 미국 버지니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개가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하였다.

■ 오원 묘비

오원은 의사로서 의사인 부인과 함께 선교활동과 의료봉사에 헌신하다 괴로운 병을 얻어 1909년에 요절했다.

© 심재하



미국 햄프튼 시드니대학을 졸업하고 할아버지의 권고에 따라 모국인 스코틀랜드 뉴칼리지(New College)에서 2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귀국 후 그는 남장로교의 총회 신학교인 버지니아 유니온 신학교를 마치고, 다시 버지니아대학 의학부에서 의학수업을 받았다. 그는 의사가 된 뒤 1894년 목사 안수를 받고 1898년 11월



■ 오원 기념각

이 건물은 오원 목사를 추모하여 1910년대
초엽 세워졌는데 종교 행사 외에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됐다.

미국 남장로교 한국파견 선교사로 목포에 와서 배유지 선교사와 합류하였다. 오원 선교사는 광주·전남 최초의 서양 의사로서 진료소를 차리고 의료봉사를 했는데 이때 목포·무안 지방에서는 복을 잘못 먹고 생명을 잃는 사고가 빈발하였다. 오원 선교사는 이들에게 주사를 놓고 약을 먹게 하여 소생시켰는데 이렇게 오원 선교사의 치료를 받고 나온 많은 환자들이 목포교회의 신실한 교인이 되었다. 뒤에 광주교회 설립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김윤수金允洙도 손에 종양이 생긴 늙은 어머니가 오원 선교사의 치료를 받고 병이 완쾌하자 교인이 된 사례 중의 하나다. 김씨는 신실한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 세례 받기를 원했으나 그가 주조업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가업인 양조장을 버리고 신앙의 길을



■ 유진벨 기념관

택했다. 그는 뒤에 광주로 옮겨 광주의 교회 건립에 큰 몫을 했다. 이러한 소문은 곧 퍼지게 되어 의료 사업을 통한 선교활동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목포 지방의 선교활동이 성공을 거두게 되자 오원 가족은 1904년 12월 배유지 가족과 함께 광주 선교의 개척을 위해 조그마

한 배에 몸을 싣고 목포를 떠났다. 오원 부인은 영산강을 거슬러 오를 때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강을 따라 오르면서 참으로 강변의 훌륭한 경치를 보았다. 모두 새집으로 가는 이 여정에 감사를 드렸다. 그러나 몇 시간이 흐르자 바람과 파도가 일기 시작하여 뱃은 멀미를 했다. 오래전 뉴잉글랜드에 상륙했던 우리 선조들의 느낌을 조금이라도 알 만했다. 12월 20일 영산포에 닿았다. 어린이와 여자들은 가마에 타고 20마 일이나 되는 광주를 향해 갔다. 목포에서 광주까지 이틀이 걸렸다.(브라운, 『미션 투 코리아』)

광주로 옮긴 오원 선교사는 광주진료소를 세워 의료봉사에 힘쓰는 한편 선교사로서의 활동에 더욱 열성을 쏟았다.

오원 선교사는 담당 교구인 전남도 내 동남쪽 15개 군의 선교활동에 전념했다. 한번은 보성 산중에서 의병에 붙들렸으나 그가 태연히 찬송가를 부르자 선교사인 줄 알고 보내주었다.

오원 선교사는 키가 크기로 유명하여 가는 곳마다 많은 구경꾼이 모여들었다. 그는 교구의 선교활동을 통해 40여 교회를 세웠으며 약 200여 명에게 세례를 주

었다. 그는 격무를 무릅쓰고 장흥 어느 시골에서 열흘 동안이나 선교활동을 강행하던 중 1909년 4월 3일 급성 폐렴을 얻어 43세의 아까운 나이에 요절하였다. 광주에 온 지 5년 만이었다.

그의 부인 화이팅(Georgina Whiting, M.D ; 1869~1952)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1869년 9월 12일에 태어나 노드필드 대학(Northfieldsem, Massachusetts)과 필라델피아 여자의과대학(Women' Medical College, Philadelphia)을 나왔고 사범교육도 받았다. 그는 1895년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사로 임명되어 그해 4월 7일 한국에 왔다. 1900년 12월 언터우드 선교사의 주례로 오원 선교사와 결혼하여 네 자녀를 두었다. 1901년에 첫째 딸 메리, 1903년에 둘째, 1905년에 셋째, 그리고 넷째는 유복자로 남편이 죽은 다음 달인 1909년 5월 13일에 낳았다.

화이팅 선교사는 남편의 다하지 못한 뜻을 이루기 위해 선교사와 의사로서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한국에 남아 봉사에 힘쓰다 귀국했으며 네 자녀를 모두 훌륭하게 키우고 1952년 남편의 곁으로 떠났다.

그녀가 4남매의 자녀를 데리고 광주를 떠날 때 많은 교인들이 백운동 진다리 너머까지 따라가 울면서 배웅하였다고 한다.

광주 최초의 한국인 목사 최홍중

오방 최홍중 五放 崔興宗, 1879~1966은 광주 기독교계의 선각자로 이 고장 최초의 한국인 목사이며 일제에 항거한 독립투사로서 뿐만 아니라 나병환자의 아버지로서, 또는 청년운동가로서 우리 향토사에 큰 흔적을 남겼다.

어린 시절 광주의 무법자로 알려졌던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김윤수 장로를 만나 1904년 말부터 배유지 목사의 사랑방에서 열리는 예배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에는 광주경찰서의 순검 시험에 합격해 2년 동안 근무하다가 애국지사와 의병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보고 순검을 그만두었다. 그 뒤로 한때 광주농공은행의 토지 감정원으로 일했던 적도 있었다.

30세가 되던 1909년 광주제중병원(지금의 광주기독병원) 포사이드(Forsythe

W·H) 선교사의 조수로 일하면서 나병환자를 돌보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평생 동안 나환자의 치료와 후생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생애를 살게 된다. 그는 1911년 양림리와 봉선리에 있는 자기 소유의 땅 1천 평을 기증, 한국 최초의 나환자 수용 시설인 광주 나병원을 설립하여 연인원 1천 명의 환자를 보살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훗날 여수 애양원(愛養園)이 설립되었고 1916년에는 소록도 국립자혜병원의 개설에 이르게 되었다.

최홍중은 광주 지역의 항일독립운동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1910년대 북문안교회를 항일 지식인들의 활동거점으로 만들었으며 서울의 3·1운동에도 관여했다가 체포되어 4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는 바람에 광주에는 없었지만 그와 함께 만세운동을 준비했던 동지들에 의해 광주의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출옥 후 그는 독실한 신앙인의 길을 걷기 위해 평양 신학교에 입학했으며 학교를 마친 후에는 북문안교회에서 광주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목사 임직을 받아 1922년과 1927년 두 차례나 자원하여 연해주 한인촌에서 선교활동을 했다. 그 과정에서 소련군에 체포되어 추방당하기도 했다.

연해주에서 돌아온 그는 광주노동공제회, 광주YMCA, 신간회 광주지회, 계유구락부 등을 창립, 초대 회장으로 국민계몽운동에 앞장섰으며 1932년에는 조선 나환자 근절협회를 창설, 초대회장에 취임하여 나환자들의 갱생과 나병예방에 전념했다.

1933년에는 소록도 국립자혜병원의 나환자 재활시설 확충을 탄원하기 위해 나환자들과 함께 서울 조선총독부까지 도보행진 끝에 총독을 만나 기어이 요구사항을 관철했다. 이것이 당시 온 국민에게 회자되었던 그 유명한 구라행진(救癩行進)이다.

최홍중은 이에 앞서 1932년부터 윤치호, 조병옥, 안재홍 등의 도움을 받아 나환자들의 구제와 갱생 대책을 조선총독부에 탄원했지만 총독부는 아예 이를 묵살해버렸다. 그러나 최홍중은 이에 굴하지 않고 중앙의 김병로, 이인, 김성수, 송진우, 안재홍, 조만식, 윤치호, 이선근 등과 지방의 김철, 최상채, 김희성, 신태윤, 이은상 등 70명의 호응을 얻어 조선 나환자근절협회를 창립하고 총독부에 지속적으로 나환자의 구제대책을 호소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 최홍종의 구라행 진이다.

이 구라행렬에는 미국여자선교사 서서평과 교회의 문보경 양과 그녀의 아버지 문치근이 동행했는데 식량과 취사도구를 실은 소달구지가 앞서고 그 뒤로 최홍종 목사 일행과 나환자 2백 명이 줄을 이어갔다. 해가 저물면 기차역이나 교회의 빈터에서 노숙했는데 행진 닳새째 되던 날 논산을 지나 대전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에서 초가을 소나기를 만났다. 이때 때문이었는지 그동안 나환자들의 취사를 맡아 봉사하던 보경의 아버지 문치근이 급성폐렴에 걸려 노상에서 운명했다. 그는 죽기 전에 최홍종의 손을 잡고 보경이를 부탁한 다면서 ‘목사님 참말로 고맙습니다. 천당에 가서는 꼭 목사님 종이 되는 것이 소원이구만요. 그래야 은혜를 갚지요.’라는 말을 끝으로 평안하게 눈을 감았다.

대전서부터는 참으로 고난의 행진이었다. 구라행진의 소식을 전해들은 나환자들이 가는 곳마다 행렬에 합류했고 미리 준비해 온 식량은 바닥이 나는 바람에 구걸에 나서거나 최홍종이 직접 발길 닿는 곳마다 교회를 찾아가 도움을 받았지만 추수전이어서 모두가 배고픔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길을 나선 지 열하루 만에 서울에 도착했는데 출발



■ 최홍종 목사

25세 때 기독교에 입교, 북문밖교회 목사, 시베리아 선교사, 나병 근절협회장, 결핵 환자 수용소를 창설하는 등 기독교 사회사업에 헌신했다.



■ 미감아 아동들과 함께한 최홍중 목사
그는 나환자들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들과 아픔을 나눴다.

시 2백 명이던 나환자가 도착 때는 5백 10명에 이르렀다.

총독부 광장에 도착한 최홍중은 즉시 연좌 농성에 들어가 총독 면담을 요청했다. 그리고 연좌 7시간 만에 최홍중과 서서평은 우가키^{宇賀木} 총독실로 안내되었다. 이 자리에서 최홍중은 조선 나환자들의 참상을 이야기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나환자가 1만 5천 명에 이르고 있었으며 이 중 나병원 수용인원은 2천 5백 명으로 나머지는 거리를 방황하며 학대와 공포의 대상이 되어 구걸조차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최홍중은 이들 나환자의 근절 대책으로 격리와 치료, 구제, 예방을 제시하고 환자의 경중에 따라 갑^甲은 대구와 소록도의 치료소에 격리하고, 을^乙은 소록도와 부산 수용소에, 병^丙은 각 군의 위탁 치료소에, 정^丁은 경환자 문화치료소에 분담케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당장 시급한 단기 대책으로는 첫째, 소록도의 나환자 수용소와 연계하여 음성 환자들이 갱생할 수 있도록 자혜원의 시설을 확장하고 둘째, 섬 안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육지로 이주케

하여 섬 전체를 나환자 수용소로 만들어 줄 것을 호소했다.

우가키 총독은 처음에는 구라행진의 집단행동에 대해 분노했으나 최홍종의 의연한 진정성과 열정에 감복, 그를 얹혀 놓은 채 간부들을 불러 요구조건을 수용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우선 시급한 소록도 수용환자의 생계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기금이 조성되는 대로 소록도 자혜원을 갱생원으로 확충하여 수용인원을 대폭 늘릴 것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나환자들의 귀환을 위해 특별 열차까지 배려해주었다. 그리고 자혜원의 시설확충도 기금 조성이 늦어져 지체되기는 했으나 1939년 11월 소록도 나환자 갱생원을 개설함으로써 최홍종과의 약속을 지켰다.

최홍종은 참으로 조선 팔도 나환자들의 살아 있는 구세주였다.

1935년 57세가 되던 해에 최홍종은 세속과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기로 결심하고 거세수술을 단행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호를 오방五放이라 했다. 다섯 가지 욕망에서 놓여 난다는 뜻으로 첫째 가족에 얽매이지 않는다家事에放漫, 둘째 사회적으로 속박받지 않는다社會에放逸, 셋째 정치에 나서지 않는다政治에放棄, 넷째 경제에 구속되지 않는다經濟에放縱, 다섯째 종파를 초월하여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宗教에放浪 이렇게 오방을 몸소 실현하기 위해 거세를 단행한 최홍종은 이웃과 주변의 모든 친지들에게 사망통지서를 보내고 지금의 춘설현인 석아정石岬亭에 은거, 옥호도 오방정五放亭이라 했다. 그는 강렬한 개성과 집념의 신앙인이었다. 무엇보다도 빈자와 나환자의 진정한 어버이로서 1930년대 후반 광주사람들은 그가 리어카에 거적과 이불을 잔뜩 싣고 다니며 나환자나 빈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노숙하는 광경을 흔히 목격할 수 있었다.

광복을 맞은 그는 1945년 8월 17일 광주극장에서 거행된 축하기념식에서 전라남도 건국 준비위원장으로 추대되었는데 그는 이날 식전 말미에 갑자기 우리 민요 ‘아리랑’의 제창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동안 숨어서만 부르던 아리랑을 그가 목청껏 선창하자 만장한 시민은 기쁨과 감격으로 서로 얼싸안고 목 놓아 아리랑을 불렀다. 미군이 진주하자 한때 미 군정 전라남도 고문위원장을 맡았으나 얼마 안 있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뒤 호남신문사 회장으로 부임하여 혼란기의 이 지방 언론을 이끌었다. 이 무렵 김구 주석이 최홍종을 영입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나중에는 직접 찾아와 간곡한 뜻을 전했으나 그는 이를 뿌리쳤다.

그는 오방이라는 생활신조를 지켜가면서 세속의 욕망에서 스스로를 지켜냈으며 1947년에는 한국나병예방협회를 창립, 나병치료와 후생복지, 그리고 나병의 예방 등 구라救癘를 위한 헌신의 생애를 이어갔다.

같은 해에 그는 의제 허백련과 함께 삼애원三愛園을 설립, 농촌지도자 양성에 나선다. 삼애는 애천愛天, 애토愛土, 애족愛族을 뜻하는 것으로서, 오방과 의제는 광복 후 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농촌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신념 아래 가난 때문에 진학을 못하는 농촌청소년들을 모아 농업교육을 실시했다. 교사는 학생들과 침식을 같이하며 농촌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닦았다. 증심사 밑에 있는 오늘날의 의제미술관이 바로 그 삼애원이다.

1956년엔 나주에 음성 나환자의 재활시설인 호혜원互助園을 설립한 데 이어 1958년에는 무등산 원효사 앞에 폐결핵 환자 요양시설인 송등원松等園을 설립, 환자들을 돌보았다.

1962년 빈민과 나환자의 어버이요 민족운동가이며 애국지사인 그의 공로를 기려 정부는 그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했다. 1966년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하직했을 때는 전국의 나환자들이 ‘아버지’를 목 놓아 애곡했으며 멀리 상여길을 따랐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고 1995년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사랑의 사도 서서핑

광주에 온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광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인물로 엘리자베스 셰핑(Elisabeth J. Shepping, 한국명 : 서서핑, 1880~1934) 여사를 빼놓을 수 없다.

서서핑은 1912년 광주에 첫발을 내딛은 뒤로 제중병원(현재의 기독교병원)의 간호사 겸 선교사로 22년 동안 봉사하다가 1934년 54세를 일기로 별세할 때까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친구로서, 사회의 그늘진 곳에 희망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로서 숭한 일화를 뿌렸다.

서서핑은 본래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가 간호학을 공부했다. 1912년 그녀의 나이 32살 때 미국 남장로교 해외선교부가 파견하는 간호선교사로 선발되어 한국에 왔다. 한때 군산의 예수병원에서 일했으며 그 뒤에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간호학교에서 교사로도 활동했다. 광주의 제중병원 간호부장으로 온 것은 그 뒤였다.

광주에 온 그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말과 풍습을 익히면서 이름도 한국식으로 고쳐 지었다. 원래 성격이 급했던 그는 매사를 서서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성을 서徐씨로 하고, 다시 그 뜻을 강조하려고 이름의 첫 자를 천천히 할 서舒자를 넣었다. 그리고 다소 모난 성격을 고쳐보겠다는 바람을 담아 평평할 평字를 붙여 서서평徐舒平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의 본이름인 세평의 발음을 살린 것이기도 했다.

뒤에 알려진 바로는, 이 이름을 짓는데 최흥중 목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동갑내기이면서 생일이 빠른 최 목사를 오빠처럼 여겼으며 매사 그와 의논해서 일처리를 했다. 특히 최 목사가 설립한 나환자 수용소를 틈나는 대로 찾아가 환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치료에 도움을 줬다.

당시의 그를 기억하는 분들에 따르면, 그 무렵 양림동에서는 옥양목玉洋木(전래의 조선 무명보다 울이 가늘고 하얀 무명베) 저고리와 검정 통치마에 남자용 검정 고무신을 신고 고아를 업은 단발머리의 독일계 미국처녀인 서서평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평생 미혼으로 산 서서평은 당시 선교활동의 중요한 과제인 금주와 금연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그는 직접 금주동맹을 조직해 상가가 밀집한 지금의 충창로와 시장 등을 찾다니며 금주운동을 펼쳤다. 아울러 인신매매 반대, 축첩금지, 공장제도 폐지 운동의 선봉에 서서 윤락 여성 선도 사업을 주도했다. 때로는 만



■ 서서평 선교사
옥양목 적삼에 검정 통치마, 검정 고무신을 신고 고아인 양자를 업고 양림거리를 누볐다.

주로 팔려가는 열아홉 살의 여성을 돈을 주고 구해내기도 했고 홍등가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빚을 갚아주고 새 삶을 찾게 했으며 또 이렇게 구해낸 여성들을 자신이 설립한 이일학교에서 공부를 시켜 자활의지를 심어주었다.

그는 제중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일하는 동안 특별히 나환자와 걸인들을 돌보았으며 거리에서 나병 환자나 거지를 만나면 집까지 데려와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여 자기 옷을 입혀 보냈다. 그 때문에 그는 평생 옷 두 벌을 가진 적이 없었다고 한다.

김윤식 金允植 장로가 고인이 되기 전 필자에게 전해준 일화가 있다. 엄동설한에 나환자 두 사람이 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본 서서평은 집으로 달려가 하나밖에 없던 자신의 담요를 가져다가 둘로 나눠줬다고 한다. 그는 언제나

■ 광주 제중병원(현 광주기독병원)

1905년 광주 최초의 근대 병원으로 진료를 시작
1911년에는 미국인 그라함의 죽은 딸 엘라 레빈
그라함을 추모하기 위해 보내온 기부금으로 50개
침상 규모의 3층 벽돌 건물을 짓고 E.L 그라함 병
원이라 했는데 1934년 화재로 건물이 불타버렸
다. 서서평은 제중병원에서 많은 환자를 돌봤다.



끓주린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식을 나눠 주었는데 그가 숨을 거둘 때 집에는 밀가루 두 홉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고도 한다.

서서평의 열정은 대단했다. 교회와 학교운영을 위해 자신의 월급을 대부분 지출하고도 남은 돈으로 수많은 제자와 고아를 보살폈다. 그 가운데는 자신의 딸로 입양해 키워 시집을 보낸 사람만 열 셋이나 됐다. 시집을 보낸 뒤에도 서서평은 생모처럼 그들을 돌봤고 혹여나 홀로 된 양딸이 있으면 양립동에 집과 농토를 마련해줘 생계를 잇도록 했다. 이렇게 키운 양딸 중 고향으로 시집을 간 여성이 있었는데 그 손자가 해방 후에 장관이 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그의 열정은 누구도 말릴 수 없었다. 원래 서서평이 한국에 올 때, 천주교 신자였던 그녀의 부모는 한사코 이를 말렸다고 한다. 뒤에 부모가 제중병원까지 찾아와 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미국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했으나 그는 이를 완강히 뿌리쳤다. 그리고 이것이 부모와의 영원한 이별이 되었다.

서서평은 간호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 광주기독병원백주년 기념비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했으며 한글 실력도 뛰어나 많은 책을 우리글로 번역했다.

그는 1923년 5월 조선간호협회(현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의 결성을 주도했고 그 초대 회장에 취임하여 그로부터 11년 동안 서울, 부산, 평양, 신의주 등 주요 도시를 누비며 협회 발전을 위해 봉사했다. 조선간호협회를 만국간호협회(ICN)와 일본 적십자사 간호협회에 가입시킨 것도 그였다. 국권을 상실한 나라의 간호협회가 국제무대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서서평의 개인적 노력이 낳은 결실이었다.

서서평은 초창기 광주 지역의 교회역사에서도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는 1921년 현 백운교회의 전신인 진다리교회를 비롯해 봉선리교회 등을 세웠으며 1922년에는 전국 최초로 금정교회錦町教會(광주제일교회의 당시 명칭)에서 여신도회(당시에는 '부인조력회'라고 불렀다)를 조직하여 신앙수련과 협동사업, 신용사업 등을 펼쳤으며 교회의 봉사활동에도 앞장섰다.

또 그는 자비를 털어 3년제 학교를 설립하여 여성들의 문맹퇴치와 교육에도 적극적이었다. 당시만 해도 여성들의 교육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정규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글자를 모르는 까막눈이었다. 실제로 1930년 조선 최초의 국세조사國勢調査를 보면, 전체 조선인들 가운데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겨우 22%정도였고 나머지 78%는 문맹자였다. 특히 남자들 가운데 문맹자가 64%인 데 반해 여성들은 92%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인자한 모습과는 달리 서서평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매우 엄격했다. 그는 진리, 정직, 성실을 자신의 교육방침으로 삼았고 시간엄수와 약속이행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를 어긴 학생들에게는 엄하게 질책했다. 그에게 꾸지람이나 주먹뺨을 맞지 않은 학생이 없을 정도였는데 이렇게 혹독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에는 서른두 살인 청상과부도 있었다고 한다.

1926년 그는 친구인 로이스 닐(Lois Neel)의 도움을 받아 양림동 뒷동산 중턱에 붉은 벽돌로 삼층 건물을 짓고 기부자인 닐의 이름을 따서 '이일李一성정학교'라고 했다. 훗날 김제권 신경정신과 의원이 들어섰는데 지금은 원룸 건물로 바뀌었다.

또한 그는 학생들의 자활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양림동 일원에 뽕밭을 조성하고 양잠, 제사, 직포기술을 보급했으며 선교사들의 바느질감을 학생들에게 맡겨

그들의 경제적 형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했다.

그는 대부분 가난한 가정 출신인 여학생들에게 명주, 모시, 마포, 무명베에 자수를 놓아 책상보, 손수건 등 수예품을 만들게 했다. 이렇게 만든 제품들은 당시 광주에 와 있던 스와인하트(M. L. Swinehart, 한국명 : 서로득徐路得) 장로 부부의 주선으로 미국 버지니아주에 보냈고 그곳에서 벤스(R. G. Vence) 부인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이일성경학교에 보내주곤 했다. 그 돈으로 이일성경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비로 썼다. 이것은 광주의 수예품이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된 사례이기도 하다.

이일성경학교는 교육기회가 적었던 광주 지역의 여성들에게 근대문물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여기서 수많은 여성 전문 인력들이 배출됐다. 그들은 훗날 간호사, 산파(조산원), 교사, 유치원 보모, 여성 전도사 등으로 활동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성운동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



■ 이일학교 보통과 제3회·성경과 제7회 졸업기념
뒷줄 중앙이 서서명 교장 서서명은 여성들의 문맹퇴치와 계몽에 앞장섰다.



■ 선교사들의 기술교육
서서평은 양잠·제사·직포 기술을 보급, 학생들이 배우고 일하는 즐거움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하였다.



■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의 어머니로 그늘진 곳을 밝혀준 사랑의 사도 서서평
그녀는 22년 동안 광주에서 봉사하다 세상을 떠났다.

© 백준성

이 학교는 1941년 9월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문을 닫았다가 해방 후인 1948년 9월 구애라 선교사에 의해 다시 문을 열었다. 뒤이어 수피아여학교 교장을 지낸 유화례(柳華禮, F.E. Root) 여사가 이 학교의 교장으로 운영을 맡기도 했다. 그러다가 1961년 3월 31일 전주의 한예정신학교(韓禮貞信學校)와 통합되어 한일여자신학대학(韓一女子神學大學)이 되었다. 이 한일여자신학대학의 교명은 한례학교와 이일학교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지은 것이었다. 한일여자신학교는 몇 차례 교명을 바꿔 지금은 한일장신대학교(韓一長神大學校)로 불리고 있으며 전북 완주군 상관면에 있다(백춘성(白春成), 『天國에서 만납시다』).

서서평은 간호사로서뿐만 아니라 평생을 선교와 교육을 통한 계몽운동과 사회 봉사활동에 헌신하면서도 많은 책을 저술했다. 주요 저서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할 수 있는 『간호교과서』·『실용간호학』·『간호위생법』 등 4권과 『간호사업사』를 비롯한 많은 번역서가 있다.

서서평은 1934년 6월 26일 새벽 4시, 54세를 일기로 사랑과 헌신의 생애를 마쳤다. 그는 죽는 날까지 병원이나 교회, 학교의 일에 소홀함이 없었다. 운명하기 전 그는 ‘먼저 가니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유언에 따라 뱃속의 장기는 모두 의학실험을 위해 기증되었다. 얼굴은 아름답게 화장하고 하얀 드레스를 입혀 누구나 들여다 볼 수 있게 유리로 뚜껑을 덮었다. 부장집으로 출가한 양딸 곽애례(郭愛禮)가 마련한 비단보로 관을 싸으며 그 위에 장미꽃과 백합꽃을 쌓았다.

장례식은 당초에 교회장으로 치를 계획이었으나 광주의 지방유지인 김신석(金信錫)·최원순(崔元淳)·김용환(金容煥)·정상호(鄭尙好)·정광호(鄭光好)(광주시장, 제헌 국회의원)·최경식(崔景植) 등 계유구락부 회원들을 비롯한 유지들의 주장에 의하여 광주 최초의 사회장(社會葬)으로 치렀다. 장례식은 12일장으로 1934년 7월 7일 양림 오원기념각에서 거행되었다.

장례식에는 많은 지방 인사와 기독교인들은 물론 전라남도지사 야지마(矢島), 경찰 부장 사토(佐藤)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도 예복을 입고 참석하였으며 서울·평양·부산 등 국내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슬퍼했다.

사회는 최홍종 목사가 맡았으며 시민대표로 김신석 호남은행 전무의 식사와

김필레(여성대표)·최원순의 추도사가 있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이일학교 제자들이 운구를 맡았고 그 뒤에는 13명의 양딸과 수백 명의 지지·문둥이들이 따랐다.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며 목 놓아 우는 그들의 통곡 소리에 조객들은 모두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자선과 교육 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서평 양 서거’라는 제목과 ‘재생한 예수’라는 부제로 그의 죽음을 대서특필했고 친동기처럼 지냈던 최흥종 목사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의 어머니인 서서평을 회고할 때마다 홀로 눈물짓곤 했었다.

그녀는 지금도 양림 뒷동산에 묻혀 있으며 그를 흠모하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으로 남아 있다.

성처녀 수피아 교장 유화례

한국명 유화례 柳華禮(Florence Elizabeth Root)는 수피아여학교 교장으로서 일제강점기 이 지방의 기독교 선교활동과 교육운동에 생애를 바친 사랑의 사도이며 광주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은 감동을 새겨준 미국인 여성 선교사이다.

일제의 식민정책 강요에 항거하여 차라리 폐교의 길을 택함으로써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굽히지 않았으며 6·25전쟁 때는 미 대사관의 철수명령에도 불구하고 생사의 고비를 신도들과 함께 넘으면서 순교자적인 신앙인의 자세를 흐뜨리지 않았다.

그녀가 세상을 하직했을 때는 미국과 한국에서 추모집회가 열렸으며 <뉴욕 타임즈>는 조사를 실어 그녀의 헌신과 사랑과 그리고 수피아인으로서의 생애를 애도했다.

유화례는 1893년 뉴욕 길버스길의 농장에서 태어나 쿠퍼스타운 고등학교와 스미스대학을 졸업한 후 한때 고등학교 수학교사를 하다가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 버지니아 리치몬드 장로회 신학대학을 나왔다. 그녀가 미국 남장로회에서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어 광주에 오게 된 것은 1927년 1월이었다. 그녀는 광주 수피아여학교에서 영어와 음악을 가르쳤으며 1933년 3월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일제는 동방요배(東方遙拜)(일본 천황이 사는 동쪽을 향해 절을 하는 의식)와 신사참배를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학교에 대한 폐교방침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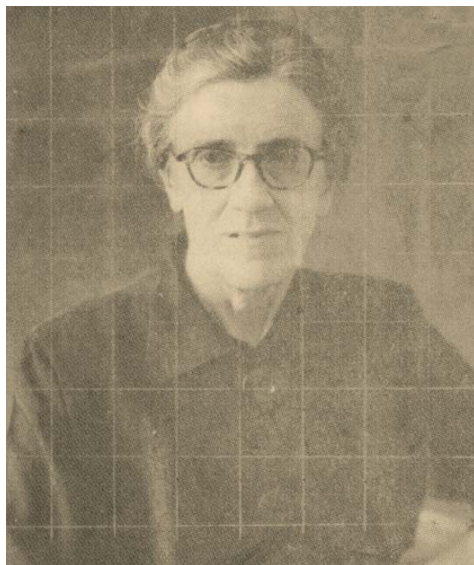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를 거부해 온 수피아는 폐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수피아의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을 충동질하여 폐교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그녀는 결단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제의 탄압이 거듭되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1937년 2월 미국 남장로회 선교회 본부의 총무인 폴턴 목사가 한국을 방문, 비밀리에 전주에서 광주·목포·군산·전주·순천 등 전남·북 지방의 기독교계 학교 대표자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제의 폐교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신입생을 받아들이지 않되 재학생인 1·2·3학년생은 교육과정을 마칠 때까지 학교를 존속키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할 경우에는 즉시 폐교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생



■ 유화례의 소녀 시절



■ 유화례 교장
한국명 유화례(柳華禮)(Florence Elizabeth Root)는 수피아여학교 교장으로서 일제강점기 이 지방의 기독교 선교활동과 교육운동에 생애를 바친 사랑의 사도이며 광주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은 감동을 새겨준 미국인 여성 선교사이다.



■ 유화례 기념도서관(위)
수파야고 교장에 있는 이 도서관
은 1974년 준공되었다.

■ 유화례 기념도서관 현판에
걸린 기념 동판(아래)

들의 폐교 반대 시위가 격화되어 사태가 주동 교사의 퇴임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등 어수선했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이로 말미암아 수파야는 졸업식도 못한 채 교장실에서 졸업장을 전달했으며 신입생을 받아들이지도 못했다. 5월 1일 개교를 했으나 많은 학생들이 이미 학교를 옮겨간 상태였다.

1937년 9월 6일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이 되자 일제는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신사참배 의식을 거행했다. 이를 피할 수 없게 된 유화례 교장은 전교생이 신사 참배에 참가하게 되자 이날 오후 결연히 폐교 조치를 단행했다. 이날 송일학교를 비롯한 남장로회 선교회 산하 10개 미션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다.

폐교 후 그녀는 나환자를 돌보며 직접 나환자의 아이를 돌이나 키우면서 농촌 순회전도에 전념했다. 가는 곳마다 일본 경찰과 헌병의 감시를 받았으며 1941년 6월에는 광주시로 주거제한 조치가 내려졌으며 결국 이듬해 8월 강제 추방되어 귀국길에 올랐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녀는 전국을 순회하며 한국이 자주독립국가임을 교계에 알리고 악랄한 일제의 탄압을 폭로했다.

광복이 되자 1947년 12월 다시 광주에 돌아와 1948년 10월 수피아여중 제8대 교장으로 취임하여 1949년 3월까지 봉직했다. 퇴임 후 그녀는 주로 도서 지방을 순방하며 복음 전파에 전념하다가 6·25전쟁을 맞았다.

6·25 피난길 정인세 등과 생사의 동행

그녀는 미국 대사관의 긴급 철수명령에도 불구하고 한국민과 고난의 길을 함께하기로 마음먹었다. 신도들이 피난길을 재촉했지만 그녀는 ‘어디를 가나 눈에 띄는 미국인이므로 차라리 집에 있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세가 급박해지자 동광원(현재의 방림동 귀일원의 전신)의 정인세, 조용택, 이현필 등이 막무가내로 홀이불에 그녀를 싸서 풀지계에 숨겨 피난길에 올랐다.

동광원 청년들은 남평 방면으로 약 30분 거리의 산속에 이미 은신할 굴을 파 놓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곳도 피난민들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일행은 이현필의 친척집이 있다는 화순으로 발길을 돌렸다. 유화례는 삼복더위를 무릅쓰고 홀이불과 풀더미 속에 숨어 필사적인 탈출을 했다.

그녀가 탄 지게는 2명의 동광원 청년이 번갈아 매며 험한 산길을 밤낮으로 걸어 화순군 도암면 산골에 도착했다. 그녀는 이 산골에서 시골 아낙네의 누더기 옷을 걸치고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살았다. 이미 인민군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지만 인민군보다 무서운 것이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었다. 만일 이들의 행각이 발각될 경우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 실제로 바깥 정세를 살피기 위해 산을 내려갔던 조용택은 인민군에 피살되어 순교했다.

정인세를 비롯한 동광원 청년들은 목숨을 걸고 유화례 선교사를 지켰으며 순교자적인 신앙과 사랑과 헌신으로 결속해 있었다.

이들은 9·28 수복이 되어 1950년 10월 6일 광주로 돌아올 때까지 동북면 화학산의 동굴과 때로는 농가의 캄캄한 벽장 속에 숨어 콩보리밥과 쭉죽으로 연명하며 2개월 반 동안 몇 고비의 사선을 넘었다.

유화례는 6·25전쟁 당시 생사의 고비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정인세를 비롯한 동광원 청년들에 대한 이 같은 이야기들을 『수피아와 나』(〈전남매일신문〉, 1975)라는 회고록에 남겼다.

피난에서 돌아온 유화례는 수피아의 10대 교장으로 부임했는데 이것이 세 번째 교장 임직이다. 유화례는 일제강점기 폐교에 이르는 시기와 광복 후의 혼란기, 그리고 6·25전쟁 등 공교롭게도 세 번에 걸친 시대의 격동기 때마다 세 번의 교장 임직을 수행하면서 수피아와 고난의 역사를 함께했다.

그녀는 1960년 3월 교장직에서 퇴임한 후로는 목포의 교회와 도서 지방을 순회하면서 전도에 힘썼으며 1963년 3월 만 70세로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를 퇴임하게 되자 잠시 귀국했으나 일가친척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광주로 돌아와 선교부의 보조도 없이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그녀는 광주교도소와 여성선도회인 계명여사, YWCA 등에서 매주 성경공부를 주관했으며 미국 교우들의 현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면서도 전도사와 목사 신학생들에 대한 지원 사업에 헌신했다. 그녀는 평생 미혼으로 살면서 불우한 어린이를 친자식처럼 양육했으며 장성해서는 양녀가 설립한 애육원을 보조했다.

85세가 되던 1978년에는 자신의 노후가 사랑하는 신도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홀연히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한시도 수피아를 잊지 않았으며 날마다 수피아를 위해 기도했다. 양로원의 생활비를 아껴 수피아의 강당 건설 기금으로 7백 달러를 현금했으며 수피아를 그리는 그녀의 애뜻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 보내오기도 했다.

그녀는 평생을 수피아인으로서 성처녀의 사랑과 봉사의 생애를 살다가 1995년 5월 26일 해리스버그 안식관이라는 양로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하직했다.

1995년 6월 7일 광주수피아총동창회의 주최로 수피아 대강당에서 추모 집회가 열렸으며 미국 현지에서도 재미 수피아동창회가 같은 날 추모집회를 열었다.

뉴욕 타임즈는 사망 다음 날인 5월 27일자 신문에 유화례 교장의 약력과 선교 활동을 대서특필했으며 아울러 그녀를 애도하는 조시를 실었다.

죽음이란 / 우리를 지하 감옥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 무한한 자유를 호흡하는 것이라네

- H. A. Cesar Malan

현재 수피아에는 1974년 동창회에서 유화례 기념 도서관을 건립하여 그녀를 기리고 있다. 또 유화례의 생애를 담은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되어』(안영로, 1994)라는 책이 발간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재미 수피아동창회가 성금을 모아 묘역을 조성하여 그녀를 추모하고 있다(『수피아 100년사』).

■ 남한대토벌작전과 광주

호남 의병의 중심지, 광주

1909년 7월 6일 일본은 내각회의에서 한국의 강제병합을 결정하고 한반도의 식민지 정책을 극비리에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그들의 식민정책 수행을 위해 국권침탈에 저항하는 의병들을 ‘토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선결과제였다.

명성황후의 시해와 단발령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의병운동은 1905년 을사조약 이후로 더욱 가열됐다. 특히 1907년 9월(음력 8월) 영광의 수록산에서 기삼연^{奇參衍}이 주도한 병력 5백 명 규모의 호남창의회맹소^{湖南倡義會盟所}가 결성되면서 본격적인 무력항쟁의 대오를 갖추게 되었다.

호남창의회맹소는 형식상 단일 지휘체제로 편성된 부대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독립부대가 연합한 조직이었다. 즉, 김태원^{金泰元, 金準}과 김율^{金律} 형제, 김용구^{金鎔球}, 이석용^{李錫庸}, 오성술^{吳聖述} 등 각기 독립된 부대를 이끌던 의병장들이 호남창의회맹소의 참모나 부장이란 직함을 갖고 연계됐던 것이다. 이 때문에 호남창의회맹소는 1907년 이후 광주·전남 지역 의병활동의 중심세력이라 할 수 있었다. 이 무렵 의병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노래 한 편을 소개한다.



■ 의병장으로 최후까지 항전하다 1909년 남한
대토벌작전 때 붙잡힌 호남의 의병장들
앞줄 왼쪽부터 송병운·오성술·이강산·
모천년·강무경·이영준, 뒷줄 왼쪽부터
황두일·김원국·양잔여·심남일·조규문·
안규홍·김병철·강시문·박시화·나성화

오라 오라 돌아오라
창의소(倡義所) 돌아오라
만일 오지 않고
왜적에게 종사하여
불행히도 죽게 되면
황천(黃天)에 돌아가서
선왕(先王) 先王先祖 뵈옵소나

그러나 이 무렵 전남에서는 창의소 외에도 다수의 의병부대가 활동하고 있었다. 전주 출신으로 1905년 당시 광양 백운산에 은거 중이던 맹인(盲人) 의병장 백낙구(白樂九)는 을사조약 소식을 듣고 이듬해 구례의 중대사(中大寺)에서 의병부대를 결성하여 그해 11월 광양관아를 습격했고, 창평의 고광순(高光洵)은 구례의 연곡사(燕谷



■ 대한제국 시절의 항일의병
일본군의 신식무기에는 비길 바 못 되지만
화승충으로 무장한 의병들의 눈빛이 매섭다.

© 『대한제국의 비극』

산을 무대로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이러한 의병운동은 전국에서 전라도가 중심이 되었으며 특히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집중되었다. 1909년 당시 일본군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의병이 38,592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7,579명이 전남 지역에서 활동중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1909년부터 시작된 일본군의 작전이 이른바 ‘남한대토벌작전’ 이었고 그 대상 지역은 바로 이곳 전남이었다.

1909년 일본군의 임시한국과 견대사령부(臨時韓國派遣隊司令部)가 펴낸 ‘임시한국과 견대의 남한대토벌 실시보고의 건’ 이란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서 ‘폭도의 창궐’로 경제활동과 통치에 방해가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전라도 주민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때 일본군의 활동을 볼 수 없었고 임진왜란 때만을 기억하며 일본인을 멀리하는 풍조가 강한 탓에 의병운동이 수그러질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1908년 10월 이래로 목포농회(木浦農會) 등 일본인 농업종사자들은 군사작전의 필요성을 통감부에 거듭 진정했고 1909년 5월 목포의 일본인 상업회의소는 의병들로 인해 일본의 상업적 이익에 크게 방해받고 있다며 ‘대토벌’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청원을 낸 바 있었다.

또 1908년 1월 영산포에서는 곡물의 출하가 급감했고, 자금회수가 어려워 금리가 크게 올랐다는 일본 상인들의 진정도 있었다. 그해 2월에는 광주에서도 ‘지방 소요’로 상품의 출시가 줄고 곡물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상황은 전남 일원에서 두루 나타났고 쌀 반출항이던 목포에서는 곡물반출량이 급감하고 금융거래의 불안정으로 금리가 폭등하는 등 일본인들의 경제활동이 위협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엽전 회수와 신화폐新貨幣의 유통도 다른 지방보다 더 저조했다.

의병운동이 전남 내륙의 일본인 상인들에게만 피해를 준 것이 아니었다. 의병들의 해상활동이 증가하면서 일본인 어업종사자들의 수입이 급감했다. 1909년 2월 탁지부度支部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병들의 저항으로 조선에 진출한 일본의 영세한 자본가나 대금업자들이 일본으로 철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곧 ‘남한대토벌작전’의 주된 배경이었다. 일본군은 본격적인 작전에 앞서 주요 의병장들을 겨냥한 토벌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1908년 1월 담양의 추월산 전투에서 패한 뒤 전북 순창에서 부상을 치유 중이던 기삼연이 일본군에 체포됐다. 그는 광주에 끌려와 광주천변, 당시 서천교西川橋라 불리던 사동社洞 앞 흙다리 밑에서 일본군에 의해 총살당했다. 2월에는 광주에 주둔 중이던 일본군(약 150명)이 기삼연 사후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던 김태원과 김응구 부대에 대한 토벌에 나섰다.

5월에는 보병 2개 연대를 조선에 추가로 배치하여 정규군(수비대)과 헌병대, 경찰을 군사령부의 지휘하에 일원화했고 1908년 하반기부터는 전해산, 안규홍, 심남일 부대의 토벌에 집중했다. 1909년 7월에는 호남 지역의 정규군 병력을 종래 2개 대대에서 3개 대대로 증강시키고 전주와 남원, 광주에 본부를 설치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전남북 지역에 헌병임시파견소를 45곳으로 증설했는데 이는 의병들의 파악과 이동로를 차단할 목적이었다.

이 밖에도 의병토벌을 위해 일진회 등 친일세력을 이용했으며 헌병보조원 제도의 도입과 지역별 선유위원宣諭委員의 파견 등을 통해 의병에 호응하려는 민심을 위압하고 의병들의 귀순을 종용했다. 또 변장대變裝隊라는 것을 만들어 남한대토벌작전 직전까지 전남의 각 경찰서가 연합, 각 5명씩으로 구성된 3개 변장대를

운영했다. 이들의 목표는 전해산, 심남일, 안규홍, 양진여·양상기 부자 등 유력한 의병장들의 소재지와 근거지를 파악하는 일이었다. 의병장 양진여가 체포된 것도 이 시기였다.

하지만 일본군의 작전은 기대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이 결속해 군량과 자금을 제공하고 피신 중인 의병들을 숨겨주고 일본군의 이동경로 등 정보를 알려줬던 탓이다. 그래서 의병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한국 인들은 누구나 우리의 파수꾼”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의병들의 무력항쟁은 마치 달걀로 바위치기와 다름없었다. 비록 일부 의병들은 신식 총을 소지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화승총이나 도검으로 무장한 데 반해 일본군은 38식 소총 등 최신형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다.

또 일본군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근대식 전투에 익숙한 반면에 우리 의병들은 1907년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 뒤에 일부 군인들이 합류하기는 했으나 대부분은 평생 서생^{書生}으로 살아온 선비들이거나 농사일에만 종사해온 농부들이었다.

더구나 일본군의 토벌작전은 잔인하기 그지없었다. 의병과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되거나 전술적으로 의병에게 유리하다고 싶은 마을들은 가차 없이 불사르고 사람들까지 무참하게 살해했다. 이런 전술은 훗날 일본군이 중국 대륙에서 이른바 청향작전^{淸鄉作戰}이라는 이름으로 작전지역을 초토화했던 작전의 원형이 됐다.

일본군은 사전 정지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판단하자 1909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남한대토벌작전’에 돌입했다. 일본군 2개 연대가 전남 지역을 동부와 서부 지역으로 나눠 휩쓸고 지나갔다. 하지만 9월 초순의 토벌작전에도 불구하고 의병들은 건재했다. 일본 측 자료에 따르면, 이때 포위선이 너무 넓은 데다 의병들의 전투력도 여전히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1차 작전이 실패하자 일본군은 다시 9월 중순에 이전보다 훨씬 치밀한 토벌작전을 전개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기우만은 “적의 세력은 더욱 치밀하여 주재^{駐在}하는 병참이 별처럼 많고 주민을 강제로 징발하여 산과 들을 샅샅이 뒤졌다”고 했다. 당시의 상황을 황현은 『매천야록』에 이렇게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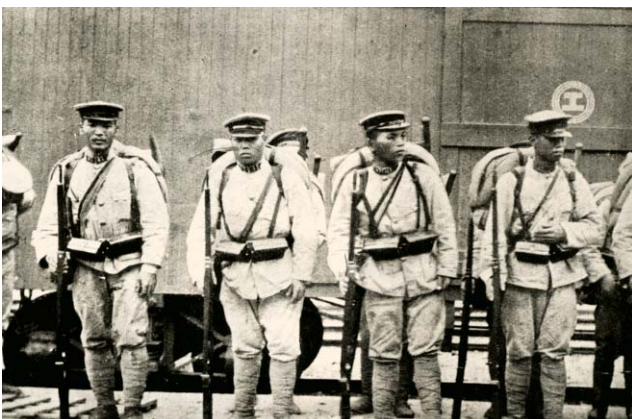
■ 일본군에게 10세 된 딸을 학살당한
어느 어머니의 울부짖음

© 『대한제국의 비극』

일본군은 그물을 치듯이 에워싸고는 마을마다, 집집마다 빗질을 하듯이 살살이 수색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살해했다. 그래서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고 이웃과는 완전히 차단된 채 왕래가 끊겼다. 의병들은 삼삼오오 도망쳐 흩어졌다. 하지만 미처 몸을 피할 데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 강한 자들은 의연히 적진에 돌진하여 싸우다 죽었고 약한 자들은 도망치다가 칼에 맞아 죽었다. 점차 쫓겨 강진과 해남에 이르러 더 이상 육로로는 탈출할 곳이 없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만 수천에 달했다. 물론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많았다.

토벌작전은 그해 10월 30일까지 지속됐다. 심남일(沈南一), 안규홍(安圭洪), 임창모(林昌模)와 임학규(林鶴圭) 부자, 강무경(姜武景), 김경윤(金京允) 등 의병장들을 비롯해 총 2,000여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생포되고 혹은 자수를 했다.

남한대토벌작전이 끝난 뒤 광주감옥과 재판소는 잡혀온 의병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 무렵 전남경무부 보안과장 이와이(岩井敬太郎)의 보고 내용을 보면, “수괴가 체포되고 연행된 부하의 수가 워낙 많아 재판소는 흡사 폭도심문소와 같다. 광주지방재판소는 오늘도 1백여 명의 폭도를 수용하여 취조하는 중이다.”고



■ 의병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일본군

© 『대한제국의 비극』



■ 군수물자를 나르는 조선인 노역에 지친 조선인과 일본군의 표정이 일제 50년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하다.

했다.

의병들 가운데 몇몇은 화를 모면했지만 1909년 12월 전해산은 장수군에서 밀정의 신고로 체포됐고, 양진여의 아들인 양상기 역시 남원에서 체포됐다. 그리고 생존자의 일부는 간도와 만주 등지로 탈출해 독립군으로 재편됐고 그 가족들은 이후에도 일제의 감시와 핍박을 받다가 더러 고향을 떠나 유랑생활을 하거나 신분을 숨긴 채 근근이 살아가야만 했다.

의병과 폭도도로

이 밖에도 생포되어 목숨을 부지한 의병들은 식발을 당하고 이른바 귀순자 교육이라는 구실로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해남에서 강진, 장흥, 보성, 낙안, 순천, 광양을 거쳐 경남 하동에 이르는 지금의 국도2호선도 이들 의병 포로들이 2년 남짓한 기간에 강제노역으로 건설한 신작로였다. 1914년에 발간된 『목포지리지』에 따르면, 광주~목포 간 국도1호선과 해남~하동 간 도로를 ‘폭도도로暴徒道路’라고 했다고 적고 있다. 생각건대 지금의 국도1, 2호선이야말로 우리 선인들이 항일 의병투쟁의 피와 눈물과 땀과 한으로 만든 도로가 아닐 수 없다.

■ 군사도시 광주의 어제와 오늘

전라병영에서 향토사단까지

예로부터 의향이나 예향으로 일컬어졌던 광주는 근대에 접어들면서부터 교육도시와 군사도시의 면모가 크게 부각되어 왔다. 특히 군사도시로서의 광주의 어제와 오늘을 더듬어보면 멀리는 조선 초엽의 전라병영에서부터 비롯하여 1990년대 후반 동양 최대의 육군교육기관이었던 상무대尙武臺에 이르기까지 광주와 군영과의 관계는 꽤 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전라병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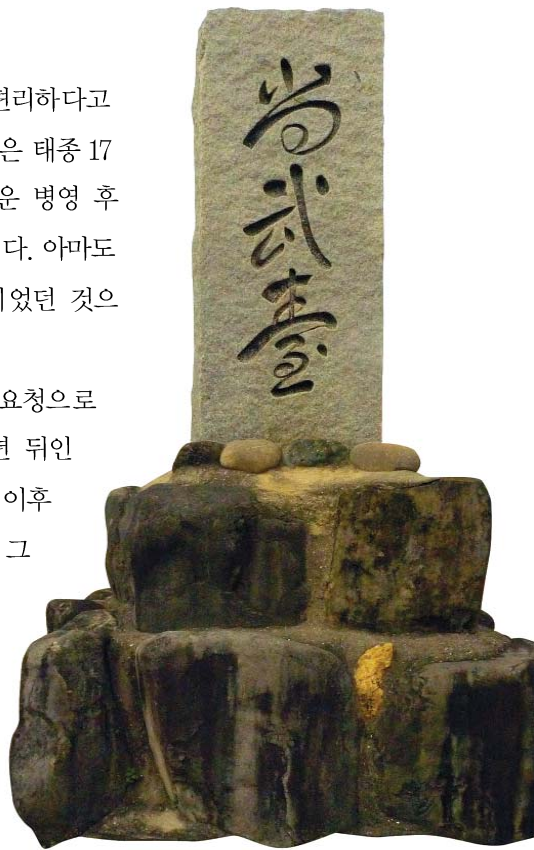
조선 초엽까지 광주에는 전라병영全羅兵營, 즉 전라병마도절제사영全羅兵馬都節制使營이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이 병영이 석성石城이고 둘레가 620보步라고 했다. 지금의 광주공항 주변 지역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성터는 오늘날 도시화와 오랜 농경으로 사라졌지만 아직도 몇 군데에는 성의 자취가 남아 있다. 본래 바깥은 돌로 쌓고 그 안은 흙을 차곡차곡 다져 쌓은 성이었다고 한다.

왜 이곳에 전라병영을 두었을까? 세종 9년(1427) 이진李震이란 사람이 올린 상소에 따르면 이곳은 주변이 평활해 교통이 원활하고, 넓고 기름진 들을 갖추고

있어 군마를 기르거나 군량을 확보하는 데 편리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 전라병영이 광주를 떠난 것은 태종 17년(1417)이다. 조정은 조흡曹晫을 보내 새로운 병영 후보지를 물색한 뒤에 병영을 강진으로 이전했다. 아마도 왜구의 침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조 32년(1599)에는 도원수 권율權慄의 요청으로 강진의 병영이 다시 장흥으로 옮겼다가 6년 뒤인 선조 35년(1604)에 또다시 강진으로 옮겨 이후 1895년 전국의 모든 병영이 해체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원래 송정동의 옛 전라병영 터를 고내상古內廂이라 불렀으며 1914년까지 행정구역상으로도 이곳을 고내상면이라 했다. 내상이란 지방에 주둔하는 군단을 일컫던 옛말로 옛 병영 터란 뜻을 가진 지명이었다.



■ 상무대 표지석
1952년 1월 6일 상무대 준공을 기념하여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글씨를 받아 새겼다.

광주진위대

조정은 1895년 7월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의 병영兵營, 진영鎭營 등 부대를 폐지하고 그해 9월에 육군편제를 새로 친위대親衛隊와 진위대鎭衛隊로 나누어 친위대는 서울에, 진위대는 평양과 전주에 각 1개 대대씩 배치했다.

광주에 처음으로 참령參領(오늘날의 소령에 해당)을 지휘관으로 하는 광주지방대가 설치된 것은 1897년 6월이었다. 대대 규모의 신식 군대로 휘하에 1개 중대가 광주에 상주했는데 초대 광주지방대 대대장으로는 참령 우기정禹冀鼎이 임명됐다. 그 밑에 중대장은 정위正尉(지금의 대위에 해당)가 맡았고 병력은 약 100명 정도였던 것 같다. 『매천야록』에 따르면, 당시 참령은 옛 병사兵使와 같아 관찰사와 같은

대우를 받았고 병사들도 자신들이 지방 관원들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믿었다.

1900년 7월 진위대와 지방대를 진위연대로 통합하여 전국에 산재한 부대를 5개 연대로 개편하는데 광주에는 진위 제2연대(본부 : 수원) 이하 3개 대대 가운데 전북 전주에 본부를 둔 제3대대의 관할 지역으로 1개 중대가 주둔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군이 승기를 잡은 뒤인 1905년 4월에는 전국에 있는 부대가 8개 대대로 재편되어 광주부대는 ‘진위보병 제4대대’라 불렸는데 이 부대를 통칭 ‘광주진위대’라고도 했다. 해방 후 국방경비대 창설 때 광주 연대를 제4연대라고 한 것도 여기서 연유한 것이다. 광주진위대는 옛 전남도청 건너편, 지금은 사라진 수협이 있던 자리에 주둔했다.

당시 광주에 주둔한 중대 병력은 100명 규모로 현대식 군대와와는 거리가 멀었고 또 정부 재정도 열악해 폐지된 옛 경양역과 그 속역驛驛이 보유한 역둔토의 수입으로 부대 경비를 썼는데 이 역시 빠듯했던 것 같다.

이런 와중에 1906년 6월 일본군이 광주에 왔다. 중대 규모였던 이 부대는 당시 광주에 체류 중인 일본인들의 보호, 그리고 의병 진압의 명목으로 배치된 것이었다. 일본군은 사직단 일대에 주둔했는데 당시 광주군수가 신성한 사직의 제단임을 들어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일본군은 이를 거부했다. 이때부터 광주에는 주권국가인 대한제국의 정규군 외에 일본군이 함께 주둔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1년 동안 이어지다가 1907년 8월에는 그나마 남아 있던 광주진위대마저 해산당하고 만다.

일본군의 주둔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으로 옛 전남도청 앞에 있던 광주진위대의 주둔지는 일본군 주둔지로 바뀌었다. 이 주둔지는 1917년 11월 마지막 남아 있던 일본군 1개 중대가 광주를 떠난 뒤로는 주로 일본군 헌병대가 사용했다.

이후 1919년 3·1운동 당시 소요진압을 목적으로 1개 중대가 송정리를 통해 왔다가 돌아갔고 1929년 11월 광주학생독립운동 때는 2개 대대가 광주에 주둔하는 등 필요에 따라 군 병력이 배치되다가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거듭된 패전이 이어지면서 광주가 군사요충지로 다시 부각됐다.

1945년 1월 일본은 본토방어계획을 담은 제국육해군작전대강(帝國陸海軍作戰大綱을

세우고 조선군사령부에 4개 전투사단으로 편성된 제17방면군方面軍과 조선군관구朝鮮軍管區를 창설했다. 제17방면군은 한반도 남부의 해안지역에 미군이 상륙할 것에 대비해 편성된 부대였고 조선군관구는 그 병참지원 부대였다. 또 4월에는 제주도의 방어를 전담할 목적으로 3개 사단으로 구성된 제58군이 별도로 창설되기도 했다.

광주·전남 지역에는 제17방면군의 예하부대인 제150사단(사단장 三島義一郎 중장)이 배치됐는데 이 사단은 1945년 4월 전북 정읍에서 창설돼 예하에 4개 연대를 두었다. 그해 5월에 편성된 제429·430·431연대, 그리고 6월에 창설된 제432연대가 그것이다. 이들 4개 연대는 흔히 호조부대護朝部隊라 불렸는데 이를테면 목포 일원에 배치된 제430연대의 통상명칭은 ‘호조 22504부대’였다.

150사단의 중추병력은 주로 일본 효고현兵庫縣 히메지姫路 출신자로 충원되었고 광주·전남 지역에서 차출된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보충됐다. 당시 광주에서 징집된 젊은이들은 부립도서관府立圖書館(전 제일극장 자리)에 있던 제7476부대(일명 대곡부대)에서 약식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장은 주로 호남소학교湖南小學校(현 광주세무서 자리) 운동장을 사용했다. 이후 150사단은 해안방어진지 구축에 동원되었다. 당시 서남해역에서는 선박이 격침되기도 했고 사병들에게는 전투상황이 아닌 데도 실탄이 지급되는 등 분위기가 긴박했으나 일체 정보가 차단되어 사태를 짐작할 수가 없었다. 다만 서남해역에 이미 연합군의 잠수함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해방 당시 150사단의 병력은 통틀어 14,000명에 달했다.

또 17방면군의 150사단 외에 조선군관구 예하에는 광주사관구光州師管區(사령관 下野一瑾 중장)가 설치돼 7,000명의 병력이 광주를 거점으로 전주, 나주, 송정리, 순천 등지에 배치됐다. 이때는 몸이 허약하거나 일신상의 사정으로 소집이 연기된 일본인들과 징병 연령에 미달된 19세 미만의 조선인 젊은이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남해안 방어진지 구축에 투입됐다. 광주사관구는 학동의 전남병무청 건물을 본부로 사용했는데 원래 이 건물은 세무감독국 청사로 1943년 12월 세무감독업무가 전남도에 이관되면서 건물을 광주사관구가 사용했다.

광주사관구 예하에는 광주·전남 지역 징병을 담당하는 광주병사구사령부光州兵事區司令部도 있었는데 사령부는 현 동구청 자리에 있었다. 이곳은 원래 1930년대 말엽부터 징병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병사부光州兵事部 자리였다.

1945년 8월 광복과 함께 광주·전남에 주둔해 있던 조선 청년들은 그리던 고향에 돌아왔고 일본군은 목포, 부산 등을 통해 철수한다. 17방면군의 경우, 그해 12월까지 대부분 철수하고 일부 병력만이 무기와 탄약 처리를 위해 잔류하다가 이듬해 4월에 모두 철수했다.

제4연대의 창설과 한국전쟁

1945년 9월 7일 서울에서 국군준비대가 창설된 데 이어 그해 9월 말경에는 광주에서 전남국군준비대(全南國軍準備隊)가 창설된다. 대장은 광주청년단 부단장 주봉식(朱奉植), 부대장은 김문용(金汶鏞), 대대장은 임갑인(任甲寅), 중대장은 이상환(李相煥)이 맡았다. 중대는 2개 소대로 편성되었는데 1소대장은 나철현, 2소대장은 김동열이었다.

주봉식은 일제강점기에 두 차례나 옥고를 치른 이 고장의 청년지도자로 강한 통솔력을 지닌 인사였고, 김문용을 비롯한 간부들은 학도병·징병 등으로 짧지만 일본군의 군복무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었다.

준비대의 본부는 학동에 있었는데 이전에 공장으로 쓰였던 건물이었다. 부대원들은 주로 이 건물 주변공터와 인근 마장(馬場)에서 훈련을 받았다. 군사훈련보다는 주로 우리말을 가르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오랫동안 우리말 교육이 단절되어 대부분의 청장년들이 문맹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글을 쓰고 익히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광복 후 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군사단체가 있었는데 국군준비대는 당시 광복군 국내 지대를 중심으로 군사단체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46년 1월 8일 미 군정은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창설하고 이 밖의 모든 군사단체를 사설 단체로 규정, 해산 명령을 내렸다(민족문제연구소, 『한국 근대사와 친일파문제』).

이로 말미암아 광주의 국군준비대는 상당수가 국방경비대의 제4연대와 국립경찰준비대에 편입했고 주봉식은 그 뒤 이범석이 이끄는 민족청년단장으로 있다가 우익단체들이 통합 결성한 대한청년단의 전남 지역 단장으로 활동했다. 부대장인 김문용도 군법무관을 거쳐 담양에서 형(김홍용)을 이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중대장인 이상환은 육군 영관급 장교로 예편했고 대대장인 임갑인은 변호사

로서 조선대 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한편, 1946년 2월 15일에 편성된 국방경비대 제4연대의 본부는 당시 광산군 극락면 쌍촌리에 있던 옛 일본해군 소년항공병 훈련소, 일명 요카렌(豫科練)의 숙소에 있었다. 이 4연대는 같은 해에 제주 모슬포에서 창설된 제9연대, 이듬해 여수 신월리에서 창설된 제14연대의 모태가 되기도 한다. 4연대 병력의 일부가 이들 연대의 창설요원이 됐기 때문이다. 또 4연대는 1948년 4월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수색리에서 창설된 제5여단의 예하부대가 되는데 그 5여단이 그해 5월 여단 본부를 광주로 이전했다.

그런데 제5여단 광주본부가 발족된 지 5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 여수의 14연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때 5여단 산하 4연대가 출동하여 이를 진압하는데 이 과정에서 4연대 안에 반란 동조 세력이 드러나 그해 11월에는 4연대의 부대 명칭을 20연대로 개칭한다. 이후로 우리 군은 반란과 연관됐다 하여 군대번호에 4를 넣지 않는 관행이 생겼다.

여순사건 이후 5여단 예하부대로 19연대와 21연대가 창설되는데 19연대는 이듬해인 1949년 1월 대전으로, 21연대는 2월에 삼척으로 이전했고 5여단 본부와 20연대는 1949년 6월 제5사단(초대 사단장 송호성 준장)으로 확대 개편되는데 사단본부는 계속 광주에 두게 된다. 5사단은 이후 지리산 일대의 빨치산 토벌에 주력하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경기도 방어에 투입됐다.

상무대

6·25전쟁은 광주의 군사적 위상에도 큰 변화를 일으킨다. 아직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가을 미군 공병대가 지금의 상무지구에 육군 훈련소를 착공한다. 그런데 이 상무지구는 원래 공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치평리 일대는 사방이 평탄한 지형으로 항공기 이착륙이 용이해 1920년대 말엽부터 이곳에 비행장이 개설되었는데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간이 비행장 구실을 했다.

그러다가 1938년 5월 총독부 체신국이 비행장 활주로를 수리해 항공우편 이착륙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더러 여객을 실어 나르게 됐다. 그러나 객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운임도 비싸 여객수송의 비중은 극히 낮았지만 그래도 1942년까지는 서울~이리(지금의 익산)~광주를 잇는 민간 항공노선이 유지됐다. 처음 주2회 왕복이 주3회로 늘어나면서 1938년에는 광주에 처음으로 항공 기상 정보를 위한 기상관측소가 세워졌다.

1942년에는 이 비행장을 일본육군이 인수한다. 그리고 1945년 2월 일본 이즈미(出水)에 있던 해군항공대가 해체되면서 남은 몇 대의 항공기들이 이곳으로 이전했으며 3월에는 광주 해군항공대가 편성됐다. 이 무렵부터 이 비행장은 통칭 ‘요카렌’(일본해군 비행 예과연습생 또는 해군 소년항공병을 줄여 부르는 말)의 양성기지가 되는데 이 요카렌은 일본해군이 전쟁 말기로 가면서 부족한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급조한 훈련제도였다. 당시 일본군의 자살 특공대인 가미가제(神風) 전사자들의 이력에 광주 치평리 비행장이 더러 등장한다.

이 무렵부터 상무지구 일원과 쌍촌리 주변 지역이 군용지로 편입되는데 1951년 미군 공병대가 지금의 상무지구를 훈련장으로 개조한 것도 이런 이점을 활용하려는 뜻이었을 것이다.

이 공사가 한창이던 그해 10월 당시 부산 동래에 있던 육군교육총감부(陸軍教育總監部)가 치평리 일대로 옮겨온 데 이어 동래의 육군 보병학교와 통신학교, 진해의 포병학교가 이전해 온다. 그리고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병·공병·통신·포병학교의 개소식을 거행하는데 이때부터 이곳의 육군교육시설을 하나로 묶어 ‘상무대’라 부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1952년 5월에 기갑학교, 1957년 7월에 항공학교, 1958년 9월 화학학교가 각각 이곳에서 창설되면서 동양 최대의 군사교육기관으로 발전했으며 이곳에서 각 병과 학교를 거쳐 간 육군 장교가 80만 명에 이룸으로써 우리나라 전투력의 산실이 되었다.

상무대는 단순한 군사교육기관 이상으로 광주 지역의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 교육을 받으러 오는 장병들과 주말마다 외출, 외박을 나오는 장병들로 인해 지역경제가 흥청댔다. 또 식자재를 비롯한 군수품의 구매 조달 등이 광주 경제에 적잖은 도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상무대는 1960년대 중반 비행장이 광산군 신촌리로 옮기기까지는 민간여객기의 공항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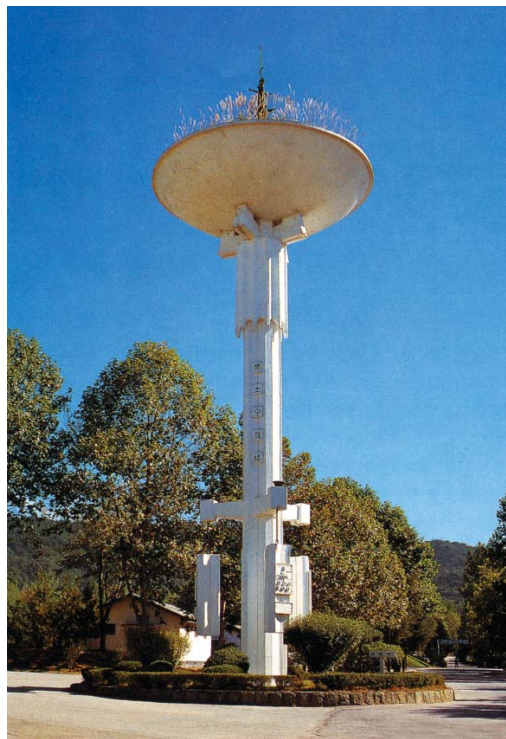
그러나 광주 시민에게 친근한 이 상무대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지휘본부로서 저항의 표적이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상무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5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장소로 만들자는 시민운동이 일기 시작했고 군 당국도 상무대의 주변 지역이 점차 도시화되면서 군사교육장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국방부는 1991년 3월 상무대의 일부를 시민공원으로 무상양도하기로 결정하고 각 병과의 훈련소를 1995년 1월 장성군 삼계면과 삼서면 일대로 옮겨갔다.

현재 광주에는 향토 방어사단인 31사단이 주둔 중이다. 원래 1955년 강원도 화천에서 창설된 부대로 창설 직후 오치동의 현 위치로 옮겨와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편, 광주에는 1960년대 중반부터 공군부대도 주둔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광주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치평동의 상무대 안에 비행장이 있었고 해방 후까지 민간 및 군용비행장으로 계속 사용했다.

그러던 1962년 옛 고내상 자리인 신촌동 일대로 비행장을 옮기고 동시에 활주로 등 시설규모를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64년에 활주로를 우선 완성해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해졌으며 이후 1967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는 민간여객의 수송과 함께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1967년 당시 일간지에 따르면, 이 기지는 적의 공격에 대비해 항공전력을 분산 배치하는 효과와 함께 전략적인 후방 집결지 역할을 하도록 건설됐다고 한다.



■ 향토수호탑
광주에 있는 보병 제31사단
영내에 있다.

© 『보병 제31사단 향토 수호사』

소용돌이치는 개화의 물결

일본인 행상들의 진풍경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광주에 들어온 것은 러일전쟁 직후부터였다. 광주에 온 초창기 일본인들 중에는 일본군이나 관청에 군수물자나 조달물품을 제공하는 어용상인들이 많았다. 이 무렵부터 광주에는 일본색이 완전해지면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외래문화가 차츰 눈에 띄었다.

금융기관으로는 1906년 6월에 광주농공은행, 1907년에 광주지방금융조합이 영업을 시작했다. 전남공립소학교가 광주공립보통학교로 교명이 바뀌고 사립학교인 숭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도 이 무렵에 개교했다. 근대식 병원으로는 제중병원이 1905년 11월에 문을 열었고 1909년에는 옛 전남도의회 의사당 자리에 자혜병원이 개업했다.

이 무렵 광주에 온 일본인들은 대부분 행상이나 고리대금업인 전당포를 경영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기록에 남아 있는 광주 최초의 일본 상인은 1905년 4월 광주에 와 훗날 충장로2가에 잡화상을 차린 교토 출신의 이즈츠井筒甚三郎였다. 그리고 마쓰다松田徳次郎, 소바相馬興作, 우오타니魚谷興藏, 사쿠마佐久間時三郎 등이 뒤를 이었다.

마쓰다는 호남동에서 양조장을 차려 이를 광주주조회사로 키웠으며 광주면장

■ 충장로5가에 있던 전당포
일본 이주민들은 행상을 하거나
대금업을 하여 돈을 모으기 시작
했다.



을 역임했다. 운수회사와 전당포를 경영한 소바는 나중에 광주상공회의소의 회
두會頭 회장을 지냈다. 우오타니는 광산동과 충장로2가에 대형 잡화점인 시오야鹽
屋上점을 냈으며 역시 광주상공회의소 회두를 역임했고, 사쿠마는 지금의 동명동
일대에 대규모 과수원을 차려 농사를 지었다.

1908년 5월에는 일본식 숙박업소인 동운여관東雲旅館이 충장로에서 개업을 했
고, 같은 해에 황금동의 학생회관 자리에 일본 요정인 키타무라로北村樓가, 1911년
5월에는 불로동의 서남대 부속병원 자리에 하루노야春乃家が 각각 문을 열었다.
술 소비가 늘면서 1907년 10월 마즈다松田양조장을 비롯한 몇몇 양조공장들이 생
겨났다.

우오타니는 1931년 5월 <목포신보>에 초기 일본인들의 광주 정착과정을 다음
과 같이 회고했다.

1906년 3월 29일, 이날은 내가 목포에 상륙한 날입니다. 그날 목포에 함께 왔
던 친구는 현재 목포 아사히旭 어시장魚市場 주식회사 사장인 이시모리石森政台 군으
로 그는 목포에 주저앉았으나 나는 1주일 정도 목포에 체재하여 여러 가지 조사를



■ 가운데 이등방문과 오른쪽 이토의 부인이 한국의 친일고관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있다.

© 『한국화보』, 동아일보사 발행

했는데 목포는 이미 많은 내지인(内地人) 일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해군에서 막 돌아온 나로서는 다른 사람이 개척한 곳에 있기보다는 신천지를 개척하리라 결심하고 니시노(西野六郎)(뒤에 만주 심양으로 이주)와 함께 4월 3일 목포를 떠나 영산강을 거슬러 영산포에 도착, 마루만(丸萬)여관에서 점심을 먹고 그곳에서 호리(堀井三郎)를 만나 셋이서 광주로 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영산포 우편국장인 고노(河野喜三郎)(뒤에 영산포에 정착하여 대지주가 됨)

의 호의로 말도 통하지 않는 두 명의 조선인을 길라잡이 삼아 나주로 가서 남평을 지나 광주에 당도한 것은 오후 7시경이었습니다. 당시 광주천의 건너편에는 아마 모토山本라는 사람의 여관 겸 식당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더욱이 그날은 강행군을 했기 때문에 호리이 씨가 매우 피곤했지만 어깨를 부치고 광주천을 건너 우편국을 찾아가 국장 관사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던 것이 생각합니다.

당시 우편국은 황금정黃金町 산다과자점三田菓子店 앞에 사무소가 있었고 그 뒤에 작은 관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니시노 씨와 둘이서 군산, 경성, 평양 등 조선 각지를 시찰했으나 기후가 좋은 광주를 영주永柱의 땅으로 정하고 그해 5월 10일 현재의 분점分店(광산동 구도청 옆) 부근에 니시노 씨와 함께 잡화상을 개업하고 시오야細屋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즈음 광주에는 수십 개의 일본인 상점이 있었으나 지방 각지에서 자주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이 있어서 가게는 번창했습니다. 당시 광주는 나주로부터 관찰부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주 쪽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2~3년 뒤에 목포이사청朴浦理事廳 지청支廳이 개설됐고 다히아平渡信가 부이사관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또 오쿠무라奥村五百子가 세운 오쿠무라 실업학교의 이야기와 광주소학교의 개설 등 차례로 생각을 더듬어 보면 끝이 없고 오늘날의 변영과 지난날을 비교해 보면 금석지감今昔之感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상인들은 처음에는 일본군에 군납을 하거나 이주민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다가 차츰 한국인 가정이나 거리를 돌며 행상도 했다. 이들은 물품을 목도에 매고 다니며 “시구지루무(석유기름)나 단손양(唐성냥) 사시오”, “고리언(捲煙)이나 사단(砂糖)이요”, “실이나 바누루(바늘) 사시오”라 외치며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볐다.

이들이 파는 상품들은 주로 비누, 머릿기름, 주머니칼 등으로 한정됐으나 점차 석유, 성냥, 광목廣木, 거울, 가위, 염료, 금계랍(키니네라고 하는 말라리아 치료약) 등 종류가 다양해졌다. 이런 상품들은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신기하고 새로운 것들이었다. 그중에서 성냥과 석유가 특히 인기를 끌었다. 기록에 따르면, 성냥은 1879년 일본을 다녀온 통도사의 승려 이동인이 처음 가져왔고, 석유는 1880년 램프(석유등)와 함께 들어왔다고 한다.

상가로 탈바꿈해가는 충장로

당시만 해도 여염집 아낙네들은 시장 출입이나 거리 나들이에 제약요인이 많았다. 따라서 일본인 행상들이 들고 다니는 잡화들은 그들의 눈을 홀리기에 충분했다. 일본인 행상들은 뛰어난 상술로 안방까지 파고들어 아낙네들의 구매욕을 자극했다. 이에 따라 잡화류의 수요가 급증하여 행상들은 돈을 모았고 차츰 광주우체국을 중심으로 광주읍성 안에 상가를 형성해 나갔다. 일제시대 중엽까지 충장로에서 거상으로 행세하던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렇게 빈손으로 광주에 와서 행상으로 기반을 잡은 사람들이었다.

이 무렵 일본인 행상들의 모습이 진풍경이었다. 여름철에는 남자들이 홑옷(유카다)에 훈도시(기저귀 같은 가리개) 차림의 반나체로 충장로를 활보하고 다녔다. 일본 여자들도 유카다 차림이었는데 길을 가다가도 급하면 유카다 자락을 허리까지 걷어 올리고 엉거주춤하게 앉아서 마구 소변을 보는 광경이 자주 눈에 띄어 조선인들의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더구나 러일전쟁 이후로 더욱 기고만장해진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추태를 부려 한국인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 많았다. 이를 의식한 경찰은 위경죄목(爲警罪目)이라는 것을 만들어 나체나 윗도리를 벗어 알몸으로 있는 자, 사타구니를 노출하는 등 추태를 부리는 자, 노상에서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밤 10시 이후에 음주가무를 하는 자 등을 풍기문란죄로 단속하기도 했다.

행상으로 기반을 다진 일본인들은 점차 광주읍성의 북문으로 통하는 거리 일대, 즉 지금의 충장로에 점포를 차리기 시작했다. 우오타니의 시오야 상점 외에도 당시 충장로에는 잡화상으로 야마가와(山川虎司), 마도바의場榮作, 스기우라(杉浦辰馬)가 잡화상점을 냈고, 아사쿠라(朝倉重次郎), 이치키(市來正太郎)가 건축자재와 철물 상점을 냈으며, 좌코(雛子政夫)의 가가야(加賀屋)와 우에키(植木泰)의 우에키야(植木屋) 등 문방구 점도 이 무렵에 등장했다.

당시 일본 이주민들 사이에는 조선인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인 전당포가 성행하기도 했는데 그들 가운데는 담보로 부동산을 잡고 상환 날짜에는 의도적으로 채무자를 피한 뒤 채무이행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조선 사람에게 계약위반이라며 담보물을 차지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이 밖에도 그들이 크게 치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병 토벌을 위해 광주·전남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수비대에 납품하는 각종 군수물자와 광주 등 주요 도시 관공서의 각종 물품 공급을 독차지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축적된 자본으로 그들은 토지를 수탈하고 나중에는 충장로 일대에 진출해 이 거리를 사실상 일본 상권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이때 충장로2가에는 앞서 적은 바와 같이 일본인 여관인 시노노메(東雲)여관과 키타무라로(北村樓)(지금의 학생회관)라는 요정이 생겨 눈길을 끌었다. 이곳에서는 전남의 기름진 쌀로 빚은 마츠다(松田) 주조장의 사케인 국일광(菊日光)을 마시면서 밤이면 샤미센(三味線) 소리와 게이샤(藝妓)(일본 기생)들의 간들어진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풍경과 아울러 일본 행상들의 ‘당고(팔단자)나 모찌요’, ‘호야 호야 갠마이빵(뜨끈뜨끈 현미빵)이오’ 라고 외치는 소리와 제다(일본 나막신) 소리가 조용한 광주 성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5리 보고 10리 가는 상인정신

일본 상인들은 신기한 상품들 말고도 철저한 서비스와 장인 정신이라는 새로운 직업문화도 가지고 들어왔다. 일본인들은 자신의 상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친절했으며 물건을 주문하면 정확하게 배달해주고 다른 물건까지 가져와 구매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외산 판매도 했다.

그들은 우동 몇 그릇, 빵 몇 개라도 거리를 가리지 않고 배달을 했다. 당시 우동 배달을 위해서는 세 번을 가야 했다. 첫 번째는 우동을 가져다주기 위해, 두 번째는 빈 그릇을 찾으러, 세 번째는 음식값을 받으러 가야 했다. 그야말로 5리를 보고 10리를 가는 철저한 상인정신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들의 상거래는 대금이나 물품은 막론하고 약속한 기일을 지키는 데 어김이 없었고 애프터서비스도 철저했다. 양복의 경우 한 번 맞추면 해질 때까지 중간에 실밥이 터지거나 소소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친절하게 손을 봐줬다. 이런 영업방식은 철저한 도제(徒弟) 생활을 통해 몸에 밴 것이었다. 현재 조선대학교 동창회관 자리(충장로1가 27번지)에 있던 와타나베(渡部) 양복점이 유명했는데 보통학교(지금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양복점에 취직하면 처음엔 물도 길고 청소나 굿은



■ 정월 초하룻날
예복을 입고 신사참배에 나선 일본인
공무원 가족

일을 하면서 겨우 밥을 얻어먹고 봄가을로 옷이나 한 벌 얻어 입는 것이 상례였다. 그렇게 1년쯤 지나면 ‘아이론’ (다리미)을 불에 달구는 법, 바지를 다리는 법, 단추 구멍을 내는 법, 단추를 달기까지 1년여, 그렇게 2~3년이 지나야만 겨우 바지 하나 만드는 일감을 맡았다. 그 다음은 옷웃을, 그리고 조끼를 거쳐 마지막으로 코트를 배웠다.

이렇게 8~9년이 지나면 결혼을 시켜 변두리에 조그마한 점포를 내주어 자립할 수 있도록 했고 주인가게의 상호를 쓰도록 허락했다. 즉, 새롭게 와타나베 양복점 지점이 하나 생기는 것이었다.

이렇게 어려운 수습과정을 거친 일본의 직업인들은 비록 아무리 가난해도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강한 자긍심, 이에 버금가는 완벽한 기술을 갖춘 탓에 늘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며 살았다.

해방 후에 총장로에는 수많은 양복점이 들어섰는데 이들 가운데 수준 높은 기술을 자랑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 와타나베 양복점 출신이었다.

■ 항일독립운동

민족계몽운동

국채보상운동

외국인들을 통해 새로운 문물이 도입되고 개화의 물결이 일면서 개화 인사들의 항일운동도 국민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계몽운동의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 대표적인 움직임 중 하나가 최성기(崔聖基, 광주 지방 국세청장을 지낸 최태근(崔泰根)의 부친), 최종섭(崔鍾涉, (체육인 최호연(崔昊衍)의 부친), 김인수(金仁洙,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양균의 조부) 등을 중심으로 결성한 잠농사(蠶農社) 운동이었다.

이들은 황금동의 옛 제일극장 건너편에 다섯 칸짜리 기와집을 짓고 여기에 잠농사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현재 충장로3가 38번지 자리다. 이 잠농사는 국력배양을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영농법과 잠업기술을 보급하여 당시 산업의 중추였던 농업의 근대화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광주의 개화 인사들은 잠농사 운동 이외에 당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던 국채보상운동에도 앞장섰다. 이 무렵 일본은 우리의 통화 발행권까지 장악하여 조선의 식민정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우리 정부에 부담시켰고 이 과정에서 자금부족을 겪는 우리 정부에 일본 은행의 차관을 얻어 쓰도록 유도함으로써 1907

년에만 우리나라가 일본에 1,300만 원이란 빚을 지게 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구에서 서상돈(徐相敦)과 김광제(金光濟) 등 지역의 선각자들이 이 빚 때문에 장차 국권이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하여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이 빚을 갚아버리자는 캠페인, 즉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켰다. 이 운동은 곧 전국적인 호응을 얻었다. 광주에서도 총장로3가의 옛 광주은행 본점 건너편에 있던 대동의무소(大同義務所)가 주도하여 국채보상기성회(國債補償期成會)가 발족되었는데 그 취지문은 다음과 같다.

슬프도다. 전남 동포여. 오늘날 우리나라 정세를 아느냐. 내 땅을 경작하며 내 집에 사니 누가 감히 나를 모욕한다 할지 모르나 많은 밭과 집이 우리 것이 아니며 우리 몸도 설 땅이 없으니 통탄스럽다. 아는가, 무릇 나라는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 대중의 것이요, 2천만 동포의 것이다.

빚이란 어려운 지경에서 얻어 쓰는 것인지를 갚기가 쉽지 않으며 결국에는 집까지 내주게 되는 법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빚이 어찌 2천만 동포의 빚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갚지 못하면 삼천리 강토를 어찌 편안히 보전하겠느냐. 등지가 없어지면 그 속에 담긴 알이 온전할 리 없듯이 우리 강토의 2천만 동포 역시 어찌 편안하게 삶을 즐길 수 있겠는가.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외국차관이 1천 3백만 원임을 동포들은 생각할지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힘은 곤경에 빠져 있고 민중의 발걸음은 어디로 가야할는지 방향을 모르니 그 빚을 보상할 책임이 개개인의 어깨에 있다. 이 문제는 대구(大邱)의 광문사(廣文社)가 제기하여 모두가 여기에 호응하니 전국이 뒤흔들리는도다. 심지어 어린 아이, 병어리, 바보들도 힘에 따라 의연(義勇), 국채보상에 보태니 우리들은 이에 만세를 부르고 머리를 숙인다. 생각하니 이렇게 한다면 1천 3백만 원이 무슨 어려움이 될 것인가.

그런데 누구누구 몇 원 혹은 몇 전씩 냈다는 소식이 매일 신문에 실리는데 오직 전남 사람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도다. 모두 하늘이 주신 충의(忠義)의 마음으로 시냇물이 모여 바닷물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조국이 튼튼한 반석 위에 자리를 잡을 터이니 힘쓸지이다.



■ 1910년대 총정로 모습
오른쪽으로 우체국과 광주농공은행이
보인다.

당시 광주 지역 국채보상운동의 모태인 대동의무소에는 소장에 김홍두金弘斗, 위원에 최종섭, 최성기, 서병기徐丙冀, 김성중金成仲, 김인수, 한남수韓南洙 등이 참여했다.

좁도리와 빈찬 줄이기 운동

대동의무소의 국채보상운동은 고을마다 마을마다 퍼져나갔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운동에 호응하여 담배를 끊고 술값을 아껴 현금을 했다. 서창면에서는 면장이희범(대한협회 회원)이 중심이 되어 연설회를 열고 국채보상으로 국권을 바로 잡자고 호소했으며 이에 감동한 부인들이 은비녀와 금반지를 즉석에서 헌납했다. 어떤 부인은 집에 있는 덕석(명석)을 이고 가서 팔아 현금을 했다. 또 품을 팔거나

가계를 절약하여 보상운동에 참여했으며 하루에 쌀 한 주먹씩 모으는 줌도리 운동과 밥상의 찬을 줄이는 감선^{減膳}운동까지 전개했는데 특히 줌도리 운동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네 상부상조의 대표적인 미풍양속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근래 우연한 기회에 줌도리 운동의 애달픈 사연을 듣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남정네들이 나라를 위해, 고을과 이웃을 위해 선뜻 줌도리 운동에 나서지만 막상 한 줌 떨어진 만큼 밥을 덜어 내야 하는 밥그릇은 오직 우리 어머니들의 밥그릇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어머니들은 시부모의 밥그릇에서 밥을 덜어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이었고 더구나 남편이나 자식들의 밥을 덜어내느니 차라리 굶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 줌도리 운동은 우리 어머니들의 숨은 희생을 강요하는 셈이었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스스로 이를 감내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이 광주에서만 1만여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운동이 바로 일본에 항거하는 운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일본이 그냥 놔둘 리 없었다. 먼저 그들의 앞잡이인 일진회를 동원하여 모금운동을 여러 형태로 방해했고 일본 군경이 직접 나서 노골적으로 탄압하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일본경찰 고문부의 사도하라^{佐土原 巖熊}가 당시 순검으로 있던 최흥종에게 국채보상운동의 주모자를 체포하고 최성기 상점(지금의 충장로3가)에 걸려 있던 대동무소의 간판을 떼어 오도록 했다. 이에 최흥종은 고민 끝에 경찰서에 수감 중인 의병장 백낙구와 의논하여 이 지시를 밖으로 흘려 간판을 내리고 관련자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일이 있고나서 최흥종은 순검을 그만뒀다.

그리고 이로써 광주의 국채보상운동도 사실상 막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이 운동은 비록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지역민에게 나라의 일을 함께 걱정하는 국민적 자각운동을 불러일으킨 민족사적인 의의를 지녔다 할 것이다.

광주와 3·1운동

1919년의 3·1운동은 신분과 계층, 종교와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은 거족적인 저항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근대사에 큰 획을 그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이었다.

그 배경을 짚어 보면 첫째, 우리 국민의 울분을 사게 했던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 토지조사사업의 최대 피해 지역이 바로 농도인 우리 광주·전남이었다는 점과 둘째 3·1운동의 단초가 되었던 동경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을 들 수 있는데 이 선언의 주역들 중 상당수가 이 고장 출신이었다는 점이다.

저항의 징후들

1910년에 시작해 1918년에 마무리된 토지조사사업은 복잡하고 불분명한 토지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밝혀 향후 토지를 상품처럼 쉽게 거래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결국 땅을 빼앗겠다는 계산이었다. 수많은 농민들이 국·공유지에서 대대로 인정받아왔던 경작권을 잃게 됐고, 문중이나 마을 소유지, 심지어 개인 소유지조차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빼앗았다.

총독부는 이렇게 해서 빼앗은 토지를 동양척식회사에 넘김으로써 동척은 곧 국내 최대의 지주가 되었다. 이 밖에도 광주 인근에서는 전남식산(全南殖産) 등 수많은 일본인 영농회사들이 광대한 농토를 소유했고 광주 시내의 토지는 시모야마(下山爲次, 후지마키(藤卷賀六, 삼평조(森平組) 등 몇몇 일본인과 회사가 상당 부분을 혈값에 매입해 대지주가 됐다.

또 1910년 강점 직후에 일제가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인 목화와 뽕나무 묘목의 강제 재배도 농민들의 원성을 샀다. 여기에 농번기와 상관없이 툭하면 동원되는 도로공사의 부역도 농민들에게는 일제침탈의 직접적인 피해 중 하나였다. 일제는 우리 미풍양속 중 하나인 울력(공동의 이익을 위한 노력봉사)을 노동력 착취의 수단으로 악용했던 것이다. 강점 직후인 1911년부터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까지 전국에는 2,600km의 도로가 개설 또는 보수됐는데 이 공사에 무료로 동원된 인력은 주변 지역 농민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농지 수탈과 강제 면화 재배, 강제 노역 등으로 농민들이 시달리고 있을 때 가뜩이나 흥흥한 민심을 들끓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1919년 1월 덕수궁에 머물던 고종이 갑자기 승하했는데 이는 일제에 의한 독살이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더욱이 고종의 죽음을 목격한 시녀 두 사람까지 의문의 죽음을 당

하면서 독살설은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광주의 3·1만세운동

이러한 상황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패전국이 지배했던 나라와 민족의 자결권을 천명했으며 동경유학생들은 이 메시지를 한국 독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킬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1919년 2월 8일 도쿄의 조선인 기독교 청년회 강당에서 유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대한독립선언문을 낭독했는데 이것이 3·1독립만세운동을 촉발시킨 동경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운동이었다(『2·8독립선언과 최원순』).

이 운동에는 정광호鄭光好(해방 후 광주시장과 제헌국회의원을 역임)와 최원순崔元淳(동아일보 편집국장 대리 및 논설부장, 광주지국장 등을 지냄) 등 광주 출신 인사들이 적극 가담했는데 당시 정광호는 이 선언문을 광주 지역에 전달했고 최한영崔漢永과 김복수金福朱 등이 이를 등사해서 배포했다.

그리고 3월 5일 김철 등 17명의 인사와 기독교인들이 양림리의 남궁혁南宮赫 집에 모여 거사일을 광주의 큰 장날인 3월 8일(음력 2월 7일, 당시 장은 음력에 맞춰 섰다)로 계획하고 각각 집행계획을 분담했는데 선언서 및 태극기 준비에 최한영, 일반시민 동원 서정희, 기독교인 동원 김강, 수피아여학생 동원 홍승애, 송일중학생 동원 최병준, 기타학교 학생 동원 김봉렬, 최영균, 김용규 등이었다. 그러나 준비차질로 말미암아 실제 거사는 작은 장날인 3월 10일(음력 2월 9일)에 일어났다. 이날 처음 만세운동이 일어난 작은 장터는 지금의 부동교(광주천) 일대의 넓은 벌판이었다. 오후 2시 사직공원에서 울려 퍼진 송일학교 학생의 나팔소리를 신호로 송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의 학생과 동네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농업학교 학생들과 시민이 작은 장터로 몰려 나왔는데 시위 군중이 천여명에 달했다. 당시 지산면 일곡리와 생룡리의 이씨와 범씨, 노씨 문중들까지 상당수가 여기에 합세했다.

이들은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노래를 불렀는데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터졌구나 터졌구나 조선독립성(朝鮮獨立聲)

십 년을 참고 참아 이제 터졌네
삼천리 강산에 이천만 민족
살았구나 살았구나 이 한소리에
만세 만세 만만세요
조선독립 만만세라

- 최한영 구술

이 시위 행렬은 중심가를 돌아 광주경찰서(옛 충장서점 자리)까지 물려갔는데 이곳에서 일경과 긴급 출동한 헌병대의 무력진압으로 1백여 명이 체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일경의 모진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만세운동은 11일과 큰 장날인 3월 13일(음력 2월 12일)에도 이어져 1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일제는 1개 중대의 군 병력을 광주에 급파하여 운동에 관련된 인사들을 체포했다. 그러나 4월까지도 광주 보통학교 등지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고 비아·하남·임곡면 등 근교 지역에서는 밤에 산봉우리나 들에 봉화불을 올리는 등 크고 작은 만세 운동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관련자들이 고초를 겪었으며 일부는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 단체에 합류하기도 했다. 3·1운동은 광복 때까지 저항운동의 불씨가 되었다.

당시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른 애국지사는 다음과 같다.

징역 3년 : 김 철, 정광호, 범운두, 김용규, 한길상, 최정두, 박일구, 김윤희,
이창호, 김태열, 김범수, 강석봉, 최병준, 김 강, 최한영

징역 2년 : 김정수, 송기호, 황상호, 정두범, 노천묵, 김철주, 송홍진, 조보근

징역 1년 : 박애순, 진신애, 송광춘(대구감옥에서 옥사)

징역 8월 : 김화순, 윤순임, 이옥희, 박영자, 최정동

징역 6월 : 이나열, 이태옥, 김덕순

수피아 송일의 만세운동

3·1독립만세운동의 중심을 이루었던 기독교는 광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 최수향 학생
3·1독립운동에 최연소
자(당시 16세)로 옥고를
치렀다.

김강金剛, 최병준崔丙俊 등은 모두
송일학교 교사로 독실한 기독교인
이었으며 전남 최초의 신문을 발행
한 기독교병원 직원 황상호黃尙鎬도
당시 북문안교회 장로로 오랫동안
당회 서기로 사역하다가 뒤에 목사
가 되었다. 또 광주독립만세운동의
거점이 되었던 곳이 바로 남궁혁
목사의 양림동 자택이었고 광주만
세운동 당시 기독교계의 중심을 이
루었던 것도 수피아와 송일학생 및
기독교인들이었다.

김철, 최한영 등이 광주거사를
결의한 다음 날인 1919년 3월 6일
같은 장소인 남궁혁 목사 집에서

송일학교 교사 최병준, 수피아여학교 교사 박애순 등 12명이 학생들과 기독교인들의
거사를 결의했고 수피아 학생들은 기숙사 지하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태극기를
만들었는데 고종황제 인산 날 입었던 소복을 뜯어서 한 사람이 10매씩을 만들었다.

거사 당일에는 최병준과 박애순이 송일·수피아 학생들에게 독립선언서를 20
매씩 또는 50매씩 배포하여 만세 시위행진 때 장꾼들에게 태극기와 독립선언문
을 나누어 주었으며 시위를 선봉에서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16세 이상의 학생과
교사 22명이 체포되어 모진 옥고를 치렀다.

다음은 당시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른 교사와 학생들이다.

징역 1년 6월 : 박애순(23세 선생)

10월 : 진신애(20세 선생)

8월 : 홍순남, 박영자

4월 : 김필호, 임진실, 박성순, 임태옥, 양순희, 윤혈여, 김덕순,

조옥희, 하영자, 김인순(수피아 출신 간호부)

징역8월 집행유예2년 : 최경애, 양태원

징역4월 집행유예2년 : 고연홍, 김양순, 이봉근, 강화선, 이나혈, 최수향

조선독립 광주신문

3·1운동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던 1919년 3월 13일 신문이 발행되었다. <조선 독립광주신문朝鮮獨立光州新聞>이라는 제호로 발행된 이 신문은 1면에 서울서 발행되는 ‘조선독립’ 신문의 주요내용을 받아 실었는데 당시 민족 대표 손병희 등 33인의 대국민 호소와 일제에 의한 고종황제의 독살설,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자결론에 입각한 민족의 결기를 촉구하는 내용이었고 2면에는 3월 10일의 광주만 세운동을 상세하게 보도한 것이었다.

광주대교의 장터로 몰려드는 군중의 양상과 시위의 주체, 행진 경로, 독립만세를 외치며 열광하는 군중들의 모습, 왜경들의 무력진압으로 피투성이가 되는 광경들을 울분과 감동으로 묘사했다.

발행인은 황상호黃尙鎬로 제중병원(현 기독교병원)의 경리 직원이었다. 그는 독립운동을 민중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발행인 명의를 황송우黃松友라는 가명으로 지하 신문을 발행했는데 제호는 서울의 <독립신문>을 본뜬 것이었다.

판형은 시험지 크기의 9절지2매로 약제사인 홍덕주洪德周, 장호조張鎬鎬와 셋이서 밤을 세워가며 등사판으로 밀었다. 발행일은 광주거사 다음 날인 1919년 3월 11일이었으나 배포되기는 광주 큰장날인 13일의 제2차 만세시위 때였다.

이 신문은 삼시간에 손에서 손으



로, 입에서 입으로 민중들에게 전파되었으며 최대의 화두로 회자되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지령 4호로 막을 내렸다. 왜경에게 발각되어 세 명 모두가 체포되었으며 발행인 황상호는 징역 3년, 홍덕주·장호조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아 모진 옥고를 치렀다.

2·8독립운동과 최원순

3·1운동의 전기가 되었던 일본 도쿄 유학생들의 2·8 독립운동은 이 고장 선각자들이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최원순 崔元淳, 1891~1936이다. 호가 석아 石峇인 최원순은 도쿄 2·8독립운동의 주역이었을 뿐 아니라 항일 언론인이며 향토의 계몽운동가였다.

최의준 崔儀俊의 3남 중 차남으로 태어난 그는 광주공립보통학교 4회 졸업생으로 정광호 鄭光好, 장영규 張永圭, 김희술 金熙述, 김명수 金明洙 등과 동기였다.

그는 경성고등보통학교 사범과에 진학, 수학하는 동안 이상재, 한용운, 주시경, 최남선 등을 찾아 역사 연구에 정진했으며 방학 중에는 광주에 내려와 신문잡지종람소에서 최춘열 崔春烈, 강석봉 姜錫峰, 이이동, 최한영 등과 함께 계몽활동에 앞장섰다. 그러나 경성고보 사범과 졸업을 한 달 앞두고 그는 교내 항일사건으로 퇴학을 당하고 만다.

최원순은 1916년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위한 군인 양성기관인 군사학교를 설립하는 일에 참여했으나 동지 김명수가 사망하고 철석같이 믿었던 자금조달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 최원순(1891~1936)
독립운동가이며 언론인으로
서 지역계몽운동을 선도한
선각자이다.



만주에서 돌아온 그는 일본에 건너가 도쿄 조선인 YMCA에서 일하면서 와세다대학에 진학, 고학으로 학업을 계속한다. 이때 도쿄 유학생들은 나름대로 사상 체계를 가질 수 있는 지식인층으로서 거의 조선인 YMCA에 참여하고 있었다.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토론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민족 사상을 보다 심화시키고 있었다.

일본을 뒤흔든 항일의 함성

이들은 1918년 11월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세계평화를 위한 민족자결론을 제창하자 크게 고무되었다. 민족자결론에 의해 조선이 독립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무렵인 12월 15일자 도쿄 <아사히 신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인들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30만 원을 모금하였다는 소식을 보도했는데 이 뉴스는 도쿄 유학생들의 항일의지를 북돋아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김안식(金安息, 明治大, 강진 출신)과 김현준(金賢準, 東洋大, 나주 두 학생은 최원순(崔元淳, 早稻田大, 광주)과 정광호(鄭光好, 明治大, 화순), 장영규(張泳圭, 광주의 하숙을 찾아 항일투쟁 전선을 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최원순·김현준 두 사람은 전라도 출신이며 선배인 백관수(白寬洙, 正則英語學校, 고창)를 찾아가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받았고 이 자리에서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세 규합에 나서기로 하였다.

그들은 각종 유학생 모임이나 행사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갔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시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에서는 독립운동의 방안으로 조선독립을 선언하고 그 선언서를 일본 각계 요로와 각국 대사·공사관에 발송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회합이 있었는데 일경이 이를 수상히 여기기 시작했다. 1월 7일 도쿄 YMCA 회관의 모임에서는 참가학생 12명이 경시청에 연행되어 집중 조사를 받았지만 무사히 석방되었다. 다음 날인 1월 8일에는 유학생 200명이 모였으나 일경의 저지로 강제해산 당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요 멤버들은 경찰의 미행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조선청년 독립단>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독립단에는 백관수를 수장으로, 최원순, 최팔

용(崔八鋪, 김철수(金鐵珠, 이광수(李光洙, 김도연(金度演, 정광호, 변희용(卞熙鎔(박순천 여사 남편) 등 21명의 도쿄 유학생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이 독립단의 명의로 독립 선언문과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조직, 자금, 선언문 작성 등 3개 분야로 역할분담을 했다.

이에 따라 최원순, 정광호, 최팔용, 김도연 등은 유학생들을 결집하여 조직화하는 일을 맡았고 김현준과 김안식은 자금을, 이광수는 선언문 작성을 맡았다. 주야 3일간에 걸쳐 만들어진 역사적인 2·8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은 백관수 등 몇 사람들의 독회를 거쳐 확정됐다.

이 독립선언문에는 최팔용, 윤창석, 백관수, 이선근, 김도연, 이광수, 송계박, 최근우, 김철수, 서춘, 김상덕 등 11명이 서명하기로 하고 당초 선봉에 서서 총무를 맡았던 최원순과 정광호, 김희술, 장영규 등 실무진들은 전략상 서명에는 참여하지 않고 거사 이후의 뒷수습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들 중 정광호는 본국의 호응을 피하기 위해 서울로 가서 광주출신 김범수, 김기명 등 서울 유학생을 만나 독립선언서를 국내에 배포기로 하였으며 장성으로 내려가 친지 김기형의 집에서 일경의 눈을 피해 독립선언서를 대량으로 인쇄했다. 그는 다시 서울로 가서 최남선을 찾아 2·8독립운동의 전후 경위와 진행상황을 말했더니 “지금 서울에서도 거사를 준비 중이니 잠시만 참아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길로 광주에 내려와 신문 잡지종람소를 열고 있는 젊은 청년 10여 명에게 도쿄 유학생들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이들과 함께 광주 3·1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김현준과 김안식도 자금조달과 연락관계로 귀국하고 최팔용은 상해로 장덕수를 찾아가 파리 평화회의 참석 문제를 협의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장덕수는 독립운동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상해로 가던 중 인천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무렵 도쿄에서는 도츠가쵸(戸塚町)에 있는 김희술(金熙述(정칙영어학교, 광주)의 하숙집에 광주 출신 최원순, 정광호, 장영규, 박한경, 손의순 등 10여 명이 모여 밤낮으로 일주일에 걸쳐 10,000여 장의 독립선언문을 등사하였다. 또 영문으로 번역된 선언서는 타자기로 쳐서 각국 대사관, 영사관 및 외국 언론기관에, 그리

고 일문으로 된 선언서는 일본 정계와 언론기관 등 요로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드디어 1919년 2월 8일 오후 2시, 조선인 YMCA 강당에서 약 4백여 명의 남녀 유학생이 모인 가운데 ‘유학생회 임원 선거회’라는 명목으로 독립선언문 선포식을 열었다. 장내에는 일찍부터 흥분과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단상 정면에는 독립선언서가 쓰여진 큰 명주천이 걸려 있었다.

대회는 최팔용의 사회로 백남규(白南圭)의 개회 선언과 윤창식의 기도에 이어 서춘(徐椿)과 이종근(李琮根)의 경과보고와 취지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뒤이어 백관수와 김도연이 독립선언문과 결의문을 낭독하자 장내는 일시에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으며 우뢰와 같은 박수와 조선독립만세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이때 일본 경찰이 쳐들어와 난투극이 벌어졌고 장내는 삼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학생들은 맨손으로 저항했으며 여기저기서 비명과 통곡이 터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최원순, 백관수 등 20여 명이 검거되었다.

이 2·8독립운동은 일본 수도 도쿄의 간다(神田, 즉 일제의 심장부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일본 경찰은 분을 참지 못하고 한국 유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 구금하고 고문을 자행하였다. 검거된 학생들 가운데 대표자 9명이 구속 기소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금고형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독립선포식에는 황신덕(黃信德), 현덕신(玄德信), 박승호(朴勝浩), 박순천(朴順天), 김마리아(金瑪利亞)(광주수피아학교 최초의 여교사), 황예스터 등 많은 여학생들도 참가했으며 이들은 성금모금에도 큰 힘을 보탰다.

도쿄 유학생들의 2·8독립운동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으로 서울에서는 당초의 예정을 앞당겨 3·1운동이 발발했다. 따라서 2·8독립선언은 3·1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된 셈이었다.

생각건대 2·8독립선언은 우리 고장 선각자들의 구심적 역할이 그 기반을 이루었으며 이것이 3·1운동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우리 고장으로서 특별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당시 2·8독립선언의 주역이었던 최원순, 정광호, 장영규, 김희술 등은 거사 후에도 고국의 항일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도쿄 유학생 학우회가 주체가 되어 백

관수, 김준연 등과 전국을 누비며 계몽 강연회를 가졌는데 최원순은 일본의 명연설가 나가이 永井柳太郎과 비교되는 웅변가라는 평을 받았다. 그가 숭일학교에서 강연을 할 때는 양림마을과 방림산 일대까지 그의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려 퍼졌다고 한다.

언론인 최원순

한편, 최원순은 1923년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6월 16일 동경 여자 의학 전문학교 출신의 현덕신 玄德信과 서울 종로 중앙예식장에서 김창준 金昌俊 목사의 주례로 혼인식을 올렸다.

결혼 뒤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주간실 主幹室에서 장덕수, 장덕준과 사설을 썼다. 최원순은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인 조직인 무명회 無名會와 철필구락부 鐵筆俱樂部에 참여하여 전 조선기자대회 全朝鮮記者大會의 개최를 주도했다.

1925년 1월 31일 이 모임에서 최원순은 전 조선기자대회 개최를 제안하여 그 준비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 대회 준비의 공동의장 격인 상무위원 常務委員 5명 중 한 사람으로 선임되었다. 4월 15일 대회 날에 서울 경운동의 천도교 기념관에는 전국각지에서 온 기자들로 690여 명이 등록하고 모였으며 투표로 의장에 이상재 李商在, 부의장에 안재홍 安在鴻을 선출하고 김준연 외 3명을 서기로 임명하였다.

16일까지 이틀간 개최된 이 대회에서는 기자들의 친목과 협동을 공고히 할 것과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구속하는 법규를 철폐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던 1926년 최원순은 필화사건으로 고초를 겪었다. 문제가 된 것은 그해 8월 22일자 <동아일보>의 ‘횡설수설’이란 글이었다. 문제가 된 글에서 그는 “현하의 총독정치는 조선인을 이책케 하고 익습케 하는 인사는 박해하고 배척하면서도 조선인을 해책케 하고 불리不利케 하는 놈들은 절대로 보호하는 방침”이라고 일제를 비판했다. 이 필화사건으로 검거된 그는 3개월 동안 복역했다.

그 후 최원순은 <동아일보> 정치부장으로서 있다가 편집국장 대리를 맡게 되는데 그 전임국장이 춘원 이광수였다. 최원순은 잡지 『개벽』의 지면을 통하여 이광수의 친일적인 ‘민족개조론’에 대한 예리한 애국적 반론을 펴, 지식인층의 열렬



■ 최원순·현덕신 결혼식

최원순은 1923년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6월 16일 동경 여자의학 전문 학교 출신의 현덕신(玄德信)과 서울 종로 중앙예식장에서 김창준(金昌俊) 목사의 주례로 혼인식을 올렸다.



■ 석아정에서 단련한 때를 보내던 최원순-현탁신 부부
현탁신은 남편의 요양을 위해 무등산 밑에 집을 짓고
최원순의 아호를 따 석아정(石岬亭)이라 했는데 석아
정은 최원순이 고인이 된 뒤 최흥중 목사가 거쳐하면
서 오방정(五放亭)이라 했고 해방 후 오방정을 의재 허
백련이 개축하여 오늘날의 춘설헌(春雪軒)이 됐다

한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몇 차례의 옥고와 일경의 고문으로 얻은 폐결핵이 차츰 깊어져 1928년 고향 광주로 돌아오게 된다. 광주에 온 그는 병중인 몸으로 동아일보 광주지국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최흥중 목사와 함께 애향운동을 위한 계유구락부(契維俱樂部)의 결성을 주도한다. 이 계유구락부는 신간회가 해산된 뒤 지역 유지들의 구심적인 조직체가 되었다.

1933년 계유년에 결성된 데서 연유한 계유구락부는 민중계몽운동과 빈민구제 활동을 전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1934년 양림동·학동·금동 쪽에서 임동에 이르는 광주천 호안공사와 직강공사를 실시하면서 강제 철거된 천변의 수많은 영세민들에 대한 구제사업이었다. 최원순은 최흥중, 김용환 등과 함께 우편국의 간이 생명보험기금을 광주군(지금의 광주시)에 용자케 하여 이 돈으로 학동에 철거민을 위한 집을 지어 갱생부락을 만들었고 광주공립서석학교의 부설 간이학교까지 세웠다.

계유구락부는 이 같은 빈민구제 사업 외에도 도산 안창호(島山 安昌浩)와 몽양 여운형(夢陽 呂運亨)을 광주에 초청하여 강연회를 여는 등 국민계몽운동을 주도했다.

부인 현덕신은 남편의 요양을 위해 무등산 밑에 집을 짓고 최원순의 아호를 따 석아정(石啞亭)이라 했는데 석아정은 최원순이 고인이 된 뒤 최홍중 목사가 거쳐 하면서 오방정(五放亭)이라 했고 해방 후 오방정을 의재 허백련이 개축하여 오늘날의 춘설헌(春雪軒)이 됐다.

최원순은 부인의 정성 어린 간병에도 보람 없이 1936년 7월 6일 고인이 되었다. 그의 장례식에는 동아일보 사장 백관수가 참석하여 2·8독립운동과 언론계에서 최원순의 애국애족에 기여한 공로를 회상하는 조사를 낭독하면서 오열했다.

최원순과 현덕신

여성개화의 선구자인 현덕신은 1896년 1월 12일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다. 기독교 가정에서 1남 2녀의 막내딸로 태어난 그는 개화의 선각자인 아버지와 목사인 오빠 현석칠(玄錫七)의 영향을 받고 자랐다. 고향에서 초등학교를 마친 현덕신은 15세 때인 1911년 서울로 유학, 이화학당을 졸업했으며 오빠의 도움으로 도쿄에 유학, 도쿄여자의학전문학교를 마치고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의사가 되었다.

현덕신은 도쿄 유학시절 당시 와세다대학 2학년이던 최원순과 만나 그가 주동하는 2·8독립운동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뒤에 최원순이 옥고를 치르고 나오자 심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져누운 그를 간호하면서 서로 사귀게 되어 인생의 반려자가 됐다.

현덕신은 졸업과 동시에 귀국하여 서울 동대문 부인병원(지금의 이화여대병원)에서 처음으로 의사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외국인 선교사의 권유로 근무시간을 쪼개어 정신여학교에서 여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27세 되던 해에 최원순과 결혼했다.

현덕신은 7년 동안 서울에서 살다가 1928년 5월 초순 남편을 따라 외아들과 함께 광주에 내려와 정착했는데 처음에는 충장로4가 구 화니백화점 자리에 집을 얻어 개업하였다. 그때 우리나라에는 여의사가 4명밖에 없었는데 현덕신, 정자영(鄭子榮), 박정자(朴貞子), 허영숙(許英肅, 춘원 이광수의 부인)으로 개업의사는 서울에 허영

숙, 그리고 광주에 현덕신 두 사람뿐이었다.

여의사의 광주 개업은 병고에 시달리는 부녀자나 임산부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남자 의사 앞에서 옷을 벗고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당시의 풍속으로 보아 여의사의 개업은 광주는 물론 전남 일대까지 여성 환자들에게는 복음이 아닐 수 없었다.

이를 고맙게 여긴 광주의 유지들은 현덕신의 개업을 돕고 격려하여 주었다. 정수태(丁洙泰)(정내혁 전 국방장관 부친)는 남동 도로변에 3백여 평의 땅을 제공하고 현준호(玄俊鎬)(호남은행 창설자)는 입원실까지 갖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금을 융자해주었으며 정상호(鄭尙浩)(대성대학 설립자)는 의료장비와 의약품을 제공하여 최신식 병원의 면모를 갖추게 했다.

현덕신의 외형적 특징은 단발머리였다. 그는 일본에서 들어온 인력거를 타고

왕진을 다녔는데 광주에서는 보기 드문 여성용 인력거에다 여학생처럼 단발머리를 하고 흰 가운에 안경을 쓰고 다니는 모습은 광주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모았다.

■ 현덕신(1896~1963)
최원순의 부인으로 광주 최초의
여의사였으며 늘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단발을 하게 된 것은 서울 동대문 병원에 근무하고 있을 때 부터의 일이다. 어느 날 깊은 밤중에 젊은 청년이 다급한 목소리로 문을 두드리며 자기 아내가 위급하니 빨리 와달라고 애원했다. 현덕신은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흐트러진 머리를 빗은 다음 왕진 가방을 챙겨 허겁지겁 환자 집에 가보니 방금 숨이 끊어진 뒤였다. 산모는 초산으로 난산 끝에 출혈이 심하여 그대로 숨진 것이었다. 현

덕신은 머리손질 때문에 한꺼번에 두 생명을 잃게 되었다며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혔다. 현덕신은 이 일로 고민 고민 끝에 남편을 설득, 그에게 가위를 주어 머리를 자르게 한 뒤 평생 단발머리로 지냈다. 그때만 해도 유례가 없는 머리 모양이었지만 평생 여전한 모습이어서 그의 상징처럼 되었다.

그는 눈을 못 보는 시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으며 또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남편을 위하여 9년 동안 정성으로 간병하여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노인당인 수영당壽寧堂에서 효부 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는 여의사로서 최상류층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병든 여자와 어린이들의 치료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특히 여성운동가로서 문맹퇴치를 위해 여자 노동야학을 개설하는 등 계몽운동에 앞장섰을 뿐더러 해방 후 건국 준비위원회 부인회 부회장으로, 또 YWCA회장으로, 대한부인회 활동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현덕신은 1963년 11월 27일 6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그의 아들인 최상옥崔象沃 또는 崔相玉도 이 고장 어린이운동의 선구자였다. 연희대학교를 나와 한때 서중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다가 1949년 어머니의 병원 옆에 신생유치원을 세우고 유아교육에 전념하는 한편 1954년 신생 보육학교를 설립하여 유치원, 고아원 등 유아교육 담당 교사 및 사회 복지기관의 요원양성의 길을 열었다.

그는 1959년 5월 5일 어린이날 광주공원에 어린이 현장탑을 세워 어린이 사랑과 어린이 보호운동에 앞장섰으며 「콩쥐팍쥐」, 「금싸라기 은싸라기」 등 어린이 연극을 지도하여 무대에 올리는 등 어린이 문화활동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최영훈崔榮勳 교수(미술대학장 역임)가 최상옥의 아들, 즉 최원순-현덕순의 손자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시민의 저항 정신

1929년 11월 3일 발생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그 파급력이 폭발적이었다. 그날 진원지인 광주에서는 경찰이 비상소집을 알리는 경종을 난타하여 경찰은 물론 재향군인, 소방대원, 일본인 청년단까지 총동원돼 무차별 검거에 나섰지만 학생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연일 ‘검거학생 석방’, ‘민족차별 교육반대’, ‘식민지 노예교육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거했고 조선인

상점들은 이에 동조하여 일제히 철시했다. 이 시위는 12월까지 이어졌으며 급기야 일제는 용산에 주둔 중인 일본군 2개 대대를 광주에 급파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통신을 차단하는 등 광주를 완전히 고립시킴으로써 전시상황을 방불케 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진 탄압에도 불구하고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그 규모나 양상이 더욱 격렬한 항쟁으로 확산되어 우리나라는 물론 만주·중국·일본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이야말로 3·1운동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항일독립운동이었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그 주체가 나이 어린 학생들이고 퇴학과 무기정학, 투옥 등 그 피해 규모가 방대하여 온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은 한때 그 의의가 폄하되어 ‘학생의날’로만 기념되다가 2006년에 이르러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바뀌었는데 기념일인 11월 3일은 광주에서 맨 처음 대규모 항일시위가 일어난 날이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개요

다음은 광주서중학교에서 발행한 『광주학생독립운동약사』 서문의 일부이다.

1929년 11월 3일은 명치천황의 탄생기념일인 명치절(明治節)이었으나, 우리에게서는 음력 10월 3일 국조 단군이 개국한 날이었다. 우리의 개천절에 일제의 신사(神社)에 참배를 강요당했던 광주고보생들의 비통한 심정에 가해졌던 일본 학생들의 무례한 도전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광주에서의 항일시위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지역에 그치지 않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시위나 동맹휴학 등의 형태로 계속되어 전국적으로 194개 학교가 참가하였고 참가 학생 수는 54,000여 명으로 당시 전체 학생의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했던 것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희생당한 학생 수는 퇴학 582명, 무기정학 2,330명, 검거당한 사람이 1,462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였다.

또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파급되어 만주의 간도와 길림성, 중국의 상해, 북경, 그리고 일본에서도 조선인은 물론 사회주의 계열의

일본인들까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격려하는 집회와 만세시위가 있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 약사』 서문에 기록된 시위 참가 학교 수 194개교는 최근 까지 역사학계의 정설로 굳어져 왔다.

그러나 2007년 11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항쟁 동참 학교 수가 지금까지 알려진 194개교보다 126개교가 더 많은 320개교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은 광주 시교육청의 연구 용역을 의뢰받은 국민대학교 조동걸 명예교수 등 7명의 교수 자문단의 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다.

자문단은 그동안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국비문서인 「조선의 치안상황」(1930)과 『광주학생독립운동사』, 관련자 증언 등을 통해 전라도 지역(광주·전남북) 41개교, 평안·함경도 117개교, 서울·경기도 56개교, 충청도 23개교, 경상도(부산, 경남북) 40개교, 강원·황해도 11개교, 중국 간도(間島) 32개교 등 참가 학교가 총 320개교임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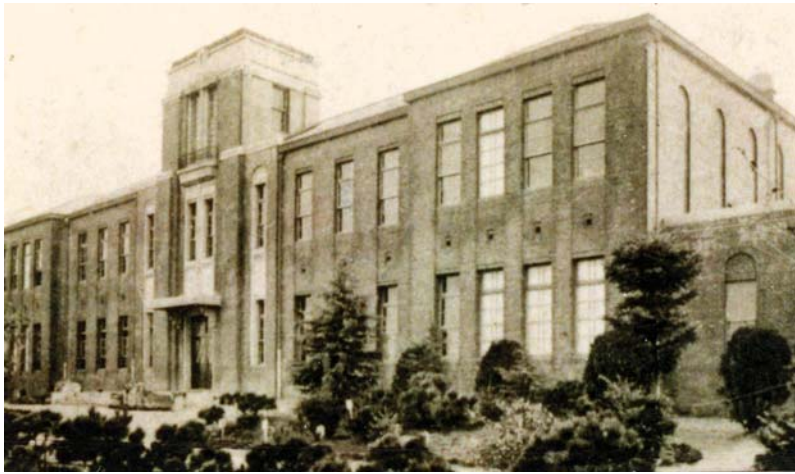
항쟁의 양상은 주로 집단시위나 동맹휴교로 이루어졌으나 더러 격문(檄文) 살포, 백지 답안지 제출 등으로 항거하는 학교도 있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 같은 새로운 역사 사료가 확인됨에 따라 교과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광주학생독립운동사』 기록에 의하면 광주~나주 간 통학열차에서 내린 일본인 학생들이 한국인 여학생 박기옥(朴己玉)의 땀기머

■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비





■ 현 전남여고 전신인 광주공립여자고등
보통학교 전경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발상지이며 광주
광역시 기념물 제26호이다.

리를 잡아당기는 등 희롱을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인 것으로 되어 있다(참조 : ① 1969년 박준채 기명의 『신동아』 기고문, ② 1974년 10월 사단법인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발행 『광주학생독립운동사』, ③ 1976년 박준채 기명의 『아시아공론』 기고문).

그러나 근래에 와서 새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나주역에서의 땀기머리 희롱사건은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사건 당일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던 일본인 학생의 기고문이나 <조선일보>, <경성일보>, <동아일보> 등 보도기사, 경찰의 보고서, 법원의 판결문 등을 종합해 보면 남녀 통학생들이 광주~나주 간 통학열차에서 내려 나주역 출구를 통과할 때 일본인 남학생과 한국인 여학생 박기옥이 부딪쳤고 이것을 본 같은 통학생인 그녀의 종제 박준채가 일본인 학생에게 이를 항의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기관이나 신문사의 보도내용에 따라 박기옥과 부딪친 일본인 학생의 행위가 우발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라는 기록과 고의로 희롱한 것이라는 기록으로 갈리지만 일치된 사건의 줄거리는 나주역 출구에서 일본인 남학생과 한국인 여학생

간의 부딪침이 발단이 되어 충돌을 빚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사건의 현장이 통학열차의 차중’ 이고 ‘사건의 발단은 땀기머리 희롱’ 이었다는 기존 기록은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참조 : ① <조선일보> 1929년 11월 4일자, 동 12월 28일자 호외, ② <경성일보> 1929년 11월 5일자, ③ <동아일보> 1929년 12월 28일자 호외, ④ 조선총독부 경무국 「광주학생 사건의 상황 적록」, ⑤ 1930년 2월 광주지방법원의 「광주학생독립만세 사건 판결문」, ⑥ 나주경찰서 순사 우치다 가루오内田馨의 『경우警友』 기고문 「광주학생사건의 비화」).

이광춘의 증언

사건 당시 일본인 학생으로부터 희롱을 당한 것으로 기록된 한국인 여학생 중 한 사람인 이광춘李光春은 1995년 5월 『젊은 항일의 군상』의 저자 사호리 신소佐堀伸三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현장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일본인 중학생이 땀기머리를 잡아당겼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당시의 한국인 여학생은 나이가 많아 나이 어린 일본인 학생이 땀기머리를 잡아당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유도복을 손에 든 후쿠다가 여학생에 부딪쳤습니다(참조 : 佐堀伸三, 문승이 국역, 『젊은 항일의 군상』).

이광춘은 이 증언에서 땀기머리를 잡혔다는 박기옥에 대해서도 “당일 박기옥은 현장에 같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는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여고보의 후신인 전남여고의 학적부에는 사건 당시인 1929년에 박기옥이 중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녀의 자퇴가 사건 전인지 후인지 확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박기옥이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이광춘의 주장에 확신이 없고 또 모든 사건 기록이나 진술 내용에 현장 인물로 박기옥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기옥의 현장 부재설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광춘의 사건 발단에 대한 증언은 일본 남학생과 한국 여학생이 부딪혔다는 사건 기록과 일치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또 땀기머리를 붙잡혔다는 박기옥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희미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땀기머리 희롱’은 없었음이 밝혀진 셈이다.

사건 발단 현장에 대한 반론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땀기머리 희롱은 물론 나주역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시각도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기호李基浩 이사장은 1996년 11월 11일자 <동아일보>에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발단은 여학생의 땀기머리 사건이 아니고 또 사건의 도화선이 된 것도 나주역 충돌 사건이 아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당시 광주고보(광주일고 전신) 2학년생이었던 이기호 이사장의 주장에 의하면 “1929년 11월 3일은 일본의 국경일인 명치절(明治節)로 이날 오전 11시경 일본 학생들이 가두행진을 하던 중 광주고보 학생들과 당시 수기옥정(須奇屋町) 우편소(현 충장로 5가) 앞에서 충돌한 사건이 도화선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나주역에서 일본 학생이 조선 여학생 땀기머리를 잡아당겨 일어난 사소한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의미를 축소했으며 당시 국내 언론들도 일제의 간계를 꿰뚫어보지 못하고 ‘땀기머리’ 사건을 대서특필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땀기머리 사건의 당사자로 기록된 박기옥 씨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한국인 여학생은 광주여고보(전남여고 전신) 학생인 이광춘(李光春)과 그의 언니 이금자(당시 19세), 그리고 광주고등여학교(광주여고 전신) 학생인 문금춘(文錦春) 등 3명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박기옥 씨는 학교를 그만둔 상태였다”는 이광춘의 증언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기호 이사장의 이 같은 주장은 땀기머리 사건에 대한 이광춘의 증언 이외에 나주역 발단 사실을 부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의 첫 번째 충돌 사건이 단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를 도화선으로 다음 날인 31일 전체 통학생의 한·일 간 대결로 확대되었고 3일째인 11월 1일

광주역 충돌에서는 통학생 외에 광주 거주 학생들까지 가세하는 비상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항일 결사체인 ‘성진회’가 배후에서 사태를 주도함으로써 11월 2일에는 일본인 통학생의 등하교에 인솔교사와 사복 경찰의 호위가 붙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고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11월 3일의 거사를 촉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나주역 사건과 11월 3일의 거사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조 : ①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②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편, 『광주학생독립운동사』).

따라서 그동안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광주학생독립운동 참가 학교 수와 ‘댕기머리’ 희롱사건, 그리고 사건 발단의 현장 등은 새로 확인된 사료에 의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제2의 광주학생독립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애국충정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후배 학생들의 가슴속에 그 맥을 도도히 이어갔다. 그리고 이들의 저항 정신이 압축되어 마침내 폭발한 것이 1943년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광주학생독립운동사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우리들의 이목에서 가려져 왔으나 그 투쟁의 강도나 피해의 참혹함은 1929년의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못지않았다.

이 사건으로 광주고보 전교생 450명 중 거의 80%에 이르는 350여 명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무등회의 졸업회원들을 추적하여 중국·일본까지 검거 선풍이 확산되었다. 또한 혹독한 고문으로 죽은 학생이 4명이고 8명이 징역형을, 2명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태평양전쟁이 가열될수록 패색이 짙었던 일제의 초조감을 엿볼 수 있으나 10대의 어린 학생들에 대한 잔인한 만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 사건을 ‘제2의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건은 제1·2차 무등회 사건으로 나뉘볼 수 있다.

제1차 무등회 사건

사건의 주체인 광주서중(광주고보의 또 다른 이름)의 동아리인 무등회의 연원은 1937년 2월에 결성된 ‘독서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서를 통한 민족의식 고취와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을 펴다가 이듬해 회원 51명이 검거되어 해체되었으나 1938년 다시 재건되었다.

무등회는 이 독서회를 이어받은 것으로써 1939년 5월 기환도 등에 의해 결성되었으며 독서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철저한 비밀결사체로 운영되었다. 연락책을 맡았던 유몽룡이 학교에 제출한 일기장에 일제의 식민정책을 비판한 글을 실어 퇴학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조직이 발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졸업회원 주만우가 담양의 무정보통학교에 근무하면서 동료 조선인 교직원에게 항일 독립사상을 퍼나가다가 일본인 교사의 밀고로 조직이 발각되어 1942년 1월 유몽룡이 징역 1년 6월, 주만우가 1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것이 제1차 무등회 사건이다.

제2차 무등회 사건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1942년 5월 신균우, 기영도 등 20여 명의 재학생에 의해 무등회가 재건되었으며 학생들 간에 항일 독립의식이 확산되어 나갔다.

당시 4학년이던 신삼용은 ‘조선어를 상용하자’라는 포스터를 몰래 만들어 거기에 에노모토 교장의 얼굴을 독사로 희화화하여 교내 곳곳에 붙여놓았다가 퇴학당했으며 조병대는 봉안전(일본 천황의 칙어를 보관하는 곳)의 천황 부부 사진 액자에 지렁이를 넣는가 하면 일본인 교관(군사훈련 담당교사) 서랍에 인분 봉투를 넣는 일로 학교를 발각 뒤집어놓았다.

1943년 4월부터는 교내 항일운동을 본격화하여 점심시간이면 학급을 돌며 ‘조선어 상용’ 등을 외치며 열변을 토했는데 한 학생의 밀고로 무등회의 주동 학생들이 교장실에 불려가 체벌을 당했다.

이에 분격한 무등회 회원들은 밀고자로 의심되는 학생들을 무도관 뒤에 집합시켜놓고 체벌을 가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경찰은 즉각 주동 학생들에 대한 검거에 나섰는데 이것이 제2차 무등회 사건의 발단이 된다.

잔인한 탄압 고문살인

1943년 5월 21일 광주서중 학생들은 경찰의 검거에 맞서 6개 사항을 내걸고 동맹휴학을 단행했다. 첫째 일어사용 반대, 둘째 창씨개명 반대, 셋째 내선일체 반대, 넷째 일본상품 불매, 다섯째 차별교육 반대, 여섯째 조선독립 만세 등이었다.

학생들의 동맹휴학에 당황한 학교는 전 직원이 나서서 학생들의 가가호호를 찾아다니며 등교를 설득했고 경찰은 주동학생들을 뒤쫓았다.

이런 와중에 광주사범학교에서 개최된 전남 도내 모형비행기 경진대회에서 광주서중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을 구타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지 않아도 동맹휴학 사건으로 혈안이 되어 있던 일본 경찰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광주서중 학생들에 대한 무차별 검거에 나섰다. 전쟁 말기로 접어들수록 초초해진 일제는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같은 사태의 확산을 우려한 신경질적인 반응이었다.

일본 경찰의 집요하고도 악랄한 검거 선풍은 그해 8월까지 장장 4개월에 걸쳐 전교생 450명 중 350명을 소환조사했으며 서울·평양·동경·봉천·하얼빈에 흩어져 있던 무등회의 졸업생들까지 끌고 와 나주·화순·담양 등지의 경찰서와 주재소에 분산 수감했다.

체포된 학생들 중 35명이 구속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잔인한 고문을 당했다. 기환도는 갈비뼈 골절의 증상을 입었고 심야에 경양방죽으로 끌려가 물고문을 당한 뒤 죽었고 강한수·윤봉현은 판결 이전에, 그리고 주만우는 복역 중에 고문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고문치사 4명을 포함한 구속자 35명 중 남경준 징역 2년, 기영도·신균우 징역 단기 2년 장기 4년, 기원홍·배종국 징역 1년 6개월, 박화진·오복렬·조병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박하주·이민수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 등 모두 10명이 실형을 받았고 나머지 21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계몽기의 선각자들

여성지도사 김필레

일제강점기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김필레를 들 수 있다. 김필레는 개화기 이후 당대 최고의 선진 여성으로 미국 컬럼비아대학원을 나와 한국 YWCA의 창설을 주도했으며 세계기독교청년대회 한국대표와 예수교장로회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으로서 여성들의 선교활동을 이끌었다.

그는 또 수많은 여성 지도자를 배출한 정신여학교 이사장과 서울여자대학 창설자로서 여성 교육운동을 선도했으며 특히 광주수피아여학교 교사·교감·교장을 역임하면서 야학을 열어 문맹퇴치운동과 이 고장의 계몽운동을 주도한 여성운동의 선구자였다.

그가 광주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광주 최초의 한국인 목사인 오방 최흥종의 동생인 최영옥과 결혼하게 되면서부터이다. 그는 1891년 11월 19일 황해도 장연군 대교면 송천리에서 아버지 김성섭(金聖燾)과 어머니 안성은(安聖恩)의 5남 4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 안씨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서 미국 북장로교 소속인 화이팅 Whiting 선교사와 함께 황해도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가 화이팅이 광주의 오원 선교사와 결혼하여 광주로 옮겨오자 어머니 안씨도 같이 광주에 오게 됐다. 이것

이 인연이 되어 김필레는 당시 광주 제중병원(현재의 기독교병원) 의사로 있던 최영옥과 결혼했다.

남편 최영옥은 미국 켄터키 주립대학과 에모리대학에서 의학부를 졸업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광주 제중병원 의사와 광주 YMCA 회장을 역임하면서 교회와 청소년운동에 이바지한 선각자로 광복 후 미 군정 당시 전남 도지사를 지내기도 했다.

김필레는 정신여학교 1회 졸업생으로 졸업과 동시에 모교 교사로 발탁되어 후배를 가르쳤다. 1908년 9월에는 관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 동경여자학원에 유학했으며 귀국 후에는 정신여학교와 수

피아여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조카인 김마리아가 1919년 2월 몰래 가져온 일본 동경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문을 남편과 함께 복사하여 전국에 살포했다. 그는 또 흥학관興學館(남동 구시청 자리)에서 야학을 열어 문맹퇴치운동에 나서는 한편으로 교회에서는 부인조력회를 만들어 전도와 사회봉사활동에 앞장섰다.

1922년 3월에는 중국 북경청화대학에서 열린 세계기독교학생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하여 3·1운동 당시 수원 제암리교회에서 자행된 일제의 방화 집단 살인 사건을 폭로함으로써 전 세계를 경악케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김활란·유각경 등과 한국YWCA 창립을 주도했으며 1925년에는 미국 에닉스칼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데 이어 컬럼비아대학원에서 중등교육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1926년과 1928년 미국과 인도에서 열린 세계기독교학생대회에 한국 대



■ 김필레(1891~1983)

수피아여학교의 교감과 교장을 역임했으며 야학을 열어 못 배운 여성들의 교육에 헌신했다.

표로 참석했으며 이후 1937년 6월 신사참배 거부로 일제에 의해 수피아여학교가 폐교될 때까지 이 학교 교감으로 봉직했다.

전쟁 말기로 접어들수록 일제의 탄압과 핍박이 가중되고 우리 여성 지도자들을 포섭하기 위한 일제의 끈질긴 회유에도 불구하고 김필레는 현덕신과 더불어 끝내 지조를 지킨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여성지도자로 기록되고 있다.

1945년 광복이 되자 수피아여학교 교장으로 추대되었으며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되었던 모교 정신여학교가 1947년에 개교되자 교장으로 초빙되어 부임했다. 김필레는 1950년 대한예수교장로회여전도회 전국연합회장으로 피선되어 미국에서 개최된 북장로교여전도회 4년연차대회에 참석했다가 6·25전쟁의 급보를 접했고 뒤이어 남편 최영옥이 피살되었다는 비보를 받게 되었다.

그는 한동안 극심한 충격과 슬픔을 가누지 못했으나 현지 교민들과 교회의 후원으로 분연이 일어나 한국에 대한 전재민 구호활동에 나섰다. 화물 적체로 구호물자를 실은 화물선의 출항이 늦어지자 미국 교계를 동원, 의회와 관계기관을 움직여 출항케 했던 일은 유명한 이야기다.

또한 일제에 의해 수피아가 폐교된 뒤로는 시어머니를 따라 호미와 낫을 들고 밭일 논일을 했으며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큰집인 최홍중 목사의 살림살이까지 돌보았다. 큰집 조카딸들을 한결같이 보살피고 여우살이까지 도왔으며 늙은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다.

일선에서 물러나 정신여학교의 명예교장과 명예이사장으로 지내던 그는 1983년 7월 30일 93세의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떴다(참고 : 『수피아 백년사』, 2008년).

민족교육의 선각자 양태승

무등양말의 창립을 주도했던 양태승은 1920년대 평양의 조만식 등에 의해 촉발된 물산장려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 같다. 이 물산장려운동은 국채보상운동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자주자립운동을 대표하는 두 기둥이었다.

당시 고무신과 양말의 등장은 일상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는데 고무신

은 짚신을 밀어냈고 양말은 버선을 대체하고 있었다. 이는 가내 수공업 시대에서 공장제 시대로의 변혁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양태승은 스스로 이 변화를 받아들이 민족기업 설립을 통한 물산장려운동을 선도했던 것이다.

그런 양태승은 사업가 이전에 원래 우리나라 근대교육과 민족계몽운동에 큰 봉우리를 이루었던 분이다. 왜정 때 우리나라 민족사학의 대표적인 중고등 과정의 명문교로 흔히 북에는 오산고보五山高普요, 남에는 전북의 고창고보高敞高普라 했다.

오산고보의 설립자는 이승훈李承薰 목사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이며 민족지도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반면에 오산고보와 쌍벽을 이루던 고창고보의 창설자인 양태승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다.

양태승(1889~1954)은 화순군 도곡면 월곡에서 학포學圃 양팽손梁彭孫의 15대 손으로 1889년 1월 10일 아버지 회규會奎씨와 어머니 여흥민씨 슬하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제주이고 호는 매하梅下이며 자字는 성중聖仲이었다. 그는 엄하고 완고한 가정에서 소년시절을 한학에 정진하면서 사서삼경에 통달했으며, 19세인 1908년 6월에 상경, 중앙고보의 전신인 융희隆熙학교에 입학, 비로소 신학문에 접했다. 1910년 12월 융희학교를 졸업하고 1911년 4월 사립 정리사精理舍 고등과에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수학을 전공했다.

이때 양태승은 마스토미槲富安佐衛門라는 일본인 친구와 교분을 맺게 되었다. 마스토미는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친구로서 그와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교육자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생애를 살게 되었으며 평생동반자로서의 우정을 이어가게 된다.

마스토미는 대대로 양조업을 하는 가문에서 태어났다. 시모노세키 상업학교를 마친 뒤 군에 입대해 러일전쟁에 참전했는데 그때 전북의 김제평야를 지나다 넓은 농토가 피폐해 있는 것을 보고 전쟁이 끝나면 한국으로 농업이민을 와야겠다고 마음먹게 된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실제로 1906년 7월 김제군 월촌면 월촌리 일대에 꽤 넓은 농토를 구입하여 농장을 경영하는 한편 고창군 봉안면 오산리에도 상당한 규모의 사과 과수원을 조성하였다. 그는 농장과 과수원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정신병원을 지어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는 조선 사람들을 위한 봉사재



■ 양태승
한국 양대 사학 중 하나인 고창고보의 설립자이다. 그는 민족자존의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생애를 일관한 선각자이다.

단을 설립할 생각이었으며 그 첫 단계 사업으로 1912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흥덕에 흥덕학당을 세워 조선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한 계몽활동을 벌여 나갔다.

마스토미는 이러한 봉사활동 과정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길을 좇아 신학교 진학을 결심한다. 그리고 마스토미의 결심에 동조하여 양태승도 마스토미와 신학의 길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리하여 마스토미는 1912년 3월 고베신학대학에 입학하고 양태승도 뒤이어 그해 9월에 고베신학대학 예과에 입학하여 1916년에 졸업한다. 완고한 한학도가 서양학문을 흡수하고 아울러 열렬한 과학도인 동시에 기독교 신앙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크나큰 자기혁신이 아닐 수 없었다.

양태승은 귀국 후 바로 고창군 흥덕으로 가서 마스토미가 설립한 흥덕학당 교사로 취임, 교육 사업에 첫발을 디게 된다.

1917년 11월 마스토미는 고창에 오산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흥덕학당을 오산보통학교로 개칭하여 개교했으며 이듬해에는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1919년 4월

14일에는 오산 보통학교에 중등과정의 사설오산고등보통학교(오산고보)를 부설함으로써 이것이 고창고등보통학교(고창고보)의 뿌리가 된다.

마스토미는 교장으로 추대되고 양태승은 실질적인 학교의 운영을 맡는 교장의 직무를 수행했으며 농장의 경영까지 책임을 지고 후진양성에 헌신하였다.

학교의 운영자금은 마스토미의 과수원 수입에 크게 의존했다. 마스토미는 과수원 소출을 일본에 내다 팔아 운영경비를 마련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후 불어닥친 경기침체의 여파로 과수원과 농장 수입만으로는 학교를 경영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마스토미는 부인의 신병 치료를 위하여 일본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따라서 혼자 힘으로 학교를 경영해야 하는 양태승은 안팎으로 학교 운영의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양태승은 학교를 맡아 줄 독지가를 찾아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학교를 단독으로 맡을 독지가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에 1921년 12월 오산고보는 폐교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양태승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노심초사 끝에 고창 군민이 주머니 돈을 털어 오산고보를 민립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참조 : 김규수, 『식민지 조선과 일본 일본인』, 2007년).

고창고등보통학교의 주춧돌

양태승은 자신의 구상이 정리되고 이에 대한 결의를 굳히게 되자 당시 고창군수 천장욱을 찾아가 군민의 뜻을 모아야 하는 일이니 나서 달라고 간청했다. 양태승의 열정적인 설득에 감화를 받은 군수는 발 벗고 나섰으며 강대식, 홍종철(洪種徹) 등 지역 유지들은 오산고보를 인수하여 새로 고창고보를 설립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이에 적극 앞장섰다. 그리하여 1922년 2월 2일 마침내 고창군민대회를 열고 민립 고창고보의 설립을 위해 조선총독부의 중등학교 인가를 위한 기준적립금 30만 원과 건축기금 5만 원 등 35만 원을 모금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결의 내용에 따르면, 고창군 1천석꾼 이상의 지주 13명에게 1인당 1만 원씩 13만 원을, 일반 자작 농가는 농지의 법정지가 100원에 대하여 6원 50전씩 거출하기로 했다. 이 운동은 군민의 열화와 같은 호응을 얻었으며 이 운동을 선도한 홍종철은 영세지주 3천 명의 분담금을 단독으로 부담하겠다고 자청하여 목표액을 훨씬 앞

당겨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성과는 고창 군민의 교육열과 애향심 말고도, 양태승의 호소력과 성실한 추진력, 그리고 친화력이 큰 원동력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5천 5백여 고창 군민의 성금으로 열매를 맺은 5년제 남자 중등과정의 사립 고창고등보통학교가 1922년 5월 4일 마침내 호남 최초의 민립사학으로 개교를 보게 되었고 양태승은 교장에 취임하였다.

양태승은 고창고보를 호남의 대표적인 명문교로 발전시키기 위해 유능한 교사를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때 그가 맞아들인 교사는 그야말로 당시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그 면면들을 살펴보면 당시 경성제2고보(현 경북고등학교) 현직교감이었던 심준섭(沈駿燮), 훗날 보성전문학교(고려대학교) 교수 및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지낸 이병학(李丙學), 한글학자로 해방 후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했으며 전북대 총장을 역임한 정인승(鄭寅承), 일본 동경 물리학교 출신으로 당시 대표적인 수학자였으며 광복 후 전남 학무국장이 된 유찬식(劉燦植), 건국대학교 이사장이 된 신태수(申泰洙), 사학자로 전남대 초대 문리대학장이 된 이혁(李赫)(이한기 전 국무총리의 부친), 서울대 상대교수가 된 박희성(朴希聖), 한학자이며 서예가인 염제 송태회(念齊 宋泰會) 등 민족교육의 지도적 인사와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었다.

개교 첫해는 향교 명륜당과 사마제(司馬齊)를 가교사로 사용하다가 모양성(고창읍성) 안에 있던 군청이 새로 청사를 지어 옮겨가자 군청 청사로 이전하여 그곳에서 수업을 했다. 그 후 1923년 12월 10일 고창읍 교촌리 248번지 성산 기슭 7,346평의 부지를 마련했고 1925년 290평의 2층 벽돌조 교사를 신축했는데 이 건물은 8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견고함을 자랑하고 있다.

학교가 정상적인 운영 궤도에 오르게 되자 양태승은 1928년 3월 1일 돌연히 사표를 냈다. 학교를 세우고 학교의 기틀을 잡기까지 자신의 몫을 끝냈으니 건학의 이념에 따라 학교를 이끌어갈 새 일꾼이 학교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창 군민은 학교 설립자의 갑작스러운 사임 소식에 모두 들고 일어나 유임을 요청했으며 학생들은 동맹 휴학까지 벌였다. 그러나 그는 교장직을 심준섭 교사에게 넘겨주고 홀연히 학교를 떠났다.



■진급증서

양태승이 서울의 용화학교(현 서울 중앙중고교의 전신) 재학 시절인 1910년 4월 2학년에 서3학년으로 진급하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받은 증서이다.

그러나 고창고보는 양태승이 퇴임한 뒤에도 민족교육의 건학 이념을 이어 나갔다. 1938년 3월 3일 조선교육령 개정으로 각급 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폐지시켜 민족교육을 말살시키려 할 때 고창고보만은 양태승의 건학이념에 따라 국사와 한글 교육을 계속 실시했다. 또한 1937년 일제의 기독교계 학교의 폐교로 오갈 데 없게 된 광주송일학교와 전주신흥학교의 학생들,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퇴학당한 학생들, 그리고 향학열에 불타는 장애인들의 입학허용했다. 당시 대다수 공·사립 학교, 심지어 민족계 학교들조차 이런 학생들의 입학허가 거절했던 사실을 생각할 때 고창고보의 민족교육은 더욱 빛나 보였다.

대구 계성학교 교장으로

학교를 그만둔 양태승의 은거생활은 길지 못했다. 그는 퇴임 후 대구 계성^{啓聖}

학교 교장에 초빙되어 1928년 4월 1일로 부임했다.

계성학교는 미국인 선교사 핸더슨이 설립한 미션스쿨로 경영상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어 합당한 새 교장을 찾던 중 고창고보를 창설, 국내의 대표적인 명문교로 육성 발전시킨 양태승을 영입하기로 교섭을 해 왔던 것이다. 양태승은 “학교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설립자의 약속을 받고 교장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산적한 경영의 문제들을 정리해 나갔으며 불과 몇 년 사이에 학교의 안정적 교육기반을 확립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 계성학교를 조선교육령에 의한 정규 중등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아 졸업생들이 별도로 검정시험을 치르지 않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학교가 안정 궤도에 오르자 재단 측과 양태승 사이에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다. 양태승은 오로지 정규교과의 내실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으나 재단 측에서는 종교교육 위주의 교과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나 설립자 측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 양태승은 누구보다도 독실한 신앙인이었으나 교육과 신앙은 확연히 구분했었다. 선교나 신앙은 교회의 몫이고 교육은 학교의 몫이라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그의 이 같은 완고한 신념 때문에 설립자 핸더슨은 그를 가리켜 ‘한국의 무솔리니 같은 분’ 이라고 했다. 그러나 결국 양태승은 교회나 재단 측과의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재임 6년 만인 1933년 44세에 계성학교를 물러났다.

학동목장

양태승은 은퇴 후 기승을 부리는 일제의 눈길을 피해 광주 변두리 학동에서 호남은행 용자를 받아 목장을 설립했다.

이 목장은 학동 앞 광주천 부지를 포함하는 꽤 큰 규모로서 일본 홋카이도에 서 젖소를 도입하여 양질의 우유를 생산했다. 그는 선진 축산 영농을 통한 농촌 부흥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특히 젖이 모자란 어린이들과 환자나 노약자들에게 영양을 공급한다는 것이 목장 경영의 목표였다.

그러나 기왕에 광주 지방에 있던 시쿠마^{시쿠마 佐久間 時太郎}목장의 우유와 원촌리(현 동명동) 다니가와^{다니가와 丹川 次郎}목장의 양유^{양유 羊乳}가 도립병원을 비롯한 일본인 기관과

가정에 판로를 선점하고 있었으며 조선인 가정에서는 아직 우유가 대중 음료로 보급되지 않아 처음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다. 따라서 얼마 가지 못해 1940년 계성학교의 제자였던 종업원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양태승이 광주의 지도급 인사들과 함께 무등양말 공장 설립에 참여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무렵이다. 이 지역의 민족계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 일으킨 무등양말은 오늘날 우리 고장에서 가장 장수한 토착 기업으로서 그 뿌리를 더욱 튼튼히 다져가고 있다.

또한 양태승은 광주에 머무는 동안 여러 인사들과 교유관계를 맺으면서 계유구락부에도 참여했다. 이 단체는 1935년 안창호와 여운형 呂運亨을 차례로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는데 신광원에서 열린 안창호의 환영 만찬회에서 행한 양태승의 환영사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강직한 민족자존의 노후

양태승은 노후에도 지사적 기질을 잃지 않았다. 장남인 동만 東萬이 중학교 교사로 취직할 때도 ‘네가 교육을 너의 사명으로 알고 평생을 헌신 봉사하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모르거니와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면 나는 반대’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다. 일제 때 고등보통학교 교사를 교유 敎諭라 했는데 교유의 직급은 고등관, 즉 군수와 같은 직급이었다. 조선 사람은 좀처럼 맡기 어려운 직책이었지만 양태승은 교직을 단순한 직업이 아닌 숭고한 사명으로 여겼다. 장남 동만은 고창고보 5회 졸업자로 후에 일본의 입교대학을 나와 함흥 영생고보 永生高普 교사를 거쳐 교감으로 승진했다. 당시 조선어학회 관련자로 고창고보의 은사인 정인승 선생이 함흥감옥에 수감된 일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안 양동만은 일본 경찰의 감시를 무릅쓰고 은사의 옥바라지를 했다고 한다.

1939년 일제가 조선인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할 때는 중학에 진학하게 된 장손자가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아들이 할 수 없이 아버지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양태승은 “손자가 학교에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창씨는 못한다”고 일축하면서 “만약 네가 창씨를 할 수밖에 없다면 호적을 파가라”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

지역 안팎에서 영향력이 컸던 양태승은 태평양 전쟁이 치열해지자 전남지사가 상당한 이권을 약속하며 양태승에게 내선일체(內鮮一體), 즉 조선과 일본이 하나 되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는 요지의 도내 순회강연을 해 주도록 간청했지만 양태승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또 고창고보와 계성고보 교장을 그만두었을 때도 총독부가 요직을 제의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양태승의 행적들로 인해 일본 경찰은 양태승을 요주의 인물로 여겨 감시해왔다. 이러한 일제의 압제에 시달리던 양태승은 1944년 광주를 떠나 충북 보은의 속리산 기슭에 은거했다.

때 묻지 않은 교육자의 양심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오랜 지우였던 김성수, 김병로, 송진우, 백관수, 조병옥 등 정계의 대표적 인사들의 권유로 상경하여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에 입당, 당 총무로 천거되기도 했으나 한민당이 농지분배정책 등에 강한 보수성을 보이자 실망, 끝내 탈당했다.

그 뒤 그는 1949년부터 보은(報恩)농업학교 교장에 취임하였다. 그의 교육경력과 고매한 인품을 알고 그를 교장으로 모시려는 보은 군민의 뜻에 따라 추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말미암아 보은농업학교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때 보은 출신 국회의원 김교현(金敎賢)이 내무부장관이던 신성모에게 추천하여 충청북도지사에 취임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내게는 합당치 않은 자리라 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다. 뒤에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받기도 했으며, 인촌 김성수가 부통령이 된 뒤 문교부장관으로 추천하였으나, 오히려 인촌더러 빨리 부통령에서 내려오라며 ‘이승만 독재의 하수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다.

1955년 1월 12일 66세를 일기로 양태승은 세상을 하직했다. 일제하 오산고보와 함께 한국의 양대 사학 중의 하나인 고창고보의 설립자이며 때 묻지 않은 순백의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생애를 일관한 양태승은 이렇게 그의 인생을 마감했던 것이다.

해방 후부터 고창고보 동창회에서는 모교의 설립 공로자인 양태승의 숭고한 교육이념을 기리기 위해 공적비와 기념관 건립이 논의되었으나 그동안 6·25전

쟁, 4·19혁명, 5·16 등 잦은 정변으로 번번이 중단되었다가 1966년 12월 전북도 교육위원회와 고창고 육성회, 총동창회가 힘을 합쳐 2층의 ‘양태승교장 기념관’ (연건평 86.2평)을 건립하고 그의 항일 민족교육 이념을 새겨 영구히 후세에 전하게 되었다. 양태승은 고향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에 잠들어 있다.

계몽운동가이며 불우이웃의 아버지 정인세

정인세鄭寅世는 1930년대인 일제강점기에 YMCA를 중심으로 이 고창 청소년운동과 농촌계몽운동을 선도한 지도자이다. 소년 잡지를 창간하여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었으며 체육인으로서 민족체육운동의 교범이었던 덴마크 체조를 이 고창에 보급하기도 했다.

신사참배 거부와 YMCA의 항일운동으로 모진 옥고를 치렀으며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평생을 복음사업에 헌신했다. 6·25전쟁 때는 미국인 여자 선교사를 인민군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순교자적인 신앙심으로 몇 고비의 사선을 넘었으며 십자가를 맨 고난의 행군을 감내했다. 그는 타향인으로서 광주 사람보다도 더 광주를 사랑했으며 그 사랑은 넓고 깊었다. 평생을 전쟁고아와 정신질환자나 불구 폐질자를 돌보며 광주에서 살다가 광주에 묻힌 영원한 광주인이었다.

친구 따라 광주에

그는 원래 서울 토박이로 1909년 마포에서 비교적 부유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선린상업학교 재학 중에 운동을 좋아해서 배구 선수로 활약했으며 세계 일주의 꿈을 안고 무술을 몸에 익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YMCA 체육관에서 유도를 수련하여 2단의 자격을 얻었다. 이 수련장에서 김후옥金厚玉과 사귀게 되었는데 이때 김후옥·이인덕李仁德과 함께 가장 뛰어난 기량을 보여 YMCA 유도부 삼총사로 불렸다. 이것이 김후옥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이들 중 공부 잘하고 성격이 유순하고 얌전한 정인세가 유도부 반장이었다.

우리나라 초창기 체육은 유도·권투·체조·축구·배구·야구 등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주로 YMCA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서울의 중앙YMCA는 조선 체육회와 더불어 근대한국 체육계의 두 기둥이었다. 지방에서는 광주가 YMCA 활동이 활발



■ 정인세
이 고장 청소년운동과 농촌계몽운동을 선도한 지도자이다.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사회복지사업에 헌신했으며 그가 설립한 귀일원은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연원이 되었다.

했는데 당시의 YMCA는 민족주의자들의 결집체였으며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통해 민족계몽운동을 선도했다.

이 무렵 중앙YMCA 체육관의 삼총사인 정인세·김후옥·이인덕은 장안 기생들의 선망과 화제의 대상이기도 했다. 특히 종로에 있었던 한성권번(漢城券番) 기생들에게 삼총사는 인기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 한소옥(韓小玉)이라는 기생이 김후옥을 집요하게 유혹했다. 나중에는 그가 묵고 있는 서울 집 앞에 셋방을 얻어 살면서 끊임없이 접근해오자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어머니가 김후옥과 가장 친한 정인세를 불러 통사정을 했다. 어머니는 정인세에게 “후옥이가 자

네 말밖에 안 들으니 후옥이를 설득해서 함께 광주에 내려가 몇 해 동안만 있어 달라”는 것이었다.

김후옥의 어머니는 정인세와 함께 광주에서 2~3년 있다 보면 좋은 친구의 화를 받아 마음잡고 사람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었다. 정인세도 친구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김후옥과 함께 광주에 내려온 것이 정인세가 광주와 평생의 인연을 맺게 된 계기였다. 정인세의 나이는 23살, 김후옥이 22살 되던 해였다.

Y총무로 종교·체육 활동

1932년 광주에 온 뒤 바로 김후옥은 총장로5가 지금의 광주극장 옆에 있었던

광주YMCA의 체육부 간사 겸 종합체육관장이 되고 정인세는 유도 사범으로 후진양성과 이 지방 체육 발전에 헌신했다.

그는 체육활동 외에 문화운동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933년 정인세는 김태오金泰午(훗날 중앙대 부총장 역임), 이택규李澤圭(광주 지역 사회운동가 조아라 여사의 남편) 등과 함께 소년 잡지 『새동무』를 창간했으며 많은 소년들을 지도했는데 이들이 ‘전국 동요·동화대회’에서 언제나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새동무』는 일제의 핍박으로 오래가지 못해 폐간되었고 이후 정인세는 유도 도장의 진흥에 전념했다.

이때 유도 도장은 한국 사람들이 다니는 YMCA 체육관 말고도 대의동, 지금의 광주동부경찰서 건너편에 일본 경찰 출신인 도쿠나가徳永라는 사람의 도장이 있었다. 이곳은 공무원이나 일본 사람들이 주로 다녔는데 광주YMCA 유도부는 도쿠나가도장의 실력에 뒤지지 않으려고 피나는 수련을 했다고 한다.

정인세는 김후옥과 금교錦橋 건너편의 녹성상회綠星商會 건물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운동을 했다. 그의 나이 27세이던 1936년에는 수피아 출신인 최병준崔丙俊(광주 3·1독립운동 주도) 목사의 딸과 결혼, 광주에 정착했다.

정인세는 또 유도뿐 아니라 광주에 최초로 텐마크 체조를 보급시킨 사람이기도 하다. 그가 광주에 내려온 직후인 1932년 7월 9일 양림동의 숭일학교에서 제1회 텐마크 체조 강습회를 열고 각급 학교 교사들에게 이 체조를 보급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 밖에도 배구·농구·축구 등 만능 체육인으로 수피아여학교에서 농구 코치도 했다.

1935년부터는 YMCA 간사로 있으면서 성서반과 YMCA 주일학교 수련회의 강사, 그리고 농업실습학교의 학감을 지냈다. 이 농업실습 학교는 1933년 광주 YMCA의 농촌사업 협동 총무였던 올리버 에이비슨(Oliver R. Avison, 한국명 : 어비슨) 선교사가 설립했다.

한편 정인세는 신앙인으로서 목자의 길을 걷기 위해 1937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했으나 그해 9월 신사참배 거부로 학교가 폐교되어 광주로 돌아왔다. 광주에서도 신사참배 거부로 숭일학교·수피아여학교 등 기독교계의 학교들이 모두 폐교되고 종교계가 탄압을 받고 있을 때 광주YMCA도 헌병대의 수사 대상이 되어

1939년 정인세는 백영흠(白永欽)과 함께 1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

정인세는 출옥한 뒤 광주를 떠나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 일제 말의 암흑기를 지내다가 광복 후에 최홍종 목사의 권유로 다시 광주로 돌아왔다. 그는 한때 수피아여학교 교감으로 재직했으며 뒤에 광주YMCA 회장인 최홍종 목사를 도와 1946년까지 총무를 맡아보다가 1948년 5월에 다시 제3대 총무로 임명되어 실질적으로 YMCA를 이끌었다.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미국 여자선교사이며 수피아여학교 교장인 한국명 유화례를 인민군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3개월여 동안 필사적인 고난의 탈출을 감행했다. 어디를 가나 눈에 띄는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흠이불에 그녀를 싸서 풀 더미를 덮어 지계에 태우고 동광원(현 귀일원의 전신) 동료인 조용택, 이현필이 번갈아 지계를 뚫었다.

처음에는 남평 방면의 산중에 굴을 파 놓았으나 피난민들의 발길이 미치자 다시 이현필의 친척집이 있다는 화순으로 발길을 돌렸다. 밤낮으로 산길을 헤매며 화순에 도착한 이들은 도암면 산골과 동북면 화학산의 동굴과 때로는 감감한 농가의 벽장에 숨어 콩보리밥과 쑥죽으로 연명, 10월 6일 광주로 돌아올 때까지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 이 피난길에서 조용택은 바깥소식을 탐지하기 위해 산을 내려갔다가 인민군에 피살되어 순교했다. 이들은 순교자적인 신앙심으로 십자가를 메는 고난을 이겨냈으며 기어이 유화례를 지켜냈다.

유화례는 1975년 5월 <전남매일신문>에 연재한 그녀의 회고록에 생사의 고비에서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켜준 정인세와 동광원 청년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바 있다.

정신질환자와 함께 한 노후

YMCA 총무를 그만둔 후 정인세는 동광원(현 귀일원의 전신)을 맡아 고아들을 돌보았는데 동광원은 부모를 잃고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광주의 유지 70여 명이 힘을 모아 설립했다. 처음에는 72명의 고아들을 수용했는데 1964년에 폐쇄될 때는 수용 고아가 6백여 명에 달했다. 정인세는 이때 자기 아들딸도 고아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게 했다고 한다. 그 뒤 그는 생애를 마치고

까지 방림동에서 동광원의 후신인 사랑의 집 귀일원歸一園을 맡아 2백여 명의 정신질환자들을 돌봤다. 그는 그동안 많은 마스크들이 그의 헌신적인 생애를 취재하려 했으나 한 번도 이에 응한 일이 없었다.

1980년대에 필자가 광주시민대상 심사위원(봉사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시민대상 봉사상에 정인세 선생을 직권 추천하여 심사위원 전원 일치의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시청 직원이 방문하여 그 사실을 알리자 일언지하에 수상을 거부했다.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는 평소에 시설 유지비나 경비를 사사로이 도움 받거나 손을 내민 일이 없다. 그저 굶지 않고 헐벗지 않으면 되지 구걸해서 시설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 지방 종교·교육·체육문화 발전의 큰 기둥이었지만 한 번도 이를 드러내지 않고 돌아앉아 오로지 불우이웃을 돌보며 생애를 보냈다.

한편, 정인세는 중앙YMCA 체육부에서 유도를 수련할 당시 체육부 간사인 현동완玄東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의 권유로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평생 사제지간으로 지냈다. 그가 어렸을 때 그 또래의 어린 소년들과 크리스마스 불우이웃돕기 메달을 팔러 나갔는데 3일 동안 거리를 헤매며 행인들에게 거지처럼 동정을 구했고 집집마다 방문하며 옥을 먹거나 수모를 당하면서도 메달을 팔았다. 어린 소년들로서 이렇게 헌신적인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현동완으로부터 받은 감화 때문이었다. 정인세는 ‘그분의 한 말씀 한 말씀은 평생 동안 나를 지켜주는 영혼의 양식’이 되었다고 말하곤 했다.

그는 철저한 금욕생활로 육식을 금했으며 기아를 면할 정도의 소식을 했다. 그는 항상 굳센 힘과 지사적 기질, 그리고 체육인으로서 살아온 친구 김후옥을 잊지 못했으며 그와의 인연 때문에 광주에서 온 생애를 보내게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그는 60여 년 동안 광주에서 그늘진 곳만을 찾아 봉사와 헌신의 생활을 하다가 지난 1991년 4월 29일 생애를 마쳤다.

새마을운동의 뿌리 동광원

이 밖에도 광주의 근현대사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인물들이 많다. 그들의 행적을 모두 이 책에 담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서는 새마을운동의 숨은 주역과

격동기의 광주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집안을 소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근대화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 추진 모체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새마을운동이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뜻밖에도 그 뿌리가 광주요, 그 현장이 동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당초 박정희 대통령은 재건국민운동을 추진하면서 자조 자립을 위한 국민 각성운동을 모색하던 중 유달영(柳達永) 교수를 만나 농촌 부흥운동을 이끌 지도자의 추천을 의뢰했다. 이때 유달영 교수가 추천한 사람이 바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제자였던 김준(金準)이다(일부에서는 김준을 소개한 사람이 농림부장관 김보현이라는 설도 있다).

김준은 박정희 대통령이 꿈꾸던 새마을운동의 철학을 완성했으며 새마을중앙연수원장과 이어서 중앙회장을 역임하면서 이 운동의 골격을 세우는 등 구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리고 김준이야 말로 이 고장이 낳은 농촌지도자요 농촌 부흥의 이상을 몸소 실현한 사람이다.

그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대를 나와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중 신안동 재피교회에서 정인세의 설교를 들었다. 그는 정신질환자나 불구 폐질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불우한 이들의 자조 자립을 위해 헌신하는 정인세의 독실한 신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김준은 가난에 찌들린 농촌과 불우한 이웃들에게 자조 자립과 경쟁의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 평소에 꿈꾸어 오던 이상이었다. 따라서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인세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즉시 교수를 사임하고 동광원에 들어가 불우한 사람들을 돌보며 성실과 정직으로 자조 자립의 의지를 심어주었다. 집 앞을 쓸고 마을길을 넓히고 주거와 생활환경, 주변 환경의 개선에 앞장섰으며 매사에 솔선수범했다. 거름통을 메고 농사를 지으며 스스로 노력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동광원의 이 같은 교육정신은 바로 새마을운동의 모티브가 됐다. 다시 말해 새마을운동은 동광원에서 그가 몸소 시도하고 실천했던 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했던 것이다. 그리고 동광원에서의 생활을 이론화하고 실천방안을 체계화하여 이

것을 새마을운동의 철학으로 완성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의 고도성장과 근대화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운동의 뿌리가 된 광주의 정인세와 동광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동광원과 새마을운동의 정점에 김준이 있었다.

근세 광주의 향맥

국채보상운동을 전후로 하여 광주 지역의 주요 인사들은 1907년 11월 친일단체인 일진회에 맞서 조직된 대한협회大韓協會 광주지회를 조직했다. 대한협회는 대한제국 시절에 일본 통감부에 의해 강제 해산당한 대한자강회를 재정비한 단체로 남궁억南宮憶, 오세창吳世昌, 장지연張志淵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했다. 당시 대한협회에 참여한 광주 지역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당대는 물론 이후에도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많다.

초대 회장인 박원승朴源升은 지회의 회관 건립비를 쾌척한 재력가였다. 부회장인 최상진崔相鎭 역시 광주지방금융조합의 조합장을 지냈고 국채보상운동의 주역 중 한 사람인 최성기의 부친이기도 하다. 일반회원 중에는 중국의 인민음악가 정율성鄭律成의 부친인 정해업鄭海業의 이름도 눈에 띈다.

당시 광주지회의 간사원幹事員 김인수金仁洙 일명 김성수는 국채보상운동과 잡농사운동 등 항일 및 계몽운동의 지도급 인사였으며 광주 최초의 공연장인 양명사陽明社와 국악경창대회 등 개화기 문화운동의 주역이기도 했다.

또한 그의 아들인 김용환金容煥은 1920년대 동아일보 광주지국장을 지냈는데 이 밖에 전남청년연맹과 신간회에서 활동했고 계유구락부 회원으로 경양방죽 매립 반대운동과 광주천변의 세궁민細窮民 구제활동에 앞장섰다. 해방 후에는 광주상공회의소 부회장을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5·16 때는 군정 연장에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른 일도 있다.

또 그의 부인 최현숙崔賢淑 崔秀香이라고도 함은 1919년 수피아여학교 재학 시절에 만세운동에 참가해 실형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학생으로 기록됐다. 그녀는 스승인 박애순朴愛順과 함께 태극기를 제작하여 광주 큰 장날 만세운동에 나섰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나이 오십에 이르

도록 늘 머리를 묶고 지냈다. 또한 동아일보 광주지국에서 한때 이 지방 최초의
여기자로 활동한 적도 있었다. 초대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김양균^{金亮均} 변호사가
바로 김용환-최현숙의 아들이다. 또한 김용환의 동생 김용준^{金容俊}은 광주학생독
립운동의 중심인물 중의 한 사람으로 그 때문에 3년간 옥고를 치렀다. 즉, 이 집
안의 행적을 보면, 마치 격동기 광주의 역사를 옮겨 놓은 듯하다. 이런 점에서 3
대에 걸친 김인수 집안은 광주의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주목할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제2장

1920년대의 광주



■ 통한의 무기명 르포

조선의 복지 광주

일제강점기 광주의 역사를 다룬 자료를 찾아 보면 우선 두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첫째는 일본인들이 저술한 것이나 관청에서 발행한 자료는 더러 찾을 수 있으나 한국인이 우리 입장에서 다룬 자료는 아주 드물다는 점이다.

둘째는 강점기 중반, 다시 말해서 1930년대까지의 자료는 눈에 띄지만 중일 전쟁 이후의 자료는 좀체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일제가 전쟁 수행으로 심각한 물자부족을 겪으면서 종이류 소비를 억제하는 바람에 인쇄물의 발간이 통제되었으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까지 폐간되었기 때문이다. 또 전시의 보안상 이 유로 통계나 자료의 공표가 통제된 데다 그나마 남아있는 자료마저 폐망 직후에 소각되거나 폐기된 영향도 있다.

이러는 가운데서도 드물게나마 일제강점기 광주 모습을 알려주는 자료들이 있다. 다음에 소개할 자료는 1926년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동아일보에 연재된 광주에 관한 기획기사다. 이는 한국인에 의해, 한국인의 관점에서 당시 광주가 안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문제를 예리하게 파헤친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기사에는 몇 가지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은 스스로를 내지인이라 불렀는데 이 기사에서는 내지인이란 표현을



■ 지금의 전일빌딩 자리에서 광주동부 시가지와 지산유원지
 쪽을 바라보고 찍은 1928년의 광주
 오른쪽 멀리 서석교회, 바로 앞 오른쪽 돌담이 지금 상무관
 돌담이며 왼쪽 2층 양옥이 금융조합연합회(훗날 농협 도지
 부 자리), 그 뒤로 광주여고, 전남도립사범학교가 보이고
 장원봉(왼쪽), 향노봉(오른쪽)이 멀리 보인다.

피해 외국인으로 구분했고 일본인 관련기관이나 단체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나아가 전기, 전화,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이 일본인 거주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고 상공업 분야에 한국인들의 참여가 지극히 부진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꾼 쌀은 거의 일본으로 나가고 대신 ‘알랑미’라 부르던 안남미(安南米), 베트남산 쌀과 만주속(滿洲粟), 만주산 좁쌀으로 연명하던 식민지 백성의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수출입(輸出入)과 이출입(移出入)이란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수출입은 식민지를 포함한 일본의 대외 무역거래를 뜻하고 이출입이란 일본에만 있었던 특이한 용어로 식민지를 포함한 일본 국내 거래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일본 본토와 조선, 만주, 대만, 사할린, 관동주, 남양 군도의 상호간 거래를 이출입이라 했는데 일본과 식민지 간의 거래를 말하는 것이다.

이 밖에 이 기사를 통해 당시 광주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단체의 가입과 활동을 통해 공고한 결속력과 강한 교육열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덧붙인 말은 []표 안에 넣었다.

주인 잃은 광주

광주는 전남도정을 요리하는 도청소재지로 남선(南鮮, 남조선의 약칭)의 응도라는 칭호를 받는 곳인바 동에는 장엄한 무등산이 웅립해야 있고 북에는 양양한 극락강수(極樂山江)가 쉬지 않고 흘러가는데 기후 풍토가 온난해야 조선의 복지(福祉)라고도 할 만한 지방인데 총면적 약 25방리(方里)로 15개 면으로 분하여 있는 중, 2만 2,334호에 인구 10만 9,326명[광주군 인구]이 주거한다.

조선철도주식회사의 전남선(全南線)이 호남선 송정리(松亭里)에서 발단하여 광주역을 거쳐 담양까지 통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통도 과히 불편치는 아니하다.

시내(광주면) 호구를 조사하여 보면 조선인은 3,079호에 인구 1만 6,838명이며 외국인 1,028호에 인구 4,199명, 합하여 4,107호에 2만 1,037명이 집단생활을 하는 시가지로 전등, 전화, 수도, 하수구 등의 설비가 있으므로 모방면(某方面[일본인을 말함]에서는 공적으로 사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필단(筆端)이나 구두로 대광주의 건실한 발전을 호풍적으로 선전하여 외래분자를 유도하는 반면에 미약한 조선인의 생활 상태는 60 이상 된 노인의 기력과 같이 쇠퇴 중첩할 뿐이요 도회지의 정화(精華)라고 하는 물질문명의 이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나 광주의 주인공인 조선인이 얼마나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지 먼저 전등으로 보면 조선인 점등(點燈)은 702호로 정액등(定額燈) 2,322등, 종량등(從量燈) 349등이며, 일본인 점등은 992호로 정액등 4,532등·종량등 1,508등이라 한다.

둘째로 전화 가입자 수를 보면 조선인은 65호에 불과하나 일본인은 3백호 이상을 산(算)한다.

셋째로 상수도의 사용자 수는 공설공용전이 조선인 96호·일본인 180호, 사설공용전이 조선인 5호·일본인 185호, 사설전용전은 조선인 20호·일본인 238호라 한다.

하수구의 형편을 보면 일본인만이 집중하여 사는 본정 등지는 경성[서울] 중로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시설되어 있으나 조선인이 집중한 곳을 보전대 우천(雨天)에는 도저히 출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독이 수기옥정(須奇屋町[현 충장로5가와 수기동], 누문리[누문동과 북동] 같은 곳은 비가 조금만 오면 수전화(水田化)하여 선척(船隻)을 준비한다면 모르거니와 교통이 두절되는 중에 있고 보니 벌써 조선인

의 광주로서는 낮이 나간 지 오래요 일본인의 광주로서는 찬미할 만하게 발전 중
이므로 조선인을 위하여 존재한 본란에 광주를 소개할 용기조차 없었으나 수행數
行으로 대개를 소개하려고 한다.

광주의 산업

전군全郡을 통하여 경지 면적은 논은 1만 1,412정町 1반反이며 밭은 5,282정 8
반, 합하여 1만 6,694정 9반인 바 매년 쌀 수확고는 양미糧米 13만 1,284석, 나
미糯米[잡쌀] 6,064석, 육도陸稻[밭벼] 1,040석, 합계 13만 7,384석을 대금으로 환
산하면 467만 856엔인 바 대부분이 현미로 되어 일본 등지에 수출하게 되므로
농사짓기에 불철주야하고 혈한血汗을 흘리는 농가에서는 안남미安南米나 만주속滿
洲粟이 아니면 연명조차 어려운 형편에 처하여 있다.

전곡田穀으로는 그 중요한 것을 시示하면 보리·밀보리·면화·콩·대마[삼]·저마
[모시]·완초[왕골]·감자·고구마·과일·채소·잡곡 등을 합하여 연산 약 239만
6,700여 엔이라 하며 근년에는 양잠업이 점차 치열하게 되어 연 2천여 석을 산
하게 되었으나 그도 역시 조선인의 경영으로는 하나도 불만한 것이 없다.

축산으로 중용한 것은 닭·소·돼지·말 등인 바 가장 불만한 것은 나준집羅駿集
·이은경李銀慶 양씨의 경영인 남선종금장인 바 2~3년 전부터 설립되어 수백 수의
개량 종계種鷄를 사육하며 작년부터서는 최신식 부란기孵卵器를 사용하여 연 수천
수의 병아리를 각 군 축산조합과 결탁하여 일반 사육농가에 배부할 뿐만 아니라
종란種卵으로도 연간 수천 개씩을 외지에 수출한다고 한다.

상업계를 일변하면 더욱더 한심치 아니 할 수 없는 바 광주의 중앙인 본정 일
대에는 2, 3층 양옥상점이 즐비하여 항상 그 매매가 은성하나 아무리 눈을 씻어
가면서 심방하라고 할지라도 조선인 상점은 한 칸도 발견하기가 곤란할 지경이
므로 광주의 조선인 상업계는 여하하다는 것은 개론할 필요가 없거니와 이에 본
정 이외의 한산한 지대에 있어서 불만한 것은 고무신 상점이요, 주단포목상으로
는 심덕선沈德善·이재홍李在弘 양 상점이며, 잡화상으로 오직 지정남池禎南뿐이며
완구 및 악기상으로는 김준실金俊實이 경영하는 남해당南海堂 서점 외에는 해륙물
산海陸物産 및 금비金肥 무역상으로 정상호鄭尙好가 경영하는 삼성상회三星商會 등이

있을 뿐이다.

그 외에는 오직 조선인의 상업기관인 시장이 4, 5처 있으니 광주읍내에는 2개소[큰장과 작은 장]·송정시장·비아시장·임공시장 등인 바 연 매매액은 백 수십만원에 달한다 하며 전광주全光州 작년도 무역액을 시示하면 수이출액輸出額 112만 6,831엔이며 수이입액輸入額 482만 91엔이므로 수입 초과액은 369만 3,060엔이라는 거액에 달하게 된다. 이 현상대로 계속된다 하면 불과 기년幾年에 조선인에게는 때집(토옥) 한 간과 조밥 한 그릇도 얻지 못할 것은 명약관화의 사세인 바 지난 8월 중에는 전에 보지 못하던 미두취인소米豆取引所가 한번에 4개소나 생겼으니 길조吉兆인가 흉조凶兆인가.

보잘 것 없는 공업계

공업계에는 조선인·일본인을 물론 하고 더욱 보잘 것 없는 형상인 바 3, 4년 전에는 상당한 규모를 가진 조면공장絲綿工場이 3, 4개 처 있었으나 그 후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거개 실패해 귀하고 근자에는 공장이라고 할 만한 것을 광주형무소에서 경영하는 제지공장, 솔刷子생상조합공장, 전남도시제사주식회사, 김언수金彦洙 경영의 남선양말공장, 쌀 도정공장이 수 처 있는 바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농한기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새끼·가마니 등의 생산이 불소不少하다는 데 차에 그 중요한 생산품을 유별類別하면 직물 2만 1,000엔, 고공蠟工제품[각종 짚풀로 만든 제품] 32만 8,984엔, 주류 21만 5,210엔, 축세공품 3,440엔, 기차 107만 4,976엔, 합계 232만 2,610엔이라는 바 생산기관은 적고 인구의 증가는 격심하여 가므로 대규모 기업은 장래가 유망할 듯 하다고 단언하여 둔다.

전국 최초의 금융조합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남선 유일의 상업은행(여기서는 일반은행을 말함)으로서 내용이 충실하기가 전선全鮮에 제일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전남 경제계의 중심이 되어 있는 호남은행은 1920년 8월에 자본금 1백 50만 원의 주식회사를 현준호 외 수명의 진력으로 창립되었는데 지점을 목포, 순천, 장성 3처에 설치하고 전남의 경제를 좌우한다는데 지난 8월 말 업적을 시示하면 예금 1백 98만 867엔

71전이요 대출 2백 79만 7,970엔 6전이라 한다. 그 외에도 옛날 광주농공은행의 후신인 조선식산은행 광주 지점과 전남 도내에 산재한 금융조합을 통괄하는 금융조합연합회와 광주, 광산 양 금융조합이 있다더라.

교육계

교육계에 있어서는 군내 15개 면을 통하여 공립보통 학교 9개소에 취학 아동수는 3천 43명이며 순 한문만을 교수하는 서당이 1백여 개소에 학도수는 1천 2백여 명에 달한다. 그 외에도 야소교회가 있는 동리에는 소규모의 학원 등이 있으나 통계적으로 조사된 것이 없다. 시내에는 광주공립고 등보통학교를 위시하여 각종 학교가 10여 개소에 달하므로 조선 형편의 소도시로는 타에 비하여 별로 손색이 없을 만큼 설치되어 있으나 한 가지 유감인 것은 여자고등보통학교가 아직까지 설치되지 못한 것이나 금번에는 도 평의원 회의를 기회로 광주여자고등보통 학교 창립 기성회를 조직하고 관민 일동이 차의 기성을 촉진하는 중에 있으니 명년(1927년)부터는 아마 개교의 사광을 볼 듯하다는 바자에 각 학교로 보면 여좌하다더라.

광주공립농업학교

1909년에 창립하여 오늘날까지 17개 성상을 보냈으며 그간 학제를 개편함이 4~5차요 교사를 이전함이 4차 만에 현 교사에서 갑종 농업학교로 승격한 지 3년이다. 재학생 수는 12학급에 212명이며 졸업생 수는 12회에 367명이다. 교장 나가가와中川千吉 외에 직원 10여 명이 산업교육에 진력 중이라는데 연 경비는 약 3만 엔이라고 한다.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1920년에 창립한 것인데 전라남도 내를 통하여 보통학교 졸업생 수는 연년세로 증가하나 그들을 수용할만한 중등 정도의 학교가 없음을 유감히 여겨 도내 유지들의 발기로 창립비 10만여 엔을 각출하여 사립 광주고등보통학교로 개교한 지 2개년간 광산관光山館을 가교사假校舍로 사용하고 1922년 4월부터 신축교사로

이전하는 동시에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로 되었다. 현재 학생 수는 10학급에 390명이며 졸업생은 2회에 78명을 내었다 교장 시라이이(白井規一) 씨 외에 직원 20여 명이 있다는데 연 경비는 7만~8만 원에 달한다더라.

전남도립사범학교

1923년의 창립으로 개교 당시에는 교사가 준비되지 못하여 고등보통학교의 한쪽 구석에서 교수하여 오다 최근에 동문 밖 원촌리(院村里)(지금의 동명동을 말함)에 철근 콘크리트 2층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교육과정은 특과 2년, 강습과 1년이면 졸업케 한다. 재학생 수는 3학급에 124명이며 졸업생은 3회에 230명을 냈다. 교장 오다니(大谷源助) 외 직원 11명이 사범학교에 전력하고 있으며 연 경비는 5만 원에 달한다더라.

광주공립보통학교

광주에서 최초 창립된 학교로 1906년 한국시대에 만록총중(萬綠叢中)에 일점홍(一點紅)의 격으로 창립되었으므로 광주 청년 전부가 이 학교 출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발전이 장족적임은 연년이 교사(校舍)를 증축할지라도 교사가 부족하게

■ 광주·전남 최초의 중등교육기관이던 사립측량학교(훗날 광주공립농업학교) 개교 당시 전경(1909년).



© 『광주농고 80년사』

되었으므로 재작년(1924년)부터는 제2보통학교를 설립하여 여학생 전부를 분리시켰는 바 현 재적수는 14학급에 950명이며 졸업생 수는 16회에 683명이다. 교장 야마모토山本哲太郎 씨와 직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 경비는 2만 원이라더라.

광주 제2공립보통학교

1924년에 순 여자보통학교로 창립되었는 바 재학생 수는 410명에 졸업생 수는 1회에 21명을 냈다. 교장은 야마모토山本哲太郎 씨이며 직원 6명이 훈도에 노력하는 중이며 연 경비는 7천~8천 원에 달한다더라.

사립 수피아여학교

양림리에서도 한 산모퉁이를 지나 서 있으니 미국인 선교회의 경영으로 1907년에 창립되었다. 재학생은 고등과 4학급에 40명, 보통과 6학급에 150명이며 졸업생은 고등과 7회에 27명, 보통과 13회에 103명을 냈다. 올 봄까지는 구부인(제2대 교장, 1910년 9월에 취임), 마馬 부인(제3대 교장, 1924년 8월 취임) 등이 교장이었으나 수피아여학교를 문부성文部省 지정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김아

■ 광주여고보생들의 공원 나들이
(광주공원의 신사앞, 1931년).



각金亞各(D.J. Cumming, 제4대 교장, 1926년 4월 취임, 뒤에 송일학교장도 역임)이라는 남자로 시무케 하였다. 직원 11명이 헌신적으로 교수하는 바 연 경비는 7천 원을 요하며 내년 봄부터는 교사를 신축하는 동시에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할 터이므로 장래가 더욱 유망하다더라.

시립 송일학교

양림리에 있으니 역시 미국인 선교사 경영으로 1907년에 창립되었는데 재학생 수는 고등과, 보통과를 합하여 200여 명이며 졸업생은 고등과 8회에 38명, 보통과 14회에 182명이다. 공업부工業部를 두어서 무산無産 학생의 학비를 얻게 하는 관계상 고등보통학교 3학년 정도를 4년에 졸업케 한다. 교장 이보린李保麟 씨 외 직원 9명이 시무하며 연 경비는 6천여 원을 요한다고 한다더라.

시립 광주보통학교

학령에 달한 무산아동을 교양키 위하여 광주 조선인 유지들이 발기로 1922년에 창립기성회를 조직하여 창립. 대표자 김형옥金衡玉, 조만선趙萬善, 최선진崔善鎭 3씨를 위시하여 전 광주 인사의 열혈熱血의 결정結晶으로 동년 4월부터 개교하였는데 교원 제씨의 희생적 정성에 호평을 획득케 되어 입학생이 연년이 증가하는 중이라는데 재학생 수는 5학급 300여 명으로 남녀공학제男女共學制를 취하여 연 경비는 5천 원에 달한다는데 직원은 남녀 5명이 열심히 시무하여 그야말로 광주 정화精華라 한다더라.

시립 배영학교培英學校

미국인 선교사 서로득徐路得의 경영인 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부터 향사리鄉所里 주일학교라고 하여 수십 명의 무산 아동을 교양하여 오던 바 재작년부터 최남립崔南立, 崔漢泳의 伯兄을 교장으로 하여 남녀 직원 5명이 시무한다. 학생은 5학급에 1백 30명이며 졸업생은 1회에 6명을 내었다는 바 연 경비는 2천여 원을 요한다더라.

광주청년학원

광주청년회에서 학령이 초과한 농촌 청년을 위하여 1921년에 창립한 것인데 개원 당초부터 학교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농촌 청년들이 매년 1백여 명씩 입학하므로 그동안 그 정도에 따라 고등과 또는 보통과로 나누어 교수한 적도 있었다. 지금은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보통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정도를 교수하고 2부에서는 동상^{同上} 5, 6학년 정도를 각 1년씩에 수하게 하는 중인 바 재학생 수는 2학급에 92명이고 졸업생은 고등과 40명, 보통과 2백 명을 냈다는 데 연 경비는 2천 5백 원을 요한다더라.

여자야학

3처에 있으니 광주 여자청년회에서 경영하는 것과 기독교청년회(YMCA)에서 경영하는 것, 향사리 기독교회에서 경영하는 것이니 제1은 3학급에 60여 명의 학생과 3명의 직원이 있으며 졸업생은 3회에 30여 명을 내었다. 제2는 재학생 70여 명을 4학급에 나누어 직원 4명이 교수하는 바 졸업생은 2회에 15명을 내었고 제3은 50여 명의 학생을 3명의 직원이 3학급에 나누어 교양 중이라는데 세 야학 다 강사들이 무보수로 교수한다더라.

광주유치원

창립되기는 1922년인 바 그 당시에는 양림, 금정, 누문리 등지에서는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4처에서나 우후죽순 같이 창립되었는데 그 후 경제공황으로 전부 폐원^{閉院}의 비경^{悲境}에 이르렀었는데 오직 광주유치원만은 현 준호^{玄俊鎬}의 의분에 넘치는 동정으로 매년 경비 5백~6백 원씩을 부담하게 되어 지금까지 여전히 재미있게 기독교 청년회에서 경영한다. 광주유치원의 원아들은 25명이며 졸업생 수는 4회에 74명을 내었다는데 보모 2명이 가지나 오이 같이 자라는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중이다. 연 경비는 9백여 원을 요한다더라.

종교계

기독교

미국인 남장로파에서 광주에 선교한 지 20여 상상에 그 발전되어온 영자影孑를 추구하건대 태초에 선교사 배유지가 내광來光하야 기독교의 정신을 전하는 동시에 양림리를 선교사 주택지로 정하고 그 후 선교, 교육, 병원 등에 종사하기 위하여 도래한 호구가 근 20에 달하며 인구가 60여 명이라는 바 조선인 교회로는 처음에 광주의 중앙인 현 본정本町에 예배당을 초창하였는데 일가월증되는 교도로 인하여 남북 양쪽에 분리하였으며 그 후로는 향사리, 양림리에도 설립되야 합승 4개처 모두 네 곳의 예배당에 수백 명씩의 신도를 갖게 되야 광주의 기독교신자는 실로 2천여 명에 달한다. 중앙교회에는 이수현 李守鉉 목사가, 금정교회는 김응구 金應圭 목사가, 양림교회는 김창국 金昌國 목사가, 향사리교회는 김영식 金永植 목사가 관리한다. 매 1주일에 3회 이상을 집회하여 설교, 기도, 사경查經 등으로 신심信心이 부흥시키며 권유한다는데 작년부터서는 각 교당에서

■ 광주 최초의 교회 예배를 본 배유지 목사의 집

© 광주일보(82. 2. 24)



하기 아동 성경학교를 설립하여 약 1개월간에 무산 아동을 모아다가 국문, 산술 등 일용생활상 필요한 것을 교수할 뿐 아니라 자선구제^{慈善救濟} 등의 사업으로 중인衆人을 개도^{開導}한다더라.

불교

신 수입된 기독교에 비하여 심히 미약하다고 하겠으나 전남의 명산 무등산을 배경으로 증심사, 원효사 외 수삼처^{數三處}의 암자가 있는데 승려라고는 불과 6, 7 명밖에 없는 모양이다. 원래가 모두 빈사^{貧寺}이기 때문에 쓸쓸하기 한량이 없었으나 현 증심사 주지 박병예^{朴秉藝}가 5, 6년 전에 내광하야 그 민활한 수완과 정성으로 점점 원기를 회복하여 현재 신도는 순 부녀자만으로 1백여 명에 달한다. 매 일요일마다 시내 수기옥정 포교당에서 교의^{敎義}를 강설하야 신념을 독실하게 한다더라.

보천교 진정원

작년에야 창립되었는데 하등종교라고 명명할 수도 없는 일종의 도깨비 장난 같은 것이라고나 하겠는데 광주 남단인 서남리^{瑞南里}에다가 수만 원의 경비로 진정원^{眞正院}을 굉장하게 건축하고 낙성식만 있을 후 유아무야의 현상이다더라.

사회단체

광주사회운동에 대하여 기록하라고 하니까 필자는 없던 용기가 생겨납니다. 상기한 전문^{全文}을 통하여 볼지라도 조선인의 광주로서는 ‘보잘 것이 없다’ ‘파멸이다’ 라는 문구를 늘어 늘 때에 심히 불쾌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에 은폐치 못하였습니다. 오직 사회운동에 있어서는 전선^{全鮮}을 통하여 골지^{屈指}하는 곳일 뿐 아니라 조선의 사회운동은 전남에 치중하게 된다는 것도 광주가 전남에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뻔 수 없는 할 말이 있으니 그는 곧 광주노동공제회^{光州勞働共濟會}와 광주청년회를 중심으로 하야 전 광주 사회단체는 양분되어 반목, 질시, 알력을 증첩하야 오던 바 드디어 금춘^{今春}에 축적되었던 감정이 폭발하야 전 조선운동선상

에 일대 파문을 야기시켰던 바 처지 환경과 주의 강령이 동일한 단체로서 융화를 결여하여 전 민중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함을 피차가 다 같이 통회痛悔한 결과로 광주운동을 통일키 위하여 그 통제기관으로 광주협회光州協會를 창립하였으니 일 후에 광주운동은 더욱더 활기와 면목을 일신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려 하는데 자茲에 그 단체별로 대략을 소개하면

광주공립보통학교 동창회

이 동창회를 필두로 함은 누구나 다 의아하실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동창회 그것이 광주운동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현금 광주에 40~50명 투사가 있으나 그 대부분은 동창회의 훈련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약 15년 전 이라고 하면 조선에는 별로 청년단체 등이 없었을 때인데 오직 이 동창회가 창립되야 사상으로 민족적 감정을 분흥奮興시키며 지육부智育部에서는 회관 내에 신문, 잡지 종람소를 두었을 뿐 아니라 강습회, 토론회, 강연회를 개최하여 지식知的 향상을 도모하였고 체육으로는 정구, 축구, 야구 등을 장려하여 옴을 가상히 여기 시던 고故 최명구崔命龜가 회갑기념으로 1912년에 1만여 원의 거액을 투投하여 흥학관興學館을 건축하여 기증하였으니 광주에서 가장 유효하게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그 후 각 사회단체가 발생하는 동시에 모든 사업은 대개 광주청년회에 양보하고 근자에는 연 2회의 총회만으로 친목을 도모할 뿐이라더라.

광주청년회

전 조선민족의 생生을 부르짖던 기미운동己未運動, 3·1운동을 발함의 다음 해인 1920년 전선에 우후죽순같이 청년회가 창립하던 당시에 고고의 성聲을 발하여 조선 민권해방을 강령 삼아 전기前記 동창회에서 경영하던 사업을 전부 그대로 계속하는 동시에 여성해방을 목표로 여자야학을 시작하였다가 광주여자청년회에 양도하였다. 또한 농림개발을 위하여 학령이 초과한 농촌청년을 모아다가 청년학원을 경영하여 우금于今 4개년에 수백 명 농촌 청년을 교양하는 중에 있으며 조선물산장려운동으로 굉장한 시위선전을 마치자 즉시 전체를 위원制委員制로 변경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회관을 작금에 전소시킨 이래



■ 사동 최부자집(위)
세칭 '사동 최부자집'은 1942년에 건립됐다. 이 집을 세운 사람은 흥학관을 세운 최명구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 1919년 광주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아래)
1906년 개교한 광주 공립보통학교는 입학 지원자가 없었는데 특히 여자 졸업생은 7회때까지 4명에 불과했다.

다소 침체의 감이 불무하였던 바 다시 광주운동의 통일과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협회(光州協會)를 창립하였으니 더욱 위세 있는 활약을 하리라는데 김흥선(金興善), 김재명(金在明) 등이 노력한다더라.

전남청년연맹

전남의 청년운동을 통일키 위하여 1923년 창립하였는데 전남 각지의 청년단체 70여 단체를 두었다는 바 군(郡)(청년연맹을 단위로 할 것이나 아직 군연맹이 조직되지 못한 곳이 있으므로 개체로 가입) 서무, 교양, 조사 등 부서를 설치하여 중앙집행위원 15명이 사무를 분담케 하였는데 상무위원 유혁(柳赫), 송동현(宋東顯), 이일선(李一鮮), 박승근(朴承根), 김용환(金容煥) 등이다.

광주여자청년회

1923년 김홍은(金洪恩), 윤경옥(尹敬玉), 정순이(鄭順伊), 정은순(鄭恩順)의 발기로 창립되었는 바 회원은 50여 명이며 위원제에 서무, 교양, 조사, 상회 등의 부서를 분(分)하여 활동한다는데 규중부녀를 위하여 여성야학을 경영한다더라.

광주소년회

금년 7월 중에 박오봉(朴五奉), 서재익(徐在益) 등의 발기로 회원 26명이 창립하였는데 부서는 서무, 체육, 지육(智育) 등인데 위원제라더라.

광주점원청년회

김형(金炯), 유한옥(劉漢郁), 이성식(李盛植) 등 제씨의 발기로 광주 시내 각 상점에서 노동하는 청년 130여 명으로 창립하였는데 서무, 재무, 교양, 구호 4부를 치(治)하여 회무를 부담케 하고 자체 수양을 위하여 기회 있는 대로 강습회 등을 개최한다더라.

광주기독교청년회

1921년 창립으로 이사제에 서무, 교육, 운동, 사교, 종교 등의 부서로 분(分)하여

있다는데 광주유치원과 서북瑞北여자야학 등을 경영할 뿐외라 작년부터서는 농촌 사업에 착수하여 시내에서 가까운 8개 촌락에 농촌사업반을 조직하여 산업장려 교육 등에 치중한다는데 최흥중 崔興琮, 김철金哲 등이 진력한다더라.

광주형평청년회光州衡平靑年會

금년 2월에 김갑수金甲洙, 조영규趙瑛奎의 발기로 회원 50여 명이 창립하였는데 집행위원 9명이 서무, 교양, 구호 운동 등의 서무를 분담하였다더라.

인쇄직종조합

1919년에 이종대李宗大, 조선만趙善萬, 김득선金得先, 김성옥金聲玉의 발기로 조합원 60여 명이 위원제로 서무, 교양, 조사, 구호 등의 부서를 치하였다더라.

자유노동조합

1926년 4월에 노명석盧明錫, 최준영崔俊永 등의 발기로 조합원 170여 명이 창립하였다는데 제도와 부서는 동상同上.

광주야발직종조합

금년 3월 중에 모모 제씨의 발기로 조합원 26명이 창립하였는데 제도와 부서는 동상.

정미노동조합

금년 2월 중에 장순기張順基, 김정석金正錫 등의 발기로 조합원 200여 명이 창립하였는데 제도와 부서는 동상.

광주철공조합

1925년 11월 중에 한길상韓吉祥, 김종식金宗植 등의 발기로 조합원 70여 명이 창립하였는데 제도와 부서는 동상.

광주면소작인회

1923년 3월 중에 최종섭崔鍾涉, 최영균崔煥均의 발기로 수백 명의 회원으로 창립되야 제도와 부서는 동상인 바 우금于今 4개 성상에 착취에 급급하야 여념이 없는 지주계급에 대항하야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반면에 다수한 희생자도 내었을 뿐 아니라 소작료는 전畝 3할, 답畝 4할만을 주기로 작정하였다더라.

이상에 열거한 외에도 광산회光山會, 광주인쇄공청년회光州印刷工青年會, 광주완차부조합光州腕車夫組合(완차부는 인력거꾼을 뜻함), 광주임은노동조합光州賃銀勞動組合(임은은 임금賃金이란 뜻임), 광주토목조합光州土木組合, 광주신광청년회光州新光青年會 등이 있다 하나 상세는 약합니다.

■종교와 개화

앞의 동아일보를 통해 1926년 광주에 대한 연재 기사를 살펴보았다. 이 기사 가운데 당시 광주의 교회·철도·전기·상수도의 개통 및 초·중등학교의 개교 내력 등에 관해서 주석을 곁하여 역사 기록을 보완해 보고자 한다.

광주 최초의 개신교 교회

광주에 처음 개신교 교회를 세운 이는 배유지(유진 벨)였다. 그는 1896년 이 땅에 첫발을 디뎠고 1898년 목포에 첫 교회(훗날 양동 교회라고 불렸음)를 세웠다. 그리고 1904년 10월 동료 선교사인 오원(오웬)과 조사(助師)인 변창연(邊昌淵)과 함께 광주에 들어왔다.

그들은 목포에서 작은 목선을 타고 영산포에 상륙한 뒤, 다시 교자(轎子) 가마로 갈아타고 이틀 만에 남평을 거쳐 광주에 이르렀다. 그들은 처음 선교의 거점으로 지금의 산수동 일대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무렵만 해도 장원봉 일대엔 호환(虎患)이 잦았다. 이 때문에 이들 일행은 지금의 양림동 일대, 특히 ‘뒗동산’(오늘날 양림산 혹은 사직산 일대)으로 일컬어지는 산자락을 선교의 요람으로 정하고 짐을 풀었다.

그들이 목포에서부터 가져온 짐은 열두 상자나 되었는데 이 짐을 운반하느라 일행은 여러 명의 짐꾼을 고용했다. 그들이 목을 짐은 그해 4월 목포의 김윤수(金允洙) 집사가 먼저 광주에 와서 마련해 놓았다.

집정리를 마친 그들은 동네 길목마다에 방울을 붙였다. 12월 24일 밤에 자신들의 집에서 예배를 볼 테니 모두들 오라는 내용이었다. 예배는 자정을 넘어 성탄절까지 계속됐던 것 같다. 광주의 첫 예배는 이렇게 시작됐던 것이다.

브라운 T. Brown, 한국명 : 부명광(夫明光) 목사가 저술한 『한국선교』라는 책에는 이때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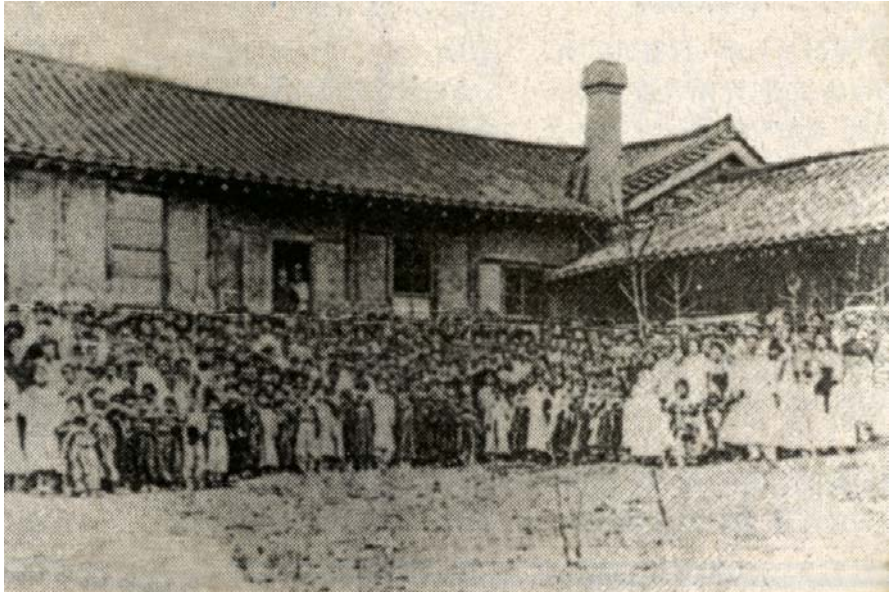
광주에서 첫 교회예배는 1904년 눈 내리는 성탄절에 벨 부부의 임시 거처에서 열렸다. 식탁은 한쪽 구석에 개어져 있었고 의자는 침대 위에 높게 쌓여 있었다. 예배 광고가 나붙고 누가 나타날지 모르는 가운데 선교사들은 기대감에 차 기다렸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작은 길로 올라오는 긴 행렬의 한국인들을 보고 기뻐하면서 동시에 놀라워했다. 한국인들은 선교사들이 가져온 큰 상자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려왔던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오기는 온 것이다. 여자와 남자가 서로 판 방에 들어오자 가운데 서 있던 벨 선교사는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설교했다. 이 단출한 시작에서 광주교회는 성장하여 불과 6년 안에 500명을 헤아리는 교인들이 모이게 됐다(『제일교회 70년사』, 1975년).

북문안교회와 남문밖교회

선교사 배유지의 집에서 시작된 첫 예배 이후 차츰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선교사의 사택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1906년 가을에 지금의 충장로3가에 교회를 지었는데 이 교회는 곧 ‘북문안교회’로 알려지게 됐다. 광주읍성의 북문 안쪽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교회 터는 원래 관아에서 양곡을 보관하던 창고인 억만고(億萬庫)가 있던 곳이었다. 이것을 종종 사창(社倉)이라고도 했다. 창고 앞의 넓은 공터를 사창마당이라 했던 것도 이런 이유였다. 그리고 사창마당은 대한제국 시기에 광주에 주둔했던 진위대(鎭衛隊)가 훈련장으로도 사용했고 정월대보름 때가 되면 성내와 성 밖 사람들이 모여 줄다리기를 하던 곳이었었는데 배유지 선교사가 전남관찰부의 허락을 받아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다.

교회는 설립자인 배유지 선교사가 초대 당회장으로 시무하다가 1916년 평양



■ 1909년의 북문안교회

건물이 ㄱ자인 것은 남녀 교인이 자리를 따로 하고 가운데는 포장을 쳐서 서로 볼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목사는 ㄱ자의 중심 모서리에 서서 예배를 보았는데 이 포장을 걷는 데 20여 년이 걸렸다.

출신인 한국인 최초의 개신교 성직자 이기풍(李基豊) 목사를 초빙하여 제2대 당회장으로 시무하게 하였다.

그런데 1919년 광주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 이 만세운동의 지도자 가운데는 상당수가 개신교 신자였고, 학생 참가자들도 개신교 학교인 숭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이 많았다. 일반 참여자들 가운데도 북문안교회의 신자들이 다수를 이뤘다. 이 때문에 일제는 북문안교회를 폐쇄하기 위하여 교회 터가 국유지라는 이유를 들어 퇴거명령을 내렸다. 이로 말미암아 교인들은 양림동의 오웬기념각에서 잠시 예배를 보다가 남문 밖인 금동(鎭洞)으로 옮기게 되었으며 교회 명칭도 '남문밖교회'로 불리게 됐다. 또 당시 일본식으로 바뀐 동네이름을 따서 금정교회(鎭町教會)라고도 했다.

금정교회는 평면이 ㄱ자 형인 50평 남짓의 기와집이었다. 건축자재가 귀하고 교회 재정이 어려운 시절이라 북문안교회의 자재를 그대로 뜯어다가 조립해 지은 것이었다.

건물을 ㄱ자로 한 것은 ㄱ자의 모서리에 목사가 서고 남녀 교인들은 좌우로



■ 광주중앙교회

중앙교회는 1917년 1월 북문안 교회에서 몇몇 교인들이 북문 밖에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리다가 1921년 최홍중 목사를 초대 당회장으로 초빙하면서 교회의 발판을 마련했다.

자리를 따로 하여 가운데 포장을 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남녀는 서로 바라볼 수 없지만 목사는 양쪽을 다 볼 수 있었다. 출입문도 둘이어서 남녀가 따로 출입했다. 훗날 필자가 최득은(崔得恩)(최홍중 목사의 아들이자 전남대 최협 교수의 부친)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기독교가 들어온 뒤 선교활동을 통하여 사농공상(士農工商)과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볼 수 있었으나 뿌리 깊은 남녀유별의 관념만은 좀처럼 극복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남녀 교인들을 가르던 포장을 걷어내는 데만 2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했다.

1919년 10월 금동 101번지에 세워진 남문밖교회는 이듬해 예배시간을 알리는 종이 설치됐다. 최영육과 김필레 부부가 득남을 기념해 기증한 것이었다. 당시 최영육은 의사로, 김필레는 수피아여학교의 교사로 광주에서 촉망받는 젊은 부부였다. 또한 그들은 최홍중 목사의 동생 내외이기도 했다. 1922년에는 평양 출

신의 김창국(金昌國) 목사가 당회장을 이어받았으며 부설 유치원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유치원은 주목받던 사회사업 중 하나였다.

남문밖교회는 1931년 당국이 읍사무소와 남광주역을 잇는 길을 새로 뚫으면서 교회 부지가 도로에 편입됐고 이로 인해 다시 교회를 금동 126번지로 옮겼다. 새 교회는 1931년 착공하여 1933년 7월에 완공됐다. 옛 북문안교회에서 옮겨온 건물은 이때 맞배집 모양으로 바뀌었으며 바뀐 건물에서 해방을 맞이했다.

남문밖교회, 남부교회, 금정교회 혹은 금동교회 그리고 제일교회 등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뀐 이 교회는 2000년 8월 서구 치평동으로 옮겼고 옛 교회 터는 지금 전남대병원 주차장이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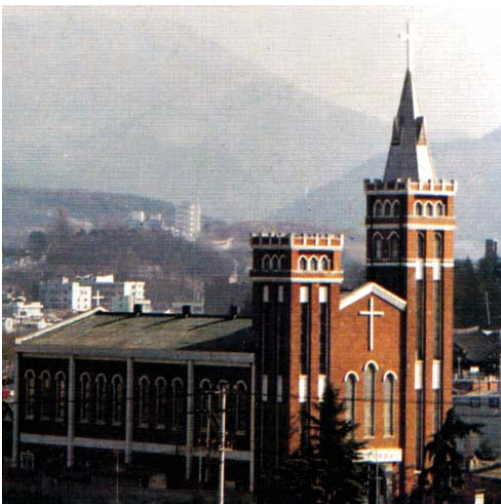
북문밖교회(중앙교회)

광주 최초의 개신교회인 북문안교회는 1917년 1월 일부 교인들이 북문 밖인 지금의 금남로4가에 새 예배소를 마련함으로써 분화된다. 1921년 봄에 최홍종이 초대 당회장으로 초빙되어 교회를 신축했다. 이 교회는 초창기에 사람들의 눈을 끄는 종탑으로 인해 종예배당(鐘禮拜堂) 또는 ‘북문밖교회’라 불렸는데 1925년 가을에 이름을 중앙교회로 바꿨다. 1921년 2월 24일자 <동아일보>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광주 성안 기독교회는 작년 이래로 크게 진흥되어 7백인 이상의 신입 교인이 있으므로 재래의 교회당으로서는 도저히 집회키 곤란하므로 금번 남북교회로 나누어 북문밖 교회는 최홍종 목사가 치리(治理)의 임任에 당當하였다더라.

향사리교회(서현교회)

광주향교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는 서현교회는 1908년 11월 우월순(월순)과 배유지(유진 벨)에 의해 향사리에 주일학교를 세운 것을 시작으로 설립된 ‘향사리교회’에 연원을 두고 있다. 처음에는 120여평의 대지에 한옥을 지었는데 그 뒤에 서로독(스와인하트)이 이곳에 주간학교를 세웠으며, 미국인 스프룬트(W. A. Sprunt)의 후원으로 주간학교를 확장하면서 학교 이름을



■ 서현교회

서현교회는 향사리교회로 예배를 시작, 뒤에 구강정교회, 해방 후엔 서부교회로 불렸다가 오늘의 서현교회가 되었다. 사진의 교회건물은 1990년에 철거됐다.



■ 현재의 서현교회

배영학교(培英學校)라 했다.

그런데 <동아일보> 1922년 8월 26일자에는 이해에 북문밖교회에서 향사리 및 내방리교회가 분리되어 나왔다는 기사가 보인다. 따라서 향사리교회라는 이름은 이때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요람』(1931년)이란 책에는 배영학교가 1908년에 설립됐다고 나와 있고, 『광주향교지』에는 이 터가 원래 향교 소유의 양사재(일명 육영재)가 있던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현교회는 본래 옛 양사재에 세운 주일학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듯하다. 이것이 차츰 향사리교회로 발전했고 배영학교라는 명칭도 주일학교를 확장하면서 붙여진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총독부관보>에는 1936년 7월 구강정교회가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1930년 시내 동명을 바꿀 때 향사리가 구강정(龜洞)으로 바뀐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관보>에 따르면, 이 구강정교회는 1944년 4월에 문을 닫았다. 이후 해방을 맞던 1945년 10월에 재건되어 ‘서부교회’라고 했으며 1968년 10월부터 서현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양림교회

광주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맨 처음 자리를 잡은 양림동은 이 지역 선교본부와 같은 역할을 했다. 개신교단이 운영하는 숭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 이일학교가 있었고, 역시 선교사들이 설립한 제중병원(지금의 기독교병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이 동네에 살았는데 주일이면 광주천을 건너 금동에 가서 예배를 봐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이 때문에 양림동에도 예배당을 세우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24년 10월 양림동 지역의 신자들은 김창국 목사를 초빙해 오웬 기념각에서 예배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26년 9월 마침내 새 교회를 완공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날 통칭 ‘웃교회’ 라고도 부르는 양림교회이다.

최홍중 목사라 더불어 초창기 이 교장의 개신교를 이끌던 양림교회의 초대 당회장 김창국 목사는 1947년 11월 금정교회(옛 남문밖교회)의 담임목사를 지내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에 별세했다. 그의 부인 양응도는 기독교여자청년회(YWCA) 광주지회의 초대지회장을 지냈다. 이들 부부의 둘째아들이 바로 다형 김현승茶兄 金顯承 시인이다.



1936년의 양림교회



양림교회
1967년 신축, 1994년 4월 부활절 예배를 마지막으로 철거되었다.



■ **윌슨홀**
이 회색 벽돌집은 윌슨 선교사의 사택으로 현재
광주광역시문화재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천주교의 전래

광주 공소

천주교 광주교회의 첫 개척자는 나주군 노안면 양천리 본당의 박재수朴在秀 요한 신부였다. 박재수 신부는 당시 목포 본당의 주임신부였던 주재용朱在用 바오로 신부의 권유에 따라 1929년 12월 10일 광주에서 첫 미사를 봉헌하였다. 1898년 목포에 천주교회가 생긴 지 31년 만의 일이었다.

그 뒤 박재수 신부는 선교활동 과정에서 어렵게 모은 돈 1,328원으로 1930년 8월 광주 북정北町, 지금의 북동 33번지에 약 300평의 부지를 마련하여 공소를 지었다. 이 공소는 대구 주교관으로부터 선불로 받은 1년분의 생활비와 그동안 모은 현금으로 지은 것인데 강당을 포함하여 여섯 칸 규모였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집무실로 다섯 칸을 더 지었는데 이를 전후해서 광주 지역의 선교활동이 본격화되었으며 영세를 받은 신도가 100여 명에 이르렀다.

교세가 차츰 확장되어 가자 1933년 5월 7일 드망주 대구 교구장은 광주 공소를 본당으로 승격시켰고 5월 29일 민정호閔正鎬(마르코) 신부를 광주 본당의 초대

주임신부로 임명했다(천주교 광주대교구, 『광주대교구 50년사』, 1990년).

1934년 4월에 광주 감목대리監牧代理로 아일랜드 출신의 오웬 맥폴린 신부(한국명 임신부)가 부임해 왔는데 이때부터 전남은 아일랜드의 콜롬방 신부들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임 신부는 북동의 부지를 1천 3백평으로 늘리고 목조 성당을 지었으며 그 이듬해에는 사제관司祭館을 지었다.

1937년 4월에는 광주가 대구大邱교구에서 분리하여 광주교구로 승격 발족되었으며 본당 8개소, 공소 36개소에 신자가 4천 16명에 이르렀다. 당시 광주교구에는 김창현金昌鉉, 이민두李致斗, 김재석金在碩 등 한국인 신부 3명과 아일랜드인 신부 16명, 도합 19명의 신부가 있었다.

1937년 10월 2일 기존 목조건물을 헐고 광주 본당(연전평 106.7평)이 착공되었는데 수용인원이 500명으로서 당시 신자 수가 200여 명임을 감안하면 꽤 큰 규모였다.

건축 설계 시공은 중국인 가뽀요셉과 마오 신부가 맡았다. 장방형 건물로 정문에 종탑을 세웠으며 좌측면에 제의실과 고해실을 배치했다. 붉은 색 벽돌 건물로 1938년 6월 26일 완공되었는데 이것이 천주교 광주교구의 태 자리인 지금의 북동성당이다. 이 성당은 현재 광주광역시 문화재 기념물 제25호로 지정되어 있다.

성직자들의 수난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광주·전남 지역 외국인 신부 12명과 우리나라 신부 8명을 목포 산정동의 광주 교구청(현 성콜롬반 수녀원)에 감금했다. 이들 중 미국 국적의 신부들은 적성국 국민이라 하여 멀리 추방하고 한국인 신부들은 구금된 지 3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여수성당 이민두 신부는 대구교구 신부에게 ‘여수를 통해 군수물자가 올라간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가 일경에 발각되어 해방되던 날까지 구금되어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일제 말기의 교회는 거의 폐쇄된 형편에 이르렀다.

1945년 4월 25일에는 목포 성콜롬반지구에 강제수용 중이던 아일랜드인 신부 13명을 강원도 홍천洪川으로 이송 수용했는데 이유는 해변과 가까워 간첩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광주 천주교의 초석 현 대주교

개신교보다 한발 뒤늦게 광주에 발을 디딘 천주교가 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의 교세를 이룰 수 있게 된 데는 해롤드 헨리 Harold W. Henry, 1909~1976, 한국명: 현 해롤드헨리라는 미국인 선교사의 역할이 컸다.

현 해롤드 헨리 대주교(이하 현 대주교)는 1909년 7월 11일 미국 미네소타주 노스필드에서 태어나 1921년 미네아폴리스의 가톨릭계 성스테판 학교에서 수학하던 중 콜롬반회에서 발행하는 『머나먼 동쪽』을 우연히 읽고 사제성소의 꿈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 오마하의 성콜롬반 대신학교에 들어가 신학 공부를 마친 다음 1932년 12월 21일 사제서품을 받았다. 서품 후 9명의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중국으로 파견되어 가던 중 일본 고베(神戸)에서 포교지가 한국으로 변경되어 1933년 10월 29일 대구에 오게 됐다.

■ 현 해롤드 헨리 대주교

1934년 나주 노안본당의 보좌신부로 한국에서 사목 활동을 시작하여 1954년 제5대 광주교구장, 1971년 제주교구 초대 교구장 등을 역임했다



© 『광주 대교구 50년사』

그는 6개월 동안 한국어와 한국 풍속을 익힌 다음 1934년 4월 나주 노안본당 보좌 신부로 부임하여 한국에서의 사목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듬해 5월에는 나주 본당 초대 주임신부로 임명됐다.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적성국 국민이란 이유로 억류되었다가 이듬해 8월 본국으로 강제 추방당했다. 종전이 되자 1947년 10월 다시 한국에 돌아와 광주 지목구(支牧區) 경리부장으로 재임했으며,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 광주교구장인 브렌난 몬시뇰이 북한군에 납치되자 7월에 교구장 대리 겸 성콜롬반 외방 선교회 광주지부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현 대주교는 1953년 5월 목포 산정동 본당에서 모란 신부와 함께 가톨릭 최대의

■ 1940년대의 광주 북동성당과 그 주변
광주천주교회는 1930년 7월 공소로
시작했으며 현재의 북동성당은 1937
년 10월에 착공하여 이듬해 6월에 준
공을 보았다.



© 『광주 대교구 50년사』

봉사조직인 레지오 마리를 창단하여 이것이 1958년 한국 본부로 발전하게 되면서 한국 레지오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1954년 10월에는 제5대 광주교구장에 임명돼 전남 각지에 많은 본당을 신설했으며 1956년 9월 제주 감목대리구를 설치하는 외에도 많은 학교와 병원을 설립했다.

1957년 1월 21일 광주 지목구가 대목구大牧區로 승격돼 현 대주교가 광주 대목구장이 됐으며 5월 11일에는 미국 보스턴에서 주교품을 받았다.

현 대주교는 사제 양성을 위해 1959년 1월 로마교황청으로부터 광주 대건신학교(현 광주가톨릭대학교)의 설립 허가를 받아 1962년 4월 1일 개교를 보게 됐으며 같은 해 3월에는 한국 교회의 교계 제도가 설정됨에 따라 광주 대목구가 대교구로 승격되어 대주교로 승품되었다.

교구장 재임 동안 전례 쇄신, 노동자 사목, 가정 윤리 등 다양한 사목 활동을 전개한 현 대주교는 1971년 6월 제주 초대 지목구장에 임명되어 교세 신장을 위해 힘쓰다 1976년 3월 1일 미사 중 심장마비로 선종, 제주도의 첫 순교자들이 묻힌 황사평 순교자 묘역에 안장됐다.

■ 근대교육의 여명과 변천

초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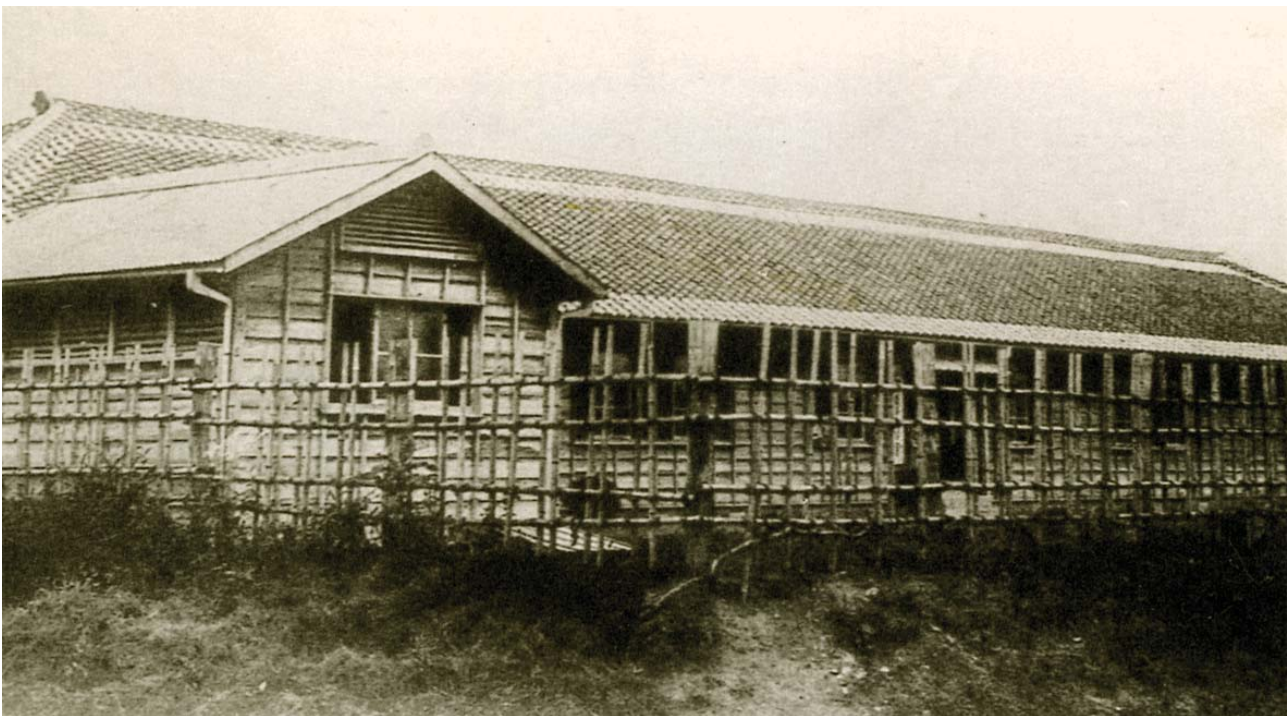
광주 최초의 전남공립소학교

광주 최초의 근대학교를 든다면 1896년 11월에 개교한 전남공립소학교가 그 효시다. 1895년 9월 7일(음력 7월 19일)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의 관찰부 소재지에 공립소학교를 설립하는 정부의 ‘소학교령’이 시행됨에 따라 개교했다.

이 학교는 수업 연한 3년에 학생 수 50명의 한 학급을 모집하기로 하고 광주 향교 옆 사마재(司馬齋)를 임시 교사로 쓰기로 했다.

일명 문회재(文會齋)라고도 했던 사마재는 사마시, 즉 생원과와 진사과에 입격한 사람들이 학문을 논하던 학숙인데 그 위치는 현재의 광주공원 내 어린이헌장기념탑이 있는 공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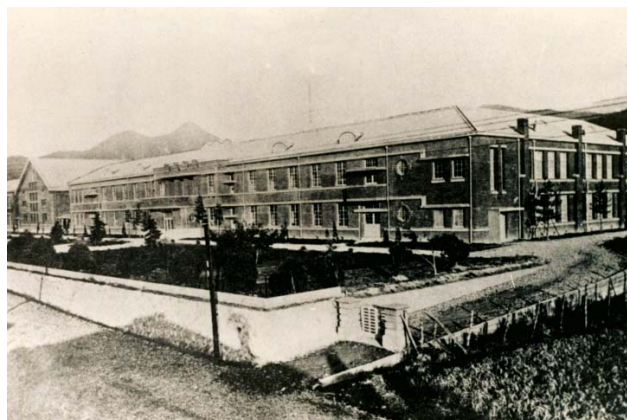
설립 초기의 전남공립소학교는 이름뿐인 학교였다. 1898년 현재 전국에는 24곳에 이런 공립소학교가 있었는데 함경남도 영변과 경기도 개성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소학교는 단 한 명의 학생도 받지 못한 형편이었다. 특히 광주는 그 무렵 단발령 등 일제에 항거하는 의병운동의 중심지로서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교 직후에 교원으로 부임한 충북 청주 출신의 조



■ 금남로1가 시절의 광주공립보통학교
광주공립보통학교는 광주향교 옆 사마재에서
개교한 후 전일빌딩 자리에 교사를 지어 잠시
있다가 1927년 현재의 서석초등학교 자리에
새 교사를 지어 옮겼다.

한설趙漢萬(한성사범학교 출신)은 6개월, 2대 이헌李憲은 11개월, 또 조한설과 1895년 한성사범학교 동기생이었던 3대 장성화張聖化는 단 3개월만 근무하다가 이임했다.

그러다가 1900년 이후부터 차츰 정상화되면서 홍병하洪炳夏 같은 교사는 1902년부터 1907년까지 5년 동안 이 학교에 재직했다. 또 이때부터 중앙에서 파견된 교사 외에 지역에서 추천된 기인섭奇寅燮을 비롯한 보조교사가 한 명씩 배치됐다. 수업연한 3년에 학과목은 수신修身, 독서, 작문, 습자習字, 산술, 체조 등 여섯 과목이었는데 더러 체조 대신에 우리나라의 지리나 역사, 도화圖畵, 외국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관찰사들도 학교운영에 관심을 쏟았다. 1900년 초엽 관찰사 이근호李



■ 광주 최초로 개교한 지금의 서석초등학교

일본인들이 다녔던 심상소학교와 달리 조선인들이 다녔던 학교로 광주 전남 계몽운동의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했다.



■ 현재의 서석초등학교

槓端는 학생들을 자신의 집무실인 선화당宣化堂에 불러 강론을 했고 우등생에게는 지필묵紙筆墨을 지급하기도 했다.

광주공립보통학교

전남공립소학교는 1906년 ‘보통학교령’에 의해 ‘광주공립보통학교’로 이름을 바꿨고 수업연한도 3년제에서 4년제로 개편했다. 이듬해 9월에는 지금의 금남로1가 전일빌딩 자리에 새로 건물을 지어 이전했고 1927년 6월 다시 지금의 서석동으로 옮겨 오늘날의 ‘서석초등학교’가 되었다.

광주보통학교 출신으로 이제는 고인이 된 최윤상崔允尙(전 비아중학교 교장)과 최동문崔東文의 회고담을 소개한다.

최윤상의 회고담

광주공립보통학교는 광주향교文會齋 또는 司馬齋에서 시작한 후 지금의 광주일보사와 상무관이 있는 자리에 임시 교사를 지어 잠시 있다가 1927년 현재의 서석국민학교 자리에 새로 교사를 지어 옮겼는데 이는 3년 전인 1924년 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제2보통학교로 여학생 전용 학교가 분리되었던 것을 다시 합치기 위한 것이었다.

1906년에 창설될 당시 입학한 광주보교의 제1회 졸업생은 18명인데 그 가운데는 최춘열崔春烈, 박용현朴龍鉉, 최덕준崔德俊, 정효룡鄭孝龍, 최중열崔仲烈 등이 있었다. 단발한 사람은 전혀 없었고 머리를 따거나 상투를 틀고 흑립黑笠 아니면 초립草笠을 썼었다.

처음에는 입학 지원자가 없어서 관권을 동원, 서당의 학동들을 붙들어오기까지 했다. 수업료 면제는 물론 교과서와 학용품 일체를 지급받았지만 반일감정이 뿌리 깊은 데다 학교에 다니게 되면 식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입학을 꺼리던 때였다. 어쩌다 관원官員에게 붙들려 상투나 길게 탄 머리가 잘리는 날에는 잘린 상투나 머리채를 놓고 온 가족이 둘러 앉아 통곡을 했다.

더구나 여아들의 입학을 꺼렸는데 특히 체조시간에 어깨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기생들이 춤추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이유에서 거부감을 가졌다. 그래서 7회 졸업 때까지 여자 졸업생은 겨우 4명에 불과했다.

초대 교장은 한국인 군수인 홍난유洪蘭裕가 겸임했으나 2대 교장은 야마모토 데스타로山本哲太郎였다. 이 무렵에는 아무리 연장자라도 총각은 어른 대접을 못받지만 나이가 어려도 장가를 들면 존대를 받는 때였다. 이때 최영학崔榮鶴-훗날 광주대성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이라는 총각 선생이 있었는데 ‘깁쟁이’-당시 나이 어린 기혼자를 이렇게 부르곤 했다- 제자들이 하늘같은 선생님과 맞술을 마시는가 하면 은사님 장가들 때 상객上客으로 따라가기도 했었다. 그런데 그때는 무단정치의 시대여서 문관인 훈도訓導(교사를 뜻함)도 금테 모자에 긴 칼을 차고 다녔다.

최동문의 회고담

나는 우리 나이로 12살 때 지금의 서석국민학교인 광주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다. 광주에 단 하나뿐인 이 학교는 4년제였는데 금남로1가에 있었다. 그때 신입생들은 16~17살의 학생들이 태반이어서 나는 어린애 취급을 받았다. 졸업반 학생 중에는 남학생은 물론 여학생도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었고 남학생 가운데는 더러 아들, 딸을 두셋씩 가진 사람도 있었다. 대개 서당을 거쳐 입학을 한 학생들로서 그중에는 논어, 맹자를 줄줄 외우는 실력파도 있었다.

여학생들은 성숙한 처녀들로 쪽물을 들인 치마를 입고 머리를 궁둥이까지 길게 탄 채 학교에 다녔다. 남학생들은 머리를 깎고 두루마기에 갸신을 신었으며 책보는 어깨띠처럼 둘러메고 다녔다.

그런데 나는 2학년 때까지 군수 아들하고 둘이서 머리를 길게 땋아 늘인 채 땡기를 달고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상환을 입었기 때문에 특별히 봐준 것이었다.

한 학년이라야 통틀어서 한 학급뿐이었는데 2~3명 정도의 여학생을 포함 50명 정도의 남녀공학이었으며 전교생은 약 2백 명으로 자식을 둔 학생들의 중도포기가 많았다.

교원 수는 8명인데 유세영柳世榮, 송홍宋鴻, 최영학, 국기열韓奇烈, 김태열金泰烈, 김순길金順吉 그리고 일본인 교사가 둘이었다.

그 가운데 김순길 선생은 평양 출신으로 경성여자사범을 나온 음악 담당 선생이었다. 이 여선생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있어 여선생을 골려주려고 짓궂게 굴기도 했지만 그 여선생은 항상 교사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았다.

광주보통학교의 야마모토 교장

광주보통학교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일본인이 있다. 야마모토 테스타로山本哲太郎교장이다. 1911년 11월부터 1929년 6월까지 무려 17년 8개월 동안 재직했다. 광주보통학교 창립 이래 서석초교에 이르기까지 가장 오래 재임한 교장이다. 그는 일본인이었지만 교육자의 양심과 인격으로 스승의 도리를 지켜 지역민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 일제하 학생들의 군사훈련
일제말에는 모든 중학생들이 고되고
혹독한 군사훈련에 동원되었다.

1919년 3·1운동 당시의 일이다. 수피아, 숭일학교 학생들과 개신교 신자들이 대거 참여했던 시위가 점차 확산되면서 종파를 초월하여 일반계 학생들에 이어 광주보통학교의 학생들까지 적잖게 시위에 참가했다. 이런 와중에 상당수 어린 여학생들도 일경에 붙잡혀 광주경찰서에 감금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마모토 교장은 한달음에 경찰서로 달려가 제자들의 석방을 탄원했다. 비록 시위참가가 현행법상 탈법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은 어린 학생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육을 책임진 자신에게 있다면서 차라리 자신을 처벌하고 어린 여학생들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여 기어코 이들의 석방을 관철시켰다(2005년 10월 17일 최일출 구술).

야마모토가 학교를 떠난 뒤에 광주보통학교 정문 입구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

졌다. 이 학교의 한국인 학부모들이 돈을 각출하여 세운 것이어서 그에 대한 한국인들의 존경심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동상은 한동안 교정을 지키다가 일제 말엽 금속회수령의 광풍 속에 철거됐다.

야마모토는 광주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도 남다른 역할을 했다. 그는 광주보통학교 교장을 그만둔 뒤에도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광주신사의 간주(神主)로 재직했다. 이때 여가를 이용해 집필한 것이 『광주군사(光州郡史)』인데, 1933년 광주군 교육회에 의해 발간됐다.

원래 이 책은 1920년대 말부터 수년간의 조사 끝에 완성된 것인데 1931년 광주군청의 화재로 원고와 함께 불타버렸다. 그 뒤에 교육회에서는 야마모토에게 의뢰하여 2년 만에 이 책을 다시 발간할 수 있었다.

『광주군사』는 지금 우리가 읽어봐도 광주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적잖은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도 단순히 문헌자료만 수록한 것이 아니라 광주 지역의 전승까지 채집해 수록했고, 분명치 않은 사료라도 후대에 그 의미를 재평가하거나 재해석할 수 있도록 소개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

광주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한 뒤로 수피아와 숭일을 비롯, 기독교계 사립학교가 하나 둘씩 문을 열었다. 그 가운데 초등학교로는 현재의 서현교회 자리에서 선교사들이 운영했던 배영학교(培英學校)가 있었다. <동아일보> 1926년 10월 1일자에는 배영학교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미국인 선교사 서로독의 경영인 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부터 향사리 주일학교라고 하여 수십 명의 무산 아동을 교양하여 오던 바 재작년부터 최남립(崔南立)을 교장으로 하여 남녀 직원 5명이 시무한다. 학생은 5학급에 1백 30여 명이며 졸업생은 1회에 6명을 내었다는 바 연 경비는 2천여 원을 요한다더라.

기사 내용을 보면, 배영학교가 초창기에는 주로 성경을 가르치는 주일학교로 운영되다가 1924년에 학교설립인가를 받아 초등교과 수준의 일반과목도 함께

가르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이때부터 배영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배영학교와 함께 비교적 잘 알려진 기독교계 사립학교로는 송명학교崇明學校가 있었다. 송명학교 역시 초창기에는 주일학교 성격이 강했다. 초기부터 북문밖교회(현 중앙교회)의 지원을 받는 주일학교였다가 점차 일반교과목을 가르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금남로5가 94번지, 현재 김두원 신경외과가 들어선 일대에 있었다.

서로득 선교사

배영학교와 송명학교의 설립과 운영에는 미국인 선교사 서로득徐路得, Martin L. Swinehart 장로의 역할이 컸다. 그는 미국에서 철도청장과 사범학교 교장 등을 지냈고 부통령 선거에도 입후보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1911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의 광주 지역 재정책임자로 와서 배영과 송명학교 외에 중흥中興과 서흥瑞興학교 등 4년제 간이학교를 설립했다. 중흥학교는 현재 북

■ 향사리교회 병설 배영학교 제2회 졸업생들
뒷편 가운데 김영진 장로, 왼편 김인선 교장, 오른편은 장알레 선생. 배영학교는 지금의 서현교회 자리에 있었다.





© 홍기표

■ 아름다운 목소리로 학생들을 매혹시켰던 메조소프라노 홍승애 선생 수피아여자학교 재학 중 3·1운동에 참가하여 옥고를 치렀으며 배영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인연으로 동창회에 초청되어 제자들과 정담을 나누고 있다.



© 홍기표

■ 폐교 직전의 배영학교 전교생 배영학교는 1937년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됐다. 뒤쪽에 구강정교회 종각이 있고 광주향교 지붕도 보인다.

구 중흥교회가 들어선 자리에 있었고, 서흥학교는 서구 내방교회 자리에 있었다.

중앙교회의 자료에 따르면, 서로득은 이 교회의 교인이었으며 교회에 풍금과 트롬본, 클라리넷 등 악기를 기증했다고 한다.

그는 건축물 설계에도 특출한 재간을 지닌 인물이었다. 현재 수피아여자중학교의 본관으로 사용 중인 윈스버리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의 케이스홀은 그가 설계한 작품이며, 아쉽게 지금은 사라진 숭명학교의 교사나 전주 신흥학교의 리차드슨홀도 그가 설계했던 건물이었다.

광주 시내의 보통학교들

일제 때 보통학교는 지금의 초등학교에 해당한다. 1938년경까지 공립심상소학교 혹은 소학교로 불리다가 1941년에 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1996년 일제의 잔재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광주에는 꽤 많은 학교와 부설 간이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의 서석초등학교는 전남공립소학교의 맥을 이어 1906년에 개교한 광주공립보통학교의 후신으로 광주 최초의 초등학교다. 이어서 1919년에는 송정공립보통학교가 개교했다.

지금의 수창초교는 1921년 서방瑞坊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하여 한때 제2보통학교로 불렸으며 1938년 광주부 북정北町에 있다 하여 북정심상소학교로 개칭되었다가 오늘날의 수창초교가 되었다.

수창초교의 뒤를 이어 1922년 비아공립보통학교, 1923년 임곡학교와 지산학교, 1924년에 대촌학교, 1925년에 서석학교(지금의 서석초교와 다르다. 현 광주 동초등학교), 1927년에 송학학교가 각각 개교했다.

이 밖에도 서석초교는 여러 부설학교를 뒀다. <조선총독부관보> 1922년 11월 29일자를 보면, 이 학교의 부설로 광산光山학교의 설립이 인가되었고 또 1934년에는 내남內南간이학교가 설립되었다. 내남간이학교는 이듬해 설립된 효지孝池공립보통학교의 간이학교로 바뀌는데 현재 진월동에 있는 효덕초교의 전신이다. 1937년에는 지금의 학동에 서석초교 부설 학강鶴岡간이학교를 설립, 1943년에 양림동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지금의 학강초등학교이다.

광주사립보통학교

1920년대 들어 일제의 근대교육이 대중화되면서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광주사립보통학교이다.

1924년 4월 지금의 중앙로 광주세무서 자리에 지역 유지들이 부지 매입비를 마련하고 마을 재산을 털어 세웠다. 그러나 주변보다 한 길 정도나 낮은 저습지라 주민이 나서 삽과 팽이와 지게로 땅을 메워야만 했다. 이런 점에서 광주사립 보통학교는 광주 사람들의 높은 교육열과 땀으로 이뤄낸 학교라 할 수 있다.

이 학교의 설립추진위원회 대표는 김형옥이었으며 최선진崔善鎭, 최상현崔相鉉,

조만선趙萬善, 지응현池應鉉, 현준호玄俊鎬, 정덕범鄭德範, 정낙교鄭洛敎 등이 설립추진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어렵게 설립된 학교였음에도 초기에 학교운영이나 재정문제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빚기도 했다. 그 외중에 최선진이 학교운영자금을 전담하면서 학교운영의 난항은 일단락됐다.

그 뒤에 최흥중 목사를 비롯한 뜻있는 유지들이 후원회를 조직해 학교운영을 도왔지만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 채 연인원 8백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문을 닫았다.

사립보통학교 자리에는 광주상업실수商業實修학교가 옮겨와 해방 직후까지 운영되다가 문을 닫았는데 그 후신이 1945년 11월에 개교한 광주상업중학교이다. 광주상업중학교는 1951년에 중·고등학교로 분리되어 중학교는 동성중학교로, 고등학교는 광주상업고등학교(광주상고)로 나뉘었다가 2001년에 동성고로 개칭했다.

중등교육

사립수피아여학교와 숭일학교

광주 최초의 중등학교로는 기독교계의 사립학교인 숭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를 꼽는다. 두 학교는 본래 한 뿌리에서 비롯됐다. 1907년 배유지와 오원 목사가 신자 자녀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작했는데 여학생이 세 명, 남학생이 한 명이었고 학교는 배유지의 사택 내 사랑방으로 지금의 사직도서관 일대였다.

초창기에는 외국인 선교사를 꺼리는 탓에 학생들이 없었다. 이 때문에 선교사들은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돈까지 쥐가며 가르쳤다고 한다. 그러다가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배유지 선교사의 부인과 엄언라嚴彦羅, Ella Graham가 변요한邊紆翰, John F. Preston의 사택에서 여학생만을 따로 모아 가르쳤다. 그 후 1908년 2월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남학교와 여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설립 승인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만 해도 숭일과 수피아라는 이름은 아직 사용하지 않을 때였다.



■ 광주 송일학교 전경
송일학교는 1907년 배유지 목사 사랑
방에서 4명의 남녀 학생으로 시작됐
으며 배 목사는 가난한 집 어린이들에
게 학비를 주어가면서 가르쳤다.

송일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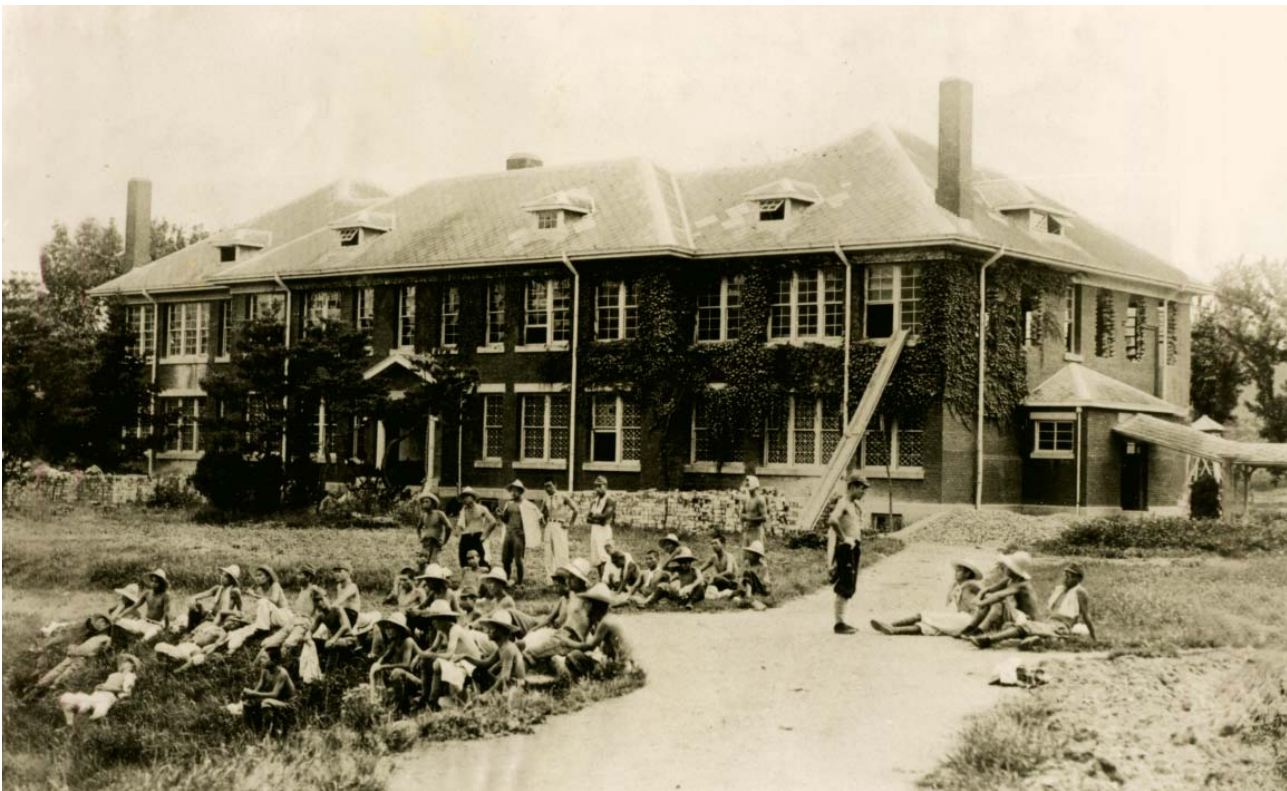
남학교가 독립된 것은 1910년 양림동에 새로 건물을 준공하면서부터인데 이때부터 학교의 면모를 갖추면서 교명도 송일학교가 되었다. 1912년에는 고등과(중학교) 4년제와 보통과(소학교) 6년제의 병설 인가를 받았다. 그 뒤 송일학교는 3·1운동의 거센 항일투쟁으로 일제의 탄압을 견디다가 1931년 7월 31일에는 광주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중학교가 폐쇄되고 소학교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1937년 9월 6일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하여 소학교마저 폐쇄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광복 후인 1945년 11월 21일 6년제 중학교로 복교되었으며 1951년 7월 5일 교육법 개정으로 중·고등학교가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수피아여학교

수피아가 독립된 여학교로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1911년 5월 미국의 스텐스

Stens 부인으로부터 5천 달러를 기부 받아 3층의 회색 벽돌 건물을 지으면서부터이다. 스텐스 부인은 일찍 죽은 자신의 여동생인 제니 스피어(Jennie Speer)를 애도하는 뜻으로 새 건물을 ‘수피아홀(Speer Hall)’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점차 학교의 공식명칭인 ‘수피아(須彼亞)여학교’가 되었다. 1912년에는 숭일학교와 더불어 고등과(중학교) 4년제와 보통과(소학교) 6년제의 인가를 받았으며 1927년 1월 11일에는 미국 남장로회의 부인 전도회에서 윈스보로Mrs. Winsborough여사의 주도로 모금한 5만 달러를 기증받아 양림동 256번지 현 위치에 붉은 벽돌 본관 건물을 준공, 윈스보로홀로 명명했다. 1928년 4월 1일에는 조선총독부의 시책에 따라 보통과가 폐지되고 고등과만 존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1930년 1월 28일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무기한 휴교조치 되었으며 이어서 1937년 9월 10일에는 신사참배 거부로 숭일과 함께 폐교되었다. 1945년 12월 5일 광복 직후 6년제 중학교로 복교되었으며 1951년 8월 31일 학제 개편에

■ 수피아여학교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당한 수피아여학교에서
1944년 5월에 개교한 광주의학전문학교(전남대
학교 의과대학 전신) 학생들이 가혹한 노력봉사
에 지쳐잠시 쉬고 있다.



따라 중·고등학교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송일과 수피아의 초창기 이야기

송일과 수피아는 개교 당시부터 광주 사회에 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겼다. 초창기 두 학교에 관한 최윤상의 회고담을 들어본다.

학생 4명으로 시작된 송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는 1907년 배유지 선교사 사랑방에서 한문, 국어, 산수, 성경 등을 가르쳤는데 교사는 2명으로 홍우중洪宇鍾(성경과 한문 담당)과 최재익崔在翊(국어와 산수)이었다. 남학생은 최윤옥崔允玉, 여학생은 김명은金明恩, 최숙崔淑, 서영순徐永順이었다. 그 뒤 목포세관에 근무 중이던 남궁혁南宮赫(일어와 영어)이 교감으로, 최득의崔得義가 교사로 부임한 후 학생 수가 증가하여 송일과 수피아로 분리하였다.

이 무렵 여학생들의 시내 출입은 자유롭지 못하던 때였다. 학교에서 예배를 보러 갈 때도 여학생들은 머리에 ‘무름게’(쓰게 치마)를 둘러쓰고 양과정 모통이를 돌아 광주천을 건너 북문안교회까지 열을 지어 갔는데 마치 아라비아 여인들의 행렬처럼 보였다고 한다.

또 3·1운동 당시만 해도 여학생들의 교복은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였는데 1927년경 치마가 보라색으로 바뀌었다. 보라색이 우리의 국화인 무궁화의 빛갈



■ 현재의 수피아여자고등학교(위)



■ 수피아홀(아래)

미국인 스티스 여사가 세상을 떠난 여동생 스피어(J. Speer)를 추모하는 뜻에서 기부한 돈으로 1924년 완공했다. 수피아라는 학교 명칭은 이 ‘스피어’란 이름을 딴 것이었다.

이라 나라를 잃은 설움을 이렇게 치마 색깔로 표현했다고 한다.

송일과 수피아는 3·1운동 당시에 주도적으로 만세시위에 참여했다. 그 뒤에도 물산장려운동, 국산품 애용 등 이런저런 계몽운동에 앞장섰는데 1923년 3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남녀학생들은 무명배 두루마기와 치마저고리를 입고 물산장려 깃발과 악대를 따라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물산장려가를 부르며 시가지를 행진했다. 이 행진에는 시민들까지 가세하여 참가자 수가 1천 명에 이르렀는데 당시 국산품 애용운동은 곧 반일운동이며 애국운동이었다. 그들은 두 학교가 있는 양림리에서 지금의 충장로를 거쳐 사실상 당시 시가의 끝자락인 누문리까지 행진했으며 이때 한국인 상점들은 모두 철시를 하고 행진에 동참했다.

기독교교계의 이 같은 항일운동은 1937년 9월 신사참배 거부사태를 정점으로 폐교의 시련을 맞게 되는데 광주의 송일과 수피아 외에 목포의 영흥과 정명, 순천의 매산, 전주의 신흥과 기전, 군산의 영명학교 등 호남 지역의 기독교계 학교들이 모두 문을 닫았다.

이후 송일과 수피아의 건물과 자산은 모두 조선총독부에 몰수됐다. 수피아여학교의 건물은 1942년부터 43년까지 2년여 동안 광주 공립상업실수학교가 사용했고 44년 5월부터는 신설 광주의학전문학교(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가 이곳에서 개교하여 그해 11월까지 교사로 사용했다. 또 해방 직후에는 미군 병사들의 막사로 사용되기도 했다.

송일학교는 양림동 66번지, 현재 무등파크맨션 자리를 떠나 1970년대부터 90년대 초엽까지 20여 년간 운암동 110-11번지에 있다가 1993년에 현재의 일곡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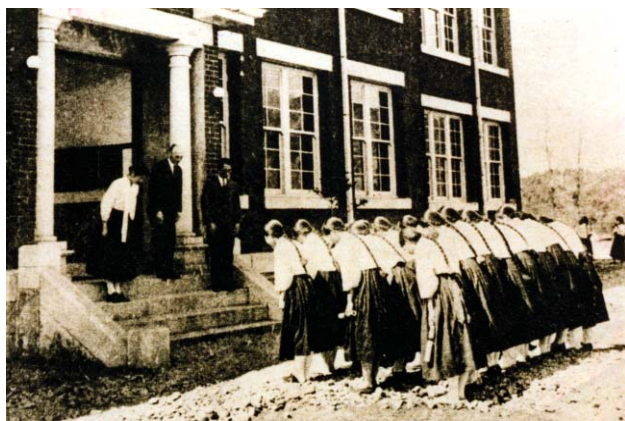
■ 송일학교 졸업생들
송일학교는 신사참배 거부로 1937년 폐교되는 시련을 겪었으나 광복과 함께 개교되었다.



■ 현재의 윈스브로홀
이 건물은 미국인 윈스브로
여사의 기부금으로 서로독
선교사가 설계하여 1927년
완공했다. 현재 수피아여자
중학교의 본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 수피아여자학교 졸업생들
스승에 대한 공경이 각별했
던 시절, 스승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다(1931년).



광주농업학교

광주 최초의 공립중등학교는 광주농업학교이다. 1909년 6월 지금의 불로동 서남대 부속병원 뒤편에 '전라남도 도립광주농림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했다. 초대 교장은 당시 전남관찰사인 신응희辛應熙로 전남공립소학교의 교장직을 겸직했다.

학교 건물은 광주군의 소유로 30평도 안 되는 한옥이었으며 실습지는 광주천 넘어 양림동 일대였는데 다음 해에 옛 객사인 광산관으로 옮겼다.

기타무라北村友一郎의 「광주지방사정」을 보면 원래 불로동의 농림학교 터는 '사림측량학교'로 쓰였던 곳이었다. 이 측량학교는 남문 밖에 사는 부호 박봉주朴鳳



■ 광주공립농업학교 학생들의 교복 변천이 이채롭다. 처음엔 저고리에 짚신을, 3회 때부터는 모자만 착용했다. 1922년 예야 정식으로 교복을 입었다. 3·1운동 전 무단정치 하에선 교사들도 군인 제복같은 복장에 칼을 차고 있었다.

© 『광주 농고 80년사』

씨가 3백여 원을 내서 학교를 설립 운영한다는 사실이 1908년 당시의 대한매일신보에 보도되었을 뿐 설립연도를 비롯한 그 밖의 자료는 전혀 알려진 것이 없다. 또 이 측량학교는 대한제국시기에 친일단체인 일진회에 맞서 결성된 대한협회 광주지회의 발상지로도 알려져 있다.

농업학교는 개교 당시 2년제 속성과와 3년제 본과 등 세 학급으로 출발했는데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 모두가 다녔다.

1912년 광주군 서방면 신안리, 지금의 북구 임동 일대의 황무지 23헥타르와 인근 땅 2헥타르를 마련하여 학교를 옹궐했다. 당시 이 학교를 다녔던 최윤상의 회고담을 들어 본다.

내가 농업학교에 입학한 것은 1918년이였다. 도내에서 단 하나뿐인 공립중학교였는데 50명 모집에 45명이 응시하였다. 선친의 성화에 못 이겨 지원서를 제출하였을 뿐인데 시험은 안 치렀어도 입학을 허가할 터이니 학교에 나오라는 통지가 있었다. 결국 입학하게 되었는데 지금의 제일고등학교에서 농업학교까지는 인가가 거의 없었고 일고 터는 아직 뽕나무밭이였다. 나는 지름길로 가기 위하여 이 뽕나무밭 사이를 끼어 다니는 때가 많았다. 학생들 중에는 아홉 살에 장가든 큰 꼬마 어른도 있었는가 하면 스물아홉 살의 신입생도 있었다. 학생이 귀했던 때였건만 1학기 성적에서 낙제가 되면 학년 말을 기다릴 것도 없이 마구 제적시켰다.

그러나 나는 무섭지 않았다. 제적을 당해서 학교를 그만두어도 아쉬울 게 없다는 생각 때문이였다. 그러니 3분의 1은 지각이요 4분의 1은 결석이였다.

학교 수업은 오전 4시간만 하고 오후에는 내내 고된 농업실습을 해야만 했다. 실습 작업량 할당이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똑같아서 어린 우리에게도 힘겨운 것이였다. 여름방학에도 40일 동안 통학생과 기숙사생이 20일씩 나누어 작업을 하였다.

아직 교복이 없던 때라 바지저고리에 짚신을 신고 다녔다. 3·1운동 이듬해 봄 학생들의 결의로 학교에 교복제정을 건의했으나 학교 당국은 이를 불허했다. 이유는 교복을 입으려면 구두까지 신어야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였다.

잡부금은 물론 공과금도 없었고 교과서 대금은 한 권에 13전이었는데 학교

실습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 돈을 보조해 줘서 순전히 공짜로 학교를 다녔다.

40명의 입학생 중 졸업생은 나를 포함해서 21명이었다.

그러나 이 무렵부터 짚신이 고무신으로 바뀌고 1920년에 들어서면서 운동화로 바뀌었다. 1925년 졸업 때부터 구두를 신은 사람을 드물게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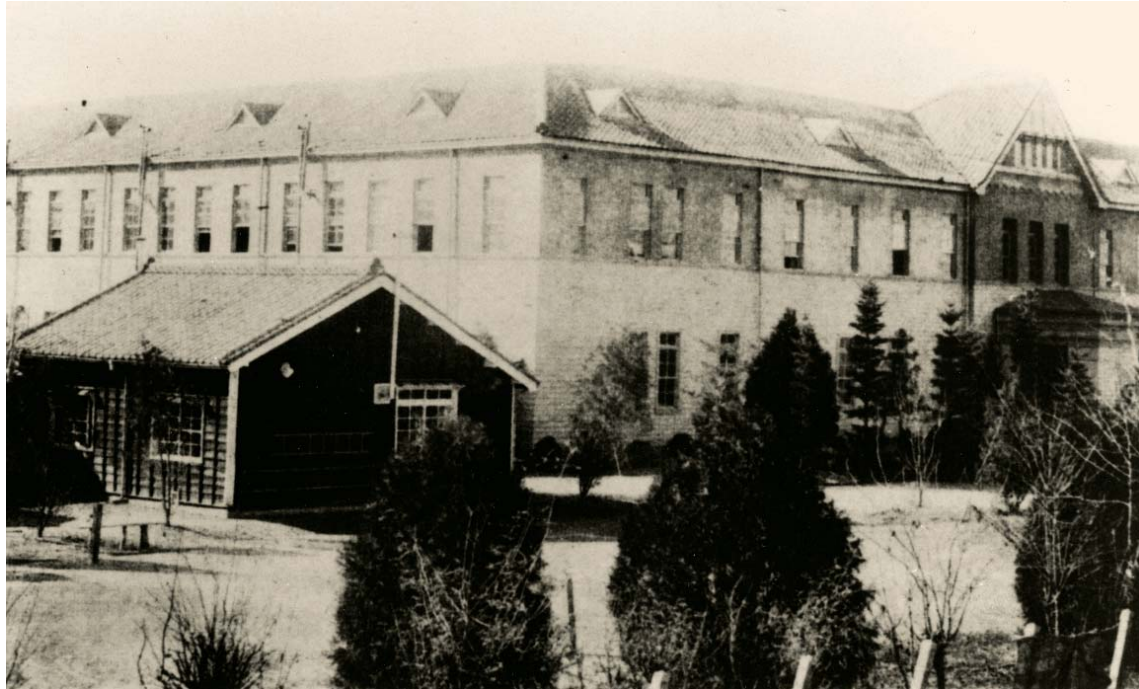
농업학교는 1938년에 광산구 서방면 용봉리로 이전했는데 지금의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자리다. 해방 후 이곳에 광주 초급 농과대학(이 학교가 전남대 농과대학의 모태가 됨)이 설립되자 농업중학교는 잠사중학교와 통합하여 농잠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임동으로 옮겼다. 이곳에서 광주농업고등학교로 교명이 바뀌었으며 1970년대 오치동에 새로 부지를 마련하여 이전했다. 광주농고는 2000년대에 들어 광주자연과학고로 교명을 바꿨다.

서중·일고의 전신 광주고등보통학교

옛 광주서중학교이자 오늘날의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의 전신인 사립 광주고등보통학교(사립 광주고보)는 1920년 전남 도내의 유지들이 세운 학교이다. <동아일보> 1920년 4월 14일자에는 개교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다.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에 사립 광주고등보통학교를 동면(同面)에 거주하는 김형옥(金衡玉)이 설립하여 허가 출원 중이더니 4월 6일에 인가되었다는데 이 학교는 도내 유력자 50명이 출자하여 대정 9년에 13만 5천 원, 동 10년도에 3만 5천 원을 지출하고 그 외에 부족할 때는 창립자인 김형옥이 부담한다 하며 수학 연한은 4개년이요 생도수는 4백 명을 수용할 계획이라더라.

학교설립의 주역인 김형옥은 원래 서울 출신으로 대한제국시절에 무안항 총순(總巡)(한말 경무청의 판임관), 전남관찰부 총순, 1908년에는 창평군수 등을 역임하면서 이 지역과 인연을 맺었다. 1911년 관직에서 물러난 후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광주에 정착했다. 그는 광주농공은행, 광주지방금융조합, 호남은행, 광주전등주식회사의 설립에 매번 이름이 오르내렸다. 또 광주고보 개교직후 쿠리노(栗野)



■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옛 서중학교 및 제일고등학교 전신으로 광주학생독립
 운동의 발상지다. 이 교사는 해방 후 불타버렸다.

傳之丞가 부임해 오기 전까지 임시 교장을 맡기도 했다. 광주고보는 1937년에 광주서중학교로 바뀌었다.

광주고보는 개교 당시 옛 광주객사인 광산관을 임시교사로 사용하다가 중도에 지금의 광주일고가 자리한 누문동으로 이전했고, 이전과 함께 공립광주고등보통학교로 바뀌었다.

동중·광고의 전신 광주중학교

1920년대 초 조선인 학교인 사립광주고보가 개교하자 조선총독부는 호남지역에 일본인 공립중학교 개설을 추진했다. 후보지로는 광주, 목포, 전주, 군산 등이 물망에 올랐는데 광주에서는 마츠다松田德次郎, 아키바秋場格太郎, 마츠이松井理三郎 등이 유치활동을 벌인 끝에 1923년 심상고등소학교(지금의 공동 중앙초등학교) 건물 일부를 빌려 옛 동중이며 지금의 광주고등학교인 광주공립중학교(광주중)가 문을 열었다. 이 학교는 그 뒤 학교 건물을 신축, 지금의 계림동으로 이전

했다. 이 학교는 한국인의 입학에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으나 처음부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본인이었다.

광주중은 1937년에 광주동중학교(광주동중)로 개칭되었고 1951년에는 광주동중이 폐교되고 광주고등학교가 설립됐다.

광주여고의 전신 광주공립고등여학교

지금의 광주여자고등학교(광주여고)는 일본인 여학생만을 위해 1923년에 개교되었다. 광주중과 마찬가지로 광주여고 역시 개교 당시에는 현 중앙초교의 건물 일부를 교사로 사용했다.

학교명칭은 설립 때 ‘광주공립고등여학교’라 했던 것을 1938년 야마토大和공립고등여학교로 개칭했는데 학교 소재지를 당시 야마토마치大和町라고 부른 데서 연유했다. 2010년 3월 화정동으로 이전했다.

전남도립사범학교

교육기관의 증가로 초등교사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사범학교가 설립됐다. 광주에 맨 처음 생긴 정규 사범학교는 전남도립사범학교로 1923년 3월 28일 지금의 누문동 광주고보 교사를 빌려 개교했다. 수업 연한 2년제인 특별사범과와 1년제인 강습과를 두고 있었다.

1925년 지금의 동명동에 2층 건물을 지어 이전했는데 현재 광주교육청의 중앙도서관 일대다.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했고 학비와 숙식은 무료로 제공됐다. 1925년에 간행된 『광주읍지』에 따르면, 전남사범학교의 기숙사는 옛 전남도청 맞은편인 구 전남경찰국, 수협도지부가 있었던 금남로1가 15번지에 있었다(이 지번은 도청 앞에 광장이 생기면서 사라졌다).

1929년 학생독립운동 당시에는 때마침 학생들의 시위대가 기숙사 앞을 행진하자 기숙사의 사범학교 학생들이 대거 시위대에 합류했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듬해 전격적으로 사범학교가 폐쇄됐다. 1929년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광주 의 많은 학교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학교만 문을 닫게 한 것을 보면, 일본인들이 사범학교 학생들의 시위참여에 얼마나 놀랐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광주시범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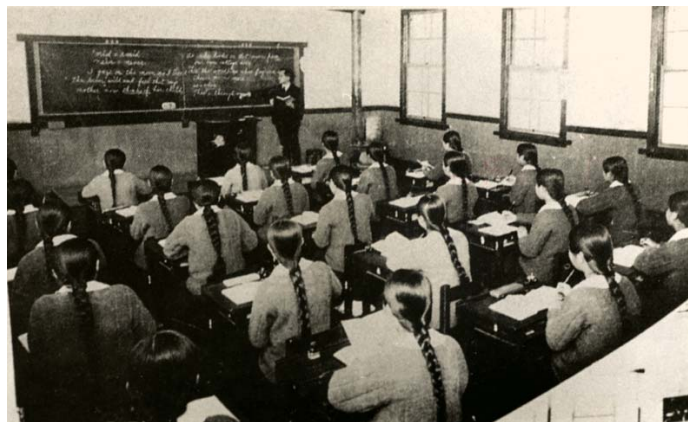
전남도립사범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교사 수급에 차질을 빚자 사범학교를 신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1938년의 관립 광주사범학교(光州師範學校)다. 이 학교는 개교 당시에 임동의 농업학교 일부를 사용하다가 서방면 풍향리, 지금의 광주교육대학교(광주교대) 자리로 교사를 지어 이전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광주교육대학교이다.

전남여고의 전신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1927년 5월 여성만을 위한 광주 최초의 중등교육 과정인 ‘공립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가 개교되었다. 1920년대 이전까지 광주·전남에는 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지만 여성들을 위한 정규학교는 없었다. 1924년에 여학생들만을 수용하는 광주 제2보통학교가 설립되었지만 졸업 후 진학할 여학교가 없었다.

■ 현재의 전남여자고등학교
이 건물은 1928년에 세워진 것으로 교정 안에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 여학도기념비’(1959년 건립)와 함께 전남여고의 역사를 말해준다. 광주광역시 문화재로 지정, 보존하고 있다.





■ 머리를 길게 땀은 채 신학문을 배우는 당시의 여학생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수업광경(가사실습).

이 때문에 지역 유지들이 정규 여학교의 설립을 위해 기성회를 조직, 적극적인 추진활동을 펼친 끝에 탄생한 것이 공립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이다. 1927년 5월에 개교한 이 학교는 어디서 개교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듬해 4월에 지금의 장동으로 교사를 신축 이전했으며 1938년 4월에 아사히^旭여자고등보통학교로 바뀌었다. 학교가 아사히마치 즉 옥정^{旭町}에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의 전남여자고등학교(전남여고)가 그 후신이다.

YMCA 농업실습학교

광주 YMCA는 1925년부터 전남 일원의 농촌 진흥을 위해 전남 일원에 있는 38개소의 농촌센터를 통합하여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1929년 농촌문제에 대한 뛰어난 지식과 체험을 겸비한 고든 어비슨 G. W. Avison, 1891~1967, 한국명 : 어비슨이 협동조합 총무로 부임해 오면서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는 이 운동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하여 1933년 자신의 집에 학교를 설립했으며 1934년에는 자신의 집 넓은 뜰에 학교를 신축했다. 학생들은 소속교회 목사의 추천을 받아 시험을 거쳐 뽑았다.

학교는 성경을 비롯하여 영농기술과 축산 등이었는데 소시지 통조림 공장을 부설하여 수익사업도 겸했으며 특히 일경의 눈을 피해 한글 교육에도 역점을 두었다.

교직원은 교장에 어비슨, 교무에 최득은 崔得恩, 사감에 정인세, 그리고 교사로는 한글을 가르친 홍석은 洪錫殷을 비롯하여 김흥태 金興泰, 박형렬 朴炯烈(해방 후 전남 교육감 역임) 등이었다.

졸업생은 1935년 제1회 6명에 이어 37년 3회까지 배출했으나 기독교계 학교 학생들의 신사참배 거부 사태로 어비슨은 1937년에 한국을 떠나 귀국했고 농업실습 학교는 1938년에 폐교되었다.

어비슨 교장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한국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이다. 아버지 올리버 R. 어비슨은 원래 캐나다 출신으로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교수였는데 1893년 7월 16일 제증원 濟衆院(초기의 이름은 광혜원 廣惠院)에 선교사로 부임하여 고종의 시의侍醫 즉 주치의가 되었다.

광혜원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알렌이 1885년에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의료기관으로 당초에는 조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하였는데 1894년 청일

■ 어비슨 동상
이 동상은 양림동 93-24번지의 어비슨 기념관 앞에 있다.



전쟁과 갑오개혁 등의 혼란 속에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어렵게 되었다.

이때 어비슨 교수가 광혜원을 맡아 운영하다 1900년 미국 클리블랜드의 사업가 세블란스의 기부금으로 1904년에 병원을 신축하여 세브란스대학병원이 되었다. 이 병원은 당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료기관이었으며 현대의학 교육과 연구기관으로서 한국 의학계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뒤 1917년에 연희전문학교가 설립되자 초대 교장 언더우드가 어비슨을 부교장으로 영입했다. 그리고 세브란스전문학교 교장은 어비슨이 맡았다.

오늘날의 연세대학교는 1957년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응세농도학원 백남규 원장 초상화
백원장은 학생들과 숙식을 함께 하면서 농촌근대화를 위한 중견지도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인 교육가였다.



광주응세농도학원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많은 농업 관련학교들이 설립된다. 이것은 1931년 총독 우가 키宇垣一成가 이른바 시정방침으로 내세운 농촌자력갱생운동의 영향이었다. 당시 총독부는 이 운동의 추진을 위해 중견요원 양성기관의 설립을 병행했는데 이후 전국적으로 수많은 농업학교가 생겨났다. 이 지역에서는 광주농업학교에 이어 1920년 제주농업학교(당시 제주는 전남에 속했음)가 설립된 후로는 정규농업학교 설립이 멈칫하다가 1935년과 1937년에 각각 순천농업과 강진농업학교가 개교되었다.

공립학교 외에 사립 농업학교도 많았다. 그 가운데 제법 규모가 큰 곳이 바로 광주의 응세농도학원應世農道學

院과 평안북도 박천의 금석산농사학교金石山農士學校, 평북 의주의 고등농민강습소였다.

광주의 응세농도학원은 농촌지도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로 1934년 금남로에 살던 대지주 지응현池應顯이 단독으로 설립했다. 학교 터는 당시 극락면 쌍촌리 305번지(현 천주교 광주대교구 청)로 부지 1,097평에 실습지만 7,265평(논 3,664평, 밭 3,601평)평으로 논과 밭은 물론 임야와 양어장까지 갖추고 있었다.

교육내용은 덴마크의 농업교육을 모델로 한 것인데 오전에는 학과교육을, 오후에는 주로 실습 위주로 짜여 있었다. 기숙사는 동, 서쪽 각 2동씩의 농가에 각각 2개의 방이 있으며 각각 3명씩 모두 6명이 배치되었다. 한 방에는 실장室長, 한 농가에는 가장家長, 동서 양쪽에는 각각 부장部長을 두었다.

한 농가에는 논과 밭, 각 900평과 한 사람당 누에 1장이 배치되었다. 학생들은 가장을 중심으로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1년 농사를 짓고 농한기의 부업까지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다. 강사는 전남도청의 농업담당 간부와 농회農會의 기사, 광주 농업학교의 교유敎諭, 즉 교사 및 영농학자와 기술자들이 맡았다.

이 학교는 수업연한이 비록 1년이었지만 원장의 교육방침에 따라 방학이나 휴일도 없었고 심지어 외출도 극히 제한되었고 규율이 엄격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3년 과정에 맞먹는 수업을 받았다.

이처럼 엄격한 교과운영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군말 없이 따랐다. 응세농도학원의 원장은 전북 고창 출신의 백남규白南奎(사진작가 백학기의 부친)로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였다. 한말의 문인 간재 전우良齋田愚에게서 한학을, 그리고 주시경周時經으로부터 한글을 배웠고, 일본 유학 중에는 수학을 전공했으며, 서울의 동광東光고등보통학교 교장과 중앙中央고등보통학교의 교감 등을 지내면서 학교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응세농도학원은 학교부지가 태평양전쟁 말엽에 군용지로 수용되면서 폐쇄됐다. 해방 후에 현재의 지산동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자리로 옮겨 응세축산고급중학교, 중앙중학교(일명 응세중학교) 및 수의獸醫고등학교 등으로 복교되었다. 그러나 응세축산중학교는 1951년에, 나머지 두 학교는 1958년에 문을 닫고 말았다.

계몽운동과 야학

개화기 이후 1920년대의 계몽기에 접어들면서 초등이나 중등과정의 정규 교육기관 이외에 야학夜學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 야학은 '배워야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교육에 국론을 바탕으로 계몽단체들이 나서 고을마다 마을마다 사랑방이나 향교를 빌려 못 배운 이들을 가르치는 곳이었다. 남성은 물론이고 성인 여자나 빈민가의 아동들이 대상이었다.

1920년대 광주 지역 최초의 야학은 송정리노동수양회松汀里勞働修養會라는 단체가 시작한 것으로 1920년 7월에 개설됐다. 그해 9월에는 광주청년회光州青年會 주관으로 야학을 열었는데 김필례(교장), 임자혜(교사, 광주 3·1운동의 주역 김강순(剛孫)의 부인), 홍승혜(교사) 등이 운영했다. 흥학관興學館을 빌려 한글, 한문, 산술, 가정학 등을 가르쳤는데 수강생은 4백 명에 달했다.

이듬해 10월에는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働共濟會 광주지회에서도 야학을 열었는데 김태열金泰烈, 계왕순桂旺淳 등이 한글, 일본어, 산술 등을 가르쳤다. 이 밖에도 야학 운동에는 광주기독교청년회(YMCA) 등 기독교 단체와 교회, 일반 사회단체, 그리고 뜻있는 지역 유지들이 나서기도 했다.

지역 유지들이 개설한 북문밖 야학은 1920년대 조만선趙萬善, 최원택崔元澤, 최선진崔善鎭 등 당시 북문밖 부호들이 밤길을 걸어 흥학관까지 가기 어려운 북문밖 여성들을 위해 인근 교회(북문밖교회, 뒤에 중앙교회)를 빌려 문을 열었다. 이때부터 북문밖교회는 밤에는 여성들을 위한 야학으로, 낮에는 아이들을 위한 강습소가 되었다. 북문밖 야학은 얼마 뒤에 서북瑞北여자야학강습소 혹은 서북여자야학원이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당시 이러한 야학들은 정규학교와 달리 빈약한 재정이나 교사의 부족, 그리고 시설의 한계 등 운영의 어려움으로 부침이 잦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강한 향학열과 뜻있는 인사들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마치 들풀과도 같은 생명력을 이어나갔다.

박화성의 야학이야기

이 무렵 북문밖교회의 야학교사로 활동했던 목포 출신의 박경순朴敬順은 나중에

소설가로 더 유명해지는데 그 필명이 바로 박화성(朴華城)이었다. 박화성은 『금호문화』 1986년 11월호에 「고향」이란 글을 통해 당시 야학의 분위기를 이렇게 회고했다.

최종종 목사님은 곧 북문밖교회에 유치원을 만들어 나를 보모로 채용하고 낮에는 유치원에서, 밤에는 부인야학에 매달려 나는 밤과 낮으로 그 머나먼 양림에서 북문밖(현 금남로 4가, 중앙교회)까지를 왕래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 유치원과 야학은 날로 번창하였는데 특히 야학생으로는 당시의 갑부들, 큰 사업가들, 법관들의 부인들과 자녀들이 노소를 불문하고 모여들어 진지한 모습으로 지성껏 배우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비단옷과 금비녀, 가락지 등이 눈에 거슬려 명을 내렸다.

“여기는 작으나마 학교입니다. 여러분은 학생인 이상 학칙을 지켜야 합니다.

비단옷과 금반지를 엄금합니다.

70명 중의 50명이 가난한 부인이나 처녀들이니까요. 여러분은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딸 또래의 어린 학생의 명령이건만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더니 과연 다음부터 옥양목 저고리와 치마, 수수한 은비녀들을 일제히 착용하게 되었고 그들은 진정으로 나를 따르며 사랑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초대하였으나 하나같이 거절하였더니 그들은 물론 일반 가정의 부인들이나 처녀들까지가 다투어가며 여러 가지의 음식과 만찬을 자취방 부엌에 그득하도

■ 박화성

북문밖교회의 야학교사로 활동했던 목포 출신인 그녀의 본명은 박경순이었다



록 날아올 만큼 그들의 내게 대한 정성은 지극하여서 나는 비로소 순수한 ‘인간’에가 어떻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이다…… 그래서 광주는 내 ‘인생의 고향’ 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1922년의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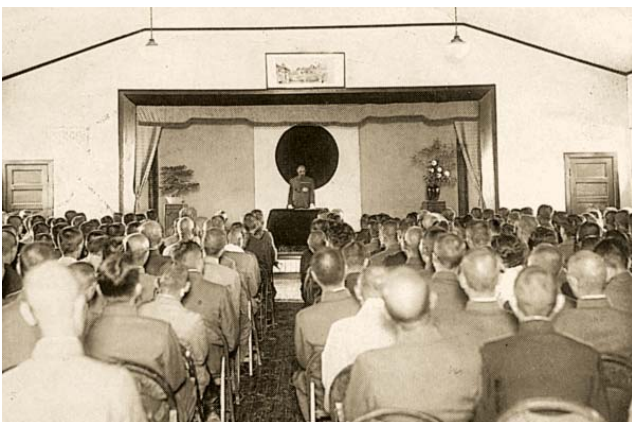
전남의과대학의 모태 광주의학전문학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모태는 광주의과대학이고 광주의과대학의 뿌리는 광주의학전문학교이다.

광주의학전문학교의 태동은 일제강점기인 19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의학전문학교가 서울에 4곳, 평양과 대구에 각 1곳씩 모두 6곳 뿐이었는데 당시 마츠모토松本 전남지사가 광주에도 의학전문학교(의전)를 설치해줄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조선총독부에 건의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 뒤로도 지방 유지들에 의해 광주의전 설립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오다가 1944년 1월 10일 최홍종 목사와 현준호 호남은행 두취(은행장), 송화식 변호사, 그리고 아라키荒木英一 도립 광주의원장들이 중심이 되어 전남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광주의학전문학교 설립위원회를 결성한다. 이와 아울러 최홍종 목사가 중국 상해에서 정밀기계공업으로 성공한 광주 연고 기업인 손창식

■ 1944년 5월 20일 광주의학전문학교
(4년제 전문부) 개교식



■ 1936년 건립된 전남도립
광주의원



孫昌植을 설득하여 1차로 20만 원, 그리고 현준호를 통해 2차로 30만 원, 도합 50만 원의 설립후원금을 찬조받았으며 이 밖에도 여수의 김영준^{金英俊} 천일고무 사장과 광주의 최선진이 각각 10만 원 등 도내유지들의 크고 작은 협찬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조선총독부는 1944년 3월 31일자로 총독부 고시 617호의 전문학교령에 의하여 수업연한 4년제의 광주공립의학전문학교의 설립을 인가했다. 교직원 정원은 교수 5명, 조교수 2명, 서기 2명이었다.

조선총독부의 광주의전 인가는 지역 유지들의 힘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전쟁 말로 접어들면서 전상 환자들에 대한 의료인력 수급의 폭증에 따른 것으로 이때 함흥의전도 광주의전과 함께 인가되었다.

설립인가를 받은 광주의학전문학교는 1937년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된 이후 줄곧 비어 있던 수피아여학교를 교사로 정하고 오하시^{大橋宏一} 도립순천의원 원장을 초대 교장 겸 도립 광주의원 원장으로 임명했다. 광주의원 원장을 겸하게 한 것은 이 병원을 광주의전 부속병원으로 활용할 경우 1백 60만 원이 소요될 광주의전 건립비용을 6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계획에 맞춰 1944년 2월 17일 전라남도립병원은 광주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으로 전환하였다.

설립 절차를 마친 광주의전은 학생을 모집했는데 의전이 인기 학과라는 인식 때문에 조선팔도는 물론 일본에서까지 지망생이 몰려 치열한 경쟁 끝에 조선인 48명, 일본인 54명 등 102명의 학생을 선발, 1944년 5월 20일 개교식과 아울러 제1회 입학식을 거행했다.

그러나 광주의전은 개교한 지 불과 1년여 만인 1945년에 광복을 맞았으며 학교 교사를 미 군정관들의 숙소로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광주의전은 일본인 학교로 광복 후 비어 있던 광주여고로 옮기게 되었다.

1945년 12월 30일에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광주의학전문학교 대학 승격 추진 기성회가 결성되었는데 회장에 최홍중 목사, 부회장에 박준규·권계수, 그리고 24명의 이사로 구성되었다. 기성회와 학교 당국은 전남도립병원과 서석동 학강동 일대에 총 26,556㎡(8,033평)의 부지를 확보, 광주의학전문학교를 짓기로 하고 전남도 내 각 부(시)·군에서 1,200만 원의 협찬금을 모금했다.

이 광주의전 신축교사는 1946년 6월 15일 착공되었으며 아울러 광주의전 후



■ 광주의과대학 3회 입학식
(1946년 9월 9일)(위)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식
(1954년)(아래)

원회가 결성되었는데 회장에 송화식宋和植 그리고 이사 19명이 위촉되었다.

1946년 9월 1일에는 광주의학전문학교가 광주의과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초대 학장에 최상채 박사가 취임, 9월 9일 대학 개교식을 가졌다. 이때부터 간호부 양성소도 광주의과대학 부속의원 간호부양성소로 개칭되었다.

6년제 광주의과대학이 정식으로 문교부에서 인가된 것은 이듬해인 1947년 9월 9일이고 그동안 광주여고에 있던 의과대학이 지금의 자리로 옮긴 것은 1948년 6월이다. 광주의과대학은 뒤에 전남대학교 설립의 기초가 되었다.

■ 새로운 문물

광주에 철도가 들어오다

목포~대전 간 호남선 철도가 개통된 것은 1914년 1월이다. 이에 앞서 1913년에 호남선이 송정리역을 통과했지만 막상 송정리~광주 간에 12km의 철도가 연결된 것은 1922년 7월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광주 시내 사람들이 철도를 이용하려면 송정리까지 30리 길을 다리품을 팔거나 승용차나 마차를 이용해야만 했다.

■ 철도부설을 위해 한국에 온 일본 기술자들 모두 일본 짚신을 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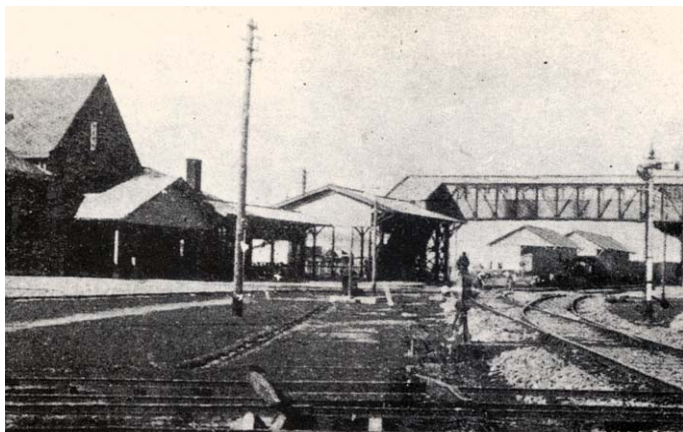
광주~송정 간 철도는 민간철도회사인 전남철도주식회사에 의해 부설된 이른바 사철私鐵인데 몇 년 뒤 남조선철도주식회사로 흡수되었고 1928년에는 국철國鐵로 바뀌어 정부에서 운영했다.

개통 당시 이 구간에는 운암역과 극락강역, 광주역이 있었는데 동림동에 있던 운암역은 간이역으로 광복 후에는 북광주역으로 불렸다. 지금은 거의 잊혀졌지만 이 작은 간이역은 1929년에 일어난 광주학생독립운동과도 관련이 있다. 열차로 나주까지 통학을 하던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들이 운암역을 통과할 즈음 차내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후로 통학열차에서는 한일 학생들 간에 잦은 충돌이 있었고 이것이 나주역 사건으로 이어졌다. 현재 운암역의 흔적은 거의 찾기 어렵게 됐다.

운암지구 남쪽에 있는 극락강역은 본래 간이역이던 것을 보통역(정거장에 역무원이 근무하고 그 안에서 열차표도 파는 역)으로 승격시켜 지금도 영업 중이다.

종종 철도역은 주변 지역의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했는데 송정리역, 남광주역, 임곡역 주변에 시장이 들어선 것이 그런 사례다. <매일신보> 1924년 9월 3일 자를 보면, 극락강역에서는 그해 8월부터 5일과 10일에 열리는 오일장이 생겼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극락강역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던 때라 장은 오래가지 못했다.

■ 1922년 7월 전남철도주식회사에 의해 개설된 광주역
광주시 대인동 현재 광주소방서 자리에 있었는데 신역으로 옮겨 갈 때까지 역내에서는 구름다리를 이용하였다.



광주역에 얽힌 일화도 많다. 한때 광주역을 ‘전남광주역’으로 역명을 변경했는데 그 이유가 전라도 광주역과 황해도 황주역(黃州驛)이 모두 일본 발음으로 ‘코슈 에키’로 들려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역명을 바꾼 사연도 그렇거니와 긴 역명을 불러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었는지 전남광주역은 얼마 뒤에 다시 광주역으로 역명을 되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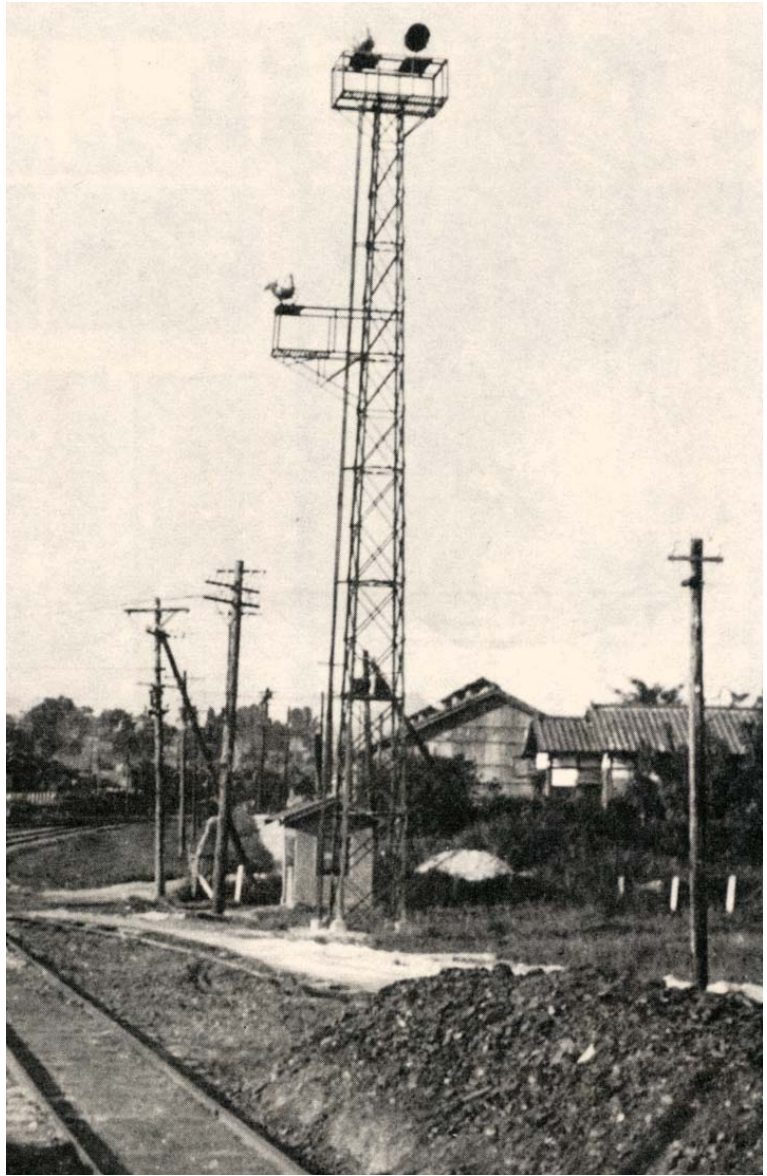
개통 당시의 광주역은 지금의 대인동 동부소방서 자리에 있었다. 지금은 정묘호란 때 평안도 구성부사를 지내다 전사한 전상의 장군(광주 구동 출신)을 기리는 뜻으로 이 거리를 ‘구성로’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역전통(驛前通)’이라 불렀고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일대를 ‘구역(驛驛)’이라 부른다.

해방 후에 역전통 일대에는 시외버스정류장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열차에서 내린 승객들이 다시 광주 일원의 전남 지역으로 시외버스를 갈아타는 환승공간이었던 까닭이다. 이 때문에 역전통에는 광주를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었고 이에 맞춰 한약방과 양약국, 농약상과 종묘상이 빼곡히 밀집해 있었다. 광주역이 이설된 뒤로는 예전 같지 않지만 아직도 이곳에는 제법 오랜 역사를 지닌 한약방·농약상들이 남아 있다.

광주역이 지금의 중흥동으로 옮긴 것은 1960년대 중반이었다. 이 이설계획은 1930년대 말엽, 광주의 도시계획이 구상되던 시절부터 논의됐다. 하지만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광주의 도심개발이 한창이던 1960년대에야 실현을 보게 되었다.

광주~담양 간 철도

1922년 12월에는 송정~광주 간 철도가 담양까지 36km로 연장됐다. 이 구간에는 새로 망월역, 장산역, 마항역, 담양역 등 네 개의 간이역이 설치됐다. 망월역은 현재 망월동 국립묘지 입구인 장운동 북바위(속칭 북다구) 뒤쪽에 있었고, 장산역은 담양군 첫머리인 고서면 장산리에, 그리고 마항역은 봉산면 마항리, 즉 송순의 면양정 근처에 있었다. 종착역인 담양역은 담양읍 입구인 미리산 아래의 백동리에 있었는데 농산물과 삿갓, 발 등 각종 죽세공예품을 국내는 물론 만주와 중국 등지로 수송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역이었다.



■ 조망탑이 높이 솟아 있는 담양역
 담양선은 1922년 12월 1일 개통
 1944년 2월까지 운행되었으나 군
 수물자로 쓰기 위해 레일을 철거해
 버린 뒤 오늘날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다

원래 광주~담양 노선은 경북 포항에서 전남 영광 법성포까지 한반도 남부를 횡단하여 동해안과 서해안을 잇는 원대한 철도망을 전제로 한 것이며 전북 남원의 전라선과도 연결될 계획이었다. 실제로 담양에서 남원 금지면까지 노반은 물론이고 철교의 교각까지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 공사도 태평양전쟁으로 자금과 물자부족을 겪게 되면서 중단됐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자 군수용 고철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담양 간 레일까지 뜯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후 1967년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옛 철길의 복원 공사가 착공되어 노반 정비 사업까지 마쳤으나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지금도 열차가 다니던 옛 노선의 좁다란 길이 남아 있고 일부 옛 간이역 승강장의 흔적을 간간히 볼 수 있다.

광주~여수 간 경전선

광주~여수 간 160km의 구간은 1930년 12월 25일에 개통됐다. 이로써 계림오거리는 옛 화교학교 방면으로 가는 광주~담양 간 철도와 ‘나무전거리’를 거쳐 농장다리로 향하는 광주~여수 간 철도의 분기점이 되었다.

경전선의 개통과 함께 학동에 ‘신광주역’이 개설되었으며 이것이 1938년 ‘남광주역’으로 역명이 바뀌었는데 2000년 광주 시내를 관통하는 경전선이 폐쇄되면서 철거됐다.

남광주역에서 효천역 방면으로 가는 중간, 지금의 백운광장 부근에 벽도역碧桃驛이란 간이역이 있었고 이 역을 지나면 효천역인데 효천역은 남광주역과 같은 시기에 개설되었다. 이곳은 현재 남구 송하동인데 효천이라는 역명은 한때 이곳이 광주군 효천면에 속했기 때문이다. 이 역을 지나면 나주 남평역이 나오고 더 가다보면 화순역을 만난다. 이 경전선의 개통으로 화순의 무연탄이 남평역과 효천역을 통해 광주로 반입되었는데 이 때문에 1980년대 초 송암공단이 조성될 때 시내 전역에 산재했던 연탄공장들이 효천역에서 가까운 송암공단으로 집결하게 되었다. 이 송암공단은 2003년도에 공업단지 지정이 해제되어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경전선이 광주의 도시형성에 끼친 영향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남광주역



■ 남광주역
1930년 12월 25일 광주~여수 간 철도가
개통되어 화동에 역사를 짓고 신광주역
이라 했는데 1938년 남광주역으로 이름
이 바뀌었으며 2000년 8월 폐쇄되었다.

덕분에 생겨난 남광주시장이다. 원래 이 시장터는 남광주역이 설치되고 나서도 철도회사의 부지였으므로 시장이 들어설 만한 여지가 없었다. 1960년대에도 소규모 좌판이 역 주변에 들어서기는 하지만 시장이라 불릴 만큼 큰 규모는 아니었다. 그런데 1970년대 철도청에서 역 주변의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면서부터 시장이 번창하게 되었다.

전깃불을 밝히다

광주에 처음 전깃불이 켜진 것은 1917년 8월 16일이었다. 그해 4월 자본금 5만 원의 광주전등주식회사가 설립됐고 다음 달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3개월 만에 전기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회사의 임원은 조선인을 포함하여 8명이었는데 사장은 고구라 요시노리(小倉良則)였고 전무는 마쓰다(松田德治郎), 이사(취재역)는 아오키(青木重信), 김형욱, 와카바

야시若林誠助, 감사는 최원택崔元澤, 정재학鄭在學, 우오타니魚谷與藏 등이었다.

수기동에 있었던 회사와 발전소의 건물은 목조 단층에 함석지붕을 얹은 초라한 모습이었다. 전선은 고압선과 저압선을 합해 연장 9km에 전봇대는 2백여 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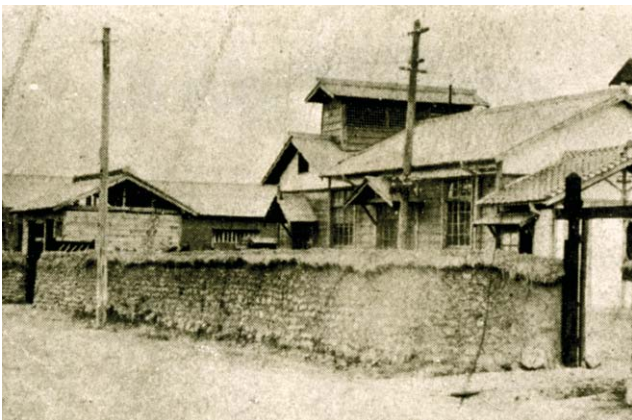
발전용량은 3,500등 규모였으나 우선 1천 개의 등을 공급했으며 가장 먼저 공급된 곳은 자혜병원 95등(지금의 전남대 병원)과 광주감옥 45등, 광주우체국 35등이었다.

일반 가정에는 저녁 5시부터 이튿날 7시까지 송전됐는데 정액등과 종량등으로 구분됐다. 정액등은 매월 촉광에 따라 일정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이었고, 종량등은 지금처럼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계산했는데 정액등은 16촉광이 월 1원 30전, 10촉광이 1원, 5촉광이 70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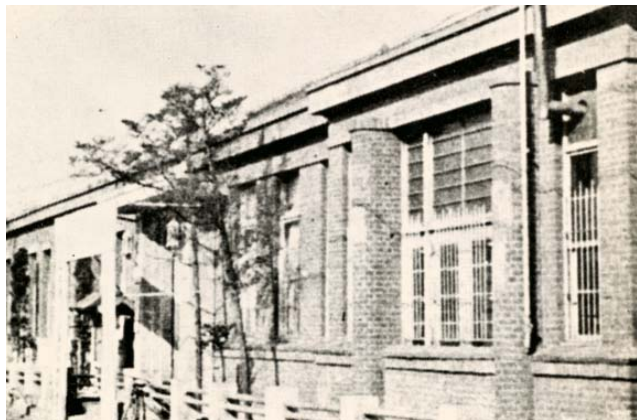
가로등은 가정등에 앞서 등장했는데 충장로 1가부터 5가의 역전통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해질 무렵이면 사다리를 어깨에 맨 사람이 가로등에 올라가 등불을 켜는데 전등이 아닌 석유램프였다. 이 때문에 날이 밝으면 다시 사다리를 맨 사람이 올라가 등불을 끄곤 했다는 것이다.

전기가 도입된 뒤로는 이런 가로등이 모두 전등으로 바뀌었는데 마치 방울모

■ 자본금 5만 원으로 수기동에 설립한
광주전등주식회사
1917년 8월 16일부터 광주 일반 가정
에 처음으로 전기를 공급했다.



■ 광주전등주식회사
1920년 대흥전기 주식회사에 흡수되
었으며 이어 남선희동전기주식회사에
합병되어 통칭 남전이라 칭했다.



양의 전등이 다섯 개씩 묶음으로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은방울꽃등(일본말로 鈴蘭燈)이라 했는데 이 전주들도 1944년 금속회수령 때 모두 철거됐다.

광주전등회사는 1920년 대구에 본점을 둔 대흥大興전기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됐고 대흥전기회사는 다시 남선南鮮합동전기주식회사에 통합되어 이를 속칭 남전南電이라 불렀다.

당시의 전등은 송전시설의 불안정으로 정전이 잦았다. 이 때문에 불빛이 건들 건들 한다고 해서 전등을 일러 ‘건들불’ 또는 ‘건달불’이라 불렀다. 전기에 대한 무지 때문에 빚어진 일화도 있다. 촌로들이 전기불도 불이려니 싶어 전구를 빼고 소켓트에 담뱃대를 넣어 빨다가 감전사고가 나는 일이 왕왕 있었다는 것이다.

광주의 상수도

16세기 초엽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광주에는 음성 안에 우물이 1백 개가 있다고 했고 19세기 중반에 간행된 『대동지지』에는 31개라는 기록이 있다. 또 1990년대 후반 전남대학교 박물관의 조사에서도 광주 원도심지에서 6곳의 우물터가 발견됐다. 대부분 조선시대의 것으로 당시 음성 안에 분포된 급수원을 짐작케 한다.

광주에 수도물이 공급된 것은 1920년 5월이었다. 중심사 입구의 제1수원지가 1917년 10월에 착공되어 3년에 걸친 공사 끝에 1920년 5월 20일에 준공됐다. 당시 통수식은 꽤나 성대하게 열렸다. 1920년 6월 2일자 <매일신보>는 “공전절후空前絶後의 대성황리大盛況裡에 광주수도光州水道 통수식 거행通水式 舉行”이란 제목으로 당시의 광경을 묘사했다.

초기에는 주로 시내 중심부의 공공시설, 그리고 일본인과 몇몇 조선인 가구를 겨냥한 것이었다. 이때 제정된 광주면의 급수조례를 보면 여섯 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시설은 공설공용전公設共用栓, 세 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시설은 사설공용전私設共用栓, 그리고 한 가구 단독으로 설치한 시설은 사설전용전私設專用栓으로 분류했다.

1926년 현재의 상수도 보급 현황을 보면, 공설공용전의 경우 조선인 96가구, 일본인 180가구인데 사설공용전은 조선인이 5가구인 데 비해 일본인은 185가구,

사설전용전의 경우는 조선인 20가구에 일본인 238가구였다.

이후 광주 상수도는 인구증가에 따라 수돗물 수요가 늘어나는데 당시의 신문에는 1920~30년대에 이미 가뭄 때마다 시간제 급수를 시행했다는 보도가 보인다. 이에 따라 수원지 건설도 잇따랐는데 광주의 수원지별 내력을 더듬어 본다.

1920년에 맨 먼저 준공된 제1수원지는 지금도 학운동의 증심사 가는 길의 왼쪽에 있었고 배수지는 현 조선대학 장례식장 자리에 있었다. 이 제1수원지는 오랫동안 광주의 수돗물 공급원으로 사용되다가 1970년 2월 수원 지정이 해제되고 민간인(장한섭)에게 매각됐다. 뒤에 다른 사람을 거쳐 지금은 청전가든(현 프라임월드)의 소유가 되었다.

제2수원지는 1939년에 축조되었다. ‘용연수원지’ 라고도 하는데 용연龍淵이란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디 이곳은 광주천의 발원지로 수량이 많아 조선시대부터 가뭄이 들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30년대 중반, 가뭄 때면 제1수원지의 저수량 부족으로 광주천 상류에 대형 우물을 파기도 하고 시간제 급수를 하는 등 물 부족을 겪게 되자 그 대책으로 제2수원지를 건설한 것이었다. 지금도 지원정수장 위쪽에 있으며 광주시에서 관리한다. 제1수원지가 흙으로 독을 쌓은 것과 달리 제2수원지는 석축으로 독을 쌓았다. 주변에 벚나무와 매화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봄철의 풍광이 아름답다.

제3수원지는 동림동 일대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1956년 산동고 아래에 건설된 양수장을 일컫는다. 한때 치평동의 상무대에 용수를 제공했다고도 하는데 동북댐이 건설되자 1972년 광주전매지청에 매각했다. 전매지청은 북구 본촌동 연초제조창의 공업용수로 사용하다가 다시 민간에 매각했는데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렵게 되었다.

제4수원지는 일명 ‘석곡저수지’ 라고도 부른다. 1967년에 준공됐다. 각화정수장을 거쳐 시내에 공급되는데 하루 공급량이 2만 톤으로 지금은 동북댐의 보조수원지로만 이용되고 있다.

제5수원지는 광주에서 동쪽으로 20km 떨어진 화순군 이서면과 동북면 사이에 있는 동북댐을 말한다. 1971년에 건설되었고 1982년 현재의 규모로 확장되었다. 하루 25만 톤을 공급하는데 현재 광주 사람들이 마시는 물의 60%를 차지



■ 1933년 광주유지들의 수원지 시찰
검 야유회(위)

앞줄 왼쪽 김홍렬(중앙병원장), 뒤
줄 왼쪽 유연상(삼산당약방), 김신
석(호남은행 전무), 두 사람 건너
최영옥(의학박사 해방 후 전남지
사), 심덕선(남창상회), 최경식(원
창상회), 김희성(해방 후 광주시장)

■ 광주에 처음으로 수돗물을
공급한 제1수원지(아래)

한다.

제6수원지에 해당하는 주암댐은 1990년에 완공됐다. 1994년 남구 행암동에 덕남정수장이 건설되면서 광주 시내에 급수를 시작했다. 현재 광주 시민의 약 30%가 주암댐에서 온 물을 마신다.

이 밖에 1980년대 초엽, 농업용수 외에 비상 상수원으로 광주댐이 축조됐고, 광산구 서봉동에 황룡강 취수보도 건설됐지만 지금은 사실상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다만 비상시를 대비한 급수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제3장 상업



■ 거래의 애환이 서린 장터

무안에서 비롯된 오일장

전통 재래시장을 뜻하는 ‘장’은 원래 우리 광주·전남과 인연이 깊다. 이 장이 최초로 우리 역사 기록에 등장한 것은 성종 3년인 1470년이다.

『성종실록』에 의하면 당시 전라도를 휩쓴 가뭄과 기근에 대한 진휼책의 하나로 조정은 백성들에게 시장의 개설을 허용했는데 맨 먼저 장이 열린 곳이 바로 전라도 무안이었다. 당시 상업을 말업末業으로 여기는 농본주의적 인식을 가졌고 실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던 양반들이 이러한 장의 등장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음에도 장은 점차 영산강을 따라 확산되었다. 여기에는 당시 전라관찰사 고대필高台癈(제주 출신으로 전에 광주목사 역임)과 나주목사 이영견李永肩이 장의 확산을 허용한 것도 적잖은 힘이 되었다.

한편 1610년 강항姜沆이 직접 쓴 「광주 향교 상량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향교가 장 가까이 있다 보니 잡스러움이 극에 달하고 노랫소리와 여색이 들끓으며 머릿기름을 바른 여자들이 사람을 현혹한다.” 아마도 이 무렵 광주에도 장이 정착된 듯하다. 어쨌든 전라도 무안에서 비롯된 장은 이렇게 해서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의 관행이 되었다.

산길 들길로 모여드는 장꾼들

보통 닳새에 한 번, 한 달에 여섯 번 서는 오일장은 우리 겨레가 예로부터 간직해 온 특유한 경제적 관행이다.

장날은 불문율로 정해진 약속된 날이며 장터는 물건을 사고파는 유통의 광장으로서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서민의 애환과 낭만이 서린 현장이었고, 소박한 민심이 머문 공간이었다.

장날이면 이른 새벽부터 도처에서 장꾼을 비롯한 이웃고을 사람들이 산길과 들길로 줄을 이어 모여들었다. 이들은 흰 두루마기에 갓 차림의 양반네에서부터 땀 절은 마포잡뱅이의 더벅머리 선머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주까리 동백기름에 곱게 머리를 쪽 지어 빗어 올린 아낙과 치마꼬리에 매달려 발걸음이 마냥 즐겁기만 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손꼽아 기다렸다가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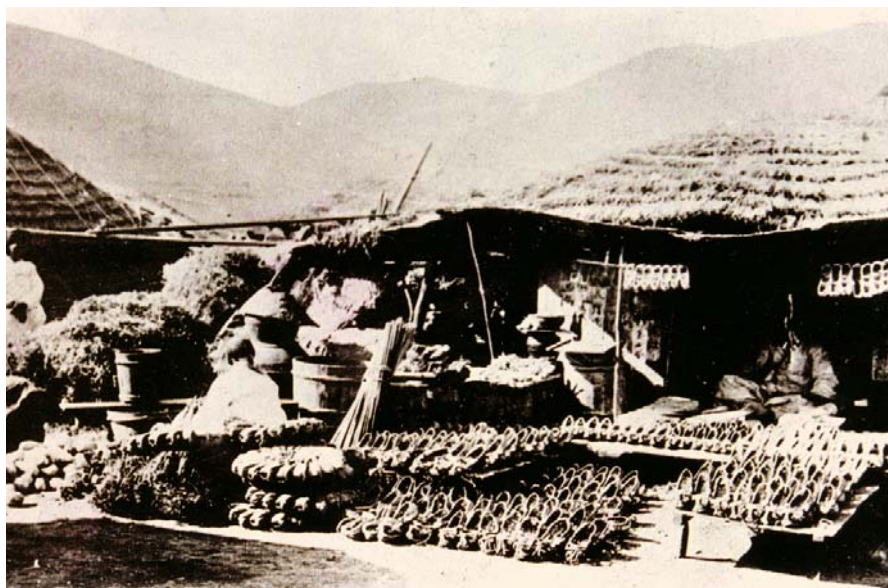
그렇다고 꼭 장터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장 서기 2, 3일 전부터 채비를 서둘렀다. 참깨 한 되, 마포 한 필, 닭 한 마리를 꾸려가지고 나와 돈을 사거나(옛날에는 물건을 내다 파는 것을 흔히 돈을 산다고 말했다) 하다못해 간갈치(염장한 갈치) 한 마리, 고무신 한 켤레를 사는 데도 웅기전, 유기전, 포목전, 팔죽전을 기웃거리는 즐거움이 여간 아니었다.

거기다 장터에 나가면 세상 돌아가는 사정과 고을 안 애사와 경사를 알 수 있었고 먼 마을의 사돈이나 문중의 종친, 큰애기 때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사교의 광장이기도 했다.

팔죽전이나 주막 안은 으레 오랜만에 만난 이들의 정다운 대화가 장터의 소음 속에 섞이게 마련이



■ 조선시대 모시를 파는상점에 내걸렸던 저포전기
국내에 소장된 바 없는 귀중품이다
(피바디박물관 소장, 8×1.5m).



■ 갯을 쓰던 시절(위)
장날이면 갯집의 장인 손길도
분주해진다.

■ 서민들의 신발인 짚신(아래)

있고, 평소 가난에 쪼들린 농민들에게 주막에서 파는 10전짜리 탁주 한 사발과 이에 곁따라 나오는 해장국 한 그릇은 더할 수 없는 호사스런 외식이자 커다란 기쁨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머리에 걸치면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나섰던 길을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돌아갔다. 그래서 지게 발목에 눈 먼 간고등어(염장한 고등어) 두어 마리를 지푸라기로 매달고 막걸리 몇 잔에 얼큰히 취하여 산길과 논둑길을 흥얼거리며 돌아가는 귀갓길은 한가롭기 그지없는 풍경이었다.

풍성한 삶의 현장

밤이면 아낙네들은 아낙네들대로, 남정네들은 남정네들대로 새로 접한 문물이며 고을 아무개 댁의 혼사 이야기, 초상 치른 이야기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온갖 이야기, 주막집에 새로 온 작부 이야기 등 장터에서 얻어들은 화제들로 밤이 깊어가는 줄을 모르고 되뇌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날을 기다렸고 또 장날이면 누구나 마음이 들떴다. ‘님 따라 장에 간다’, ‘갓끈 달다 장 파한다’ 또는 ‘장에 가고 싶은 머슴 낫 부러뜨린다’ 등 장에 관한 옛말이 많은데 모두 장이 사람들의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기 우리 민족의 애환이 얹힌 오일장을 묘사한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가 쓴 『한국과 그 예술』 중 ‘전라도 기행’에서 1937년 곡성 장날을 묘사한 대목을 옮겨본다.

조선 전역 도처의 마을과 도시에는 정해진 날에 닷새 간격으로 장이 선다. 장날에는 약 50리 안쪽에서의 산물이 집산된다고 한다. 아침저녁으로 길가에 점점이 사람의 행렬이 보이면 그 마을에 장이 선다는 것을 안다. 장날은 어디에서나 명절 같은 즐거움이 따른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이 정도로 순수하게 모여서 움직이고 있는 곳은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장날에는 누구나 ‘조선의 조선’을 만날 수 있다.

파는 소리, 부르는 소리, 말하는 소리, 웃는 소리, 거기다가 먹는 소리, 잡다한 소음 속에서 웃, 그릇, 물동이, 술, 장식물, 칼 등 온갖 잡것들이 팔린다.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그리고 소도 돼지도 개도 닭도 북에서 남에서 동에서 서에서 모조리 장을 향해 모이는 것이다.

살아 있는 조선을 보려면 장날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몸을 즐겁게 한다. 이런 즐거운 여행을 언제 또다시 맞볼 수가 있을까?

보부상들의 상도의와 사발통문

그런데 우리 전래의 장은 경제활동이나 정보나 뉴스의 교환 장소뿐만 아니라 민족의 울분과 애환을 함께 한 곳이기도 했다. 3·1운동도 전국 방방곡곡의 장터에서 일어났다. 광주는 1919년 3월 10일 작은 장날에 맞춰 부동방장(지금의 부동교 근처)에서 일어났다.

이 밖에도 보부상인 장꾼들의 구국항쟁사도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다. 조선왕조 창업에 보부상이 큰 몫을 담당하여 이성계는 이들을 조직화했으며 병자호란 당시 오랑캐들의 침략에 맞서 보부상들이 의병을 조직하여 군량미 등 군수물자



■ 돼지를 지게에 지고다니면서 파는상인들

수송을 맡았는데 그 기동력과 조직력은 가히 신출귀몰했다고 한다.

이들 보부상은 국가가 부를 때에는 들던 밥술도 팽개치고 이부자리를 걷어차고 일어서는 의기義氣가 있었고 조직 내 상하의 법도가 분명하고 상부상조하며 거래 질서나 신용이 엄격하여 만일 이런 법도를 어기면 자체 징벌로 엄하게 다스렸다. 1866년 흥선대원군은 이들을 정부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보부청稾負廳을 두어 큰아들 이재면李載冕으로 하여금 팔도의 보부상을 통솔하게 했다.

보부상들은 또 탐관오리에 대해서도 과감히 항거하여 항의문을 올렸는데 이것이 유명한 사발통문沙鉢通文 또는 私發通文이다. 사발통문이란 한지에 사발처럼 둥글게 이름을 쓰는데 원심을 중심으로 햇살처럼 무순으로 연명하여 주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든 것이었다.

이런 보부상 중 보상은 대개 집이 있어 가족과 떨어져 혼자 다녔는데 그들 가운데는 정월 보름에 출가하여 추석대목을 새고 다시 출가하여 설달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1년에 한 번 설달그믐에야 집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장돌뱅이들의 자녀들은 생일이 같은 달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부상은 일정한 집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장가들지 않는 사람 또는 가족이 있으면 처자를 대동하고 장사를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한편 보부상이 지방을 떠도는 소매상인이라면 이와 다른 거간이나 객주도 있었다. 그 가운데 객주는 객상주인客商主人의 줄임말인데 각처에서 모여드는 상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물건을 보관하는 일, 매매를 성립시키는 일 등을 업으로 했다. 그 가운데 객주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물품 운송과 창고운영을 부수 업무로 하는 위탁판매였다.

큰애기 가슴 태우던 박가분

장돌림(장돌뱅이)인 보부상들이 제일 큰 장으로 치는 것은 추석 대목과 설달그믐 대목, 다음으로는 9월 9일에 열리는 중구장重九場, 초겨울을 앞둔 시제장時祭場 등인데 봄과 가을 혼사가 많은 철에는 박가분朴哥粉을 비롯한 갖가지 혼숫감을 장바다에 늘어놓고 큰애기들의 가슴을 태우기도 했다.

일제 때 국내에서 판매된 분으로는 서가분徐哥粉, 장가분張哥粉, 미용백분, 서울

분 등 여러 제품이 있었지만 그중 단연 인기를 끈 것은 박가분이었다. 박가분은 서울 종로에서 일찍부터 포목도매상으로 명성을 날리던 박승직(朴承稷)이 1915년부터 종로4가와 연지동에 박가분본포(朴加粉本舖)라는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생산했다.

박가분은 장돌뱅이와 매분구(賣粉區)(당시 화장품 외판사원을 부르던 말)를 통해 도시와 시골장터에서 널리 판매되면서 신식 화장품의 대명사가 되었다.

지금과 달리 박가분은 분말이 아니라 딱딱한 고형(固形)이어서 얼굴에 바르려면 손바닥에 분을 놓고 새끼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개어야 했다. 그리고 얼굴에 고루 퍼지도록 하려면 분을 바른 뒤 한숨을 자야 했다고 한다.

그런데 1930년대 중반, 박가분의 납중독설이 퍼지면서 타격을 입었다. 원래 분의 주원료는 쌀이었다. 분을 뜻하는 한자에 쌀(米)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인데 곡물을 원료로 하는 분은 착색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광물인 납을 첨가했는데 이런 분을 납분, 연백분(鉛白粉), 연분(鉛粉)이라 했다. 납중독의 위험성은 이전부터 알려져 왔으나 미백 화장을 선호했던 풍조 탓에 연분 사용은 끊이지 않았다. 박가분도 당시 일반적으로 만들어졌던 이런 연분의 일종이었다.

박가분과 전남 해남과의 인연

연분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납중독으로 말미암아 얼굴빛이 파리해지고 거칠어졌다. 화장을 질게 했던 기생들은 이런 얼굴빛으로 기력(妓歷)을 가늠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연분의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박가분의 명성도 차츰 시들해졌다. 설상가상으로 1935년 박가분 본포의 화재, 일본 고급화장품의 시장 잠식으로 결국 1940년대 초엽 생산을 중단했다. 하지만 해방이 되고서도 한참 동안 박가분은 좀체 잊혀 지지 않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남아 있었다.

박가분의 박승직은 두산그룹을 창업한 박두병(朴斗秉)의 선친이다. 2007년 여름, 두산그룹의 임직원들이 해남군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들이 전남 해남을 찾은 이유는 창업주의 선친이자 사실상 오늘날 두산그룹의 토대를 이룬 박승직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인연 때문이었다.

박승직은 경기도 광주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1880년대 초엽 그의 나



■ 박가분
두산그룹 창업주 박두병의 선친이
정영한 박승직 상점에서 제조한 박
가분은 당시 여성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 하던 물건 중 하나였다.



■ 박가분 광고문

© 『한국화 장문화사』

이 열일곱일 때에 마침 현감으로 부임한 민영완閔泳完을 따라 해남까지 따라왔다. 이는 박승직 일가가 여흥민 씨의 농토를 경작하던 인연 때문이었다.

김동운의 『박승직상점, 1882~1951』(2001년)이란 책에 따르면, 박승직은 해남에 3년간 머물렀는데 이때 영암, 나주, 무안, 강진 등지를 돌며 무명베를 싸게 사들였고 이것을 서울에 가져다 팔아 거금 3백 냥을 벌었다. 그는 이 돈을 종잣돈으로 박승직 상점, 공익사共益社 등 한국 굴지의 포목도매상을 창업했고 나중에는 기린맥주의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인연으로 해방 후 적산으로 분류된 맥주공장을 인수해 오늘날의 OB맥주가 탄생했다. 따라서 해남은 두산그룹 생성 과정의 발판을 다진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부상의 신용 질서

보부상들이 거간이나 객주와 거래할 때는 특별한 증서가 없이도 아침에 물건을 건네받으면 저녁에 그 값을 치르기도 하고 또 서로 정하기에 따라 그달 그믐날, 길게는 추석 대목이나 설달그믐 대목에 어김없이 대금을 지불했다. 보부상들에게 거래 규범이나 신용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재기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기도 했다. 이들의 떠돌이 생활과 그 애환을 이효석李孝石은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에서

구구절절하게 묘사하여 우리 소설 문학의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의 대표적인 조석시朝夕市 강진 저자

우리나라의 재래시장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확실한 기록이 없으나 ‘정읍사’에 전해진 것을 보면 멀리 삼한시대부터 있었던 것 같고 조선 순조 20년(1820)의 기록에는 전국 팔도에 1,072개소의 장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5일장이 9백 25개, 3일장이 4개, 10일장이 1백 25개, 15일장이 18개소인데 장은 주로 성읍城邑의 중심지나 교통의 요지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 이후 3일장, 10일장, 15일장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5일장으로 정착되었다. 이 밖에도 아침만 서거나 저녁만 서는 조석시朝夕市라는 것이 있었는데 전남 지방의 대표적인 조석시는 강진장으로 생선과 채소 등이 주 거래상품이었으며 아침 8시에 장이 서서 10시쯤 파장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또 하나의 특수한 장은 약령시藥令市라 하여 약재를 사고팔기 위해 서는 시장인데 원래 한국산 약재는 한국에 삼신산三神山이 있다 하여 영약인 인삼을 비롯한 많은 약재가 중국에서도 거래됐다.

약령시에서는 우리나라 약재는 물론 중국의 당재唐材도 함께 거래되고 있었다. 대구 약령시는 1914년 이전까지 봄과 가을, 즉 음력 2월과 10월에 두 차례 열렸는데 이후에는 가을에만 한 차례 열렸으며 1920년경에는 매년 12월 1일에서 다음 해 1월 말까지 개장되었다. 전주 약령시는 대구 약령시보다 약간 늦게 개시했다.

3월 보름부터 25일까지 서는 춘시春市와 10월 보름부터 25일까지 서는 추시秋市로, 일년에 두 번 서는 것이 특징이다. 전주 약령시는 공주 약령시가 생기면서 쇠퇴했고 마침내 폐지되었다. 그때만 해도 가가의家家醫 즉, 집집마다 의사요 집집마다 약재를 사들이는 때여서 그 규모가 대단했었다(정승모, 『시장의 사회사』).

■ 광주천 재래시장의 변천

큰 장과 작은 장을 합친 사정시장

충장로 상권이 형성된 1920년대 이전의 상거래는 거의 광주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금의 광주천 부동교 일대의 넓은 백사장에는 작은 장이 섰고, 하류 쪽으로 조금 내려가 옛 한일극장과 현대극장 일대의 백사장에서는 큰 장이 섰다.

작은 장은 당시 행정구역이 부동방면(不動方面)에 속해 있어 부동방장이라고도 했고, 매 4일과 9일에 열렸다. 큰 장은 공수방면(公須方面)에 있다고 해서 공수방장이라고도 했는데 장날은 매 2일과 7일이었다.

광주의 큰 장과 작은 장은 호남의 대표적인 장으로 장날이면 호남 각지의 장꾼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많을 때는 상인만 300여 명에 이르렀는데 이들은 장터에 장옥(場屋)이라 불리던 가건물을 지어 상가를 이루었다. 이러한 재래시장의 풍경이 변모하게 된 것은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다.

일제는 1928년 광주천의 물줄기를 직선으로 만들고 강둑을 쌓는 이른바 하천정리 사업을 하면서 시장을 정비한다는 구실로 큰 장과 작은 장을 합쳐 현재의 사동 37번지의 매립지에 사정(社町)(사동의 일제 때 명칭)시장을 개설했다.



■ 광주큰 장터
1917년경 광주천변의 큰 장터로 장날은 2일과 7일이였다. 이 장터 위쪽(상류)에는 4일과 9일에 열리는 작은장터가 있었다.

상인들의 항일 상권운동

일제는 또 이와 별도로 광주공원 앞 구동의 하천부지에 상가를 조성하여 상인들에게 분양하기도 했다. 이 상가는 장터의 가건물이 아니라 점포와 주택이 함께 딸린 것으로 총 67구역을 지었는데 1구는 20여 평 규모였다. 이에 따라 당시 광주면은 새로 조성될 상가 분양을 공고하고 입주신청을 1928년 3월 10일까지 접수하도록 했다.

입주 서류는 마감일까지 55건이 접수되었고 나머지도 마감일을 넘기기는 했으나 접수가 인정됐다. 그런데 점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간계가 드러나 한국인을 격분시킨 사건이 일어났다.

새로 조성될 상가 가운데 지금의 광주대교 건너편(광주공원 입구 쪽)에 있는 노른자위 땅을 일본인 면장 구라시나 倉品益太郎가 아무도 모르게 특정인에게 불법 분양을 해줬던 것이다. 이 땅은 모두 3구로 60평이었는데 이것을 분양받은 사람은 바로 건설 청부업자였던 다케나가 竹中作一였다.

이 같은 사실은 다케나가 건축공사를 착공하게 되어서야 뒤늦게 알려졌다. 원래 이 땅은 오래전부터 조양준(趙良俊)의 연고지로 그는 마감일 안에 입주신청까지 냈으나 면사무소에서는 애매한 이유를 붙여 서류를 반려했다. 이렇게 되자 다시 김용성(金容成)과 김용시(金容始) 등이 거듭 서류를 제출했으나 역시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되돌려 보냈다.

더구나 이런 사실은 한국인 부면장 박계일(朴桂一)마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졌고 박계일은 다케나가의 서류조차 본 사실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구라시나 면장이 독단으로 불법 처리했음이 드러났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격분한 40여 명이 상인들은 4월 5일 오후 1시께 광주면사무소로 몰려가 면장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구라시나는 상인들의 기세에 놀라 자리를 피해 버린 뒤였다.

오랫동안 기다리다 지친 상인들은 좀더 조직적으로 항의하기 위해 즉석에서 최남립(崔南立)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하여 향후 행동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라시나 면장의 불법적이고 온당치 못한 처사에 항의하기 위해 4월 10일 오후 3시 사립보통학교 강당에서 광주시민대회를 열기로 결의했고 이를 위해 김진국(金鎭國) 외 13명을 준비위원으로 선출, 모든 절차와 진행을 위임했다.

광주상민대회

그런데 광주경찰서 고등계가 재빨리 이 정보를 입수, 시민대회를 저지하기 위해 온갖 회유와 협박을 가해왔다. 그러나 준비위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만 행사 명칭만 광주시민대회에서 광주상민대회(光州商民大會)로 바꿔 대회 개최를 강행했다.

대회 당일인 4월 10일 오후 3시가 되자 사립보통학교 강당에는 삼시간에 400~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여 좁은 강당 안팎을 빼곡히 매웠다. 광주경찰서 고등계의 정사복 경찰들도 대회장 안팎을 삼엄하게 에워싸고 있었다.

이날 상민대회는 준비위원회의 대표인 최남립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는데 개회 선언 직후에 고등계 세키(關) 부장은 대뜸 일어나 소리쳤다.

“상민이 아닌 사람은 발언할 수 없으며, 또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의 발언

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자 대회장은 벽두부터 찬물을 끼얹은 듯 살벌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래도 준비위원들은 동요하는 기색 없이 대회를 진행했고 참석한 상인들도 의연한 자세로 서슴없이 발언을 토해냈다.

먼저 경과보고가 있는 다음 협의사항에 들어가자 참석자들은 장시간에 걸쳐 면당국의 불법처사를 규탄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어 이들은 발언 내용들을 종합하여 만장일치로 결의사항을 채택했는데 첫째 구라시나 면장에 대한 광주 상민 일동의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 둘째 감독관청에 대해 광주 면장의 부당한 처사를 취소하도록 광주군청에 진정할 것 등이었다.

아울러 교섭위원으로 최춘열 崔春烈, 김진국 金鎭國, 최당식 崔當植, 강태성 姜泰成, 최남립, 김형옥 金衡玉, 심덕선 沈德善, 김양실 金良實, 조창준 趙昌俊, 차문걸 車文杰 등 10명을 선출하고 이들에게 3일 이내에 결의사항을 전달하도록 했다.

이날 상민이 아닌 사람으로 서우석 徐禹錫(후에 곡성출신 제헌국회의원을 지냄)이 참석했는데 그는 폐회 무렵 상민들의 동의를 얻어 발언에 나섰다.

“이 공사는 다케나가가 광주면사무소의 허가를 얻었다고 하나 구라시나 면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허가했으니 우리도 이러한 허가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건축공사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임석한 경찰관들이 들고 일어나 발언의 중지와 대회의 해산을 명령했다. 지금까지 상민들끼리 진행한 대회라서 강제 해산의 꼬투리를 찾지 못하고 있던 그들은 상민이 아닌 서우석의 발언을 구실 삼아 이 대회를 불

■ 황호장사
형편이 넉넉지 못한 상인들은
이렇듯 지가나 이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다.





■ 1940년대의 양동시장
당시만 해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장이 서면 장구경을 나서던 때라
남자들이 많이 눈에 띈다.



■ 포목점

법으로 규정, 상민들을 해산시켰으며 이 대회를 주동한 혐의로 최남립, 서우석, 강태성 등을 체포했다.

결국 이날의 상민대회는 일본인 면장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려던 사람들만 곤욕을 치른 결과를 빚었고 정작 원인제공을 한 일본인 면장의 불법행위는 흐지부지 덮어버리고 말았다. 그 뒤 일본인 청부업자 다케나가는 이 자리에 점포를 지어 큰 수익을 올렸으나 그 터에 연고를 가진 우리 상인들은 일본인에 대한 한을 씻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이 상민대회는 우리 상인들이 상권옹호를 위해 결연한 자세로 조직적인 집단 항거를 했다는 점에서 길이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사정시장 안팎의 주요 상인들

사정시장은 1932년 2월 3일 개설됐다. 기록에 의하면, 부지 8,450평에 점포 170칸을 지어 소위 근대적 시장으로 개장을 했다고 한다. 이 시장은 비록 까대기만 얹어 놓은 것이기는 했지만 장날은 큰 장과 작은 장을 합쳐 2, 4, 7, 9일로 단일화했다. 점포도 업종별로 포목전, 황화전(담배, 삼지, 바늘, 실 등 잡동사니를 취급함), 양품전, 잡화전, 피복전, 건어물전, 곡물전, 고

무신전, 목물전, 생선전, 육류전, 사기전, 용기전, 유기전 등으로 구분되었다. 주막은 시장 입구 바른편에 있었으며 가축시장은 옛 한일극장 뒤편으로 따로 분리되어 2일과 7일 큰 장 때에만 열렸다.

당시 시장상인들 가운데에는 독립투사 출신도 끼어 있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광주고보의 중심인물이었던 김기권金基權(훗날 광주·전남 광복회 부회장을 역임)이 바로 그였다. 그는 복역을 마치고 나와 장꾼들 틈에 끼어 포목상으로 출발, 사업가로 크게 성공하였다.

사정시장이 들어서자 시장으로 통하는 길을 중심으로 상가가 번창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곳이 지금의 무등상호저축은행(옛 원호청) 뒷골목으로 공원다리 길이라고도 불리는 이 거리를 따라 일본인 잡화도매상인 스기우라杉浦辰馬상점, 마도바의場榮作상점, 광주 최초의 연탄도매상이었던 오다大田善白상회 등의 거상들이 큰 상가를 이루었다. 또 한국인으로는 광주 3·1운동의 주역이었던 최한영崔漢泳이 이곳에서 고무신 상점을 차려 호남 일대를 대상으로 여수의 천일天-고무신도매상을 했다.

이 골목에는 1916년 광주공원 옆 옛 사마재司馬齋 터에서 옮겨온 전국 최초의

■ 신발가게



광주지방금융조합이 있었는데 중도에 광산금융조합으로 개칭했다. 그 건물은 해방 후에 농산물검사소로 쓰이다 현재는 어느 종교단체 건물이 들어서면서 철거되었다.

또 현재 밀리오레 광주점 자리에는 일제 초창기부터 마즈다松田德次郎가 세운 양조장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국인과 합자하여 큰 규모의 광주주조주식회사光州酒造株式會社가 됐다. 광주주조는 양질의 전남산 쌀로 빚은 청주 기쿠니코菊日光가 유명했고 이 밖에 사이다와 간장, 된장 등도 생산했다.

이후 사정시장은 호남 지역 최대의 시장으로 성장했는데 1938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간 거래액이 226만 5,871원에 달했다. 이는 남한 지역에서 천안장, 남원장, 대구의 서문시장, 예천장, 진주장, 황성장에 이어 일곱 번째 규모였으며 같은 시기 지금의 금남로2가에 있었던 일본인 전용시장이던 명치정시장明治町市場의 거래액 23만 2,892원의 거의 열 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신사에 쫓겨난 사정시장

1940년대 사정시장은 또 한 차례의 변화를 맞았다. 일제는 사정시장이 광주신사 바로 옆에 있어 장날이면 북적대는 인파들로 인한 소음과 어물 등의 악취로 말미암아 이맛살을 찌푸려 왔는데 1941년 전남도에서 관리하던 광주신사가 총독부의 관리를 받는 이른바 국폐소사國幣小社로 승격하게 되었다.

일제는 그 기념사업으로 신사의 개축과 공원 계단의 축조, 나무의 식재, 광장 확장 공사 등과 함께 사정시장이 도심과 너무 가깝고 협소하다는 이유를 들어 당시 천정읍(지금의 양동)에 있던 공설운동장으로 시장을 옮겼다.

당시 일제는 한창 태평양전쟁 중이라 물자난에 허덕이고 있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사정시장 점포의 구조물을 그대로 뜯어다가 천정시장으로 옮겨지었는데 이때 점포수는 366칸으로 사정시장의 470칸보다 1백여 칸이 줄어들었다.

일본인 전용 중앙시장

1930년대 중반 광주에는 일본인 거주자가 약 8천 명으로 늘어났다. 이로 말미암아 1936년 10월에는 옛 동구청 자리인 금남로2가 7

번지 일대에 일본인 전용 시장인 명치정 공설시장(明治町公設市場)이 들어섰다.

이 시장은 상설시장으로 이곳에는 가마보코(어묵), 다쿠양(단무지), 나라즈케(동아절임), 후쿠진즈케(역시 절임식품의 일종) 같은 일본 식료품, 생선, 잡화 등 97개 점포가 들어서 있었고 일본식 식당도 있었다. 광복 후 중앙시장으로 바뀌었다가 1960년대 중반 12미터의 노폭을 30미터로 늘리는 금남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건물이 헐렸고 1971년 이곳에 새로 건물(금남빌딩)이 들어서자 다시 중앙시장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건물 안에 동구청이 함께 입주하면서 식당가로 면모가 바뀌게 되었다.

특히 이곳에서는 일본인 전용시장의 전통이 이어져 장어구이, 복요리 등 일본 음식이 유명했고 대표적인 조리사로 김영호(金榮浩)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일제 때부터 도쿄야(東京屋)란 일식당을 경영했는데 이곳의 오야코돈부리(닭고기와 계란 덮밥)는 일본인들에게까지 인기가 있었다. 또 6·25 이후에는 속칭 상해 마담이라 불리던 여인이 시장 안에서 초우(草宇)라는 식당을 열어 많은 사람을 끌었는데 그 집 조리사 김재호(金在浩)가 유명했다.

중앙시장은 원래 시내 중산층이 주 고객이었고 식료품도 비교적 값이 비싼 고급이었지만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인시장이나 남광주시장 등으로 상권이 확대되었고 또 시내 한복판이었던 탓에 임대료가 높은 데다 금남상가가 조성되면서 1978년에 폐쇄됐다.

금정시장

명치정시장 다음으로 개설된 것이 지금의 금동 211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금정시장(錦町市場)이었다. 이 시장은 학동, 양림동, 방림동 주민의 편의를 위해 1939년 2월에 개설되었다. 시장규모는 490여 평의 부지에 점포가 78칸이었으며 명치정시장과 같은 상설시장으로 식료품과 생선, 잡화와 의류 등이 거래됐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전 말기의 물자난으로 폐쇄되었다가 해방 후에는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중고품 시장으로 번성했는데 주로 이불, 양복, 여성용 의류, 장롱 등 가재도구와 헌책들이었다. 그리고 중고품이 점차 바닥을 드러내자 뒤



■ 혁파장수

이어 레이선 박스 등 미군물자와 구호물자 시장으로 변모해갔다.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게 된 것은 1948년에 큰 화재로 말미암아 시장이 재건되면서부터이다. 시장번영회는 양동시장의 증축사례를 본받아 상인들 자력으로 시장건물을 재건했는데 이때부터 일용잡화를 거래하는 옛 시장의 면모를 되찾게 되었다.

그 뒤 1972년 7월에는 이름을 남부시장으로 등록했으나 이 무렵부터 광주천 일대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인근에 새로 남광주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시장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인근 전남대병원의 입·퇴원 환자들을 겨냥한 보신탕 골목으로 바뀌었는데 1992년에 시장 건물이 헐리고 그 자리에 17층짜리 금동타워랜드가 들어섰다. 이 빌딩은 뒤에 코밀빌딩으로 불리다 지금은 기산빌딩이라 불리고 있다.

■ 한국 상인들의 충장로 진출

■ 1920년대 충장로2가
일본 상인들이 충장로에 상권을 형성
하면서 오늘날 광주 상권의 중심지가
되었다.



성 밖에 자리잡은 한국 상인들

일제강점 5년 뒤인 1915년 당시 광주면(光州面)의 상인 수는 한국인이 93명인 데 비해 일본인은 260명으로 거의 3배에 달했다.

이때 거래물량은 연간 통틀어 15,694톤, 금액으로 환산하면 1,373,447원(당시 물가로 현미 1섬은 18원 50전, 쌀 상품 1말은 2원 20전, 쇠고기 1근은 15전)에 달했다.

주요 거래 상품으로는 쌀 710톤(514,000엔), 소금 2,300톤(51,000엔), 그 밖에 목재, 면화, 주단 포목, 석유, 담배, 종이류, 금계랍(말라리아特效약) 등 약품이 있었다.

그 가운데 우리 상인들이 주로 거래했던 것으로 보이는 오일장의 연간 매출액은 1915년 기준으로 큰 장이 118,586원이었고 작은 장이 12,621원으로 이를 합쳐도 13만여 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일본 상인의 경우 충장로2가에 있었던 시오야(細屋)란 일본 상설점포 한 곳의 한 해 매상고가 12만 원이었던 것을 보면 한국 상인들의 거래액이 얼마나 미미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뒤늦게 눈을 뜬 한국인들도 얼마 가지 않아 충장로 번두리인 지금의 4가와 5가에 점포를 내기 시작했는데 주로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주단, 포목 등 옷감과 혼수용품인 옷장, 이불장, 함 등의 목물 가구와 고무신, 쌀 등 곡물과 어물 등을 취급했다.

이들은 점포의 규모나 자금에 있어서 아직 영세성을 면치 못했다. 따라서 학교나 관공서 등 대량 소비처에 대한 납품은 엄두를 내지 못했고 정보도 어두운 데다 일본 생산 공장과의 연계가 어려워 일본 상인들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충장로에 최초로 진출한 한국 상인은 서방(瑞坊) 출신으로 목물 가구를 취급했던 임학운(林鶴雲)인데 그는 충장로4가에 200~300평의 넓은 부지와 공장, 점포를 겸한 2층 건물의 가구점을 가지고 있었다. 충장로 한국인 상가에서는 몇 채 안 되는 호화 건물로 위아래층에 목물 가구가 가득 진열되어 있었다. 이 점포는 광주는 물론 호남 일대에서 가장 큰 가구점으로 부잣집 혼수에는 이 집의 가구가 필수적으로 쓰일 만큼 고급 가구점이었으며 점포 뒤에 공장을 두어 장인을 양성해 낸 것으로도 유명했다.

인기 높은 고무신과 포목점들

이때 한국인 상인들이 취급한 업종들 중에 규모가 큰 것으로는 주단 포목점을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심덕선의 남창상회(南昌商會)였다. 심덕선은 광주 북동 출신으로 일찍이 실업계에 뜻을 두고 행상부터 시작하여 광주장, 송정장, 장성장 등을 돌며 어느 정도 자본이 모아지자 충장로에 점포를 냈다. 그는 호남일대에 큰 판로를 가진 거상이 되었는데 1927년 1월에는 경영체제를 합명회사의 법인체로 바꾸었다. 1936년부터는 광주 임동의 가네보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면직물의 총판매를 맡게 되어 이것이 남창상회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 충장로4가에 도매부, 소매부의 넓은 점포와 거기에 따른 창고는 물론 수기동에 있었던 3채의 대형 창고에도 언제나 중국 비단과 일본산이나 국산 옷감과 광목이 가득 쌓여 있었다. 심덕선은 사회사업에도



■ 남창상회의 심덕선
호남 지방에서 주단포목업
계의 상권을 주름잡았다.



■ 충장로4가에 있던 남창상회
소매부 정문
사진의 주인공은 심덕선의 머
느리와 손자 재영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특히 계유구락부(癸酉俱樂部)의 핵심 멤버로 참여하여 민중 계몽운동과 빈민구제사업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 밖에도 포목상으로 심덕선의 아우인 심상엽(沈相燁, 德昌商會), 광근수(郭謹洙, 八萬商會), 유동석(劉東錫, 洪益商會), 김한섭(金漢燮, 金城商會), 정용모(鄭涌模, 大東商會), 최경식(崔景植, 源昌商會), 박경식(朴景植, 和信商會), 그리고 필자의 아버지 박봉언(朴奉彦, 長光商會) 등이 있었다.

그 가운데 최경식은 호남은행 행원 출신이었고, 영암 출신인 광근수는 인천상업학교를 나온 사람이었는데 그때 충장로에는 이러한 인텔리들이 끼어 있었다.

포목상이던 대동상회의 정용모(1970년대 부래옥백화점을 운영한 정덕호의 아버지)는 태평양전쟁으로 주요 생필품이 배급제로 운영되자 다른 포목상들과 함께 면포(주로 광목(廣木, 당목(唐木) 등인데 폭이 넓은 무명베로 일명 서양목이라고도 했음)의 배급 판매를 맡았다.

일제는 1941년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여 심한 물자난을 겪게 되자 모든 경제를 전시통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맨 먼저 면직물, 고무신, 쌀에 대한 자유판매를 금지하고 배급제를 실시했던 것이다.

이때 면포의 배급 가격은 광목 한 필(폭 35인치, 길이 40야드로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폭이 약 89cm, 길이가 약 36m에 해당함)에 4원 7전, 당목은 11원 70전, 옥양목(玉洋木)은 18원이었다. 그런데 당시 '야미뽕', 즉 암거래 가격은 광목이 40원 이상이나 되어 두 배 반이 넘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정용모를 비롯한 충장로 상인들은 암거래 쪽으로 물자를 빼돌리는 일 없이 꼬박꼬박 배급 가격으로 판매하여 정직한 상인으로 알려졌다.



■ 윤규용
제주 출신으로 보통학교 훈도(교사)를 하다 광주 충장로에서 포목상 삼익상회를 경영한 사람으로 광주직물소매상업조합이사장을 역임했다.

이 무렵 제주 출신으로 윤규용尹圭容, 三益商會, 김한국金漢國, 海東商會, 하원河元·하합河合商會 형제, 자전거 판매의 이재은李在銀 등이 있었는데 윤규용은 보통학교 교사 출신의 지식인으로 일제 말기에 광주직물소매상업조합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돈보인 개성상인

이 밖에도 광주에는 개성상인들이 진출해 있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충장로의 허명학許命鶴인데 그는 누문동에서 환길정미소丸精米所를 경영하던 장봉익張鳳翼의 딸 장경례張慶禮(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여학생으로 참여 독립유공자가 됨)와 결혼하여 광주에 정착했다.

장봉익은 1927년 환길정미소를 법인체인 합명회사로 전환시킨 선진 기업인인데 우리나라 식물학계의 태두이며 『조선식물도감』을 저술한 장형두張亨斗 교수의 삼촌이기도 하다. 그는 광주 북동유치원 설립과 여자야학을 돕는 등 민중계몽운동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1926년 2월 그의 어머니 회갑 때는 광주사립보통학교와 광주청년회 부설 야학에 당시 돈으로 각각 4백 원씩 8백 원을 기부했다. 1938년 광주 최초의 천주교회인 북동성당을 건립하는 데도 많은 헌금을 했다. 필자의 부친과도 교분이 두터웠던 탓에 필자는 그의 사위인 허명학과 호형호제를 하는 터였는데 우연히 그가 광주에서 상인으로 입신하게 된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당시 들은 이야기의 일부를 소개해 본다.

나는 광주에 먼저 와서 살고 있던 형許命順의 권고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해인 1929년 2월 26일 개성에서 전기부속품장사로 모은 돈 520원을 갖고 광주에 와서 지금의 한국은행 자리(금남로3가, 현재는 금남 근린공원으로 바뀌었음)에서 ‘송도약방’을 차렸다.

내가 광주에 왔을 때만 해도 광주에서는 양약방이 몇 군데밖에 없었다. 당시 양약방을 차렸던 일본 사람으로는 기노시다木下忠(충장로3가의 충장파출소 옆), 미야사카宮崎榮喜(충장로2가) 등 네 사람이 있었고 한국 사람으로는 충장로5가 구 조흥은행 충장로지점 건너편에 있었던 조석준趙錫俊의 평화당平和堂 약방과 내가

경영하던 송도약방 두 군데 뿐이었다. 그때 나는 돈도 벌고 생활도 만족스러웠다.

소매 이윤이 최저 3할에서 6할, 심지어 10할 이상 남기도 했는데 그때의 광주 사람들은 보수적이어서 좀 살만하면 상업을 천시하여 장사를 하려드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장사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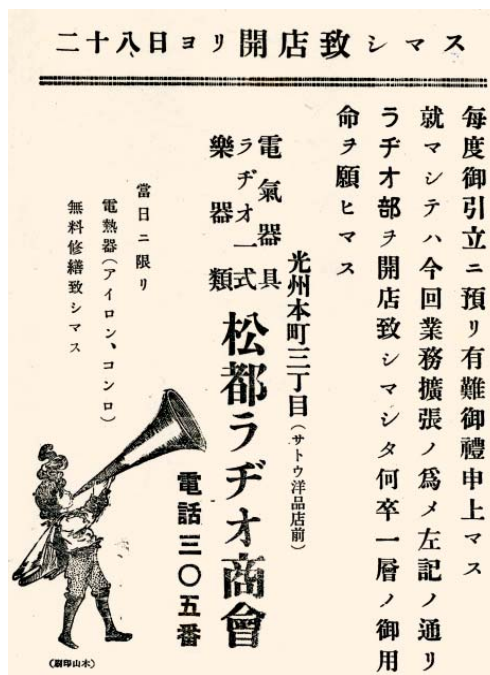
개성에서는 동업자간의 경쟁이 심해서 영신환(靈神丸)(한방소화제) 한 갑에 10전 정가가 붙은 것을 5전 5리(厘)는 전(錢) 아래 화폐단위인데 이 때는 5리짜리 동전이 있었음)에 팔았는데 광주에서는 정가대로 10전을 다 받았으니 정말 장사하기 재미있는 시절이었다.

그러나 나는 1931년 5월 3일 뜻하지 않던 이웃집 화재로 삼시간에 점포를 잃



■ 1938년의 송도상회
1층에는 전기부·라디오부·약기부·결혼식장·장식재료부·사진·액자·앨범·화구부·침대부가 있었고 2층에는 사진관을 병설, 경영했다.

© 허중철



■ 송도상회 광고문

고 말했다. 그렇지만 다행히 화재보험에 들어 있어 1,300엔의 보험금이 나와 그 것으로 충분히 재기할 수 있었다. 나는 충장로4가 변화가에 점포를 사서 형과 함께 송도전기상회라는 전기부속품상을 차렸는데 사업은 의외로 번창했다.

나는 1933년에 그 가게를 형에게 내주고 따로 충장로3가에 개업을 했다. 또 남동에는 송도전기사라는 점포를 차려 조키許來信에게 맡겨 주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때가 내 일생 중 전성기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나의 조그마한 힘으로 광주에 3개의 커다란 점포를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서 전남 일대 전기부속품 상권을 장악한 때가 바로 이때였으니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광주에 오기 전에 개성에서 이문순 약방李文淳 藥房의 점원으로 있으면서 장사를 배웠는데 나는 지금도 이문순 씨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당시 개성 사람들은 어엿한 집 아이들도 어렸을 때 사업을 배우기 위하여 남의 가게 점원살이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점원의 부모들은 초파일 5월 단오 같은 명절에 선물을 가지고 점포집 주인을 찾아와 인사를 드리고 아들의 상업 견습에 감사하곤 했다. 점원으로 6, 7년 착실하게 근무하면 점포 주인이 물품을 대주고 점포를 얻어 주어서 지점처럼 자립시켰다. 이렇게 해서 자립한 점원은 주인이 대준 점포 값과

■ 1930년대의 충장로



물품 대금을 몇 년 동안 벌어서 갚아주는 것은 물론이지만 물품도 주인집과만 거래하고 또 주인집 단골이 찾아오더라도 주인집에 가서 물품을 사도록 안내하는 것이 당시의 상도의였다.

개성 사람들의 투철한 상인 정신은 이 같은 도제식 수업과정에서 체질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상인에 버금가는 병영상인

개성상인과 대칭을 이루는 상인 집단이 바로 전남 강진의 병영상인이다. 흔히 개성을 송도(松都)라고 일컫는데 예로부터 ‘북송상(北松商) 남병상(南兵商)’ 즉, 북에는 개성상인이요 남에는 병영상인이라는 말이 회자되어 왔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호남 지방의 오일장은 병영상인들이 주름잡고 있었으며 그래서 병영상인이 없으면 장이 서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2011년 4월 15일 전남 강진 병영면사무소에서 한국 경영사학회가 ‘전설의 보부상 병영상인’이라는 주제의 ‘한국 전통상인 발굴을 위한 학술대회’를 주최하여 지역민의 관심을 모았다.

이 학술대회에서 박성수 전남대 교수(경영학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병영상인의 뿌리는 해상왕 장보고의 상인정신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다음은 2011년 4월 18일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박 교수는 “장보고는 신라-당-일본 사이의 해상 무역과 민간 교류에 독보적인 중개무역을 수행했다”며 “강진은 도자기 등 장보고 선단의 상품을 제공했던 본사 기능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후 고려시대에도 강진은 도자기를 생산하는 지역이자 무역의 요충지였다.

병영상인의 본격적인 등장은 1417년 전라 병영성 축조에서 비롯됐다. 광산현(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던 전라병영성이 강진현으로 옮겨가면서 수천 명의 징발자들이 병영에 몰렸고 군수용품과 생필품의 수요가 폭증했다. 자연스레 병영 사람들은 물자를 조달하는 상인이 됐다. 박 교수는 “병영 제정을 충당하도록 조정에서 군인들에게 상거래 권한을 줬던 것도 상업 활성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병영 상업은 1895년 전라병영성이 폐쇄된 뒤에도 전국으로 뻗어갔다. 병영 상인들은 1930년대엔 만주까지 무명과 배를 팔러 다녔다. 1963년 먼 단위에선 드물게 극장이 생겼을 만큼 변화했지만 80년대 들어 급속히 인구가 줄었다. 하지만 병영상인 후예들은 5일장이 점차 쇠퇴하자 서울·부산·인천·호남·제주 등 전국으로 진출해 상권을 장악했다.

충장로의 여자상인

충장로 최초의 한국 여자 상인으로는 충장과출소 건너편에서 도자기와 고무신을 파매한 김세라金世羅 金世商會를 들 수 있다. 개성 태생인 김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지도자인 김활란金活蘭(이화여대 총장 역임), 김필례金弼禮(수피아여고 및 정신여고 교장 역임)와 함께 삼김여사三金女史로 불린 여류명사였는데 광주의 최남립崔南立(순천 매산학교, 숙명학교, 배영학교 등 교장 역임)과 결혼하여 충장로에 자리잡게 되었다. 10여 년 동안 사업을 계속하다 순천으로 이사 가면서 문을 닫은 뒤에는 서한권徐漢權(중앙교회 장로 역임, 서동익徐同益 박사의 부친)에게 점포를 넘겨 일본인 스가하라菅原太一 양화점과 맞선 광주의 대표적인 구둣방이 되었다.

또 다른 유명한 여자 상인으로는 충장로4가 옛 조흥은행 남쪽 건너편 건물의 아래층에 있던 추양임秋良任 상점을 들 수 있다. 당시로서는 대형 백화점이라 할 수 있었던 추양임의 상점은 각종 식료품, 주류, 일용잡화를 취급했는데 규모도 규모이거니와 충장로의 요지에 자리를 잡고 있어 유명했지만 무엇보다도 추양임이 미모의 과부였다는 사실로도 주목을 끌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언제나 쪽머리를 곱게 빗고 우아한 한복 차림새로 커다란 점포 깊숙이 단아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꽤 귀부인다워 보였다.

추양임 상점은 원래 지정남池禎南이 광주에서 한국인 최초로 잡화점을 차렸던 자리였다. 지정남은 여기서 돈을 벌어 광주 최초로 자가용 승용차를 탈 정도로 성공했던 사람인데 형편이 나아지자 점포를 추양임의 남편인 박병춘朴秉春에게 넘겼다. 박병춘은 교사리校社里(지금의 구동)의 광주공원 앞에서 잡화상을 하다가 화재를 당하여 여기서 나온 막대한 보험금으로 이 점포를 인수했는데 곧 병으로

죽고 부인 추양임이 점포 운영을 맡게 되었다. 추양임은 남자 못지않게 사업을 키워 1930년대 중반에는 광주의 대표적인 잡화상이 되었으나 일제 말엽의 전시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기업정비령에 의하여 사업을 접었다.

광주 최초의 백화점, 동아부인상회

지금의 백화점에 견줄 만한 대형 잡화점으로는 1930년대 초, 충장로3가의 옛 호남은행 바로 옆자리에서 문을 연 동아부인상회(東亞婦人商會) 광주지점을 들 수 있다.

동아부인상회는 1920년 조선은행 행원 출신인 서울의 청년실업가 최남(崔楠), 이필수(李弼洙), 장덕수(張德洙) 등 1백여 명의 유력인사들의 후원을 받아 당시 돈으로 거액이라 할 수 있는 자본금 40만 원의 주식회사로 발족했다.

이곳의 주요 상품은 여성용품과 일용품, 학용품이었다. 필자도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배포한 할인권을 쥐고 이곳을 자주 찾았던 기억이 있다. 오늘날의 백화

■ 광주포목상조합원들의 무등산 야유회(1927년)
앞줄 오른쪽 두 번째 심덕선(남창상회), 뒷줄 오른쪽 첫 번째 최경식(원창상회), 세 번째 윤규용(삼익상회), 네 번째 광근수(팔민상회), 원편 첫 번째 김종선(덕창상회), 가운데 양복 차림의 소년이 심양섭.

© 심양섭





■ 1940년대 충장로

점처럼 취급 상품이 다양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화려하게 진열된 상품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곳이었다. 광주 시내와 인근 사람들의 단골 백화점이었다. 흔히 ‘동아부인’이니 ‘부인상회’니 하는 말로 애칭되곤 했다.

그러나 일제 말엽에 물자난으로 폐업했고 해방을 맞은 뒤에도 재기하지 못했다. 건물은 민족청년단 전라남도 지부로, 체육도장으로, 또는 자유당 광주시 지부당사로 쓰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 1960년대 중반 남암학원(동아여·중고) 설립자 차행렬(車行烈)이 동아극장을 세워 운영했는데 현재도 극장 건물이 남아 있다.

미나카이 백화점 광주지점

일본인 경영의 백화점으로는 미나카이(三井) 백화점 광주지점이 있었다. 이 백화점은 1905년 1월 대구에서 잡화상을 시작한 나카에 中江 勝治郎 형제들이 1911년 서울로 진출해 미나카이 포목점을 낸 것이 발전한 것이었다.

미나카이는 그보다 앞서 1906년 서울에 분점을 낸 미쓰이三井재벌의 미츠코시三越(지금의 서울 신세계백화점 자리)와 1921년 백화점이란 상호를 쓰기 시작한 조지야丁字屋(서울의 옛 미도파백화점 자리), 박흥식의 화신백화점和信百貨店, 최남의 동아부인상회 등과 함께 5대 백화점 중 하나로 성장했다. 원산元山, 부산釜山, 평양平壤 등 한국 내 주요도시는 물론 만주에까지 거대한 지점망을 운영한 것으로 유명했다. 호남 지역에는 1924년에 목포점, 1929년에 군산점, 1932년에 광주점을 냈다.

광주점은 현재 광산동의 광주은행 남부지점 자리에 건물을 지어 문을 열었는데 동아부인상회와 함께 광주·전남의 대표적인 백화점이 됐다. 미나카이 백화점 광주점은 동아부인상회보다 매장도 크고 취급상품도 양복류, 가재도구, 식료품 등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1941년부터는 여행사 업무를 대행하여 이 업종으로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기차표 판매와 여행안내까지 하는 등 다각적 경영으로 고객을 끌었다.

당시 동아부인상회와 미나카이 백화점은 화려한 장식과 종업원들의 친절한 서비스, 정가제, 설탕 한 근만 사도 집까지 배달해주는 배송시스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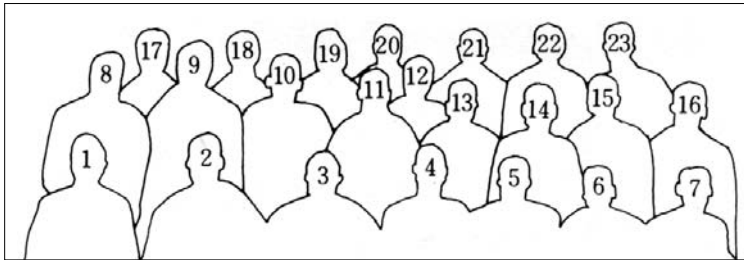
■한·일 상인조직

광주상공회

일본 상인들은 1913년 8월 광주상공회(光州商工會)라는 단체를 만들었으며 그해 12월에는 회원 51명으로 정식인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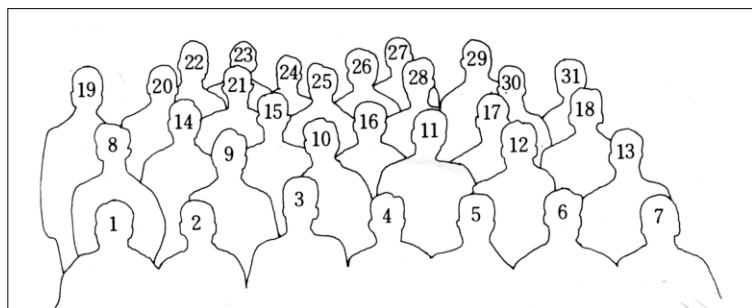
상공회의 표면적인 업무는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교환, 상황(商況)과 상업통계의 조사 및 발표, 장기근속 종업원의 표창, 각지 상공단체와의 제휴를 통해 상공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은 일본 본국의 대형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싼값에 대량으로 공동구입하여 가격 경쟁에서 한국 상인들을 압도하고 상권을 장악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융자 특혜와 관공서·학교 등 큰 수요처에 대한 대량 납품권을 독점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익단체였다. 그들은 이 밖에도 일본인 교육기관의 유치나 그 경비의 조달 등을 위한 역할도 했다.

광주상공회의의 구성원들은 초대회장 시메노(占野幸市(주류상), 부회장에 우오타(魚谷與藏(잡화상), 이사 마츠이(松井理三郎(잡화상)·마스다(増田常市(잡화상)·아사쿠라(朝倉重治郎(철물상)·아마가와(山川亮市(잡화상) 등 잡화상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들은 당시 광주 상권을 주름잡던 거상들이기도 했다.



■ 일제강점기 광주상공회의소 의원

- | | |
|----------------|-----------------|
| 1. 아오노(青野寅治郎) | 2. 시마사키(島崎) |
| 3. 이와오(岩男寅) | 4. 오쿠노(奥野壽太郎) |
| 5. 조천섭(趙千燮) | 6. 소바(相馬與作) |
| 7. 심선소(沈善韶) | 8. 이채순(李在順) |
| 9. 우에다(植田寅治) | 10. 이상태(李成泰) |
| 11. 사토(佐藤德次) | 12. 가와소에(川添宗太郎) |
| 13. 지우선(池宇宣) | 14. 김동술(金東述) |
| 15. 미가키(三垣秀一) | 16. 이와오(岩尾高止) |
| 17. 다카마츠(高松六男) | 19. 다나가와(谷川善次郎) |
| 21. 사토(佐藤龍治郎) | 22. 최동(崔東) |
| 23. 梁(三原薰) | |



■ 광주상의 재건 창립의원(1946. 7~1949. 6)

- | | | |
|--------------|---------------|---------------|
| 1. 진봉순(상임의원) | 2. 김선홍(상임의원) | 3. 이성태(부화두) |
| 4. 김화성(명예화두) | 5. 조천섭(화두) | 6. 김용환(부화두) |
| 7. 박준열(상임의원) | 8. 황규복(의원) | 9. 이문환(의원) |
| 10. 장아봉(의원) | 11. 천보배(의원) | 12. 황원석(의원) |
| 13. 이인균(의원) | 14. 오란(의원) | 15. 송태익(상임의원) |
| 16. 김준문(의원) | 17. 채영석(의원) | 18. 김동일(상임의원) |
| 19. 이경집(의원) | 20. 김중선(의원) | 21. 윤중현(의원) |
| 22·23. 사무국직원 | 24. 서남석(직원) | 25. 고평표(감사) |
| 26. 김재명(직원) | 27. 박무길(상임의원) | 28. 최경식(감사) |
| 29. 서한권(의원) | 30. 김양실(상임의원) | 31. 이정기(의원) |

광주실업청년구락부

한국 상인들이 권익단체를 조직한 것은 광주의 중심 상권인 충장로에 진출하여 기반을 닦기 시작한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일본인들의 광주상공회에 맞서 결성한 광주실업청년구락부(光州實業靑年俱樂部)라는 단체가 그것이다. 이 단체는 일본 상인단체를 견제하고 우리 상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단체의 주요 인사로는 최한영(崔漢永, 고무신 판매상), 심상엽(沈相燁, 포목상), 공익상회(共益商會)의 유현상(劉賢相, 포목상), 원창상회의 최경식(崔景植) 등이었으며 대표는 최한영이었다.

이들은 한국 상인들의 결속을 복돋기 위해 자발적으로 각출한 상품과 찬조금으로 광주상민(商民)대운동을 개최했다. 이 운동회는 현재의 전남대병원 뒤뜰인 ‘묵은 바탕’에서 매년 개최되었는데 상점 주인과 종업원들이 노사화합의 단결된 힘과 의지를 과시하고 민족의 울분을 스스로 달래기도 했다. 이 운동회는 이 단체의 가장 큰 연례행사가 됐으며 당시 광주의 대표적인 체육행사이기도 했다.

청년구락부에서는 상거래 정보의 제공과 회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상공뉴스』(편집장 유현상)를 발간하여 회원업체에 배포했는데 당시 광주경찰서 고등계의 단속대상이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간행이 중단됐다.

이 단체는 1936년 광주상공회의소가 발족되면서 일본인들의 상공회와 함께 상공회의소에 흡수 합병됐다.

■ 활기 되찾은 장

광복과 양동시장

일제 말엽에 전시경제 체제의 강화로 모든 상점이 기업정비를 당하고 시장의 유통기능마저 전면적으로 통제되어 양동시장은 사실상 폐쇄 상태였다.

기업들은 일부 물자배급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문을 닫고 모든 매매행위가 규제되었으며 옷감인 광목廣木이나 쌀은 물론 비누 한 개, 고무신 한 켤레도 마음대로 거래하다 들키면 경제사범이라 하여 중형을 면치 못했다.

이때 이른바 ‘야미’라는 해괴한 유통용어가 생겨났다. 야미란 암거래를 뜻하는 암闇의 일본어 발음으로 사람들은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생필품 구입을 야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모든 상거래는 위축됐고 또 사치 배격과 식량 절약이라 하여 요정은 물론 대중식당까지 폐업 상태라 호사스럽던 기생, 여급들마저 일자리를 잃고 초라한 차림으로 뒷골목을 방황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잃었던 우리 이름과 말, 자유와 고유한 우리 거래의 ‘만남의 광장’ 이던 장날을 되찾게 되었다. 흩어졌던 사람들, 징용과 징병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북한에서, 중국에서, 만주에서, 일본에서, 남양군도南陽群島에서 고향으로 돌아왔고 양동시장도 다시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낮익은 장꾼들, 안부를 몰라 안타까워했던 이웃들이 모여들었다. 살아서 다시 만



■ 6·25전쟁 후의 충장로
 길 왼쪽으로 광주우체국과 그 뒤편으로
 산업은행 광주지점(사진의 흰 건물)이
 보인다(1958년).

나는 기쁨과 그동안의 목맨 사연들, 그리고 만리타국에서 불귀^{不歸}의 객^客이 된 벗들의 가슴 아픈 뒷이야기들로 장터는 기쁨과 설움으로 복받쳐 올랐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찾아와 구성진 '장타령'을 들려주었고, 장 모퉁이에는 신나게 노래하고 북치는 약장수와 투전꾼들도 눈에 띄었다. 맛보기 등 인정 어린 장터 풍경이 봄날 눈 녹듯이 되살아나고 마치 잔칫날 아침처럼 들떠 장 보러 오는 이들과 그동안 공출을 피해 숨겨두었던 물건들이 들길과 산길을 타고 장터로 모여들었다.

질서회복 앞장선 상인들

주막에는 먼 곳에서 돌아온 주모와 작부들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상해·하얼빈·사할린·싱가포르·오사가 등 낯선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꽃으로 덧없는 하루해가 저물었다.

이 무렵에는 어느 장터를 막론하고 농산물 외에 일본군의 비축물자들이 일시에 쏟아져 나와 장바닥이 온통 홍청뎠는데 양동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더구나 충장로의 상가는 아직 정상을 되찾지 못하던 터였다. 점포를 차릴 자금도 없고 설령 문을 연다 해도 상품을 공급해 줄 공장이 드물었다. 다만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판이어서 좌수우봉^{左授右捧}식의 즉석거래가 활발해 양동시장은 그런대로 활기가 넘쳤다. 더구나 혼수나 제수 등 집안의 대소사에 필요한 물품 구입은 양동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물건을 사고팔려는 사람들이 대거 양동시장에 몰리는 데다 해방 직후의 정치사회적 혼란 등으로 무질서하기 짝이 없었다. 같은 물건이라도 가게에 따라서 값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조잡한 수공품들로 품질이 고르지 못했다. 계량에 대한 관념도 희박한 데다 저울을 비롯한 도량형기가 귀해서 어림짐작으로 분량을 가늠하여 거래하는 형편이었다. 여기에 무엇보다 혼란을 빚은 것은 업종이나 품목별로 나뉜 점포 배열의 관행이 무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종래에는 포목, 황아전(댕기, 허리끈, 주머니끈, 대님, 갓끈, 안경 등을 취급하던 가게), 양품 잡화, 조끼와 피복, 건어물, 진어물, 고무신, 사기그릇, 유리그릇, 용기 등으로 점포가 배치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아무나 먼저 자리를 잡는 사람이 임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 포목점 한복판에 건어물전이, 유리전들 사이에 생선가

계가 들어서는 등 무질서한 광경이 연출됐다. 이는 해방 직후에 어디서나 볼 수 있던 혼란상으로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데다 생계를 위해 전업 상인이 아닌 사람까지 장터에 자리를 잡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혼란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 들어서야 가까스로 바로잡게 되었다. 미 군정하의 행정당국이 시장의 질서회복에 나섰고 시장 상인들도 양동시장 변영회라는 자율조직을 결성한 데 따른 것이었다.

양동시장 변영회의 초대회장에는 한정섭^{韓正燮}, 부회장에 손영관^{孫永寬} 그리고 그 밑에 업종별 책임자들이 있었다. 변영회는 첫 사업으로 가장 시급한 당면문제인 업종별, 품목별 점포 배열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작업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제각기 무질서하게 자리를 잡은 상인들이 기왕에 눌러앉은 점포의 연고권을 고집했기 때문이었다.

광주시 당국은 상공계 직원들을 보내 행정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으나 도무지 해결의 가닥을 추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한정섭과 손영관이라는 양동시장의 두 거인이 강력한 리더십과 공정성 그리고 의리와 인정으로 이 문제를 치러 냈다. 이들은 온갖 방법으로 상인들을 설득하여 우선 업종별 위치를 정하고 같은 업종 안에서도 개별 점포의 위치는 추첨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변영회가 두 번째로 착수한 사업은 점포 수를 늘리는 일이었다. 366칸이던 양동시장의 점포 수로는 해방 후 호경기를 타고 몰려든 상인들을 다 흡수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시당국이 예산을 들여 점포를 확장하기에는 재원이 너무 빈약했다. 생각다 못한 변영회는 시당국과 협의해 자체 자금으로 시장점포를 증축하되 이를 시에 기증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했고 증축자금은 상인들이 각출, 세 단계로 나눠 20칸씩 목조 점포 60칸을 증축했다.

그러나 점포 증축에도 불구하고 시장 주변의 노점상들이 날로 불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 내의 노점상들도 한사코 시장 어귀나 주변으로 옮겨 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시장의 변영을 위해서는 이들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급선무였다. 변영회에서는 노점상을 시장 안으로 유도하기 위해 설득하는 한편으로 기존 입주 상인들이 20~30명씩 짝을 지어 장을 순회하며 주변 상인들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었다.

다음으로 번영회는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잡초처럼 자라는 폭력배와 선량한 상인들을 등치는 날치기꾼들, 사기꾼들을 소탕하는 일에 나섰다. 당시 시장에는 몇몇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그것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주막이나 점포들을 드나들며 괴롭히는 불량배들의 행패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광주 인근인 화순, 장성, 담양, 나주 등지에서 힘깨나 쓴다는 주먹패들은 거의 양동시장에 모여 들었으니 속담에 ‘광주장에서 뺨 맞고 화순 너릿재에서 눈 흘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아무튼 이 같은 난장판 속에서 한정섭과 손영관은 불상사를 최대한으로 막았으며 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도를 잃지 않게 하는 일에 힘썼다.

그때 시장 상인으로 출발해 충장로의 거상으로 대성한 사람들로는 태평극장의 장한익(張漢翼)을 비롯하여 충장로5가의 이길수(李吉秀), 우성상회, 선용규(宣龍奎), 김재묵(金在默), 三和織物, 서우진(徐宇鎭), 松山纖維 등이 있었으며, 사정시장 출신으로는 면포도매를 독점한 장한섭(張漢燮), 면사의 김기권(金基權)이 있었다. 이때 양동시장의 가장 큰 거래 품목은 곡성, 보성, 화순, 나주 등지에서 생산된 마포와 백목(白木, 무명베)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이 양동시장에 집하되어 전국에 공급되었다.

■ 해방 직후 양동시장
일본·만주·남양군도 등으로 흩어졌던 사람
들이 돌아와 각기 특색 있는 음식 물건 등을
자랑하며 활기를 되찾았다.



광주장의 주막 풍경

양동시장 풍경 가운데 하나로 주막을 빼놓을 수 없다. 북한과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중국, 만주, 일본, 남양군도 등 각지에서 돌아온 아낙네들이 장사에 경험이 있던 없는 생계수단으로 주막들을 차렸는데 해방 후에 여기저기서 모은 것들이라 그릇도 가지각색이지만 모처럼 푸짐한 우리 고유의 음식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 참기름과 고추장을 듬뿍 넣은 비빔밥과 푸짐한 곰탕, 설렁탕은 물론 거기에 상해나 베이징, 하얼빈, 일본, 남양군도, 함흥, 평양 등 말하자면 아시아와 전국의 음식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어쩌다 주막 주인들이 손님들과 술잔을 주고받다가 취흥이 나면 목청을 뽑아 올리는데 주막마다 잃었던 우리 노래가 목청껏 터져 나오고 일본과 중국, 남양군도에서 부르던 노래들까지 섞여 가관이었다. 세속적인 천민 문화의 한 자락을 엿볼 수 있었다.

그때만 해도 주세법酒稅法이 엄하지 않아 술을 마음대로 빚을 수 있었으며 주류는 거의 청주 일색이었는데 각기 집에서 빚어오는 술이라 술맛도 각색이었다. 그래서 웬만한 술꾼이라면 장날을 손꼽아 기다렸으며 장날이 오면 평소의 단골 집을 뿌리치고 장터에 나가 술을 마시는데 그도 정해진 주막에서만 마시는 게 아니라 한 집에서 안주 한 접시에 몇 잔씩 들면서 장바닥 주막을 돌게 마련이고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계모임도 장날 오후를 택해 장터에서 모여야 제격이었다.

각설이의 옛 정취와 품바의 복원

이 무렵 양동시장 풍경 속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이 각설이 타령이었다. 원래 각설이 타령은 걸인들이 네다섯 명씩 짝을 지어 장터나 상가를 돌며, 동냥을 청하는 흥겨운 타령으로 세속풍정을 풍자적으로 엮은 표현들이 많았다. 예로부터 걸인들 중에는 관헌을 피해 숨어 다니는 반가의 한량이나 서출들이 더러 섞여 있었고 양가의 집안에서 내침을 당한 문동병자들도 많았다. 그래서 각설이 타령에 나오는 강도 높은 시사 풍자도 이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일명 ‘품바’라고도 불리는 각설이 타령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가사가 다양한 변천을 거쳐 오면서 최하층민 문화의 한 자락을 이루었지만 1950년대 자

유당 때를 고비로 1960년대부터는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 광주민화회가 이 ‘품바’를 복원하여 공연을 가졌는데 그 반응이 대단했다. 이를 계기로 ‘품바’는 서울 중앙무대를 비롯 전국을 휩쓸게 되어 그 명맥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 사라져가는 옛 장터의 정취를 되새기기 위해 그 대표적 인 것을 하나 골라본다.

허어 저얼 씨구씨구들어간다
 어얼 씨구나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어허허 이놈이 이래도오 정승 판서 후례 아들놈
 팔도감사 마다하고 돈 한 푼에 팔려서
 각설이로만 나섰네 한 푼 벌기가 땀난다
 지리구 지리구 잘한다. 허어 품바 품바 잘한다
 각설이라 먹설이라 동설이를 짚어지고
 푼돌 몰아서 장타령 품바 품바 잘한다
 초당 짓고 한 공부냐 실수없이 잘한다
 시전 서전 읽었는지 유식하게도 잘한다
 논어 맹자 읽었는지 다문 다문 잘한다
 뜸물동이나 먹었는지 걸직 걸직 잘한다
 기름동이나 먹었는지 미끌 미끌 잘한다
 냉수동이나 먹었는지 시원시원이 잘한다
 동삼을 먹었는지 기운 차게도 잘한다
 목구멍에 불을 쫓냐 흰하게도 잘한다
 뱃가죽도 두껍다 일망무제 望無際 나온다
 네가 저리 잘할 적에 네 선생은 할 말 있나
 네 선생이 나로구나 잘한다 잘한다
 대목장에 목 실라 대목장을 못 보면
 겨우살이를 벗는다

품바 품바 잘한다
 서서 본다 서울장, 다리가 아파서 못 보고
 아가리 크다 대구장, 너무 넓어서 못 보고
 술맛 좋다 전주장, 술 취해서 못 보고
 넘어다 봐라 고창장, 고개 아파서 못 보고
 코 풀었다 홍덕장, 더러워서 못 보고
 아이고 대고 곡성장, 눈물 나서 못 보고
 인심 좋다 광주장, 왔소이다 왔소이다
 지리구 지리구 잘한다. 품바 품바 잘한다.
 앞은 고리는 돈고리 잡는 고리는 문고리
 뛰는 고리는 개고리 나는 고리는 꼬꼬리
 짹는 고리는 갈고리 입는 고리는 저고리다
 지리구 지리구 잘한다. 품바 품바 잘한다
 일짜한자 들고보니 일월이 송송 야송송 팔도 기생이 춤을 춘다
 이짜한자 들고보니 이수중분 백노추에 백구 훨훨 날아든다
 삼짜한자 들고보니 삼월이라 삼진날에 제비 한 쌍이 날아든다
 사짜한자 들고보니 사월이라 초파일에 관동놀이가 좋을 씨고
 오짜한자 들고보니 오월이라 단옷날에
 처녀 총각이 한데 모여 추천놀이가 좋을 씨고
 육짜한자 들고보니 유월이라 유뒸날 탁주놀이가 좋을 씨고
 칠짜한자 들고보니 칠월이라 칠석날에 견우직녀가 놀아난다
 팔짜한자 들고보니 팔월이라 한가위 올해 송편이 좋을 씨고
 구짜한자 들고보니 구월이라 구일날에 국화주가 좋을 씨고
 시월이라 무오戊午일에 고사사당이 좋을 씨고
 백짜한자를 들고보니 백만장단 억만간에 태평가가 좋을 씨고
 만짜한자 들고보니 국태민안이 좋을 씨고…….

■ 양동시장 재건의 주역

장꾼들의 ‘아부지’ 한정섭

해방 후부터 6·25를 전후하여 양동시장을 거쳐 나온 사람치고 한정섭과 손영관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들은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아로 새겨진 사람들이었고 나이에 따라서는 벗으로, 형님으로 또는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친근함과 존경, 고마움으로 기억되는 이름이었다.

한정섭은 원래 광주 서동의 농가에서 태어났는데 해방 이후 양동시장에서 청과물 도매상을 벌였고 중개인도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공직에도 있었던 까닭에 시장에서는 유식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인품이 호방하고 의리가 있어 보스 기질이 다분했던 사람인데 성미가 분명하고 자기 일을 제쳐놓고 남의 일 봐주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 양동시장 번영회장으로 쉽게 추대됐다.

번영회의 모든 임직원이 원래 무보수 직이었지만 한정섭은 이 일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 벗고 나섰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장사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 나중에는 아예 청과물 도매업과 중개업을 그만두고 오로지 시장번영회 일에만 몰두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업종별 점포의 배치, 점포의 증축, 노점상 정비, 시장질서의 확립 등 까다롭고 어려운 일을 의리와 인정, 그리고 공정한 일처리로 해결할 수 있었다.

어느 정도 시장의 질서를 되찾게 되자 이제는 시장 상인들에 대한 봉사활동에

■ 6·25전쟁 후 양동시장
시내 상가가 아직 활기를 띠지 못하여
광주의 주된 상거래는 모두 시장에서
이루어졌다.



나섰다. 그 때문에 장날이 아닌 평일, 즉 무짓날(장날이 아닌 날)도 편히 쉬는 법이 없었다. 상인들 간의 마찰을 중재하고 상인들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불상사나 시장 안팎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는 경찰이나 행정관서는 물론 시장 밖 사람들과 맞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심지어 배우지 못한 상인들의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 호적사무와 각종 인허가 사무 그리고 가사의 자질구레한 민원까지 행정관청을 드나들며 해결해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상인 개개인의 애경사와 어려움을 당한 이를 돕고 장날이면 이른 새벽부터 장문을 열어 청소를 감독하고 상품 진열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신경을 썼다.

그러나 한정섭에게도 난처한 일이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주막집 어느 한 집에 들어가 마음 놓고 술 한잔을 기분 좋게 마실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모든 주막에서 그에게 해장이나 아침거리, 셋거리, 점심, 저녁술을 앞다투어 대접하려고 하는 바람에 주모나 작부가 암투를 벌였기 때문이다. 생각다 못한 한 회장은 궁리 끝에 모든 주막에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술과 밥을 먹기로 했다.

양동시장에서는 그를 회장이라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 주모나 작부, 상인들로부터 그는 ‘아부지, 오빠, 아제’로 통했다. 그래서 시장 사람들은 순번대로 차례가 되면 정성을 들여 마련한 안주와 찬을 대접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한정섭은 이렇게 집집마다 돌며 주막집의 청소상태도 봐두고 손님들의 구미에 맞는 술과 안주, 찬의 요리 자문은 물론 주막집 경영에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일반 가게에서도 건어물전에서는 철따라 햇김 한 톳이나 청어 한 마리, 푸줏간에서는 소의 귀한 몽우리, 잡화점에서는 명절마다 양말이나 버선을 건네곤 했다. 이들은 모두 소박한 인정으로 한정섭을 집안 어른 모시듯했다.

마지막 보부상 손영관

양동시장의 큰 어른인 한정섭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한 사람이 바로 손영관 부회장이었다. 그는 한정섭을 친형처럼 모셨으며 대내외 활동을 위한 자금 관리나 한정섭의 살림에 이르기까지 자상하게 뒷바라지했다.

손영관은 당시 양동시장뿐 아니라 광주 시내에서도 이름난 호걸로 통했다. 육척장신에 기골이 장대했다. 술도 말술이었고 장정 셋이 먹을 만한 밥을 한 번에

거뜰히 먹을 만큼 대식가이자 미식가이기도 했다.

어쩌다 시장터에서 불량배들이 말썽을 피우면 유도로 단련된 한정섭과 장사인 손영관이 ‘이놈들’ 하고 불호령을 내리며 달려들면 그들은 오금도 찢지 못하고 주눅이 들곤 했다. 그런 이유로 거드름을 피우며 돌아다니던 불량배들도 한정섭과 손영관만 보면 슬슬 피해 다니곤 했다.

손영관은 광양 출신으로 1912년생인데 1930년대 사정시장 때부터 들도부장사(상품을 좌판에 담아두고 다니며 파는 일종의 행상)로 입신해 해방 무렵에는 양품 잡화 도매상으로 대성한 상인이었다.

원래 성품이 괄괄했지만 마음 씀씀이는 선이 굵고 깊으며 의리가 있고 인정이 많은 전형적인 보부상 기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그는 나중에 총장로5가에 전남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내의 생산업체인 백마표白馬 메리야스 공장을 세워 이 지방 굴지의 기업인이 되었으나 애석하게도 1962년 51세의 한창 나이에 작고하고 말았다.

여기 손영관과 관련된 흐뭇한 인정가화人情話 한 토막을 소개한다.

1957년 가을로 기억된다. 백마 메리야스 공장 창설 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의 하나로 장성 백양사에서 전 종업원의 위안잔치를 베풀었다. 이때 기업의 반려자로 양동시장 잡화도매상 시절부터 고락을 함께해오면서 백마 메리야스 공장의 창업과 번영의 주춧돌이 되었던 구회원具會元이라는 전무가 있었다. 손씨는 그날 구전무 부인에게는 금반지에 비단옷을 입게 하고 구전무에게는 모자와 구두, 시계, 새 양복을 입게 하여 두 내외를 택시로 백양사까지 가도록 하고 자기는 종업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갔다.

이 자리에는 종업원뿐만 아니라 지방 유지, 양동시장의 옛 친구들, 기업인들이 참석하였는데 이날의 잔칫상에는 상마다도미, 민어 등이 온마리째 나오고 갈비를 비롯한 각종 육고기와 안주들로 상다리가 휘어졌으며 광주의 내로라하는 명기, 명창에 광대들과 함께 악사들이 삼현육각三絃六角을 잡았다.

뒤이어 표창 순서에 들어가서는 전 종업원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구씨에게는 표창장과 부상이 수여되었는데 그 부상이라는 것이 구씨 고향 문전옥답 다섯



■ 양동시장의 마지막 보부상 손영관
마음 씹씀이가 굵고 깊어 의리와
인정이 넘쳤다.

마지기의 논문서였다. 구씨는 뜻밖의 부상에 그만 목이 매여 말문이 막혔으며 이를 보던 종업원이나 친지, 내빈들은 손씨의 속 깊은 뜻에 감동, 한동안 물을 끼얹은 듯 숙연했다.

이날 손씨는 광주로 나와 구씨 내외를 위로 여행을 보냈는데 50이 넘는 이들 부부는 마치 신혼여행을 떠나는 부부처럼 종업원과 친지들의 환송을 받았다. 그 뒤에도 해마다 농토를 상품으로 사주어 구씨는 어려서부터 꿈에 그리던 지주가 되었고 노후를 편안히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말하는 노사협조의 표본이 될 만한 일이다.

이런 양동시장도 광주시 당국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1968년 양동시장 주식회사에 불하되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상설시장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보부상의 전통과 의리, 인정을 간직한 한정섭과 손영관도 오래전에 전설이 되었다. 또한 해방

후에 이국 취향이 물씬 풍기던 20~30대 주모들도 덧없이 늙어 이제 80이 넘거나 고인이 되었을 것이다. 30년 전까지 양동시장에서 크게 주막을 하다 뒤에 시장 밖 점포에서 비빔밥으로 유명했던 여자로 심옥초沈玉初가 있었는데 필자가 초판을 낼 즈음에 이미 상노인이 되어 집에 들어앉았다는 이야기를 풍문으로 들었다. 슬래브 시장건물과 장날이 따로 없게 된 옛 장터를 어슬렁거려 보지만 속절없이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기만 하다.

손꼽아 기다리던 장날, 이른 아침부터 들뜬 발걸음으로 장나들이를 가던 옛 풍경은 이제 찾을 길 없다. 그 흥청대던 장터, 각설이들의 구성진 장타령도 이제는 들을 길 없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거지란 걸 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해방 이후의 재래시장

세월이 흐르고 세태도 바뀌어 이제 광주에는 옛 오일장과 같은 흥취를 간직한 곳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대부분의 오일장이 폐쇄되거나 상설시장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대형 유통점의 등장으로 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어 활기도 예전만 못하다.

그러나 이들 시장은 아직도 도시 서민들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구할 수 없는 다양한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고 흥정과 우수리의 재미를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또 영세 상인들은 소규모 자본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그래서 재래시장은 다소 허름하고 무질서하고 번잡해도 도시민의 생활 정서와 애환을 함께하면서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여기에 광주의 유서 깊은 재래시장들을 소개해 본다.

구동시장

최근까지 구동체육관과 그 주변의 국밥집으로 유명했던 구동시장은 일제시대에 인근 사정시장이 활기를 띠 때부터 웅기점과 나무전이 몰려 있었고 가축시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던 곳이다. 당시 가축시장은 옛 한일극장 뒤편에서 양동시장 근처 닭전머리로 이어져 있었다. 주로 소의 거래가 활발했고 돼지나 닭도 거래됐다. 이 가축시장은 일제 말엽에 사정시장이 양동으로 이설되면서 사실상 폐

쇄했다가 해방 이후에 다시 부활하여 전남도내에서 거래규모가 가장 큰 시장이었다. 그 후 1965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구동체육관이 들어서고 국밥집들이 그 주변에 생겨나면서 가축시장의 자취가 사라졌으나 구동시장만은 그 면모를 이어오다가 2009년 시장 지역의 공원화계획에 따라 시장이 철거되고 구동체육관 자리에는 빛고를 시민문화관이 들어섰다.

계림시장

계림시장은 원래 계림극장과 옛 광주~담양 간 철도 건널목 주변에서 열렸다. 시장 이름도 동문시장東門市場 혹은 동문장이라 불렸다. 초창기에는 양동시장의 장날(2, 4, 7, 9일)을 피해 시장이 열리다가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자 1947년 2월 광주시가 직영하는 시영시장市營市場이 됐고 그 뒤 계림동 498번지에 새로 건물을 지어 옮겨갔다.

서방시장

광주와 담양을 잇는 도로변에 자리를 잡고 있는 서방시장은 1955년 광주시에 편입되기 이전까지 광산군 서방면에 속했던 곳으로 1960년대 담양, 순창, 구례, 곡성 등 전남 북부 지역의 농산물과 임산물이 거래되면서 형성됐다.

이 시장이 번창하게 된 것은 1967년과 68년에 전남 지역을 강타한 가뭄 때문이었다. 가뭄으로 쌀값이 폭등하자 전남 인근의 농민들이 쌀을 팔아 생필품이나 잡곡으로 바꾸었는데 이 때문에 다량의 쌀이 서방시장에 출시되면서 활기를 띠었다. 당시 70여 곳의 점포들 가운데 미곡을 비롯한 곡물상이 40여 곳에 이를 정도였다. 그 후 1973년 양곡유통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얼마 동안 명맥을 유지하기는 했으나 주변 지역이 주택단지로 바뀌고 쌀의 자급으로 시장은 일반 생필품의 소매시장으로 점차 전환되었다.

말바우시장

서방시장에서 담양쪽으로 가는 길목에는 말바우시장이 있다. 예전에 도로 주변에 있던 제법 큰 바위를 말바우라고 불렀던 데서 유래했는데 이 바위는 1970년

대 도로확장을 하면서 파괴됐다.

말바우시장은 상설시장이 되었지만 오늘날까지도 옛 장날의 면모가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시장 중의 하나이다. 매 2일과 7일은 큰 장날, 4일과 9일은 작은 장날로 이날은 평소보다 더 활기를 띠는데 큰 장날이 작은 장날보다 더 북적댄다.

말바우시장이 상설시장과 합쳐지게 된 것은 서방시장이 1968년에 등록시장이 되고 시장 안팎에서 장사를 하던 노점상들이 범두고개(지금의 동신고등학교 자리) 너머로 쫓겨나면서부터였다. 때마침 동신고등학교의 설립으로 시내버스 종점이 범두고개 너머 현재의 말바우사거리 일대로 연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곳이 광주 시내와 담양방면 간 교통의 연결점이 됐다. 이 때문에 이곳은 점차 큰 노점상 밀집지로 변모했다.

2일과 7일의 큰 장과 4일과 9일의 작은 장 전통은 원래 그 역사가 광주천변의 큰 장터와 작은 장터에서 시작됐다. 그 뒤에 사정시장이 생겨 큰 장과 작은 장을 합설한 뒤에도 장날을 둘로 나눠 열었다. 이 때문에 사정시장의 개시일이 월 6회에서 월 12회의 정기시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사정시장이 자리를 옮겨 양동시장이 된 뒤에도 이런 장날 풍습은 계속 이어졌다.

그러다 양동시장이 매일시장으로 전환하면서 장날의 명맥이 끊기는가 싶었는데 이를 서방시장이 이어받았고, 다시 서방시장이 매일시장으로 바뀐 뒤에는 말바우시장이 이를 계승했던 것이다. 따라서 말바우시장의 장날은 비록 시장 터는 바뀌었을망정 족히 수백년에 걸쳐 이어져오는 전통이라 할 만하다.

이 말바우시장은 어느 재래시장들이 일찍부터 법적 지위를 보장받았던 것과 달리 2000년대에 들어서야 공인된 등록시장이 되었다.

남광주시장

남광주역 주변에 형성된 시장이다. 남광주역은 1930년 12월 남조선철도회사가 광주~여수 간 철도를 부설하면서 광주역과 효천역 사이에 설치한 정거장이었다. 처음에는 '신광주역'이라 했다가 1938년 4월 남광주역으로 개칭했다.

당초 이 시장 일대는 철도용지였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살지 않아 시장이 들어설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 다만, 전남 동부 지역의 농산물과 수산물이 남광

주역을 통해 광주 도심에 반입되고 있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1973년 광주 도심에서 화순 방향으로 지금의 남문로가 확장되면서 남광주역 주변은 변화를 맞았다. 그 일대의 철도용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이곳에 시장이 개설된 것이다. 이후 남광주시장은 값싸고 신선한 수산물이 거래되는 곳으로 명성을 얻게 됐다. 2000년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철도를 외곽으로 옮기면서 남광주역이 철거되었지만 그 뒤에도 시장은 여전히 활기를 잃지 않고 있다.



제4장 공업



■ 목화에서 면포까지

서구나 일본 등 선진국들이 그랬듯이 우리나라의 근대 공업도 섬유공업에서 시작됐다. 특히 20세기 이후 전남은 면화와 누에고치^{蠶繭}의 주산지였던 탓에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았다. 일제강점기에 목포항에는 면화의 1차 가공시설이 밀집했고 여기서 가공을 마친 면화는 일본으로 반출됐다. 내륙도시인 광주에도 면화, 누에고치 등과 관련된 기관과 영농 및 교육시설이 들어섰고 점차 제사와 방직공장이 등장하면서 전국 굴지의 섬유산업 도시로 변모해갔다.

비록 일본에 의해서 선도되기는 했으나 광주의 섬유공업은 일제강점기는 물론 광복 후에도 광주·전남 지역의 산업과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우리 고장의 길쌈과 면화의 주산지가 된 유래, 그리고 면화 수탈에서부터 시작된 일제의 식민지 경제 침략 과정을 살펴본다.

겨레의 살갓 무명베

우리나라에 면화가 전래된 것은 고려 공민왕 12년(1363) 문익점^{文益漸} 1329~1398이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숨겨 들여왔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으나 학계 일부에서는 일찍부터 이에 대한 이견이 있어 왔다.

일부에서 이미 통일신라시대에 면직물의 중국 명칭인 백첩포를 짰다는 중국 사서와 통일신라 경문왕 때의 기록을 들어 문익점 이전부터 면화를 재배했을 것

으로 봤다. 또 지난 2010년 7월에 국립부여박물관이 부여시 능산리에 있는 6세기 때의 백제 절터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면직물이 출토됨으로써 우리 면화의 역사가 6세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는 면화의 전래를 고려 말로 보는 견해가 아직도 지배적이다. 역사학자인 이재호나 조광철(광주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에 의하면 명주를 일컫는 면縐를 목화의 면縐으로 이해하는 오류가 있었고 설령 그때 면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이 재배 가공되고 백성들의 옷감으로 대중화된 것은 문익점 때부터이므로 면화의 전래를 고려 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든 면화는 우리 민족의 입성으로서 어림잡아 수백 년이란 긴 세월을 함께 해왔다. 또 무명은 단순한 옷감이라기보다도 우리 겨레의 살갓이라 할 정도로 우리 문화에 동화되어 왔다. 무명의 흰 빛깔은 우리의 얼을 상징하는 전래의 색이 되었으며, 투박하면서도 질긴 우리 민족성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은 한평생을 길쌈으로 보냈으며 삶의 온갖 애환을 불어 넣어 베를 짰다. 우리들의 어릴 적 기억 속에는 으레 함박눈이 소복이 쌓이는 깊

■ 문익점을 모신 사당
원나라 사신으로 갔다 목화씨를 가져와
조선 의류의 일대 변혁을 일으켰다.



은 겨울밤의 정적을 깨고 들리는 물레 소리와 베 짜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어우러진 풍경이 생생하고 베틀 위에 앉아 있는 할머니의 풍상에 절은 모습이 아련하다. 길쌈에 얽힌 우리 아낙네들의 애환은 옛날부터 지방마다 규방가사로 전해지는 베틀 노래에도 구구절절 배어 있다.

하늘에다 베틀 놓고
구름 잡아 잉에 걸고
오동나무 북에다가
대추나무 보두집에
얼그덩 절그덩 짜나라니
뒷집 망구 불 싸로와
그 베 짜서 뭇 할란가
우리 오빠 장가갈 때
우리 형님 시집올 때
가마 후장 두를라네
(후렴)
얼그덩 절그덩 잘도 짠다
얼그덩 절그덩 잘도 짠다

그 남지기 뭇 할란가
우리 셋님 장가올 때
청포 도포 지을라네
(후렴)

그 남지기 뭇 할란가
요새 나도 시집갈 때
농지기를 해보는데
꽃보선도 해서 넣고

차마 저고리 해볼라네

(후렴)

셋님 셋님 우리 셋님

병풍이나 열어보소

병풍 안을 넘어보니

정제문이 흰하구나

(후렴)

지금은 좀처럼 들을 수가 없게 되었지만 해학과 낭만이 담긴 노동요 베를 노래에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오는 길고도 고된 우리 부녀자들의 인고를 엿볼 수 있다.

광복 전후까지만 해도 처녀들은 길쌈을 손에 익혀 시집을 가야 했는데 이 길쌈이야말로 여자들에게는 숙명의 노동이 아닐 수 없었다. 지금에 와서는 공업화 과정에 밀려 길쌈이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이어지고 있다. 옛날 궁중에 진상되었다는 나주의 셋골나이는 올이 가는 무명베로 유명했는데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28호인 나주 다시면의 김만에 金晩愛에 의해 그 기능이 보존되었고 현재는 그 며느리인 노진남 盧珍男에게 전수되어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무명은 원래 셋골나이뿐 아니라 일반 무명베도 전남산을 으뜸으로 꼽았다. 이는 우리 고장 사람들의 손재간도 재간이려니와 예로부터 적당한 일조시간과 강우량, 비옥한 토질, 그리고 서리가 없는 즉 무상일수 無霜日數가 길었던 자연환경 때문에 가장 품질이 좋았기 때문이다.

육지면의 도입

면화는 일제 침략과 함께 큰 변화를 맞았다. 1902년 7월 목포에는 일본 영사로 와카마츠 若松兎太郎(훗날 1910년부터 1919년까지 부산 부윤 역임)가 부임해 왔는데 그의 전임지는 중국 면화의 주산지인 후베이성 湖北省 사스시 沙市였다. 그가 목포로 부임하는 배 안에서 우연히 일본 정부 농무국장 사케고마 酒匂常明를 만났다. 사케고마는 육지면 陸地綿의 재배에 적합한 땅을 찾아 중국



■ 일본영사 와카마츠
목포 고타도에서 육지면의 시험 재배에
성공하여 전남을 면화생산의 본거지로
삼았다.

각지를 돌아다녔다는데 와카마츠는 그를 통해 일본 경제에서 방직공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원료인 면화의 재배조건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 것이다.

와카마츠는 목포에 부임한 직후에 이곳의 토질을 상세히 조사했다. 그리고 이곳이 전임지인 사스보다 면화 재배에 더 적합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시험 삼아 면화를 재배해 봤다. 그런데 기대했던 대로 이곳은 면화 재배의 적지였다. 그는 부랴 부랴 이 사실을 일본 정부에 보고했고 일본 정부는 1904년 농상무성(農商務省)의 기사(技師) 가토(加藤)末郎(むねろう)를 보내 먼

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목포 일대가 기후나 토양으로 보아 미국, 인도, 중국처럼 우량종 면화 재배의 적지라는 확신을 얻게 되어 목포 앞 고타도에 육지면의 시험 재배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일본은 영국 등지로부터 이미 근대기술을 도입해 대규모 방적 및 방직 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었으며 여기서 생산된 면제품의 수출은 일본경제의 큰 밑바탕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원료의 대부분을 미국, 중국, 인도 등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특히 미국산 면화 가운데 가장 우량종인 육지면의 재배를 위해 일본은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면화의 품종은 4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에게 친숙한 품종은 재래면과 육지면이다. 재래면은 아시아면, 동양면 등으로 불리는데 본디 인도, 중국, 한국 및 일본 등지에서 널리 재배되었다. 소출이 적고 섬유의 꼬임이

많았지만 손으로 실을 자아 베를 짜던 시절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다른 장점도 지녀 옷이나 이불에 넣는 솜, 탈지면 등을 만들 때는 다른 품종보다 재래면이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장에서 대량으로 면실과 면직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흠결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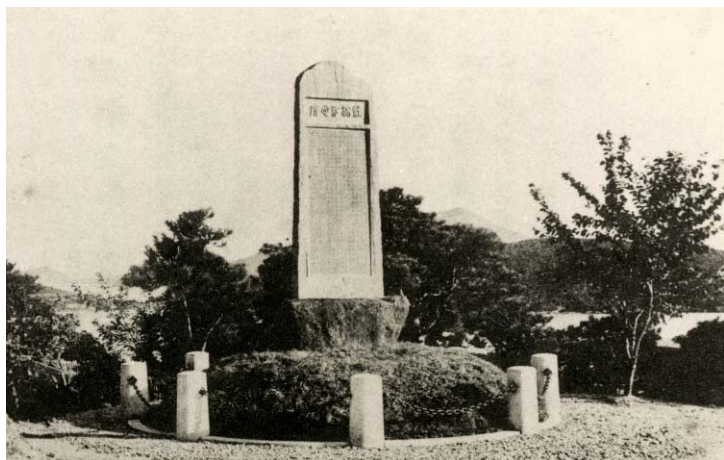
반면에 육지면은 재래면보다 수확량이 많고 섬유의 길어도 기계생산에 적합했을 뿐만 아니라 조면율(縑綿率, 즉 목화에서 씨앗을 빼고 순수한 솜을 얻을 수 있는 양)이 재래면보다 컸다.

일본은 이 같은 우량종을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려고 안간힘을 써 왔으나 일본 특유의 습한 기후와 부적합한 토질 때문에 시험 재배는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특히 솜꽃이 필 무렵인 9월부터 비가 많이 내린다는 점도 면화 재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전남이 면화 재배의 적지라는 사실은 일본 면방산업에 일대 서광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구나 한반도는 알맞은 강우량과 일조량으로 국토 전역에서 확대 재배가 가능했고 더욱이 일본과 가까운 거리에서 싼 가격으로 섬유산업의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 시세의 변동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될 터였다.

■ 재면기념비(栽棉紀念碑)

1917년에 면화의 대량 재배가 전남에서 성공하게 되자 일제는 이를 경축하기 위해 목포의 송도공원(松島公園)에 기념비를 세웠다. 지금은 철거되어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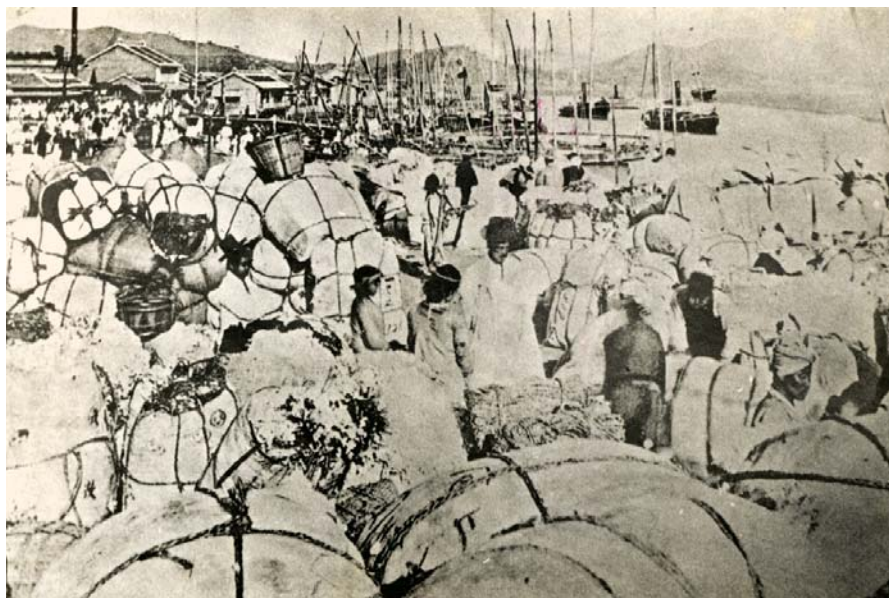


일제의 전남 목화 수탈

전남이 일본 방적업체의 원료공급기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 일본은 1905년 목포 고하도에서 육지면 재배에 착수했다. 처음에는 다소 시행착오도 겪었으나 몇 차례 시험 끝에 육지면 재배에 성공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우선 목포, 자방포(自坊浦)(무안군 일로읍), 영산포, 나주, 광주 등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재배 지역을 확대했으며 이를 토대로 한반도 남부 지역 전역이 면화 재배의 적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에서 면화 재배가 성공하자 면화의 관련 업무를 통할할 기관이 필요했다. 이에 일본은 1906년 4월 경기도 수원에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농사시험장과 농촌진흥청의 전신)을 설치했고 같은 해 6월 10일에는 목포 대의동, 당시 일본영사관 건물 안에 목포출장소를 개설했는데 이 출장소는 종자 개량과 재배 기



■ 1927년경 목포항에 집적된 면화
일제는 전남을 중심으로 남한에서 면화 재배를 확대, 헐값으로 사들인 면화를 원료로 면포를 짜서 비싼값으로 한국에 팔아 이중으로 착취했다.

술을 보급하기 위해 무안군 용당리, 현재 목포시청 자리에 채종포採種圃(씨반이 밭)를 마련했다. 얼마 후 출장소는 용당리의 채종포 자리로 옮겨갔고 그 자리에는 이 출장소의 후신인 목포면작지장木浦棉作支場이 들어와 1980년대 초 무안군 청계면으로 옮길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

권업모범장의 설치에 앞서 일본은 1905년 7월 한국 면화의 수탈을 위해 이른바 ‘면화재배협회’라는 단체를 결성했다. 이 협회에는 당시 정계의 거물인 하라原敬(뒤에 일본 총리 역임)를 비롯한 일본 정계와 재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망라되었는데 협회의 목적은 대한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 육지면 재배와 생산, 유통 전반에 관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데 있었다.

일제는 면화재배협회와 권업모범장의 발족으로 한국 면화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자 뒤이어 수매, 가공, 그리고 집하와 수송을 담당할 기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설립된 것이 1906년 당시 돈으로는 거금이라 할 자본금 20만 원의 조선면업주식회사朝鮮棉業株式會社이다. 이 회사의 본점은 일본 오사가였고 목포에는 지점을 두고 있었으나 본점은 단순한 관리 업무뿐이고 실제 회사의 주된 사업은 지점이 있는 목포에서 이루어졌다.

비통할 면화 협약

면화의 가공과 운송까지 담당할 기업까지 설립한 일제는 이제 면화의 재배와 수매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합법적으로 장악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

일제는 통감부 재정고문인 메가다目賀田種太郎를 통해 대한제국 정부와 이에 관한 협약체결을 요구했다. 이미 무력해진 대한제국은 그들이 제시한 원안대로 협약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1906년 3월 6일에 대한제국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과 일본면화재배협회 사이에 협약을 맺었는데 비통하기 그지없는 내용이었다. 다음은 그 내용의 일부다.

대한제국의 면화 재배, 채종에 관한 사업은 이것을 일본면화재배협회에 위탁한다. 다만 이 사업은 권업모범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즉 면화 재배에 관한 일제의 사업을 일제의 어용기구인 면화재배협회에 넘겨 주고 그 감독 권한마저도 통감부의 권업모범장에 있다고 했으니 대한제국 정부는 면화 재배에 관한 권한을 완전히 일본에 넘겨주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또 4개 세부사항이 덧붙여져 있었다.

1. 대한제국 정부는 전라남도, 기타의 면작 적지^{적지}에 면채종포^{면채종포}를 설치하고 일본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2. 대한제국 정부는 이 사업에 광무 10년(1906)부터 향후 3년간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후에 매년 10만 원으로 결정).
3. 면화재배협회는 이 사업에 책임을 지고 주의^{注意}와 원조를 한다.
4. 채종포에서 수확한 면화 종자를 전국에 보급하기로 한다.

다시 말하면, 대한제국 정부는 일제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땅에서 재배하는 면화의 채종과 보급에 관한 권리를 그들에게 넘겨주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우리 정부 재정에서 부담해야 했고 재배 농민들도 일본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니 한국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은 면화에서부터 그 본성을 들어냈다.

면화 공급의 거점, 전남

또한 일본은 면화의 수매 가격도 수매자인 조선면업 주식회사와 통감부의 권업모범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했으니 수매가를 그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고 종자의 유출을 막는다는 이유로 면화재배협회가 지정한 공장에서만 조면을 하도록 하여 면화 종자까지 그들이 독점했다. 그야말로 면화 수탈을 위한 모든 과정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기 이를 데 없었다.

면화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인 독점체제는 우리 농민들의 많은 비난과 불평을 샀다. <동아일보> 1920년 8월 1일자 ‘자유종^{自由鐘}’란에는 전남 농민이란 익명으로 ‘전남의 면화 판매’라는 제하의 글이 실려 있다. 그 내용은 일제의 면화 수탈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억울함과 피맺힌 호소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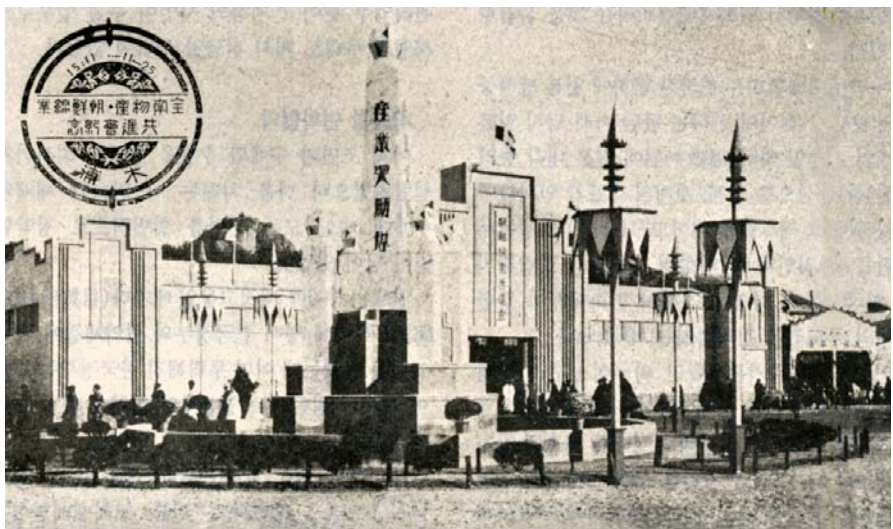
……10년 이래로 개량에 개량을 가한 전남면화는 棉花之全南이요 全南之棉花라 할 만한 금일에 전라남도 당국은 何故로 자유를 불허하고, 후자는 농민 보호라 명칭하니 不然이라. 소위 면작조합 주사라 사무원이라 하는 자는 면화라 하는 棉字도 不知者가 전부 농민의 汗出之金으로 생활하는 자가 수매시를 당하면 매수인(조선면업주식회사 직원)과 同意하야 등급을 不相當하게 정한 후에 一袋(한 포, 즉 30~40근)에 대하여 袋引(포대의 무게를 뺀다는 뜻)이라 하고 3~4근 혹은 5~6근을 감하고 30~40근 이내를 판매하려고 천금보다 중한 시간을 1일 또는 2일을 費하니 何故로 농민 보호라 하리오. 일시라도 지급히 자유 개방하야 民利를 보호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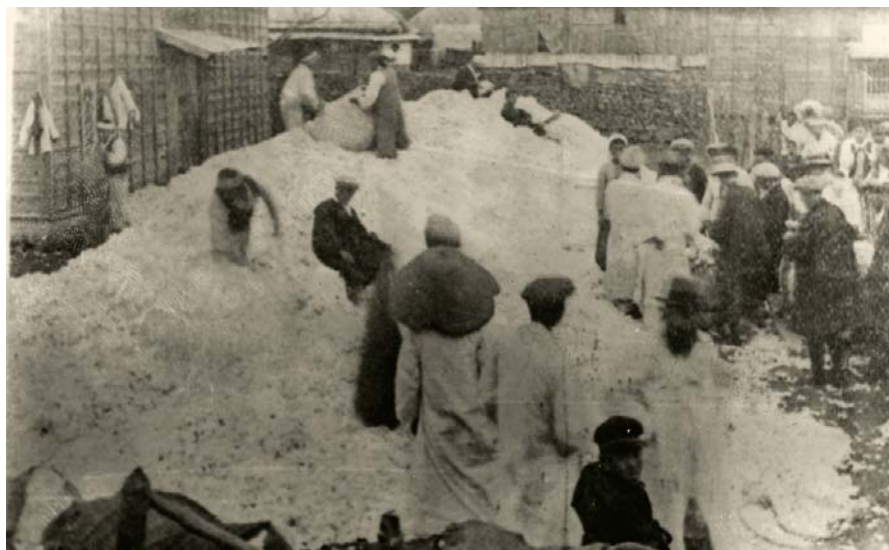
……실로 면작조합이라 하는 자는 조합원의 생산을 加하게 하고 검사만 할 따름이라 판매상에는 관계치 아니하더라도 如此한 문명 세상에 근수, 등급을 일반이 能知라. 농민 이익을 꾀하고 지식 발전을 위하거던 속속히 자유를 개방하소서.

일제는 면화 재배농가의 이 같은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자 한때 면화 수매를 자유판매로 전환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거래되는 면화 중 육지면과 재래면이 뒤섞인 혼면混綿이 발견되는 일이 많다는 이유로 다시 강제 수매로 되돌렸다.

■ 조선면업공진회

1926년 목포에서 전남물산공진회와 함께 열린 조선면업공진회에는 국내는 물론 일본 전역의 면화·방직업 관계자들이 모여들었다.





■ 진도군 면화 수매장(위)
해남 화원반도와 진도군에서
질 좋은 면화가 대량으로 생산
되었다.

■ 목포 면화주식회사에서 면화
를 고르고 있는 부녀자들(아래)
일본은 조선의 알맞은 기후,
좋은 토질을 바탕으로 면화를
대량으로 재배시키는 데 성공
했다.

아울러 일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면화재배면적을 재배북한계선인 강원과 경기도 일부를 포함한 그 이남 전역으로 확대해 나갔다.

당시의 통계자료를 보면 육지면 보급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인 1912년 전국의 재배면적 6만 헥타르(1헥타르는 약 3,000평) 중 육지면은 7,000헥타르에 불과했던 것이 1919년에는 10만 헥타르, 1939년에는 20만 헥타르, 1941년에는 30만 헥타르를 넘었다.

수확량에 있어서도 육지면은 1912년 실면(實綿) 씨앗을 제거하지 않는 형태) 생산량이 고작 4톤에 불과했던 것이 10년 뒤인 1922년에는 5만 3,000톤, 1932년 6만 7,000톤, 1942년 12만 6,000톤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육지면 재배 면적의 확대나 생산량의 증가를 이끈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면화의 전래지요 주산지인 우리 전남이었다. 특히 그 구심점은 첫 육지면 재배지였던 목포였다. 1926년 육지면 재배 성공 20주년을 기념하는 전국 규모의 면화 박람회인 조선면업공진회를 목포에서 개최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일제 때 목포와 면화는 각별한 관계였다. 첫째, 목포항 주변에는 면화사업과 관련된 각종 회사들이 즐비했다. 1913년에는 목포면업(木浦棉業)과 천평면업(天平棉業), 1918년에는 남북면업(南北棉業), 그리고 1933년에는 전남면화(全南棉花)가 설립되었다. 이들 중 목포면화와 천평면업은 1918년 7월 조선면업회사에 흡수 합병하여 자본금을 4백만 원으로 증자하는 한편 목포, 광주, 영산포, 남평, 여수, 부산, 마산 등지에 12개소의 조면공장을 세웠다.

뒤이어 일본의 재벌인 미즈이(三井)도 남북면업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며 1918년에는 조면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면실유(면화씨에서 짠 기름)를 추출하는 조선제유(朝鮮製油)가 목포에 설립되기도 했다. 조선제유는 한국 내 면실유의 생산과 판매를 독점했는데 흔히 일화제유(日華製油)라고도 불렸다. 이 회사의 설립주체가 일본의 일화제유였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에서 생산된 목화의 상당수가 목포를 통해 일본으로 반출됐다. 1900년대 국내 목화의 거의 전량이 목포항을 거쳐 나갔고, 1910년대에는 80%, 그리고 이후 비중이 조금 줄기는 했으나 육지면 재배 면적의 증가로 말미암아 반출 규모는 오히려 크게 늘었다. 1901년 목포항을 거쳐 나간 목화가 600톤이었던

데 비해 1928년에는 그 아홉 배인 5,400여 톤에 달했다.

그래서 목포항은 목화와 더불어 도시 발전의 성채를 함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포라는 지명도 ‘목화포木花浦’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을 정도다. 어찌 됐든 목포가 곧잘 ‘면화의 목포棉の木浦’로 불릴 만큼 이 도시의 경제에서 면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광주의 면화 재배는 1906년경 두방면斗坊面(지금의 북구 두암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채종포가 설치되면서부터였지만 재배가 본격화된 것은 1912년 6월 지금의 문화동, 각화동, 두암동 등지에 6개의 면작조합이 결성되면서부터였다.

1913년에는 광주에 도모타友田盛登가 조면공장을 세웠고 1914년에는 목포의 천평면업이 광주천변에 조면공장을 설립했다. 이 공장은 중도에 조선면화, 목포면화, 천평면화 등 세 회사가 공동운영하다가 조선면화회사에 합병되었다. 이 밖에도 1918년 이즈즈井筒甚三郎 등이 설립한 광주면업光州棉業도 있었다.

자취 감춘 길쌈과 면화

우리나라에 최초로 근대 섬유공업의 규모를 갖춘 방직 공장이 들어선 것은 1918년 11월 일본 미쓰이 재벌이 부산에다 세운 조선방직 주식회사가 그 효시이다. 이 회사는 면화재배의 최적지인 한국의 자연조건과 저렴한 노동력을 선점했고 일찍부터 일본제 면포·면사의 대한수입권마저 독점하여 크게 재미를 봤으며 면포·면사의 생산 판매뿐 아니라 대규모의 면화 재배 농장까지 경영했다.

이에 맞서 1919년 10월 5일 순수한 민족계 자본으로 지금의 삼양사와 자매 계열인 경방(전 경성방직주식회사)이 영등포에 설립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공업화 과정에서 선구적인 의의를 지녔다.

우리나라에 공장에서 생산한 무명, 즉 면포가 언제부터 수입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종 11년(1874년)부터 영국제 면포가 중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인도의 동인도 회사를 거점으로 중국을 거쳐 들어온 면포를 당목唐木이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한국시장은 영국산 면포의 독무대가 되었다. 그러나 10년 뒤인 1884년(고종 21년)부터 일본제 면포인 옥양목이 한국 시장에



■ 경성방직주식회사의 광고
경성방직(지금의 경방)은 제품에 우리의 태극 문양을 넣어 상표를 태극성(太極星)이라 했다. 이로 인하여 194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제품 1트럭 분을 일본 경찰에 압수당하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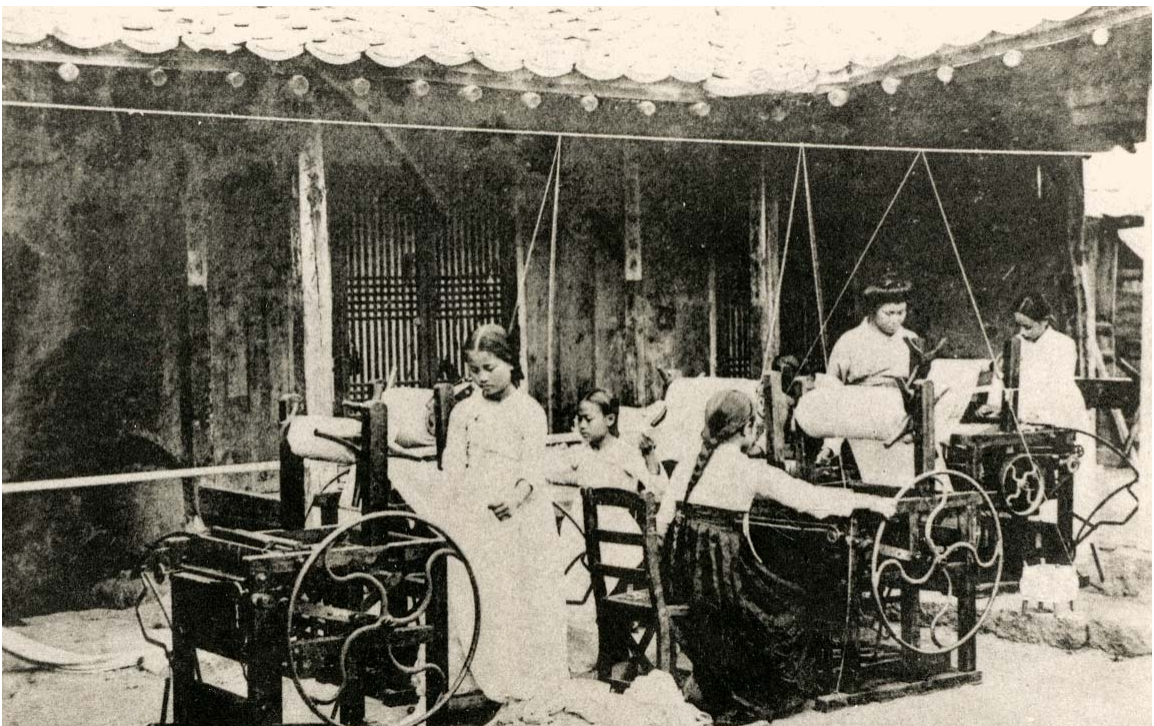
들어와 시장 경쟁이 격화되었다.

일찍이 산업혁명을 수행한 영국보다 1세기나 뒤진 일본의 면포가 영국 면포에 대항할 길은 없었다.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1905년에 이르러서는 일본 면포의 대한 수출고가 32만 3,016필(한 필의 길이는 40야드)에 이르렀지만 아직 영국의 70만 2,908필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1908년에 와서는 일본의 수출량이 45만 8,800필로 신장되어 한국시장의 점유율이 50.9%로 늘어난 데 반하여 영국제 면포는 43만 949필로 떨어져 1905년의 점유율 68.5%에서 47.9%로 줄어들었다(고승제 高承濟, 『한국경영사 연구』).

원래 한국은 조선시대 중엽부터 부산 개항 직전까지 쌀과 백목(白木, 무명베)을 부산 왜관에서 대마도를 거쳐 일본에 수출했다. 이 무명베는 울이 가늘고 고운 것이 아니라 바닥이 거친 것들이었는데 그나마 진귀한 것이어서 일본인들이 이를 감지덕지했던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면포 수입 증가 추세는 당시 미츠이 재벌의 조선방직과 민족계 경성방직의 조업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지 않았다. 그것은 세양포(西洋布 또는 細洋布인

■ 직포기술전습 광경
일본인 여자감독이 조선 소녀에게 직포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데 주로 광목·당목·옥양목 또 그것을 표백한 옥광목 등을 말한다)라 일컫는 외제 면포의 범람으로 우리나라의 가내 공업인 길쌈이 점차 쇠퇴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우리의 원료를 착취해다가 일본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다시 한국에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 식민지정책의 희생양이 되어간 것이다.

따라서 1922년에는 한국의 면포 수입량이 7,981만 야드이던 것이 1926년에는 무려 1억 92만 2,000야드로 늘어났다. 또한 우리나라 섬유원료생산 상황을 보면 전쟁 말기인 1940년부터 1944년까지 연간 평균 면화 생산이 10만 6,500여 톤에 달했다. 그런데 외국산 면포의 수입과 공장제 면포의 소비가 늘면서 무명길쌈도 차츰 설 자리를 잃어 갔다. 공장제 면포는 수공으로 짠 무명에 비해 질기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직접 길쌈을 할 때 들어가는 공력을 생각하면 값이 싼 편이었다. 그래서 공장제 면포를 사다 쓰는 사람들이 늘었고 광목, 즉 공장제 면포가 면직물의 대명사가 됐다. 물론 이런 변화로 점차 집에서 무명길쌈을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었고 가가호호마다 가지고 있던 물레나 베틀도 골방을 지키는 신세를 면하기 어려웠다.

그나마 일제강점기에는 면화라도 재배했다. 일제가 수매용收買用으로 강권한 것이든 간에 그 시절에는 어디서나 면화 재배가 성행했다. 그런데 해방을 맞으면서 이런 면화 재배도 눈에 띄게 시들해져갔다. 무엇보다 미국의 잉여농산물 중 하나로 면화가 대량 반입된 결과였다. 국내 방적회사들도 이렇게 들어온 미국산 면화를 원료로 사용했고 국내산 면화는 푸대접을 받았다. 이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면화 대신에 담배나 고구마 재배로 전환했다. 자연히 면화재배면적도 급감했는데 광주·전남의 경우에 일제 때는 5만 헥타르이던 것이 1970년대는 5천 헥타르로 감소했다. 정부도 1970년 면화 수매를 공식적으로 중단했다. 오늘날 드물게 보는 면화는 대부분 지역축제나 관상용 목적으로 심고 있는 정도이다.

■ 종방과 일신·전방

광주와 종방의 인연

일제는 육지면의 재배뿐만 아니라 누에고치 생산도 강권했다. 이에 맞춰 일본 기업들도 국내에 생사生絲 명주실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 건설을 서둘렀다.

개항 이후 우리나라에 면직물이나 면실을 판매하던 가네보(鐘紡)의 일본 발음, 鐘淵紡績의 약칭)가 1925년 11월 서울에 처음 제사공장(명주실 생산시설)을 세웠고, 1930년 8월에는 광주시 동구 학동의 옛 숭의실업고등학교 자리(지금의 평화맨션과 삼익세라믹맨션 일대)에 제사공장을 설립했는데 이것이 가네보와 광주가 맺은 첫 인연이었다.

가네보는 원래 미쓰이 재벌의 방계회사로 동경면업상사東京棉業商社를 1887년 종연방직주식회사로 개편하여 발족한 회사다. 원래의 회사 이름인 가네가부지(鐘淵)는 처음 공장이 서 있었던 동경 무코오지마(向島の 지명을 딴 것인데 이 회사는 일본 각지에 공장을 두고 면사·면포·견사絹絲·견포絹布를 생산 가공하는 회사로 출발하여 중공업 분야까지 망라한 일본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국·만주·중국 등 일제의 식민지나 그 영향권에 있는 여러 나라에 많은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방적은 물론 식료품·화장품·석탄·조선 등에 이르기까지 다각 경영으로도 유명했다. 이 때문에 태평양전쟁이 일본의 패전

으로 끝나자 해외에 많은 공장을 거느리고 있었던 가네보는 이들 공장을 일시에 상실함으로써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그러나 전후 짧은 기간 동안 사세를 만회하여 1989년에는 수권자본금 2백 60억 엔에 주주 6만 3천 명, 연간 매출 4천 8백 15억 엔, 순이익 90억 엔을 올린 국제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가네보는 1980년대 이후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과 노사분규로 경영난을 겪다가 2005년부터 주력 기업들을 매각했으며 2007년 7월 최종 부도로 이어지면서 창업 120년 만에 해체되고 말았다.

광주와 첫 인연을 맺은 학동의 가네보 광주공장은 부지 1만 6천 9백 32평, 건평 3천 3백 65평, 종업원 3백 22명, 연간 생사 생산량 3만 6천 근으로 전남도시

■ 전남방직주식회사
가네보방직 전남공장은 광복 후 전남 방직공사로 바뀌었고, 1953년 2월 전남방직주식회사가 되었다.



공장(金南都是工場(구 전남제사 전신)·와까바야시(若林 제사공장과 더불어 전남의 주요 산업체가 되었다.

중방이 광주에 대규모 면방공장을 짓게 된 배경 중 하나는 화순의 석탄(무연탄)도 큰 몫을 했다. 석탄은 공장 가동의 주요 에너지일 뿐 아니라 기숙사 등 편의시설의 난방을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연료였다. 무엇보다도 화순탄광은 평양의 탄광과 견줄 만큼 규모와 질에서 월등했다. 이 때문에 중방은 화순탄광의 인수에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였으며 이를 위해 기술자를 위장 취업시켜 은밀히 탐색한 끝에 1934년 이 탄광을 손에 넣었다고 한다.

이때 설립된 회사가 전남광업(金南礦業)이었는데 이 회사는 초기 중방의 학동제



■ 가네보가 광주시민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만든 시민공원의 보트장 뒤로 가네보 원동부가 보인다.

사공장에 있다가 얼마 뒤 임동 100번지, 즉 종방의 면방공장(전남공장) 안으로 옮겼다.

종방과 광주의 경제

종방이 광주에 공장을 건설하게 된 것은 전남이 면화의 본고장인 데다 먼저 진출한 광주제사공장의 순조로운 가동과 경영에 자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종방은 공장 건설에 앞서 이미 1930년대 초부터 전남의 면화생산 현황과 전망, 그리고 공업용수와 종업원의 고용조건, 제품의 시장성 등 기초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이 사실을 안 당시 전남도지사 야지마失島杉造와 광주상공회의소 회두會頭(지금의 회장) 소바相馬與作가 공장 유치에 앞장섰으며 총독부 정무총감인 이마이 다今井田清徳까지 합세했다.

이들은 종방의 일본 본사까지 찾아간 끝에 공장 유치에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1935년 종방은 광주에 대규모 공장을 세웠는데 이는 훗날 우리나라 섬유공업의 근간을 이룬 일신日新·전방全紡의 전신이 되기도 했다.

당시 종방은 동양 최대 규모의 면방공장을 세우기 위해 임업시험장이 포함된 광주천 하류(지금의 북구 임동) 일대 16만 평의 부지를 확보했다. 이로 인해 임업시험장은 현재 호남대학교의 쌍촌동 캠퍼스 자리로 옮겼고, 농사시험장도 농성동의 옛 전남농촌진흥원 자리로 이설해야만 했다. 하지만 공장이 들어서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 일대의 주민이었다. 그들은 가혹한 토지수용령에 따라 문전옥답을 강제로 내줘야만 했기 때문이다.

종방은 16만 평의 부지 중 7만 평에 동양 최대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하고 나머지 9만 평에는 광주 시민을 위한 시민공원과 위락시설을 조성하여 광주시에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공장 규모는 1933년 일본 관서 지방의 태풍 피해로 시멘트·철근 등 각종 건축 자재의 품귀와 가격 폭등 때문에 당초의 계획보다 축소되었다.

시민공원은 당시 1백만여 원 규모의 사업비를 들어 식물원·동물원·공설운동장, 아동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사무소까지 설치했고 첫 단계로 풀장을 개설했다.

또 현재의 전방공장 자리에는 묘포를 만들어 각종 나무를 심고 원숭이 등 일부 동물을 들여오기도 했다. 그러나 중일전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이 계획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 터는 해방 후 적산관리법에 의해 공매 처리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는데 1948년 당시 광주시 건설과에서 이 사무를 맡아보던 필자와 김학준(金學俊)이 일제 때 광주시와 종방 사이에 있었던 약속을 근거로 이 토지의 광주시 귀속을 발의했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 상경, 당시 적산공장 관리부처인 상공부(장관 임영신) 등 관계기관과 교섭한 끝에 이를 관철시켰다. 이것이 오늘날의 무등경기장의 기초가 되었다.

비록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1935년 8월 가동된 전남공장은 종방의 달리 박스가 되었다. 질 좋은 전남산 면화와 저렴한 임금 그리고 한반도의 내수는 물론 만주·중국·몽고 등 대륙을 향한 유리한 판로 조건 등으로 날로 사세가 확장, 전남공장이 가동된 이듬해에는 서울에 영등포공장을 세우고 뒤이어 평양공장을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영등포공장은 겨우 자립할 정도였고 평양공장도 산업시찰용 공장이란 평판을 들었는데 비해 전남공장은 방적기 36,000추에 직기 1,440대를 갖춘 알짜 공장으로 연간 생산량이 면사 30,000고리梱, 면포 100만 필이었고, 종업원도 3,000명에 달했다.

면사를 원료로 한 산업 유망

종방 노동자는 대부분 여성들이었고 대개 전남 지역의 농가 출신이었다. 그중에는 신식문물을 동경해 광주에 올라온 처녀들도 있었다. 그때만 해도 교육받은 여성들은 그리 흔하지 않은 터라 이들 여성 노동자들은 신여성에 속했다. 그래서 광주의 총각들은 종방의 여성 노동자들이 외출하는 날을 기다리고 그날이 되면 새 옷을 갈아입고 할 일도 없이 거리를 방황하곤 했다.

또한 월급이 지급되는 주의 일요일은 총장로의 온 상가가 들떴다. 노동자들의 월급봉투가 총장로 상가의 경기를 흥청대게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네댓 명씩 혹은 여남은 명씩 떼를 지어 총장로를 메웠는데 이것이 하나의 구경거리였다.

어쨌든 종방은 이 지방의 경제발전에 적잖게 도움이 됐다. 특히 면실을 원료로 하는 2차 가공산업에 파급효과가 커서 장갑·양말·메리야스·직포의 산업이 발

전했고 자투리인 낙면落棉·낙사落絲의 재생업계는 막대한 원료 공급원인 종방을 에워싸고 경쟁을 벌여 이권을 둘러싼 소문이 난무했다. 뿐만 아니라 기숙사에 김장감이나 쌀·멸감·부식·가구·생활필수품 등을 납품하는 업자들도 짹짹한 재미를 보았다.

오치아이 공장장과 한국인 양자

종방 전남공장의 초대 공장장은 오치아이落合一였고, 그다음이 우시지마作島隆三, 그리고 3대 공장장인 가와즈라川面隆平가 광복 때까지 재임했다. 원래 종방은 게이오慶應대학 출신의 인맥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초대와 2대 공장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런 인맥은 전후 일본에서 굴지의 기업으로 재기하여 폐업할 때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제3대 공장장이었던 가와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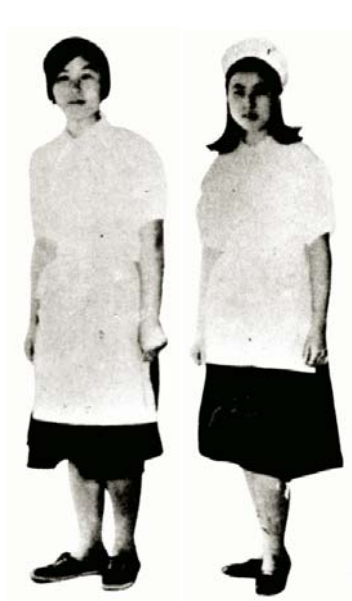
■ 방직공장 생신직 여직원들의 복장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만은 게이오 출신이 아닌 공과 계통의 명문학교인 도쿄공업고등학교 출신으로 전남공장의 기사장^{技師長}을 거쳐 승진했다.

여기 초대 공장장을 지낸 오치아이에 대한 일화 하나를 소개한다.

그는 나이 스이 되도록 자식을 두지 못했는데 집안 허드렛일을 봐주는 한국인 가정부를 두고 있었다. 이 가정부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는 엄마를 따라 곧잘 오치아이의 사택에 와서 놀다가곤 했다. 자식이 없는 오치아이 부인은 이 아이에게 정이 들었다. 목욕을 시켜 새 옷을 입히고 과자와 음식을 먹였다. 정이 깊어지자 나중에는 집에서 먹이고 재우며 친자식처럼 보살폈고 가정부도 한 식구처럼 지내게 됐다. 오치아이에게는 행복한 나날이었지만 오래지 않아 그는 일본 본사 중역으로 영전하게 되었다. 오치아이 부부는 슬픔을 못 이겨 가정부에게 아이를 양자로 줄 것을 간청한 끝에 이 아이를 일본으로 데려갔다.

이 이야기는 광주와 종방의 인연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옛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필자가 1979년 일본 산업계를 둘러보던 중 공교롭게도 오치아이의 그 양자를 만나게 되었다. 당시 마흔을 넘겨 의젓한 중년에 접어들던 그는 시미즈^{清水}라는 일본 이름이 적힌 명함을 내밀며 펑 반가워했다. 종방 섭외 부장의 말에 의하면, 오치아이가 죽자 초대 전남공장장의 공적을 잊지 않고 그의 양자에게 계열회사인 메이와^{明和} 주식회사의 경영을 맡기고 있다고 했는데 그가 바로 그 장본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국 이름을 밝히기는 꺼려했으며 한국말은 물론 광주나 고국에 대한 기억마저 이미 사라진 지 오랜 듯 보였다. 필자는 무엇이라 형용할 수 없는 허전함을 마음속에 묻고 돌아와야 했다.

무등양말공장

종방과 그 계열회사 이외에 주목을 끌었던 이 지방의 섬유업체로는 1926년에 창업한 김언수^{金彦洙}의 남선양말공장과 순수한 민족자본에 의해 1935년 5월 10일에 창립한 무등양말공장을 들 수 있다. 특히 무등양말공장은 광주 계유구락부 회원이며 민족계 학교인 고창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고 초대교장을 역임한 양태승^{梁泰承}이 중심이 되어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과 함께 설립

한 기업으로 당시 평양양말과 더불어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무등양말은 1936년 11월 자본금 15,000원의 합명회사로 경영체제를 개편하여 대표에 김시중金時中이 취임하였고 뒤에 고광표高光表가 이어 받았다. 무등양말은 일제 때부터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전국에 판로를 갖는 광주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 우리 동포의 옷감 우리 손으로

종방 종업원의 자치위원회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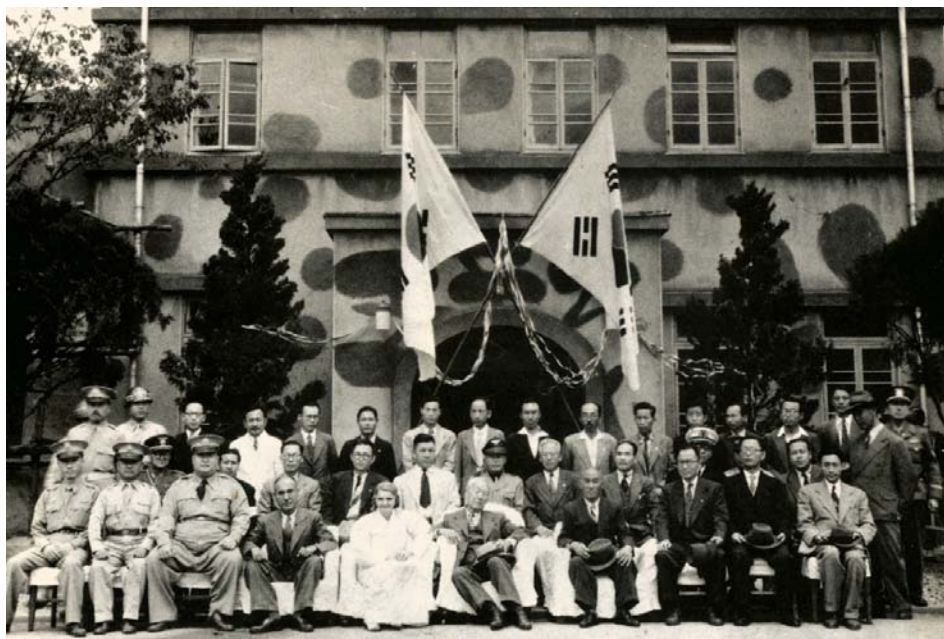
종방의 전남공장은 태평양전쟁 말기 일제의 전쟁수행을 위한 군복 원단을 생산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해방과 함께 공장 내 한국인 종업원들은 흥분으로 들떴다. 그러나 이 기쁨과 흥분은 곧 무질서와 혼란으로 바뀌었다.

어제까지도 전쟁물자의 생산에 여념이 없던 일본인 관리직원과 일부 몰지각한 종업원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공장의 비축물자와 기자재를 마구 가져갔다. 이러한 혼란이 거듭되자 일부 뜻있는 종업원들이 질서회복에 나서는 한편으로 공장 관리를 위한 자치위원회를 조직했다.

때를 같이하여 광주 시내에서도 광주청년단 선발대와 광주치안대가 공장시설과 물자의 경비에 가세했고 특히 일본인들에 의한 절도와 시설파괴를 감시했다.

공장 자치위원회는 공장장 격인 자치위원장에 박무길(朴武吉, 치안부장에 변유섭(邊有燮, 행동대장에 김기섭(金基燮을 선출했다.

위원장인 박무길은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 출신으로 전남사범학교(광주학생독립운동 이후에 폐쇄된 도립사범학교로 그 후에 창립한 광주사범학교와는 다른 학교)를 나와 보통학교 훈도(교사)로 근무했으며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모체인 성



■ 전남방직을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1949년)
 앞줄 왼편 두 번째부터 이응준 육군총인사
 참모, 채병덕 육군참모총장, 한 사람 건너
 대통령 내외, 신성모 국방장관, 한 사람 건
 너 박철수 전남도지사

© 김형남전

진회에 참여했다가 욕고를 치르기도 했다. 출옥 후에 종방의 사원으로 들어가 일 제 말엽 충장로2가에 있었던 가네보 서비스 스테이션(종방 직영의 매장)을 맡아 경영한 인연으로 해방 후 종방공장의 초대 관리책임자가 된 것이었다.

그러나 거대한 공장을 맡아서 경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원래 일본의 방직산업은 1930년대에 이미 방직업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던 영국의 지위를 추월할 만큼 세계적인 기술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그 주역 중 하나가 종방이었다. 그러나 종방의 전남공장은 설비와 경영이 오로지 일본인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던 까닭에 한국인들이 어깨 너머로 이것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다. 또한 공장설비의 부품·표백·염색·염료 등 원료도 일본의 모기업에 의존해 공급받아 왔고 거기다가 숙련된 한국인 기술자가 없어 일본인들이 떠난 뒤 공장은 가동을 멈춘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1945년 9월에는 가까스로 공장 가동을 재개하기에 이르렀다.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42년 동안 방직공장 종업원으로 일해 온 이재운李在允은 그때의 실정을 이렇게 전했다.

우리 한국인들은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도망가려던 일인 기술자 일곱 명을 붙잡아다 놓고 내가 주먹구구식으로나마 통역을 해가면서 기술을 익혔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해방 당시 일요일을 빼놓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장을 돌린 데는 이곳 가네보 전남방직 공장밖에 없었을 것이다.

광복 직후의 자료에도 이미 1945년 9월부터 서울의 경성방직 공장과 이곳 중방의 공장이 조업을 재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945년 말께는 일본인 기



■ 가네보 전남공장
기숙사 정원
(1946년)

술자 없이도 한국인 종업원들 스스로 공장을 거의 정상가동할 수 있었다. 당시 종방은 방직기 38,368대와 직기 1,510대로 연간 1백만 필 이상의 생산규모를 갖춘 시설이었다.

미군이 광주에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한 것은 종방 전남공장이 종업원들에 의해 공장가동이 재개될 무렵인 1945년 10월 23일이다. 미 군정은 즉시 적산 접수에 착수했는데 그 책임자는 미국 공군대위인 핸더슨이었고 종방 공장의 처리를 담당할 미국인 고문관은 속칭 ‘빠빠’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 빠빠는 미군 5명과 한국인 공장관리인으로 내정된 김형남(金淸南)을 데리고 종방에 나타나 사택에 거처하며 공장을 둘러보고 다녔다. 이때 상황을 당시 전기공이었던 김정순(金貞順)에게 들어본다.

어느 날 인사 책임자인 조병권이 내게 와서 하는 말이 미군이 김형남을 공장장으로 앉히고 우리가 뽑은 박무길은 창고주임으로 보낸다고 하니 이를 어쩌면 좋겠냐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미국인은 여론을 중시한다니 이 문제를 종업원대회에 부치도록 하자고 했다. 그래서 11월 초에 작업을 하다 말고 전 종업원들이 기숙사 2층 강당으로 모였다. 약 3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이자 빠빠가 단상에 올라 한국인 노동자들은 전혀 알아 듣지 못하는 영어로 “김형남 공장장, 오케이?”라고 묻는 것이었다. 이에 노동자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는 사이 내가 일어나 “이제까지 우리 힘으로 잘해 왔는데 새 공장장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빠빠가 권총을 빼들고 쏘려고 하자 김형남이 끼어들어 빠빠를 일단 밖으로 내보냈다. 그리고 김형남이 단상에 올라가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일해보려고 왔다. 빗자루로 마당을 쓸라 하면 쓸 것이요, 무엇이든 하라고 하면 할 터이니 여기서 일하게만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다시 일어나 “당신 필요 없소. 당장 보따리 싸들고 나가라. 이제까지 우리 힘으로 잘해 왔고 앞으로도 자신이 있다”고 말하자 모든 노동자들이 일제히 함성으로 지르며 “김형남은 나가라”고 외쳤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김형남은 일단 공장관리인 대신 공장 통역관과 신입사원 모집책으로 공장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그해 11월 4일 미 군정 당국은 공

장책임자인 박무길을 학동의 제사공장의 책임자로 전임시키고 그 후임으로 김형남을 임명했다. 이로써 종업원들에 의한 공장의 관리기간이 끝났다(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 현대사 1』, 1991년).

공장 가동의 성공

관리책임자로 임명된 김형남은 공장의 전면 가동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한편으로 아직 체류 중이던 일본인 기술자 7명의 협력을 받아 종업원들에게 야근을 시켜가면서 기술을 습득하게 했다.

광복 직후에 겪은 이런 어려움은 면방직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계의 전반적인 현상이었다. 이는 일제가 자본과 기술을 자국에 의존하도록 한 식민지 체제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즉, 광복 당시 제조업분야의 94%가 일본자본이었고 기술자의 90%가 일본인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광복 직후 각 분야의 당면과제는 기술자 양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위슬레안 대학과 프레드 공과대학을 나온 공학도인 김형남을 종방공장의 관리책임자로 맞은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그는 공장장에 취임하자 밤낮으로 기계와 씨름한 끝에 부품이나 기술 문제를 조금씩 헤쳐 나가며 공장을 정상화시켜 나갔다.

그러나 광복 후 사회전반을 휩쓴 혼란 속에서 공장을 경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노사관계는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적 혼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 이 밖에도 경영자들을 괴롭힌 것은 적산기업을 둘러싼 모리배들의 농간이었다. 이들은 기업을 인수받아 건전한 경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나 능력도 없이 술수와 음모로 공장을 차지하려는 무리들이었다.

김형남은 이런 술한 시련을 이겨내고 1948년 정부가 수립될 무렵에는 생산량을 일제강점기 수준으로 회복시킬 정도로 공장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이 무렵 종방공장의 종업원은 남자 800명, 여자 1,600명 등 모두 2,400명이었으며 그 중에 1,700명이 기숙사 생활을 했다.

일제 때부터 있던 공장 부설병원도 다시 개원했다. 이 병원은 당시 광주에 몇 안 되는 종합병원이었으며 종업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의료 활동을 했다. 또



■ 6·25전쟁 때 파괴된
전남방직공장 원동부

교육을 받지 못한 종업원들은 공민학교를 설립해 하루에 두 시간씩 배우게 했다.

이런 분위기에 호응하듯 종업원들도 ‘우리 동포의 옷감을 우리 손으로’, ‘증산 또 증산, 능률을 올려서 우리 공장 빛내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공장은 정상을 되찾게 되고 정부 수립으로 질서도 회복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는 길지 못했다.

1950년 전쟁이 발발했고 전쟁은 그동안 애써 이룩한 공장을 하루아침에 폐허로 만들었다. 시설의 90%가 파괴됐고 건물의 80%가 소실됐다. 김형남은 폐허터미 위에서 종업원들을 격려하면서 공장 재건에 나섰다.

종업원들도 혼연일체가 되어 부품과 기계를 모아 재조립하기 시작했고 밤새워 설계도를 그려 권승관權承官의 화천기공사나 박남술朴南述의 남선선반공장 등 시내 철공소를 찾아 기계 제작을 의뢰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공장 안에 자체 철공소를 두고 부품과 설비를 재생시켰다. 이런 노력 덕분에 재건에 착수한지 10개월 만인 1951년 9월 추석날 불타지 않고 남아 있던 식당간에 정방기精紡機 6,000대

를 설치하여 가동을 재개했다.

전남방직의 설립과 서울 이전 반대운동

광복 직후의 혼란기와 6·25전쟁의 두 고비를 넘은 공장은 1952년 2월 23일 자본금 600만 원의 새로운 주식회사로 발족하고 상호를 전남방직이라 했다. 전남방직은 유엔 한국재건단(UNKRA)의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여 1954년 말에는 방직기 16만 5,000추를 갖춘 초대형 공장으로 면모를 일신했다.

그러나 공장운영이 본궤도에 오를 즈음인 1956년 전남방직은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산업과 관련된 행정과 정부지원이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당시 치열한 원면(原綿) 확보 경쟁, 광주 지역의 열악한 전력 사정, 자금의 조달이나 시설 도입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남방직에 큰 부담을 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광주·전남의 지역민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전남방직이 지역의 면화와 지역의 인력으로 성장한 기업이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큰 기둥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역민은 본사의 서울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광주상공회의소는 박인천 회장이 중심이 되어 이전 반대 운동에 발 벗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는 그해 10월 5일 전남방직에 제출한 본사 이전 반대 건의서에서 행정사무를 비롯해 전기, 연료, 자금조달 등에 관한 사무들이 점차 지방에 이양되고 있으며 자금 융자도 회사의 모체인 공장과 담보 물건들이 대부분 광주에 있다는 점을 들어 본사 이전보다는 서울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제시했다.

당시 광주상공회의소는 전남방직 본사의 서울 이전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도 크게 우려했다. 무엇보다도 지역 금융기관의 경우 약 6천만 원의 예금 감소와 9억여 원의 대출 감소를 가져오고(당시 전남 지역 대출규모는 40억 7,400만 원이었다) 지방세 수입도 연간 3,000여만 원(당시 전남의 지방세 수입은 1억 4천여 원이었다)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크고 작은 파장이 염려되었기 때문이

었다. 따라서 광주상의는 단일 공장 중심주의란 경영이론의 관점에서도 본사와 공장의 분리가 가져올 비효율성 등을 들어 본사 이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런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해 10월 본사를 서울로 옮겼다. 그 후에도 지역 신문들은 본사의 복귀를 원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보도했으며 1958년에는 박인천 회장을 비롯한 도내 80여 기관의 진정단이 상경, 본사 환원운동을 벌였으나 끝내 실현을 보지는 못했다.

한국섬유공업의 쌍벽, 일신과 전방

그 후 전남방직은 기업의 대형화에 따라 1961년 4월 일신방직(日新紡織)과 전남방직(全南紡織)으로 분할되어 일신방직은 김형남, 전남방직(후에 상호를 다시 전방으로 바꿈)은 김용주(金龍周)가 각각 대표로 취임했다. 김형남과 김용주는 1953년 중방공장을 인수할 때 공동으로 참여하여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관계였다.

김용주는 일찍이 부산상업학교를 나와 포항에서 무역업과 운수업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해운공사 사장과 주일대표부 공사를 역임했다. 외교관으로 일본에 나가 있어 공장경영은 동생인 김용성(金龍成)이 대신 맡아 했는데 김용성은 1930년대 식산은행 광주 지점에 근무한 적이 있어 광주가 생소한 곳이 아니었다.

일신과 전남방직은 분리 후에도 계속 설비투자과 현대화를 추진하여 우리섬유공업의 선도적 기업으로 한국경제에 큰 보탬이 됐다.

돌이켜 보면, 전남의 면화가 한국 섬유산업의 토대를 마련했고 이것이 다시 산업전반에 많은 파급효과를 수반하며 공업화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1960~70년대에는 이들 섬유공업이 수출경제의 기폭제가 되었다.

해방과 한국전쟁 등 어려운 시기에 공장 가동과 운영에 남다른 역할을 해온 사람들 중에는 김형남 외에도 전 전방 공장장인 김진남(金鎭南)과 임성록(林成錄)(후에 광주시 의원을 역임), 허복락(許奉洛), 변종환(邊宗煥)(통합 전남방직 시절 때의 공장장) 등을 들 수 있다.

근래 들어 섬유산업이 예전만 못하지만 점차 합성섬유로부터 다시 자연섬유에 대한 인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는 합성섬유가 우리 피부와 함께 숨 쉬는 천



■ 주식회사 전방
1961년 4월 전남방직회사에서 분리되었다.

연섬유 면직물의 기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고장과의 오랜 인연을 생각한다면 다행스럽고 소망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현재 일신과 전방의 임동공장은 1994년 광주광역시의 도시계획변경으로 총 부지면적 92,961평(일신 43,373평, 전방 49,588평)이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 고시됨에 따라 일부가 평동공단으로 이전 가동 중이다.

■ 양잠과 제사공장

자연 섬유의 왕중왕 명주

우리나라 전래섬유의 대표적인 것은 명주이다. 다습고 섬세하며 부드러움이 식물의 섬유랄 수도 동물의 모사랄 수도 없는 가히 자연 섬유의 왕중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투박하면서도 순박한 무명베가 한국 남성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명주베는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명주베 한 필을 꼭 쥐면 한 주먹이지만 그 질감은 한국적 현모양처의 강인함이요 따뜻하고 섬세하며 부드러움 그 마음씨를 상징한다 하겠다. 우리의 속담에 ‘명주옷은 사촌까지 다습다’ 했고 또 겉치장은 그럴 듯하나 속이 추악한 사람을 일러 ‘명주자루에 개똥’이라 했다.

서양 사람들도 동양의 문물 중 이 신비의 섬유를 못내 동경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중국에서 로마에 이르는 최초의 동서교역로인 실크로드의 대역사를 남기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거국적으로 양잠을 장려해서 이에 얽힌 세시풍속이나 궁중의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8월 15일을 한가위 또는 가배嘉俳라 하여 햇곡식과 햇과일 등 오곡백과로 차례를 모시는데 추석명절도 베 짜는 이야기에서부터 유래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삼국지三國志』 동이전東夷傳 마한 조馬韓條에는 ‘누에를 치고 비단을 짜서 옷을

해 입었다’는 기록이 있어 명주의 역사를 기념할 수 있는데 일본 문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양잠 견직 기술은 멀리 삼국시대부터 발전되어 이것을 일본에 전했는데 이때 일본 조정에서 이것을 널리 장려하여 고급 견직물을 만들게 됐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나라에서 제사를 드리는 선농단先農壇, 사직단社稷壇, 원구단圓丘壇 등 많은 제단 가운데 선잠단先蠶壇이라는 것이 있었다. 선잠단은 양잠의 창시자로 전해지는 서농씨西陵氏(중국 황제黃帝의 원비元妃)에게 제사를 올리는 제단인데 이 제사는 잠사蠶事의 호황을 기원하는 것이었다. 생활의 근본이 되는 농사와 함께 양잠을 얼마나 중히 여겼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또 해마다 3월이 되면 일반 농가의 부녀자들이 누에치기를 시작했는데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식상법植桑法을 반포하여 집집마다 의무적으로 뽕나무를 심게 했으며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기도 하였다. 성종 8년(1477) 3월에는 왕이 후원에 상단桑壇을 마련하고 왕후는 여관女官들을 거느리고 친히 상단에서 뽕잎을 따는 친잠례親蠶禮를 지내기까지 하였다. 이는 임금님이 몸소 풍년을 기원하는 친경례親耕禮에 버금가는 의식이었다.

제사공업의 근대화

한국의 식상植桑과 양잠은 알맞은 기후와 풍토로 말미암아 국책으로 권장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농가 부업의 주축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잠농은 예로부터 중국 비단에 밀려 거의 수입에 의존했는데 당시 수입 품목을 보면 약제, 서적과 함께 비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일제강점기에 총독부가 청일전쟁 이후 도처에서 일본군에 짓밟힌 우리나라의 뽕나무 밭을 다시 일구게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자연생 뽕나무이던 것을 양묘養苗와 양잠養蠶 기술을 도입하여 강압적인 장려정책을 썼으며 이로 말미암아 한국의 양잠업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아울러 가내 수공업이던 우리나라의 원시적인 잠업은 수탈을 위한 일본 대기업의 자본 진출로 비로소 근대화를 맞게 되었다.

그런데 이미 개항 이후 중국 비단이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들어와 상류사회 부녀자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있었다. 중국은 1880년 이태리의 섬유사업가가



■ 잠령탑

일제 때 명주실을 뽑기 위해 희생된
술한누에의 혼을 달래기 위해 전국에
서 유일하게 세워졌다. 경상북도 청도
군청 앞뜰에 있다.

상해에 제사공장을 세운 이래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으며 그 제품이 일찍이 한말에 우리나라에 와 있던 청나라 거상巨商인 담결생譚傑生이 만든 동순태同順泰를 통하여 수입되었다. 당시 우리 상류사회에서 환영받았던 중국 비단으로는 양단洋緞, 공단貢緞, 모본단毛本緞, 법단法緞, 당항라唐九羅 등이 있었다.

특히 고급 관리층엔 청국산 비단을 입어야만 체면이 서는 것처럼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하여 청나라 견직물의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마치 과소비 풍조와 같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뿐 아니라 당시 집권층에게는 비단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부의 축적 수단이기도 했다. 이때 일본산 비단으로는 양단, 법단을 비롯하여 후지기누富士絹, 하부타에羽二重, 펠리스 등이 있었다.

일본 섬유 자본의 한국 진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제사공장은 1911년 3월 서울 독립문 옆(행촌동) 독립관(뒤에 한성중학교가 설립된 자리)에 송병준宋秉峻이 세운 ‘한성잠업전습소’를 들 수 있다. 송병준은 한말에 농상공부 및 내부대신을 역임했으며 일진회를 조직하여 고종황제 퇴위 운동을 벌이고 한일합병 상소문을 올리는 등 매국 외교를 주도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은 친일파였다. 그가 잠업에 관계하게 된 것은 1905년 일본에 망명하였을 때 야마구치현山口縣 하기萩에서 노다野田平治郎라는 일본 이름으로 잠깐 잠업에 종사했던 것이 인연이 됐던 것 같다.

이 전습소傳習所라는 명칭은 일본이 공업화의 초기 단계에서 제사공업의 기술을 전파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직공도 수업생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한성잠업전습소는 일본인 기술자 1명과 관립官立 용산잠업강습소 졸업생 2명을 기술자 겸 교사로 고용하여 32대의 조사기操絲機로 출발했다.

공장의 규모는 여자 수업생, 즉 여자 직공 20명, 남자 직공 4명, 공장 건평 66평에 생산규모는 하루 생사 1관(3.75kg) 정도였는데 공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경기도뿐만 아니라 평안도·황해도 등지에서도 여공들을 모집했다고 한다.

이 여자 직공들은 오늘날 여성 노동자라는 사회적 계층을 이루게 된 선구자들이었으며 또 농촌의 부녀자가 요즘 말하는 근로 사원이라는 신분을 지니게 된 것

도 이것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장은 설립 3년 만인 1914년 가을에 문을 닫고 말았다. 이 무렵을 전후해서 일본 섬유 자본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되는데 대표적 기업이 야마주제사 회사山十製絲會社, 1911년 설립, 가타쿠라제사주식 회사片倉製絲株式會社, 1919년 설립, 미츠이 재벌, 동양제사, 중방이었다.

일제의 누에고치 수탈

1930년대 화학섬유인 인조견人造絹이 생사生絲(천연명주실)를 추월하기 전까지 일본의 최대 미국 수출품은 생사였다. 일본 자료에 따르면, 1880년대와 90년대 일본 생사의 50~60%가 미국에 수출됐고, 1900년대에 이르면 70%, 1920년대에 들어서는 그 비율이 80% 대에 이르렀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직후 국제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맞으면서 생사 가격이 치솟았고 당시 최대 생사 소비국으로 부상한 미국에서는 동양산 생사의 수요가 폭증했다. 더구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동양산 실크스타킹이 크게 유행하면서 일본 제사업계는 원료난으로 생산차질을 겪을 정도였다. 그리고 일본의 이 같은 수출경기를 뒷받침한 것이 바로 한국 누에고치였다. 역설적이게도 일본은 한국 누에고치로 미국에서 돈을 벌어들였고 이 돈으로 향후 미국과 싸우기 위한 군비를 증강하는 재원으로 사용했다.

이처럼 일본 제국주의의 원동력이 된 한국의 누에고치는 일찍이 1910년부터 수탈의 역사가 비롯되었다. 일본 재벌들은 한일 합병과 함께 우리나라 각지에서 거미줄 같은 조직으로 누에고치를 수탈했다.

1930년대에는 70만 농민이 9만 헥타르에 이르는 땅에 뽕나무를 심었으며 연간 누에고치의 생산량이 55만 5,000석石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산된 누에고치는 잠업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수매가를 책정하여 군농회郡農會의 공판장을 통해 헐값으로 수매했다. 뿐만 아니라 면화와 마찬가지로 누에고치 역시 우리 농가에서 사사로이 제사할 수 없도록 하여 사실상 우리 농가의 생산량을 거의 독점했으며 수매가도 멋대로 책정했다. 그래서 한때 한국의 양잠을 ‘총독부 잠업’이라고까지 했다.

그들은 또한 한국의 노동력을 터무니없이 저렴한 임금으로 수탈했다. 1931년 6월 말 통계에 의하면 국내 제사공장에 종사한 여성 노동자가 9821명, 남성 노동자가 1,286명이었는데 이들의 임금은 식비를 포함 하루 32전(참고로 1925년 당시의 광주 물가를 살펴보면 쌀 한 되에 42전, 계란 10개에 31전이었다), 양성공(미숙련 노동자)은 15전에 불과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 중엔 15세 미만의 소녀들도 많았다. 15세가 1,865명, 14세가 736명, 13세가 58명이었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임금이 저렴해서 한국의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었으며 많은 소년 소녀들을 일본의 방직공장으로 보내어 혹사시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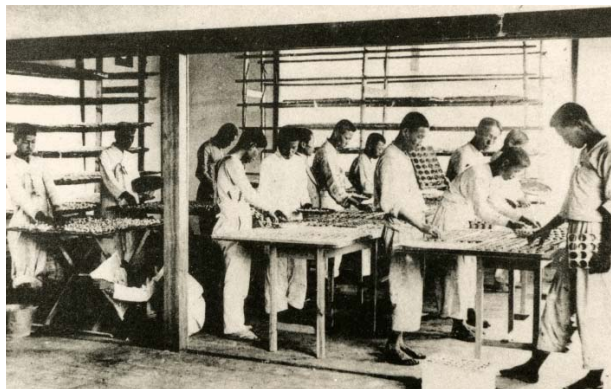
당시 한국산 생사는 처음에는 직공들의 기술 미숙으로 질이 좋지 못했으나 점차로 가늘고 빛깔이 고운 명주실을 생산하게 되어 일본의 생사 주거래 시장인 요코하마 시장에서 가장 비싼 값으로 팔렸다.

이에 따라 누에고치 생산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1920년 전국 30만 농가에서 13만 석을 생산하던 것이 1930년에는 70만 농가에서 55만 석으로, 1940년에는 80만 농가에서 70만 석으로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1930년대에 연간 생산량이 6만 석이었다. 그중 최대 생산지는 나주로 1만 석이고 광주는 5천 석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남은 경북에 이어 두 번째 생산규모였고 양잠이 전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쌀, 면화에 이어 세 번째였다.

■ 광주잠업전습소

광주군청에서 경영한 잠업전습 실업학교이다. 1909년 당시의 관찰사 신용희의 부인이 국고보조로 광주 남문 안에 세운 광주부인양잠전습소가 그 모태이다. 그 후 1911년 광주군 잠업전습소로 개칭했다.



이 세 가지를 삼백三白이라 했다. 참고로 일제강점기에 광주·전남의 주요 산물을 일컫는 말에는 이흑二黑·일청一靑도 있었는데 이흑은 화순의 무연탄과 완도의 김, 일청이란 담양의 대나무(죽세품)를 가리켰다.

전남 지방의 제사공업

광주 지방에 최초로 근대적 양잠기술이 보급된 것은 1898년(광무 2년) 11월 17일 호남동의 옛 동명호텔 자리에 일본인 여자 오쿠무라 奥村五百子에 의해 설립된 오쿠무라 실업학교本願寺 奥村實業學校가 세워지면서부터이다. 이 학교는 일본인 이주자에 대한 한국 적응훈련과 일부 한국인에게 일본을 이해시키고 일본식 농법農法과 잠업을 보급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이었는데 양잠 교육은 오쿠무라의 딸 미츠코光子가 맡았다. 그러나 일본색이 짙은 이 학교는 광주 사람들의 배일감정으로 말미암아 맹렬한 반발을 사게 되어 곧 폐쇄됐다.

이어 광주 지방 인사로 최성기崔聖基, 崔泰根의 아버지, 김인수金仁洙, 金容煥의 아버지, 최중섭崔鍾步, 崔昊衍의 아버지 등이 총장로3가 옛 제일극장 맞은편에 5칸 기와집을 지어 '잠농사蠶農社'를 설립했다. 이들은 지역의 대표적인 개화 인사들로 새로운 영농기술과 잠업기술을 보급하여 농촌근대화에 기여하고자 잠농사를 설립한 것이었다.

■ 임동에 있었던 전라남도 도립잠업 강습소 기숙사까지 갖춘 양잠지도자 양성 기관이었다.



이 무렵 주권수호 및 항일운동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상해 임시 정부를 비롯한 중국·미국 등 해외에서 벌리는 운동이 그 하나요, 국내에서 무장 의병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그 하나요, 그리고 잠농사처럼 산업·육성과 교육을 통하는 방식이 그 하나였다.

한편, 잠농사 이후 광주에 비교적 정규 교과과정을 갖춘 잠업 교육기관이 들 어선 것은 1909년의 일이다. 전남관찰사인 신응희(申應熙)의 부인이 국고보조를 받 아 남문 안(충장로 입구 근처)에 광주의 상류층 부인들을 모아 양잠과 제사의 기 술을 전수시키기 위해 세운 ‘광주부인양잠전습소’가 그것이다. 이 전습소는 강 점 후까지 3년 동안 존속했다. 1909년에 20명, 1910년에 30명, 합병 후인 1911 년에 남자 27명, 1912년에 여자 30명의 양잠기술자를 배출했는데 1911년에는 그 경영 체제가 관영으로 바뀌었다. 명칭도 ‘광주군 잠업전습소’라 고치고 장소 도 동문 안 내아(대의동 구 광주지방국세청 근처)로 옮겼다. 소장은 군수가 겸임 했고 교사에 니시무라(西村裕二郎)와 조수 2명을 두었는데 수료기간은 3개월로 학 교의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전습소의 모태가 되었던 여성 잠업기술교육은 1913 년 폐지됐다.

그러던 1915년에는 상묘장(桑苗場)과 함께 ‘권업모범장’을 설치하면서 당시 광 주군 효천면 양림리의 전라남도 종묘장(全羅南道 種苗場)이 있는 곳으로 시설을 옮겼 다. 1916년에는 광주, 담양, 곡성, 화순, 장성 등 5개 군의 전습소를 통합하여 명 칭도 다시 광주잠업전습소로 바꾸고 수료기간을 6개월로 늘렸으며 이듬해에는 9 개월로 연장하여 차츰 양잠기술과 함께 이론교육까지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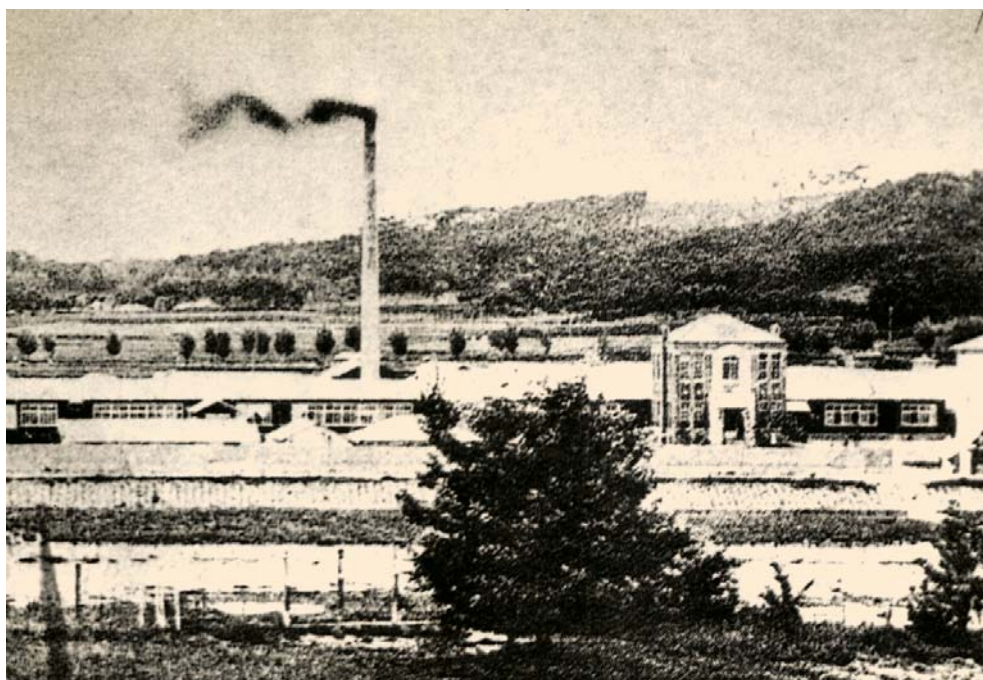
당시 총독부는 도(道)에는 잠업과, 군(郡)에는 잠업계, 그리고 민간에는 잠업조합 등을 두어 뽕나무 심기, 누에치기 등 양잠을 독려했다. 광주에는 지금의 황금동에 있던 ‘잠농사’를 폐쇄시키고 그 자리에 ‘전라남도 잠업취체소’를 세웠다. 또 1917 년에는 농사 시험기관인 종묘장과 잠업묘포의 집단화 계획에 따라 ‘광주군 잠업 취체소’를 서방면 유림리(임동의 구 서구청 자리 일대)로 옮겨 전라남도 잠업강습 소로 개칭하고 기숙사까지 갖추었으며 원잠종제조소(原蠶種製造所)와 함께 두었다.

한편, 광주잠업전습소가 있었던 양림리에는 1920년 3월에 미즈이 계열로 대 구에 본사를 둔 조선생사회사(朝鮮生絲會社)가 광주에 잠종부(蠶種部)를 차려 잠종을 생

■ 1926년 5월에 창립된 전남
도시제사주식회사 전경



■ 전남도시공장 전경
지금의 양동급호맨션 자리에
있었다.



산, 배포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 무렵 전남의 주요 누에고치 산지는 나주, 화순, 고흥, 담양, 순천 등이었다.

또 1926년 5월에는 전남 최초의 대규모 생사공장인 전남도시제사주식회사(全南道是製絲製絲會社)가 자본금 2백만 원으로 발족했다. 양동에 세워진 이 공장은 부지 2만 평에 건평 3,153평, 종업원 696명 그리고 연간 생사생산량 62,400kg 규모였다.

이런 대규모 공장이 설립 초기에 겪는 어려움은 노동자, 특히 젊은 여성 노동자를 모집하는 일이었다. 그때만 해도 젊은 여성들의 바깥출입이 쉽지 않아 공장 간부들이 인근 농촌을 돌며 완고한 시골 어른들을 설득해야만 했다. 그러나 차츰 젊은 여성들의 호기심을 끌게 되어 구직자들이 늘자 나중에는 인물 위주로 뽑았다. 이 때문에 다른 공장보다 인물이 출중하여 이에 관한 노래가 생겨나고 도시 총각들 사이에 관심의 대상이 됐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대규모 공장에는 객지에서 온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기숙사들이 있었고 일본인 사감의 엄격한 감독을 받으며 합숙생활을 했다.

그 뒤 1930년 8월에 종방 광주제사공장이 학동에 들어섰다. 『광주요람(光州要覽)』(1931년)에 따르면 이 공장은 부지 16,932평에 종업원이 300명, 연간 생산량이 생사 기준으로 21,600kg 이르렀다.

또 같은 해에 현재의 북성중학교와 성요한병원 자리에 와카바야시(荻林)제사주식회사의 광주공장이 세워졌다. 와카바야시공장은 원래 송정리에 있던 것을 유동으로 옮긴 것이었는데 공장부지가 13,000평, 건평이 2,500평, 종업원 240명, 연간 생사 생산량이 18,000kg 이었다.

이처럼 전남도시공장을 비롯해 광주에 3대 제사공장이 생겼고 여기에 나주제사공장까지 합해 크고 작은 제사공장을 통해 생사를 생산해 미국 등지로 수출했다. 대체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생사 가격의 상승으로 제사공장들은 호황을 구가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산잠(産蠶) 경축대회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불길이 전국으로 번지게 된 것도 누에고치와 연관이 있다. 당시 전남은 연간 4만 석의 누에고치를 생

산하고 있었는데 1929년에는 6만 석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전남도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29년 11월 3일 광주천 부동교 근처인 작은 장터에서 대대적인 경축행사를 가졌다.

그런데 이날은 일제의 4대 국경일 중 하나인 메이지세츠(明治節)이자 공교롭게도 음력 10월 3일이어서 우리나라의 개천절(開天節)과도 겹쳤다(당시 개천절은 음력으로 지냈다). 침략의 원흉인 메이지천황의 생일과 우리의 개천절이 겹치는 날이어서 망국의 한이 더욱 북받치는 날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날은 학생독립운동을 주도한 성진회(醒進會(독서회의 전신)의 창립 3주년 기념일이기도 했다. 누에고치 증산경축대회장이던 장터에는 전남 도내 관계자는 물론 전북·경남 등 이웃 도의 양잠 관계공무원과 농민들이 참석했으며 서울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신문기자들이 초청되어 왔다. 그런데 이날 바로 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경축대회에 동원된 군중들도 여기에 호응하여 학생들과 합류하게 되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도 이날 경축대회에 왔던 신문기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돌아가 11월 5일자 신문에 대서특필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국내에는 동아·조선·중외일보(中外日報) 그리고 매일신보(每日新報) 등 네 개의 한글 신문이 있었는데 특히 동아와 조선일보가 지면 전체에 대대적으로 이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한편, 1930년의 통계를 보면 전국의 누에고치 생산량은 무려 55만 7,000섬으로 금액은 2,265만 원에 달했다. 그런데 한 가지 공교로운 사실은 일제가 태평양전쟁 도발을 앞두고 군비 확충을 위한 막대한 경비를 조달할 때 한국산 생사의 수출이 큰 몫을 차지했고 이 생사 수출의 주요 시장이 머지않아 교전국이 될 미국이나 영국 등지였던 점이다. 말하자면 한국 생사를 착취하여 미국과 영국 시장에서 돈을 벌고 여기서 번 돈으로 군함을 사들이는 등 군비를 증강하여 연합국에 전쟁을 건 셈이었다.

그러나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미국 수출이 막히고 군수용 식량 증산을 위하여 뽕밭을 밭으로 전환하면서 국내 양잠은 쇠퇴해 갔다. 따라서 이 지방 제사공장들도 대부분 군수품 생산 체제로 전환되었다가 해방을 맞이했다.

종방 제사공장이 남긴 자취, 종방마을

그러나 해방을 맞고 7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우리 주변에는 일제의 양잠수탈이 먼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생생한 기억으로 살아 있는 곳들이 있다. 광주·전남에 산재한 ‘종방마을’이 그것인데 여기서 ‘종방’이란 앞서 광주제사공장 등을 설립했던 종연방적, 즉 가네보를 일컫는다.

1930년대 농촌 지역에서 생산한 누에고치의 수매권은 특정업체가 거의 대부분을 독점했는데 광주·전남에서는 종방에 앞서 1926년에 설립된 도시제사 공장이 그 수매권을 선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1930년 뒤늦게 광주에 공장을 세운 종방은 안정적인 고치확보를 위한 자구책으로 가까운 지역에 뽕나무 밭을 조성하고 잠실을 설치했다. 이렇게 해서 1930년대 중반까지 종방이 광주·전남에 설치한 양잠단지는 36곳에 이르렀는데 해당 마을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곡성군 : 목사동면 대곡리, 입면 송전리

광산군 : 본량면 송치리·산수리, 비아면 쌍암리, 하남면 안창리·진곡리·오산리

나주군 : 노안면 금안리·안산리, 세지면 죽동리

담양군 : 대전면 서옥리·행정리, 수북면 공산리·오정리, 용면 두장리·통천리

영광군 : 영광읍 우평리

장성군 : 남면 분향리·삼태리, 북이면 달성리, 삼서면 수해리·우치리, 진원면

산정리·용산리, 황룡면 월평리·장산리

함평군 : 월야면 월야리, 나산면 우치리·초포리

화순군 : 능주면 남정리·정남리, 도곡면 신덕리, 이양면 금능리·품평리, 춘양면

부곡리

광복 후 종방 광주공장의 재건을 이끌었던 박무길(朴武吉)이 종방과 인연을 맺은 것도 이런 종방마을에서 비롯됐다. 종방은 1932년 광주 유덕동 덕산마을 앞의 영산강변에 소규모 뽕밭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 무렵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으로 대구감옥에서 갓 출옥한 박무길은 이곳 덕산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뽕밭 관리인으로 와 있던 고이케(小池)를 만

나 양잠을 배우면서 그와 친분을 쌓았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박무길은 종방에 취직했고 1940년대 초엽에는 충장로에 있던 종방의 직영 판매점인 가네보 서비스 스테이션의 초대 관리책임자로 있다가 해방을 맞았다.

종방은 1931년 말까지 이런 식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100헥타르의 뽕나무 밭을 조성하여 기술원을 상주시켰다. 이들 중에는 더러 한국인도 끼어 있었는데 노동력은 인근 지역 아낙네들을 고용했다.

태평양전쟁이 격화되고 최대 소비국인 미국에 대한 생사 수출이 중단되면서 일부 종방마을에서는 양잠 대신에 단무지 등 군납 식료품 원료를 생산하거나 뽕밭을 삼밭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해방 후에 이들 마을들 중 일부는 1970년대 중반까지 잠업을 이어나가기도 했으나 화학섬유의 등장으로 국제 생사 가격이 폭락하자 이마저 중단했다(정근식, 「일제하 종연방적의 잠사업 지배」, 1986년).

■ 제사공장, 그 후 이야기

전남제사공장의 새바람

해방 직후 우리 지역의 제사공장들은 면방직업계와 마찬가지로 적잖은 혼란을 겪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활보하던 일본인 관리자들은 하루아침에 모습을 감췄고 종업원들은 그들대로 혼란에 빠졌다. 미 군정기에는 따로 군정청이 관리인을 임명했으나 대부분 기업경영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일본인 손으로만 운영되던 기술과 자본, 경영이 백지화한 상태에서 혼돈만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전남도시제사공장의 경우, 해방 직후 적산관리자로 임명된 사람은 무송 현준호의 생질인 이시복(李時福)이었다. 그가 공장 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공장의 설립 당시 현준호가 지방 유지로서 유일하게 주주로 참여한 연고 때문이었다.

이시복은 관리권을 인수한 뒤 편승우(片承宇) 등과 함께 경영에 나섰으나 맨 먼저 난관에 부딪친 것은 기술 문제였다. 일본인 기술자에 의해 가동되던 방대한 설비를 한국인 하급기술자가 가동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더욱이 어슬픈 가동으로 설비는 망가지고 부품의 구득난도 겹쳤다. 뿐만 아니라 경영이나 관리 기법마저 미숙한 터라 노동자들을 통솔하기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심지어 생산 원자재인 누에고치의 확보조차 곤란한 상황이었다. 광복 당시 6만 호에 육박했던 광주·전남의 양잠농가는 1949년에 4만 호로 감소했고 전국 누



■ 1959년 전남제사공장 소녀공들의
작업 광경

에고치 생산량은 연간 2,000톤에서 200톤으로 급감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생사가격의 급락으로 농민들이 잠업을 기피한 결과였다.

전남도시공장도 이러한 혼란 속에서 1951년 11월에는 전남대학교 기성회에 불하되고 말았다. 그러나 전남대학교 기성회 역시 재원 조달에 도움을 얻기 위해 이 공장을 불하받기는 했으나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역량은 없었고 공장 일부를 문리과대학과 법과대학 강의실로 사용했다.

이렇다 보니 한쪽은 공장의 소음이요 다른 쪽은 강의 중이어서 보기에다 민망한 형편이었다. 따라서 공장은 공장대로 경영에 전념할 수 없는 실정이고 대학은 대학대로 터부살이의 어려움을 겪다가 1954년 6월 금호 박인천 회장이 공장을 인수했고 문리대와 법대는 용봉동 현 위치에 새로 지어 다른 단과대학과 함께 이 전했다.

이처럼 해방 직후부터 혼미를 거듭하던 전남도시공장이 만 9년 만에 비로소 기업인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공장은 차츰 새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박인천 회장은 김순동(金淳洞) 지배인과 함께 우선 정밀한 기업진단을 거쳐 관리 체제를 쇄신하는 한편 각종 기계 부품을 비롯한 노후 시설들을 과감히 대체해 나갔다.

이 같은 노력으로 말미암아 경영에 자신을 얻게 되자 시설 확장에 나서는 한편 경영 부실로 허덕이고 있던 옛 가네보 광주공장과 와카바야시 공장의 제사 시설을 흡수 합병하여 전남제사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전남제사공장은 이후 전국 규모의 제사공장으로 성장, 이 지역 산업 발전의 중핵이 되었다. 비록 1958년 12월에 뜻하지 않은 대화재로 모든 공장 시설을 일시에 소실당하고 말았지만 노사가 일치단결하여 단기간에 공장을 복구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이를 시설 현대화의 계기로 삼았다.

해방 후에 침체일로를 겪었던 면화와 달리 양잠은 1960년대에 일제 때의 생산수준을 회복했다.

일제강점기에 전남제사의 전신인 도시제사공장은 연간 300톤 이상의 누에고치를 확보했는데 박인천 회장이 공장을 인수할 무렵엔 고작 30톤에 불과했다. 이에 박인천 회장은 누에고치 수집 대상지역을 전남 일원으로 확대하는 한편으로 광주의 임곡동과 비아동에 대규모 뽕밭을 조성했다. 아울러 직기를 도입해 견직물 생산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경제의 회복과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생사와 비단제품의 소비가 증가한 때문이기도 했다. 이에 1960년대 중반, 광주시내의 수출기업 중 1위는 전남방직이었고 그 뒤를 이어 전남제사와 일신방직이 2위 자리를 놓고 다툰 정도였다. 나라 전체로 봐서도 생사는 철광석·중석(텅스텐을 만드는 원석)과 함께 3대 수출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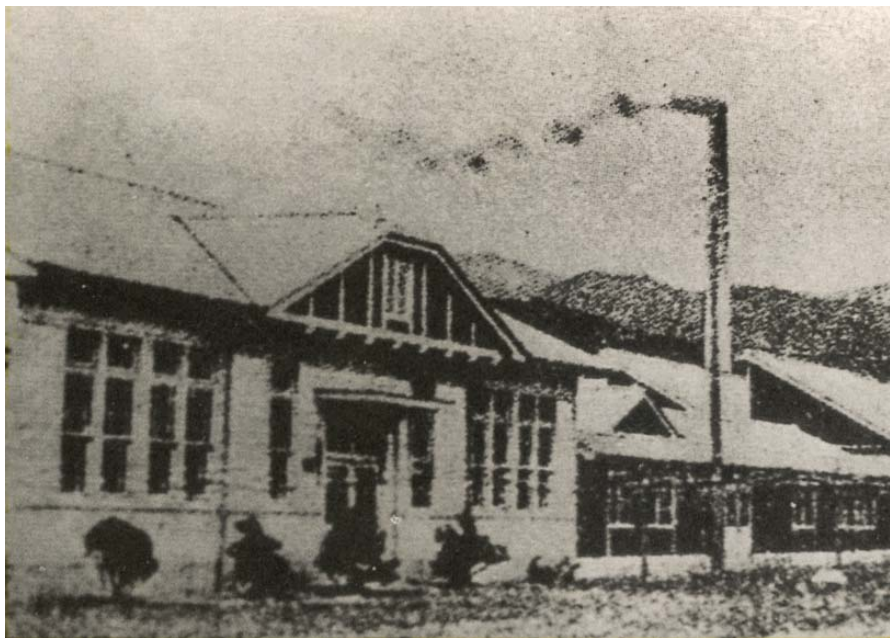
전남제사에 흡수된 종방과 와카바야시

학동의 종방 광주제사공장은 생산가동이 중단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 말기부터 해방 직후 일본군이 철수할 때까지 공장의 일부 건물이 일본군 주둔 병사로 사용됐다. 해방이 되자 미 군정청은 박무길을 이곳 광주제사공장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이 공장 역시 전남도시공장과 마찬가지로 기술과 자본 부족, 경영 미

숙 등으로 숨한 시행착오를 겪다가 6·25전쟁을 맞았다. 이후 국회의원을 지낸 여수의 김중태(金重泰) 등과 협력하여 공장을 복구했으나 결국 전남제사에 흡수 병합되고 말았다. 부지와 건물은 숭의학원재단(이사장 김신근)으로 넘어가 20여 년 동안 숭의실업고등학교가 들어서 있다가 현재는 평화맨션과 삼익세라믹아파트 단지로 바뀌었다.

또 유동의 와카바야시 제사공장은 김홍삼(金洪三)이 초대 관리권자로 임명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지역 교육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해방이 되자 덕망 있는 인사로 추대되어 공장 관리자가 됐다. 김홍삼은 그 뒤 사동의 지주 출신인 이강후(李康厚)와 함께 경영에 나섰으나 교육자가 기업을 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무리였다. 결국 이 공장도 6·25전쟁을 거쳐 1954년 6월에 전남제사로 흡수되고 공장부지에



■ 가네보 광주제사공장
일제말 일본군 병사로도 쓰였으며 이곳에 숭의실업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 지금은 삼익세라믹과 평화맨션이 들어서 있다.



■ 방직공장 기숙사 풍경
방직공장 종업원들은 매월 회사에서 월급 대신 현물로 지급되는 광목을 곱게 손질 추석이나 정월 귀향 때 집에 갖다 모아두는 즐거움이 있었다. 당시에는 회사광급가격으로 지급되는 광목이 현금보다 더 반가웠다.

는 성요한병원과 북성중학교가 들어섰다.

기업은 기업인에게

해방 직후 우리나라 산업의 대부분은 사실상 적산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러한 적산기업들이 그런대로 정상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의 중반을 전후해서부터였다. 적산기업들이 해방 직후부터 무려 1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혼미를 거듭했던 것은 미 군정청의 적산기업 관리 책임자에 대한 무분별한 임명, 해방 직후의 정치·경제·사회적 혼란, 정부 수립 후 경제 정책의 빈곤, 6·25전쟁 때문이었다. 그 가운데 미 군정청의 잘못

된 관리책임자 임명이 낮은 폐단도 컸다.

당시 임명된 관리 책임자들 중에는 기업경영의 경험을 지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단순히 해당업체의 연고자, 정치적 배경을 업고 온 사람도 많았다. 기업 육성을 위한 자질을 평가 판단할 기준과 근거가 박약했던 미 군정청은 적산기업의 연고자나 군정청 주변 사람들의 추천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앞서 말한 중방 광주제사공장의 박무길과 전남도시공장의 이시복은 해당업체와의 연고로, 와카바야시 제사공장의 김홍삼은 지역사회의 추천 때문에 관리 책임자로 임명된 경우였다.

그나마 이들은 선의로 적산기업의 관리를 책임진 사람들이었다. 사실 이런 사람들 외에 당시에는 세칭 ‘적산 모리배’ 들도 많았다. 이들은 해방 직후의 혼란을 틈타 적산이라면 크든 작든 무조건 이권 모리의 대상으로 삼아 미 군정청에 연줄을 대서 관리권을 맡거나 불하를 받으려고 혈안이 됐다.

따라서 해방 후 산업계를 지켜보면서 뼈저리게 터득한 것은 ‘기업은 기업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교훈이었다. 그 산 증거가 바로 금호그룹이 인수하여 흑자 기업으로 전환시킨 전남도시제사공장이라 할 것이다.

양잠과 제사공업의 쇠퇴

해방 후 한동안 호경기를 누리던 양잠과 제사업은 1970년대에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쇠퇴는 우선 다급했던 양곡 위주의 농정 때문에 뽕밭이 차츰 농토로 전환한 결과인 동시에 생사의 수입국인 일본의 정치적인 농간 그리고 세계적으로 화학섬유의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전남의 누에고치 생산량은 1972년 2,700톤, 1973년 3,000톤, 1975년에는 4,000톤에 이르렀다가 1976년 4,900톤을 정점으로 감소되기 시작했다. 1980년에 1,300톤, 그리고 1990년에는 300톤으로 급감했다.

양잠은 단기간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데 농촌 인력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기계화가 어려웠던 영향도 있었다. 거기다 1960년대 후반부터 견직물을 사치품으로 여겨 소비가 줄고 1970년대 들어서는 중국이 서방세계와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중국산 생사가 서구시장과 일본 시장에서 우위를 점했다. 아울러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폭발적으로 유행하던 실크 붐도 차츰 식어가는 형편이었다.

전남제사도 생사뿐 아니라 견직물 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 왔지만 1970년대 들어서면서 사양화를 피할 수 없었다. 1973년 박인천 회장은 제사업을 정리하는 첫 단계로 전남제사를 삼양타이어(현재의 금호타이어)로 합병하여 삼양타이어의 제사사업부로 개편했다. 그리고 1975년에는 이 사업부를 삼양제사三陽製絲 장성을 영천리에 매각했다. 이후 옛 전남제사 공장부지의 일부에는 중앙여자고등학교가 들어섰다가 동운동으로 이전했고, 다시 그 자리에는 금호맨션과 삼익맨션, 그리고 아주생명^명 훗날 금호생명^명으로 개칭의 건물이 들어섰다.

양잠과 제사업의 쇠퇴에는 합성섬유의 등장이 끼친 영향도 컸다. 합성섬유는 부드럽고 질기면서도 값까지 싼다. 못 쓰게 된 전구에 양말을 끼워 밤마다 늦도록 꿰매어도 일주일이 멀다 하고 새 양말을 사들여야 했던 주부들에게 나일론은 경이로운 섬유가 아닐 수 없었다. 또한 천연섬유로 된 옷은 어찌다 한 번 젖거나 초장국으로 얼룩지는 날에는 단을 뜯어 빨래를 해서 풀을 먹여 아이를 등에 업고 밭거나 생숙 연기로 눈물을 흘려가며 다리미질을 하는 등 몇 날 품을 버려야만 했다. 와이셔츠만 해도 칼라를 여벌로 몇 개씩 더 사서 하루걸러 바꾸어 끼우는 손질을 반복해야 했다. 그런데 합성섬유로 된 와이셔츠는 세제를 풀고 물에 흔들어 걸어놓으면 한 시간 후에 입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합성섬유가 가져온 의류혁명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따름이었다. 한마디로 생활의 편리가 천연섬유의 쇠퇴를 재촉했던 것이다.

천연섬유에 대한 향수

그러나 1950년대 초반부터 천연섬유를 압도한 합성섬유는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도 인식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합성섬유가 통풍이나 습도의 조절이 안 되고 겨울에는 차고 여름에는 덥고 정전기가 유발하는 등 인체의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최근의 세계적 추세는 서서히 천연섬유로 되돌아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100퍼센트 울’, ‘100퍼센트 코튼’, ‘울 실크’ 라야 고급 축에 걸 만큼 천연섬유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나고 있다.

필자가 일본 산업계를 돌아보던 중 종방 본사의 한 간부에게서 들은 이야기인



■ 광주상공운동대회
제사공장의 종업원들이 출전하여
병뚜기 경주를 즐기고 있다.



■ 제사공장 종업원들의 옛막기 경주

데 그는 천연섬유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를 필자에게 말해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현대의 화학섬유는 강철보다 강하게, 명주보다 가늘게, 솜보다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섬유의 극치에 달했다고 하나 명주실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그 실오라기 속에 진공의 파이프가 뚫려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천연 모에 있어서도 머리카락을 살펴보면 나뭇가지처럼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촘촘히 가지가 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공 파이프나 수지상^{樹枝狀}은 화학섬유가 앞으로 여하한 과학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위대한 자연의 신비로 인체와 적응할 수 있는 오묘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양잠업도 다시 내수 및 수출의 호전에 따라 점차로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세계적인 추세가 자연섬유로 되돌아온다고 해도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이미 화학섬유가 다져놓은 기반은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양잠의 세시풍속도 앞으로 차츰 잊혀져가고 해질녘 ‘뽕도 따고 임도 볼 겸’ 사립문을 나서던 마을 처녀들의 한가롭고 즐거웠던 노동도 옛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장수 기업 화천기공

한국 공작기계의 산 역사 화천

앞서 소개한 대로 해방 후 광주·전남의 산업계는 자금 부족, 경영 미숙 그리고 적산 모리배들의 농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어려움 중 하나는 기술 부족, 특히 부품과 중간 원자재의 확보난이었다. 공장설비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공장을 가동하면서 부품의 마모가 심했고 일단 닳아 없어지면 이를 교체할 부품의 재고가 없어 가동을 멈추고 발만 동동 굴려야 하는 형편이었다. 이때 구원의 천사처럼 도움을 준 기업이 광주 지역의 기업인 화천이었다.

물론 오늘날 화천은 화천기공과 화천기계, 서암기계공업, Fn-Guide, TPS코리아 등 5개 법인을 거느리고 있는 그룹이며, 미국에 화천 아메리카와 화천 USA, 독일에 화천 유럽, 싱가포르에 화천 아시아 등 4개 현지 법인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에 32개의 대리점 망을 펼치고 있는 한국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화천은 예나 지금이나 공작기계로 유명하다.

공작기계란 ‘기계를 만드는 기계’로 모든 제조업의 기반이 된다. 즉,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이 공작기계가 만든 부품과 설비를 통해 생산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제1호 국산 선반기

그런데 화천은 그 역사가 해방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일제 때 시게우라(繁浦藏廣)라는 일본인이 세운 ‘도모에바 철공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1945년 2월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자 시게우라는 그가 신뢰하던 직장(職長, 職工長 권승관(權昇官, 호(胡)瑞巖)에게 공동의 작은 철공소를 맡기고 귀국했는데 당시 30세였던 권승관은 이 철공소를 이어받아 1952년에 화천기공사로 상호를 바꾸었다. 그동안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화천은 철제 구조물이나 주물 수요 등까지 폭주하는 바람에 호경기를 맞았으며 권승관은 타고난 성실함과 정직으로 품질을 인정받아 기업의 발판을 다지게 되었다.

그러던 그는 철공소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던 중 기계제작에 관심을 갖게 되어 낡은 일제 선반기로 단순한 기계나 부품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당시의 선반기 안고 있는 성능의 한계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나 작업의 효율성에 대한 불만이 날로 쌓여 갔다.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 문득 ‘기계를 만드는 기계’인 선반기 제작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한번 여기에 생각이 미치게 되자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일에 매달렸다.

이렇게 해서 1959년 우리나라 최초의 수동형 선반인 피대선반기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제1호 국산선반기가 되었다.

이후 회사는 1964년에 국내 최초로 기어구동 선반기를 개발했으며 1977년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이자 국내 최초인 NC(수치제어)선반기를 개발한 데 이어 1983년에는 CNC(전자동) 밀링머신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공작기계 업계의 선두주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화천의 기술력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되어 1995년에는 ISO 9001 인증을 획득했으며 같은 해에 피스톤 가공기를 개발한 공로로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1997년 한국품질아카데미로부터 ‘품질 경쟁력 우수 100대 기업’에 선정되었으며 2006년 ‘한국을 일으킨 엔지니어 60인상’과 2010년 제8회 ‘가장 신뢰받는 기업상’, 그리고 2011년 ‘대한민국 최고기업 대상’ 등을 수상했다. 최근에는 ‘5축머시닝 센터 M9’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 미국 항공회사인 보잉에 비행기 날개와 동체 가공용 시제품을 납품함으로써 전 세계의 비상한 관심

을 모으고 있다.

서암 권승관의 외길 인생

‘잘못된 선택만 아니라면 세상에 성실로써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나는 쇠와 더불어 기계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길을 제대로 찾은 것 인지도 모른다.’

이 말은 권승관 회장이 평소에 되뇌이던 말이다. 과연 그의 기계 인생은 올바른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는 성실과 정직으로 화천이라는 금자탑을 쌓아올렸다.

그는 활을 좋아했다. 광주의 국궁을 부흥시킨 대들보이기도 하다. 기계는 바로 그에게 인생의 과녁이었다. 그는 오로지 그 과녁만을 겨누었고 혼신의 힘으로 시위를 당겼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빗나가지 않았다.

그는 기업을 이끌어오면서 거친 세파의 고비마다 성실과 신뢰로써 기업을 지켜냈다. 그는 1930년 15세 때 첫발을 내딛은 곳이 전북 전주의 어느 주물공장이었고 본격적인 기계인생의 모태가 되었던 곳은 광주의 도모에철공소였다. 그리고 주물공장도 도모에철공소도 독단적인 자신의 의지에 의한 선택이었다. 그야말로 시작에서 끝까지 쇠와 더불어 살아온 인생이다. 그러나 쇠와 기계의 인생은 비록 그의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을 이루어 낸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성실과 신뢰였다.

여기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말해주는 이야기 하나를 옮겨본다.

권승관 회장은 광복 후 자신에게 도모에철공소를 넘겨주고 일본으로 돌아간 시계우라사장을 잊지 못했다. 광복 후 40여 년이 흐르는 동안 한국 공작기계 업계의 정상급 메이커로 성장한 화천은 그동안 백방으로 시계우라를 수소문했지만 서로 주소는 물론이거니와 생사조차 알 길이 없었다. 그런데 1987년 뜻밖에도 일본 현지의 거래선으로부터 시계우라의 가족이 구라요시(久良吉)라는 도시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42년 만에 감격적인 재회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권승관 회장은 이미 작고한 시계우라의 묘소를 참배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며 도모에철공소 시절
함께 근무하였던 시계우라 씨의 조
카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이 만남 이후 시계우라의 조카
부부는 한국에 초청되어 화천그룹
차원의 예우는 물론 권승관 회장 가
족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고 권승관
회장은 그의 소원대로 장남과 차남
3부자가 시계우라의 부친 묘소를
참배했다. 권승관 회장은 묘전에서
눈물을 머금으며 도모에철공소를
이어받아 오늘의 화천그룹을 이루
기까지의 일들을 살아있는 사람에
게 말하는 것처럼 도란도란 이어갔
으며 이 광경을 본 시계우라의 가족
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눈물겨워 했
다. 양가의 가족은 전원이 유원지에
서 3박을 함께했으며 시계우라 가
족은 의리와 신뢰를 버리지 않은 권
승관 회장을 고맙게 여겼다.

그리고 권승관 회장 일가에게 후사를 맡기고 돌아온 것을 시계우라 가족은
물론 지하에 묻힌 그의 아버지까지 큰 보람으로 여길 것이라고 했다.

이 이야기는 일본에 흠어져 살고 있는 일제강점기의 광주동중과 광주여고 출
신 모임에서 간행하는 『무등산기슭無等山麓』이라는 잡지(16호)에 실린 시계우라
가족의 글이다. 「우정은 전화戰火를 넘어서」라는 제목이었는데 필자가 이를 발췌
번역한 것이다. 메마른 세상을 적셔주는 봄비 같은 촉촉한 이야기다.



■ 권승관 화천그룹 회장
1959년 우리나라 최초의 수동형 선반인
피대전반기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제1호 국산선반기가 되었다.



■ 화천그룹 광주공장에 세워진
관승관 회장 동상

현재 화천그룹은 장남 권영렬 회장과 차남 권영두 화천기공 사장, 그리고 3남 권영호 서암기계공업 사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선친의 창업정신인 성실과 정직 그리고 신뢰의 경영이념을 이어받아 우리나라 공작기계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화천이야말로 우리나라 공작기계의 성공신화이다. 그리고 화천의 역사가 곧 우리나라 공작기계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 고장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제5장

지역경제 이야기



■ 전남근대화운동

배경

1961년 5·16군사정권 이후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최초로 지역 간 불균형이 노출된 것은 1970년을 전후해서이다. 경·부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이던 1969년 초 호남고속도로 노선계획을 에워싸고 불붙기 시작한 전남근대화운동은 이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민의 결연한 저항운동이었으며 이것이 호남 푸대접 시비의 단초가 되었다.

여기 위 증魏增의 ‘지역경제 운동사’ (『광주상의』지, 2009 신년호·봄호 연재 「호남고속도로」편)와 ‘광주권생산도시화운동’ (『광주상공회의소간』, 1987)을 간추려 그 배경과 추진성과를 더듬어 본다.

1969년 1월 17일 정부는 호남고속도로 건설 계획안을 발표했다. 노선은 당초 논의되었던 대전·광주·목포를 대전·광주·순천으로 변경, 1970년 초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발표가 있는 지 채 한 달도 안 된 1969년 2월 10일 정부는 호남고속도로 노선을 전주·남원·순천으로 다시 변경했다. 호남의 간선인 전주·광주 간을 호남고속도로 구간에서 빼버린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이날 즉각 긴급 임시의원총회를 소집, 노선환원을 위한 연도 주민 진정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당시 지역민은 정부

의 처사에 대해 의도적인 호남 푸대접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은 “목포가 김대중의 지역구이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숨기지 않고 있었으며 광주 노선을 제외한다는 것은 ‘호남을 뺀 호남고속도로’가 아니냐”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노선변경 발표 이후 연도 지역민의 서명운동을 벌여온 광주상의회는 1969년 5월 12일 연도 지역 정·재계 인사들로 호남고속도로 건설촉진 위원회를 결성하는 한편 대규모 건의단을 구성, 연도 주민 4만 6,000명이 연서 날인한 진정서를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를 비롯한 관계요로에 전달했다. 지역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날이 갈수록 확산되자 정부는 1969년 6월 29일 호남고속도로 노선을 대전·전주·광주·순천으로 환원했고 이듬해 4월 15일 호남고속도로 대전·전주 구간이 착공되었다.

이 과정에서 호남고속도로의 노선파동은 호남 푸대접 시비를 심화시키는 단초가 되었다. 지역민들은 5·16 이후 울산·포항의 공업화와 경부고속도로 등의 집중투자로 영남권이 국가경제의 구심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대한 상대적인 소외감이 강하게 싹트기 시작했다. 더구나 호남고속도로는 그나마 2차선으로 이제 겨우 착공(1970년 4월 15일)된 터에 4차선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7월 7일 역사적인 개통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 국토개발이 경부 축으로 편중되고 있는데 대한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었다.

전남근대화촉진위원회 발족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경제인들은 전남근대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도민의 뜻을 결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광주상의회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11일 만인 1970년 7월 18일 도내 4개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소집, 전남근대화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남근대화운동의 현안사업으로는 호남고속도로 조기완공, 광주·목포 간 고속화도로 노폭 확장 및 포장공사 조기완공, 영산포·해남 간 도로 포장공사 조기완공,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 계획의 조속한 실현, 전남도 임해 수출자유지역 지정, 방위산업의 유치, 광주연초제조창 유치 등 7개 항을 설정하고 서명운동을 벌

여 1개월 만인 7월 21일에 10만 서명을 완료했다. 줄을 잇는 도민들의 열성적인 참여의 결과였다.

추진성과

10만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광주상의는 전남 출신 재경 정·재계 인사들의 협조를 얻어 1970년 8월 29일 이한림 건설부 장관을 방문, 7개 항의 전남 근대화 현안의 국책 반영을 촉구했으며 31일에는 청와대를 직접 찾아가, 10만 도민이 서명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호남고속도로의 71년 조기완공을 포함한 7개 현안사업의 시행을 진정했다.

당시 전남근대화운동에는 고재필·정래정 등 지역 출신 공화당 국회의원을 비롯 고재욱 동아일보 사장, 김상영 경제인연합회 부회장, 호남정유, 일신, 전방 등 지역 연고 대기업들까지 망라되었다.

전남도민들의 이 같은 적극적인 참여와 정·재계 인사들의 협조로 추진된 이 전남근대화운동은 실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운동의 최우선목표이던 호남고속도로는 1970년 12월 30일 대전·전주 간에 개통된 데 이어 1973년 11월 14일 착공 3년 만에 호남·남해고속도로가 완공 개통되었다. 전남근대화운동 7개 현안 사업 가운데 임해수출자유지역 지정과 방위산업 유치를 제외한 호남고속도로, 광·목 간 고속화도로, 영산포·해남 간 도로,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 광주연초제조창 유치 등은 모두 전남근대화운동이 거둔 성과로 오늘날 우리 광주·전남권 경제와 사회간접자본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전남근대화운동과 금호 박인천 회장

금호 박인천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재임 기간 중 공인으로서 열정을 쏟은 일생일대의 역점사업이 바로 전남근대화운동이기도 했다. 이 운동의 배경이 되었던 호남고속도로 노선변경 파동 때는 단호한 대응으로 연도 주민의 서명운동을 주도했으며 김제 출신 장경순 공화당 국회부의장과 정래정 공화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출신 인사들의 협력을 결집시켰다. 그리고 집요한 진정 끝에 노선환원을 이루어냈다.

뒤이어 전남근대화촉진위원회의 건의운동 당시에는 서울에 상주하면서 거의 매일 지역 연고의 정·재계 요인들을 초청 그날 그날 건의운동의 방안을 협의했다.

당시 필자는 광주상의 실무책임자로 박인천 회장을 수행하고 있었다. 여기 금호선생탄신 100주년 추모문집 (『아직 우리 곁에 남아계십니다』, 금호 박인천선생기념사업회 간)에 당시의 상황을 적은 필자의 글을 소개한다.

상경 다음 날 금호 회장이 나를 불렀다.

“이렇게 진정서만 낸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신문에 내야 일이 된다고 하네, 자네 어디 신문기자 아는 사람 없는가?”

나는 알고 지내는 신문기자가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무작정 <동아일보>를 전화로 부르라고 분부하셨다. 내가 편집국을 안내받아 전화를 바꾸어 드렸더니 “나 광주에서 올라온 박인천이요, 거기 누구 광주 사람 있거든 좀 바꾸어 주시오” 이렇게 해서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전화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반가운 응답이 있었다.

“그러면 광주여객 박 사장님이 아니십니까, 제가 바로 광주 사람입니다.”

알고보니 그가 바로 광주 출신 김중배(뒤에 MBC문화방송 사장 역임) 씨였다. 당시 사회부 차장이었는데 나는 즉각 진정서 사본을 들고 찾아갔다. 진정서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을 들은 김 차장은 그날 전남근대화운동을 대서특필했다. 금호 회장이 무척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금호 회장이 또 나를 불렀다.

“기사로만 나오는 것보다도 사실로 나와야 더 알아준다고들 하네, 자네 어디 논설위원 아는 사람 없는가?”

나는 논설위원이라면 아는 사람이 하나 있긴 있었다. 조덕송 씨라고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찾아보라는 분부를 내렸다.

“그 참 잘 되었네. 또 한번 수고를 해주소.” 이렇게 해서 나는 또 <조선일보> 사로 조덕송 씨를 찾아갔다. 이미 <동아일보>에 기사로 난 터여서 일이 더 수월했다. 김중배 씨와 마찬가지로 조덕송 씨도 “고향을 돕는 일이 아니냐.”며 그 이튿날 조간에 사설을 썼다. 지역 문제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박인천 회장은 1970년대 초연 경제개발 과정에서 광주상회가 주도한 전남 근대화운동의 구심점이었으며 원동력이었다. 이 운동을 발의한 것도, 추진체를 만든 것도, 이끌어 간 것도 그였다. 정신적·물질적 희생을 감수하면서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시켰으며 그의 열정과 진정성으로 지역 출신 정·재계 요인들의 협력을 결집시킴으로써 이 운동의 추진력을 배가시켰던 것이다.

■ 광주권 생산도시화운동

1970년대 중반 이 고장 지역민이 주도한 광주권 생산도시화운동은 소외와 가난과 좌절과 그리고 소비도시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절박한 생존투쟁이었다. 농업이 국가의 주력산업이던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이던 광주권은 70년대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어 주민소득이 전국 최하위로 처졌고 인구 대비 대학생 비율은 전국 최고인 데 반해 실업률은 날로 늘어났다.

이 지역 시민과 상공인들은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력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일자리를 만들고자 했다. 그 핵심사업이 본촌·송암공업단지의 건설이다.

두 공업단지야말로 광주권 생산도시화운동의 기폭제로서 상공인들이 자력으로 조성한 한국 최초의 민간공업단지이며 우리나라 경제사에 기록될 빛나는 금자탑이라 할 것이다.

광주권은 40만 평 규모의 두 공업단지가 씨앗이 되어 오늘날 세계 굴지의 가전단지와 첨단단지 등 800만 평 규모에 이르는 광활한 공업단지를 갖게 되었으며 부산과 어깨를 겨루는 수출액을 자랑함으로써 오랜 숙원인 광주권 생산도시화의 꿈을 실현하게 됐다.

여기 ‘광주권 지역경제운동사’(위증, 『광주상의』지, 2005~2011년 연재) 중 광주권 생산도시화운동 편을 간추려 그 추진 과정을 더듬어 본다.

배경

원래 1차산업이 주류를 이루던 1950년대까지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로서 국가의 재부(財府) 구실을 했던 광주·전남의 경제는 1970년대 중반 들어 전국 11개 시·도 중 최하위로 밀려나고 있었다. 1974년도 주민소득비교(내무부 주민소득연보)에 의한 우리나라의 1인당 주민소득이 20만 858원인데 비해 전남은 13만 8,460원이었고 광주시(당시는 전남도 산하의 보통시였음)는 13만 7,000원(한국 6대도시의 도시력지표, 대구시통계연보 1976)으로 전국에서 매년 최하위를 맴돌던 강원도의 14만 7,174원보다도 처지는 형편이었다.

반면에 6대 도시의 도시력 비교지표(대구시통계연보 1976)에 따르면 광주시의 인구 1천 명당 대학생 수는 21.4명으로 대구, 대전, 인천은 물론 교육인구가 밀집되어있는 서울의 20.1명보다 앞서 전국1위를 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소득은 최하위인데다 취약한 산업구조 때문에 일자리는 없고 고학력 실업인구는 날로 늘어나 이것이 불평불만과 사회병리의 간접 요인이 되고 있었다. 거기다 서비스 업종의 취업률(주요도시 산업별 취업률 조사보고서, 광주상공회의소 1979)은 6대 도시의 평균이 45.3%인 데 비해 광주는 70.5%로써 취업구조가 현저히 비생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소비도시의 병폐를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병리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태동한 것이 광주권 생산도시화운동이다. 1976년에 취임한 신태호(申泰浩) 광주상의 회장의 제안과 송언종(宋彦鍾) 광주시장의 결단으로 점화된 이 운동은 1978년 들어서부터 본격화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성과가 본촌·송암공업단지의 건설과 하남공업단지의 확장 및 대기업 유치였다.

본촌·송암공업단지의 건설

본촌·송암공업단지의 건설은 광주권 생산도시화운동의 기폭제로서 상공인들의 순수한 민간자금으로 광주시가 위탁 시행한 한국 최초의 민간공업단지였다.

두 공업단지는 시행 초기부터 제2석유파동으로 의한 자금난과 거둬들인 입주신

청 마감 연기, 그리고 이에 따른 여론의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1979년 6월 15일 착공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착공 후 10·26, 12·12사태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경제가 요동쳤으며 1980년 이른바 1·12 긴급경제대책으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19%에서 25%로 폭등, 입주기업들의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켰다. 뒤이어 1980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발발하여 한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기도 했는데 이 와중에서도 광주상의회는 1981년 5월 광주권 생산도시화연구위원회를 구성, 생산도시화 방안에 관한 장·단기 연구 활동에 착수했으며 이를 통해 장기 개발목표로 500만 평 규모의 공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파고에도 불구하고 그해 말 토목공사를 마친 본촌·송암 공단은 숨 막히는 경제파동과 긴박한 시국상황으로 점철된 격변기의 소용돌이를 헤치고 1983년 12월 31일 드디어 역사적인 완공을 보게 되었다.

본촌공업단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및 일곡동 일대 93만 6,666㎡(283,833평)에 총 사업비 97억 2,200만 원을 들여 완공한 본촌공업단지에는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시가 합의한 입주 대상 업종 분류에 따라 무공해 업체 및 식음료 기업들이 입주했다. 맨 먼저 입주한 기업은 세계적인 음료 메이커인 코카콜라 호남식품(주) 광주공장으로 1984년 9월 25일 공장을 준공했다. 이 공장은 연간 만 상자의 코카콜라와 킨사이다, 하이C, 환타, 암바사 등 각종 청량음료를 생산한다.

호남식품에 이어 1984년 10월 5일에는 롯데칠성음료(주) 광주공장이 준공되어 연간 630만 상자의 칠성사이다와 각종 청량음료를 생산하게 되었다.

11월 19일에는 해태제과공업(주) 광주공장이 준공되어 11종의 유제품과 기타 청량음료를 생산, 전남·북은 물론 제주 권역까지 공급망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1987년 5월 22일에는 국내 최대의 맥주회사인 동양맥주의 광주공장이 완공되어 연간 1천 만 상자를 생산, 호남 일원과 제주도 그리고 영남 일부 지역까지 공급하게 되었으며 1987년 6월부터는 고급맥주인 ‘버드와이저’를 생산 시판을 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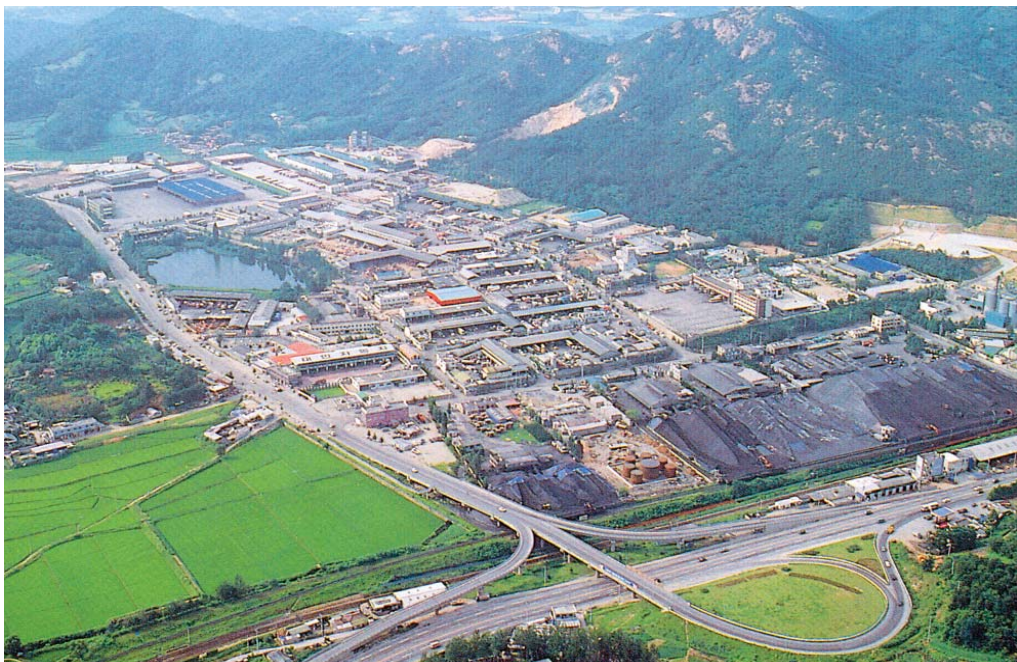
■ 본촌공업단지

2010년 말 현재 본촌공업단지에는 코카콜라, 롯데칠성, 해태식품, 효성그룹 광주공장, 노루표 페인트, 로케트전기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 143개 업체가 입주, 2,168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7,559억 원의 생산고와 1억 4,2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송암공업단지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일대 39만 4천㎡에 총 사업비 66억 7,600만 원을 들여 본촌공업단지와 같은 날 완공한 송암공업단지는 입주 대상 업종 분류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체를 비롯한 기계·금속 등 지역 기업들이 입주했다.

그러나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공업단지는 1990년대 말부터 국내 자동차 업계의 AS업체들이 난립하는 바람에 영업부진이 심화되었으



■ 송암공업단지

며 인근에 대단위 주택단지와 학교가 들어서는 등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어 산업단지의 기능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에 광주시는 송암공업단지를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산업 콘텐츠 허브지대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 핵심사업으로 2009년 11월 총 공사비 340억 원을 들여 연면적 9천 298㎡의 아시아 최대의 CGI센터를 착공, 2012년 3월 7일 개관했다.

CGI(Computer Generated Imagery), 즉 컴퓨터 형상 이미지란 현대 영상 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고부가 가치의 기술 산업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송암공업단지를 3개 구역으로 나누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송암 디지털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전국 유일의 민간공업단지인 본촌과 송암의 두 공업단지는 실의와 좌

절과 가난을 극복한 시민들의 기념비적인 상징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송언중 광주시장과 광주권 생산도시화운동

광주권 생산도시화운동의 태동은 1976년 신태호 광주상의 제9대 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이며 이것이 본격화된 것은 1978년부터이다.

당시 광주상의는 매월 개최되는 의원 간담회에 송언중 광주시장을 초청했는데 이날 신태호 회장이 광주권의 심각한 경제현실을 들어 소외 지역의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상공인들이 공업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런데 이날 송언중 광주시장은 뜻밖에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며 즉석에서 공업단지 건설자금을 상공인들이 부담하고 시공과 행정절차 등은 시가 위탁받아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이 1978년 2월 14일의 일로 광주권 생산도시화운동과 향토경제사에 길이 기억될 날이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공업단지인 본촌·송

■ 광주상공회의소에 세워진
광주권 생산도시화 기념비



암공단 건설과 함께 광주권 생산도시화운동의 서막이 열리게 된 것이다.

당초 이 본촌·송암공업단지의 건설은 불확실한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었다. 첫째, 광주시와 광주상의는 쌍방이 합의한 원칙에 따라 입주신청자가 조성 계획 면적의 3분의 2가 되어야 위수탁 시공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자금난에 허덕이는 이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제2석유파동의 와중에서 막대한 입주 부담금을 감내할 여력이 없었다.

둘째, 이 요건이 충족되어 계약이 성립된다 할지라도 입주금 납입과정에서 중도 해지나 입주자 측의 내부 사정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광주시가 안게 될 위험부담이 컸다.

그리고 셋째로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광주시가 공업용지의 매입에 따르는 지주들과의 마찰이나 건설부의 도시계획 승인 등 험난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행정상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사태를 빚을 경우 입주 기업들이 안게 될 위험부담이 있다.

다시 말해 광주권 생산도시화운동의 효시가 된 본촌·송암공업단지의 건설은 위탁자인 입주기업이나 수탁 시공자인 광주시나 쌍방 어느 쪽을 막론하고 위험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된 사업이었다. 따라서 소외 지역의 생존을 위한 이 지방 상공인의 자구노력은 송연중 시장의 결단이 아니었더라면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민선 자치단체장도 아니고 일신의 안위를 생각해야 하는 임명직 시장으로서의 이 결단은 향토경제사에 큰 획을 그었다 할 것이다.

■ 본촌·송암 이후의 공업단지들

하남공업단지

하남공업단지의 건설계획안은 본촌·송암공업단지의 건설이 논의되기 이전인 1976년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당초 전남도는 이 공업단지를 IBRD(세계은행) 차관자금을 포함, 내외자금 70억 원을 들여 광산군(지금의 광산구) 하남면(하남동) 일대에 건설하기로 하고 그 규모를 60만 평으로 계획했다. 이에 당시 광주상공회의소는 낙후된 광주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하남공업단지의 규모를 최소 200만 평으로 확장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예비조사 과정에서 공단 규모를 오히려 45만 평으로 축소했고 이 때문에 세계은행 측과 전남도·광주시·광주상공회의소 간에는 지루한 줄다리기가 거듭된 끝에 결국 45만 평과 60만 평을 1, 2차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조성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렇게 시작된 하남공업단지는 1981년 1월 20일 제1차 단지 공사의 착공에서부터 1991년 3월 31일 제3차 단지 공사가 완공되기까지 10년간에 걸쳐 181만 평(596만 7,000㎡)의 공업단지를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 하남공업단지

세계적인 백색가전단지로

1983년 말 제1차 단지가 준공되자 이듬해 3월 8일 럭키금성 그룹의 금성알프스전자(지금의 LG전자) 광주공장이 맨 먼저 기공식을 가졌다. 연건평 1만 5,000평에 3천 명의 고용증대효과를 가져올 이 전자부품공장은 광주상의회가 하남 1차 단지의 착공 단계에서부터 맨 먼저 유치운동을 벌였던 기업이었다. 호남정유(지금의 GS칼텍스)로 전남과 인연을 맺은 럭키금성 그룹은 1년 전인 1983년 9월 구자학 그룹 부회장과 허신구 금성사 사장 등 그룹 내의 8개사 사장단 일행이 현지답사를 통해 최적 입지임을 확인하고 그해 12월 3만 6,700여 평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다.

1985년 11월에는 냉·난방기 생산 공장인 대우캐리어 광주공장이 기공되었다. 연간 90만대의 냉·난방기를 생산하게 될 이 공장은 6천여 명의 고용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로써 하남공단은 전자단지로서 그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대우캐리어는 분양계약 협의 과정에서 광주상 의와 광주시가 지방 은행을 동원, 분양자금 지원까지 앞선해주는 등 우여곡절 끝에 1984년 3월 10만 여 평의 분양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또 1987년 4월에는 금성알프스와 일본알프스의 합작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의 전자부품 회사인 한국알프스가 기공되었다. 1만 5,000평 부지에 연건평 1만 6,000평 규모의 이 공장은 VTR과 CDP 관련 핵심부품 제조공장으로서 3,500명의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럭키금성과 대우전자의 하남공업단지에 대한 이 같은 지속적인 투자 확대는 광주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 때문이다. 금성알프스는 1985년 10월 광주공장을 시찰한 그룹 임원진들에 대한 브리핑에서 광주공장이 타 지역에 비해 기술숙련 도에서 30%, 작업효율에서 10%가 앞선다는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 요 인으로 근로사원의 98%가 고졸 학력으로서 이는 광주권의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고학력 유희노동력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당시만 해도 여성근로자들의 태반이 초등학교학력이 고작이던 시절이었다. 이직률 에 있어서도 국내공업단지의 평균이 3~5%인 데 비해 광주공장은 0.8%에 불과했 고 대부분 공장인근 거주자로서 기숙사가 필요 없었다. 따라서 안정된 가정생활 을 영위함으로써 상호 간의 인간관계나 노사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남공업단지가 전자단지로서 이처럼 확실한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하자 그동 안 하남공업단지 입주를 저울질하고 있던 삼성전자(지금의 광주삼성전자)가 하 남 제2단지 공사가 완공된 후인 1989년 12월 광주공장을 기공, 1990년부터 자판 기·청소기 등을 시작으로 점차 품목을 확대하여 냉장고·에어콘·김치냉장고 등 백색가전을 생산함으로써 하남공업단지에는 국내 3대 전자제품 기업이 입주, 세 계적인 백색가전단지로 군림하게 되었다.

3차에 걸쳐 총 공사비 1,566억 원을 들여 181만 평(5,967,000㎡) 규모로 조성 된 하남공업단지에는 2010년 말 현재 957개 업체가 입주, 3만 519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14조 2,331억 원에 이르는 생산액을 기록, 그 가운데 445 억 5,600만 달러의 수출고를 올리고 있다.

생산도시화의 꿈 실현

이 밖에도 하남공업단지의 건설과 때를 같이하여 1983년 5월 소촌공업단지(189,000㎡)와 1988년 12월 소촌농공단지(324,000㎡)가 준공되었다. 이렇게 광주권의 공업화가 가속되자 공업단지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2003년 12월에는 광주권 최대의 국가산업단지인 첨단과학산업단지 제1단계(7,931,000㎡)가 준공되었다. 그리고 2005년 2월에는 평동공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1, 2차(1,234,000㎡)와 2010년 11월 평동공업단지 1, 2차(3,731,000㎡)가 각각 준공되었고 지난 2011년 말에는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2,061,000㎡)가 준공됨으로써 첨단단지만 1, 2단계를 합쳐 300만 평을 웃돌게 되었으며 광주권 전체로는 진곡공업단지(1,191,000㎡, 2013년 준공 예정)와 국가산업단지인 빛그린공업단지(1,856,000㎡, 2014년 준공 예정)를 합쳐 총 800여 만 평(26,535,000㎡)에 이르는 공업단지를 갖게 되었다.

이들 공업단지에는 2010년 말 현재 2,240개 기업체가 입주, 5만 8,2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21조 1,959억 원의 생산고를 올리고 있다. 수출의 경우는 2011년 말 현재 134억 달러를 기록, 대구의 63억 7,000만 달러를 멀찍이 따돌렸으며 부산의 145억 7,200만 달러를 넘보게 되었다.

그리고 광주는 이로써 소비도시의 오명을 벗고 생산도시화의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된 것이다.

광주, 그 지난날의 이야기

어려서 아버지는 내게 곧잘 성안에 나가 거리의 점방 이름을 적어오라 했다. 보통학교 6학년 때 서울 수학여행을 갔을 때도 광주에서 서울까지의 철도역을 적어오라 했다. 아버지는 이 일을 아버지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교육을 위해서 한 일이었다. 참으로 기묘한 교육이었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나는 이 일들이 싫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향토 사료에 관심을 갖게 된 근원이 되었음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나는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50년 동안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틈나는 대로 열심히 향토 사료들을 모았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자료 하나 하나의 소중함과 애정 때문인데 이것이 서랍과 책장과 서재에 꽤 쌓이게 되었고 이제 이끼가 끼어 내게 있어서는 청동처럼 빛나는 것들이 되었다.

더구나 『금호문화』에서 지면을 할애해주는 호의에 힘입어 내 자료들을 엮어내게 되었고 또 근래에 와서 이것들이 향토의 학계에서 활용되는 것을 볼 때마다 여간 보람 있고 흐뭇함을 느끼기도 한다. 또 이것이 계기가 되어 『금호문화』에서 이번에는 책까지 내게 해주었으니 참으로 고맙기 이를 데 없다.

이제 오는 1996년이면 전라도金羅道에서 전남이 나뉘고 광주가 도청 소재지가 된 지 1백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광주는 서남권의 거점도시로 발전해오기까지 숱한 여정을 겪어왔다.

우리나라의 곡창으로서뿐만 아니라 섬유공업의 원료공급기지로써 일제 식민

지 수탈의 거점이 되었으며 또한 이에 항거하는 우리나라 의병항쟁과 학생독립운동의 본거지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선인들은 내 것을 지키고 가꾸면서 신문을 받아들이고 또 급격한 개화의 물결 속에서도 향토 정신의 맥을 지켜왔다.

예배당에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남녀가 가운데 포장을 치고 예배를 보는 진풍경을 이루었으며 인정과 낭만의 애환이 집산하는 우리 재래 장터가 전쟁과 더불어 들쭉날쭉 시들었다가 되살아났다. 우리 보부상의 마지막 후예이던 의리의 사나이들이 근대 시장에 밀려 무대 뒤로 사라져간 이야기며 우리 고장의 품위를 상징했던 기생들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을 나는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적었다. 때로는 구술자들의 입을 빌려서, 때로는 기록과 문건 자료를 통해서 엮었다.

그러나 막상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 어딘지 모르게 미흡함과 아쉬움이 앞서 적이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할 일을 했다는 홀가분함을 느끼기도 한다.

나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내 몫에 합당한 인생을 살려고 애써왔다. 고회를 당하여 책을 내면서 내 손에 쥔 것이 이것인가 싶어 허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을 생광스럽고 살찌게 한 대목이었음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광주를 사랑한다.

그리고 광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1994년 겨울

박선희

광주 1백년

초 판 1쇄 찍은 날 1994년 12월 5일

증보판 1쇄 찍은 날 2012년 12월 26일

지은이 박선홍

펴낸곳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펴낸이 노성대

준비위원 강현구·김덕진·조광철·이대석·신장용

프로젝트담당 박수현

발행부서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문화관광팀

503-020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구동)

광주문화재단 062-670-7400

만든곳 도서출판 심미안

주소 501-841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81-29번지 2층

전화 062-651-6968

팩스 062-651-9690

메일 simmian21@hanmail.net

등록 2003년 3월 13일 제05-01-0268호

ISBN 978-89-6381-087-4

ISBN 978-89-6381-001-0 (SET)

나는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자라면서 광주의 옛 흔적들이나 옛이야기에 대한 관심을 버릴 수 없었고 하나하나의 소중함과 애정 때문에 이들을 모으고 간직해왔다. 이것이 초판 『광주 1백년』이다.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 어딘지 허전한 빈자리와 아쉬운 점을 떨칠 수 없었다. 이번 재판 『광주 1백년』은 우리 향토 사학가들의 정성 어린 협조로 귀한 자료들이 햇빛을 보게 되었다. 광주읍성의 도시화 과정이나 학생독립운동에 얹힌 숨은 자료들을 비롯, 상무대의 내력과 지금까지 가려져 왔던 계몽기의 교육·종교 및 항일의 선각자들, 무안에서 비롯된 전통 5일시장 등의 빛나는 향토 사료들이 제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겨우 빈자리를 메꾸었다는 안도감이 든다. 무엇보다도 지역경제운동 이야기는 이번 재판의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자료를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속으로부터 감사를 드린다.

- 「저자의 말」 중에서



비매품



9 788963 810874
ISBN 978-89-6381-087-4
ISBN 978-89-6381-001-0 (SET)